

**기독교가  
뭐고?**

# 기독교가 뭐꼬?

2009년 4월12일(부활절) 초판 1쇄

2013년 8월15일 2판 1쇄

강의자-정용섭

녹취록 작성-김현혁

교정교열-홍종석

편집책임-전남정

편집구성-김태형

펴낸곳-대구성서아카데미

펴낸이-정용섭

주소-경북 영천시 북안면 원당리 113-2

전화-010-8577-1227, 070-4085-1227

\* 표지 그림은 중국 특유의 색채미와 현대적 드로잉 기법으로 기독교 미술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He Qi 박사의 '문을 두드림'이라는 작품입니다. 주위는 어둡고, 주인공이 든 등불만 환하게 빛납니다. 주인공의 표정은 무언가를 갈급하게 찾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녀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인류 보편의 실존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저는 저 그림을 거꾸로 보고 싶습니다. 저 주인공은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이는 참된 생명을 간절히 찾고 있는 우리 자신이면서 동시에 그 생명의 등불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기독교가 뭐꼬?'라는 화두에 걸맞은 그림이라 생각합니다.

정·용·섭·의·인·문·학·적·기·독·교·풀·이

# 기독교가 뭐꼬?





## (초판) 머리말

저는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주 목요일과 주일 밤 10-11시 사이에 인터넷 동영상으로 ‘기독교가 뭐꼬?’라는 제목의 강의를 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당시의 강의를 묶은 것입니다. 동영상 강의는 두 갈래로 진행되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주어진 강의 순서대로, 주일에는 질문 응답 방식으로 나갔습니다. 강의 후반부에는 질문 응답 대신에 보충 강의를 했습니다. 이 책은 이 두 갈래의 강의를 나누지 않고 진행된 순서대로 실은 탓에 전체 흐름이 매끄럽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강의 현장감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실었으니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처음 동영상 강의를 계획하고 시작할 때 책으로 묶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리라는 생각도 못했지요. 놀랍게도 1월 10일 치 강의를 녹취한 문건이 1월 16일에 다비아 동영상 메뉴에 올라왔습니다. 그 작업을 하신 분은 인도에서 자비량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김현혁 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수고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략>

강의 녹취 문건을 책으로 묶는 실무는 지난 저의 설교집 『그날이 오면』을 맡았던 팀이 그대로 맡아 주었습니다. 편집책임은 전남정 님입니다. 전체 녹취문건을 다듬고, 소제목을 달고, 일차 교정을 보는 등,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서 이뤄졌습니다. 교정교열은 홍종석 님, 표지 디자인과 편집구성은 김태형 님입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사랑을 제가 어떻게 갚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직접 시청하신 사십 여명의 수강생 분들도 이 책이 만들어지는데 귀중한 역할을 하셨다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고맙습니다.

이 강의는 본래 제가 2001년도에 쓴 책, 『기독교를 말한다』(한들)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 책의 부제는 “지성인을 위한 인문학적 기독교 읽기”였습니다. 성서와 기독교의 가르침이 단순한 종교적 도그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인간 삶을 구성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역사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런 해명에 인문학적 사유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그 책을 기초로 한 이번 강의는 이런 인문학적 접근에 깊이를 더해보자는 요량으로 『기독교가 뭐꼬?』를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성서와 기독교의

가르침을 일종의 화두로 삼아보자는 의도입니다. 이런 의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강생들과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후략>

2009년 사순절 다섯째 주간에, 환성산 아랫동네 하양에서, 정용섭 목사

## (2판) 머리말

4년 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강의는 5년 전에 있었구요. 책이 다 떨어졌는데, 종종 책을 찾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준비하겠다는 약속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이제야 다시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문장이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구석도 꽤나 보였습니다. 반복되는 대목도 눈에 걸렸고, 어떤 분들이 실명으로 거론되는 것도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특히 강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나오는데, 오늘의 눈으로 보면 잘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손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교정을 보았습니다. 구어체가 어색해서 전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표현을 바꿨습니다. 소재목을 내용에 맞도록 바꾸거나, 각장을 전체 흐름에 맞도록 순서를 변경했고, 몇 대목에서는 원래 강의안의 내용을 첨삭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초판 출판 당시에 수고하셨던 분들에게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라이브 인터넷 강의를 들었던 분들도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실는지요. 2판의 전체 디자인을 김태형 님이 다시 수고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아무도 세월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고, 세월의 무게를 지기도 힘듭니다. 저도 나이를 다섯 살이나 더 먹었고, 집도 더 시골로 옮겼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세월과 더불어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이런 인생에 과연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강의, 출판, 책읽기도 모든 이런 희망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13년 8월, 영천시 북안면 원당리에서, 정용섭 목사



## 차례

머리말 5

제01강	강의 안내	11
제02강	초기 기독교의 배경	21
제03강	신학과 인문학	31
제04강	역사적 예수	40
제05강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50
제06강	예수는 왜 그리스도인가	60
제07강	영성과 신학	74
제08강	칭의와 구원	83
제09강	청교도 신앙에 대해	96
제10강	죽음에 대해	106
제11강	십자가 사건	117
제12강	십자가와 역사	131
제13강	십자가와 부활	143
제14강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	156
제15강	기독교 역사 개관	167
제16강	종교개혁의 세 가지 신학명제	183
제17강	구약과 초기 기독교	195
제18강	성서텍스트와 해석문제	208
제19강	모세오경	220
제20강	출애굽 전승	231
제21강	광야 이야기와 예언서	242
제22강	기독교 신앙과 현실성 문제	254
제23강	신약의 형성 과정	266
제24강	신약의 구조	278



제25강	민중신학에 대해	290
제26강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304
제27강	교회란 무엇인가	315
제28강	기도에 대해	327
제29강	헌금에 대해	340
제30강	기독교 신앙과 생명 경험	352
제31강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	364
제32강	하나님에 대한 물음	377
제33강	삼위일체 하나님	390
제34강	성령에 대해	403
제35강	인간에 대해	413
제36강	인간과 죄 문제	425
제37강	인간의 하나님 경험	438
제38강	기독교 윤리에 대해	449
제39강	하나님 나라 윤리	462
제40강	유기론적 생명 윤리	474
제41강	기독교 윤리의 잠정성에 대해	488
제42강	기독교와 한민족	498
제43강	근본주의란 무엇인가	509
제44강	한국교회의 미래	520
제45강	길 위의 영성	536
저자소개		548



## 제1강

### 강의 안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목회와 강의 외에 두 가지 작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나는 설교비평이고, 다른 하나는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강연과 글쓰기였습니다. 설교비평은 유명 설교자들의 설교를 비평한 것이고 강연과 글쓰기는 설교 전체에 대한 개론, 예를 들면 한국교회의 강단은 무엇이 문제인가, 성령론적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와 해석학 등의 주제를 다룬 것입니다. 열 몇 편의 글을 강의안으로 묶어 지난 봄 학기에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과 설교>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했어요. 앞으로 정리해서 책으로 낼 생각입니다.

제가 설교비평을 한다는 게 외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 전공은 설교학이 아니라 조직신학이거든요. 설교학 전공 교수님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흉곽외과 전문의가 성형수술을 하는 것과 비슷하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성형외과에서 성형 수술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깐 그렇게 하지 마라,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살려라, 대충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재미삼아 말쑤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어쨌든지 기회가 되면 목사 후보생들인 신대원 학생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고 싶긴 합니다. 설교는 신학의 꽃이거든요. 거기에는 조직신학, 윤리신학, 성서신학, 교회사 등이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준비가 없으면 설교가 불가능합니다. 성서주석만으로 설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창조, 종말, 칭의, 성화, 구원, 교회, 하나님 나라 등 조직신학의 분야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 목사가 된 분들에게 문제는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신학생들도 조직신학을 싫어해요. 설교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 이야기를 실제 삶에 적용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착각입니다. 성서라는 텍스트와 지금 설교를 듣는 청중 사이의 콘텍스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을 설교라고 할 때 그 중간에 어떤 작업이 필요해요. 그것을 조직신학이 감당해야 합니다.

성서 본문을 예로 들어 설명할게요. 삭개오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용감하게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차여차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게 되죠. 거기서 그는 남의 것을 사기 친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값겠다고 했고 자기 재산을 반이나 떼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했어요. 이 본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삭개오처럼 변화가 온다거나, 베풀고 봉사해야 한다고 주로 설교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신자들에게 현금을 강요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죠. 이것은 성서 텍스트의 난독, 오독,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본문의 핵심은, 특히 복음서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포커스를 맞춰야 할 중심인물은 예수님이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상대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삭개오보다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해 불평하고 수군수군하던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합니다. 굳이 예수님과 상대한 사람들을 설교의 주제로 삼고자 한다면 삭개오가 아니라 바리새인이어야 하죠.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자기 성취, 자기 집중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동떨어진 것이냐를 찾아야겠지요. 삭개오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하나의 장치에 불과합니다. 이 본문에서 핵심은 잃은 자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변화는 종속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재산을 나눠주어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꾸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그런 봉사와 희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성서 본문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적용 중심식 설교나 성경읽기가 일종의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사람들을 얼마나 교회로 끌고 오느냐에 모든 목표가 집중되면 성서 텍스트가 오독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성서 텍스트 훑아보기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훑아보기는 자세하고 깊게 살핀다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설교자들을 대상으로 설교비평을 하거나, 이론적으로 설교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실제 성서 텍스트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 원초적 영성

우리는 ‘기독교가 뭐꼬?’라는 화두를 안고 앞으로 6개월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안이 있고 거기에 맞춰 진도를 나가겠지만 강의안에 없는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강의안은 파워포인트로 띄워놓았어요. 저의 강의를 도와주는 박원관 씨가 두 주에 한 번씩 강의안을 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강의안을 잘 읽으면 강의를 따라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가능한대로 강의안에 충실해야 하는데, 셋길로 빠질까 걱정이네요.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분들은 다들 경험하는 일인데요. 어떤 생각들이 숨어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

어 창조적으로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제가 시인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는 준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딱 준비된 상태에서 쓰는 게 아니라 쓰는 순간에 언어가 말을 거는 거죠. 물론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건 아니에요. 준비된 상태이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어떤 미묘한 게 있어요. 작곡가의 경우라면 소리가 말을 거는 아주 미묘한 순간이겠죠. 그래도 준비는 충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자유롭게 강의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주 옛날, 독일에서 공부할 때의 경험입니다. 대학에 여러 가지 종류의 강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포레중’(Vorlesung)이에요. 이 단어는 ‘읽는다’는 뜻의 레젠(lesen)과 ‘앞에’라는 전치사 포(vor)가 조합된 말입니다. 독일어는 조합이 잘 돼요. 그래서 철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무슨 단어를 붙이는가에 따라 의미가 확장되거든요. 포레중은 가장 기초적인 강의입니다. 말하자면 개론이죠. 우리나라 신학대학교에서는 개론 수업을 강사나 젊은 교수들에게 주로 맡기는데요. 독일에서는 이 포레중 수업을 노교수들이 맡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경험한 걸로만 말한다면 보통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학생이 수업을 듣고요.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강의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노교수들은 고급세미나나 하려고 할 텐데요. 포레중에서 많은 경우 노교수가 강의안을 놓고 읽습니다. 책 읽듯이 읽어요. 강의안을 찬찬히 읽어가는 공부방법도 나름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의안을 읽기도 하겠지만, 자유롭게 설명하기도 할 겁니다.

제 강의안에 머리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만 갖고도 한 시간은 설명해야 합니다. 핵심적으로는 기독교가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좀 하자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처럼 지나치고 있는 게 아니냐고요. 깨놓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스스로 아는 것처럼 속거나 속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진솔하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제 강의 전체 제목은 ‘기독교가 뭐꼬’입니다. 이걸 일종의 신앙적 화두예요. 화두를 붙들려면 인간, 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제 강의는 그걸 바탕으로 놓고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취지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자’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자는 말은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음악이든 미술이든 어떤 세계가 있죠. 세계는 무슨 세계가 있다는 말이야, 하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그는 예술이나 이 세상을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많은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기독

교 교리 단어 하나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치열하게 고민했던 수많은 영적 담론이 들어 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단박에 받아낸 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말씀하셨을 거야.’라고 생각할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시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역사의 아들인 거죠. 유대인의 전통, 역사, 그 당시의 삶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 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세계에 들어가 있었습니 다. 그걸 벗어났다면 사람이 아니라 혼령이죠.

기독교 신앙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확립됩니다.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vere Homo, vere Deus), 즉 ‘참 인간, 참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앞으로 반복해서 이 개념이 언급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인 겁니다. 어느 한 쪽에 더 무게를 두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로서 참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무게를 많이 두죠. 초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 다. 인성을 신성과 똑같은 무게로 주장했어요. 이걸 기독교 신이해의 혁명적 전환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언급할 기회가 오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도 조직신학에서 다뤄야 할 주제예요. 신학이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직면해 있는 세계를 바로 보고,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신학이 재미있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야만 철학 책을 읽는 게 아니듯이 신학박사가 되어야만 신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정체는 신비죠. 반신반인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인 동시에 온전한 신이니까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처음부터 진도를 너무 나가지 말지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도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한순간도 부인하지 않았습니 다. 우리와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참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처럼 먹고 배설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희로애락, 에토스나 파토스 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시대의 아들로서 인식에서도 제한적이었다는 말이냐고 물을 수 있겠죠. 오해하지는 마세요.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는 신화적인 시대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세계를 바라보는 형식도 2천 년 전 고대인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물리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예수님도 태양, 화산, 해일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했겠죠. 성서 시대 사람들이 자연과 세계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개 목사님에 대한 설교비평을 하면서 ‘시간 여행’이라는 한 대목을 잡아서 말했습니다. 성경을 지금의 관점으로 읽지 마라, 시간 여행을 해서 2천 년 전으로 돌아가라고요. 그 시대로 가서 그들의 삶과 언어로 그들의 세계관로 읽으라는 겁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그들의 지평에서 성서 본문을 이해하고 경험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모차르트의 음악을 연주하려는 사람이 지금의 현대적 감각만으로 그의 음악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무슨 일이죠. 그가 살았던 18세기 후반 고전주의 시대로 돌아가야지요. 마찬가지로 성서를 해석하려면 2천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서시대인 2천 년 전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당 짓고 사람들 모으는 데만 심취해 있다면 2천 년 전의 원초적 영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원초적 영성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무하는 샘터교회에서는 예전예배를 드립니다. 예전(liturgy)이 기독교 영성의 역사예요. 2천 년 전과 지금을 연결해주는 역사죠. 예배의 형식주의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2천 년 전에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의 경험이 와 닿아야 합니다. 2천 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대했는지 배워야 합니다. 지난 주 예배순서를 보면 사도신경이 아니라 니케아 신조가 나오는데요. 그걸 신앙고백 시간에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신경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우리가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에의 신조를 통독한 거죠.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게 성서 텍스트와 2천 년의 영성을 보자기에 묶어놓고는 펴볼 생각조차 안 해요. 대신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리고 심리화적이고 감상적인 영성만을 좋아합니다. 그런 식의 영성이 초기 기독교의 원초적 영성과 얼마나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예요. 개인의 주관적인 결단 혹은 실존적인 영성과 2천 년 기독교 역사 및 성서 텍스트가 안고 있는 객관적인 세계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어야 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주장한다면 기독교의 원초적 영성에 대해서 뭔가 경험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강하게 끊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고 ‘내’가 믿는다는 것에 열중하죠.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구원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뭘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비하면 개인의 실존적인 믿음과 결단은 우스운 거예요. 인간과 그의 노력이 별 게 아니라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이라는 뜻이에요. 종속적입니다.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

원 통치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고, 이것이 역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진도는 안 나가고 엉뚱한 소리만 하네요. 이런 게 모두 우리 공부와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됩니다.

## 차례 확인하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을 간략하게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초기 기독교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은 물론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를 빼놓고는 초기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유대인의 생존 투쟁, 율법, 시내산, 안식일, 성결법 등등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어렵듯이 알고 있는데요. 인문학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내산 하나만 하더라도 할 말이 산더미 같습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산이에요. 시내산은 모세가 소명을 받은 호렙산과 똑같은 산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미디안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는데, 모세가 그의 데릴사위가 됩니다. 모세가 이드로와 사십년 동안 먹고 자고 했다면 미디안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호렙산은 미디안 종교의 성지였어요. 모세가 왜 이 미디안의 성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지 촘촘히 검토해야 한다면 공부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안식일 문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인류에게 준 유산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식일은 정말 큰 유산입니다.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도 혁명적인 법이에요. 복음서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런 율법과 충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은 자유를 주고 해방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교조화가 되면서 잘못 사용되었거든요. 성결법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먹을거리마저 이렇게 까다롭게 구별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에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전염병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 등은 건강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먹는 게 건강에 유익했죠. 하여튼 우리가 유대교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초기 기독교가 여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예수님의 진면목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처녀 마리아, 인간 예수, 출가, 세례 요한과 예수, 하나님 나라, 팔복, 제자선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도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해놓으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합니다. 그건



교리적인 설명입니다. 그 교리 안에서 더 궁극적인 실질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지요. 만약 예수님이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절규를 쏟아내실 까닭이 없지요. 생각할 게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세계교회의 역사인데요. 오순절 성령강림, 313년, 1054년, 1517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1948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공부를 잘해도 신대원 3년 졸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십자가와 부활, 마틴 루터가 개신교 신앙의 슬로건으로 내놓은 세 가지 명제인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만 알아도 개신교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1948년은 WCC가 창설된 해입니다.

그 다음은 구약성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헤브라이즘과 크리스챤티,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서, 전승으로서의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 빛이 있으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 엑서터스, 만나와 메추라기, 예언서, 성문서를 키워드로 삼아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 신약성서에 대한 공부입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신약성서의 형성과정, 복음서, 사도의 선교 역사, 서신, 바울과 기독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다음은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실천신학 분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교회 안에 있는 실제 행태를 살핍니다. 예배, 기도, 헌금, 성찬식, 목사, 장로, 당회, 여성안수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현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대목에서의 핵심 개념은 존재에 대해서, 실체론적인 하나님 이해, 신앙적 인식론, 하나님의 불변성, 비종교적 해석,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관념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삼위일체 개념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삼위일체가 무엇일까요?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언급하면서 성서만이 아니라 플라톤 사상을 많이 받아들였을까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을 내서 잘 따라가 봅시다.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인간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인간을 아는 일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할까요? 인간창조와 진화, 호모 에렉투스 등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겁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2백만 년 전에 나타난 인류의 조상입니다. 침팬지와 인류가 갈라진 그 시기의 생물학적 인간이죠. 그러한 생물학적 인간 이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다음, 기독교의 인간 이해로 넘어가는데요. 인간은 흙이다, 영적인 존재, 인간 현실로서의 죄를 다룹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

죄는 숙명인가요? 과연 죄가 뭔가요? 한국교회의 병폐 중 하나가 죄책감에 근거한 영성입니다. 죄가 기독교의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리적으로 작용한다는 게 문제지요. 현금 못했는데, 기도 생활 못했는데, 새벽기도에 빠졌는데, 이러다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 심리에 빠져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인간에 대한 질문은 윤리적 질문을 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윤리적 지평입니다. 가치 판단, 존재와 행위, 개인과 사회, 성서는 기독교 윤리의 전범인가, 인간 본질로서의 성, 금욕과 쾌락, 청빈과 소유, 유기론적 생명윤리 등을 키워드로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기독교와 한민족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죠. 우리말을 쓰고 우리의 먹을거리를 먹습니다. 한민족과 기독교의 관계 및 토착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요. 그 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누구였는가에 따라 신앙 색깔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은 미국 선교사들이인데요. 그분들에게 감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계 교회의 주류(main stream)가 아닌 지류에 해당하던 근본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처음 출발이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죠. 소제목으로 이승훈과 김대건, 기독교 신앙과 서구문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직접선교, 간접선교, 근본주의, 기독교 교파를 다루었고요.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21세기의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있는가, 복음 세상 안인가 박인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남북통일은 구원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기독교의 구원론적 지평 등등을 소주제로 다룰 생각입니다. 위의 내용을 뼈대로 하고, 중간에 다른 내용들이 첨가될 겁니다.

## 종말론적 구원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구원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게 될 겁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니까요. 지금 언급한 구원론과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A4 용지 10매로 신앙적 에세이를 쓸 수 있는지 자문해보십시오. 교회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런 토대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종말론을 주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종말은 역사관입니다. 마르쿠시즘은 기독교 종말론의 세속화입니다. 종말론은 마지막 때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고 고민이에요. 종말을 생각하자면 현재와 과거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현재적 구원이 아니라 종말론적 구원입니다. 이 종말론적 구원을 어떻게 현재로 당겨서 맛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가난한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가난하고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그건 종말론적 선언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권에 의해 일어날 일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십자가는 실패이고 무기력한 죽음입니다. 정말 무기력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2천 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는 신성모독과 반역죄로 몰려 죽은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야 할 게 많습니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구원, 메시아, 생명, 종말, 하나님 나라가 다 연결됩니다. 어느 관점이나에 따라 이 용어나 저 용어로 쓸 수 있어요. 구원은 참된 생명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구원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입니다. 종말에 이르러 생명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도 무상하지 않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어요. 이 부활의 빛 아래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넨베르크(W. Pannenberg)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 세상의 어떤 삶도 실패로 재단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유한 방식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세상에는 정말 억울한 죽음이 많습니다.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건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은 종말론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기독교 영성이예요. 그러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영성의 대가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느새 오늘 예정된 강의시간이 지났네요. 앞으로 6개월 동안 공부할 걸 지금 다 끝낸 셈입니다. 오늘은 맛보기로 보여드렸고요. 이런 이야기 안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이런 딱딱한 주제에 재미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재미가 있으려면 먼저 제가 재미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재밌습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할 것이 무지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우습게 믿어도 될 만한 게 아니예요. 엄청난 사태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있군요. “복음을 전하려면 쉬워야 하는데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아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니 걱정이네요.

복음을 전하는 게 말로 가능할까요? 복음 전도의 정형화된 패턴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생명을 잃었는데,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삼일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옳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말로 교회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게 형식은 단순할지 몰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심오하죠. 땅 속의 개미집과 비슷합니다. 구멍만 보면 개미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 갈수록 넓습니다. 거대한 빌딩 같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다음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을 알면 일상에서 벌어지는 고통 문제가 해결되나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군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을 가졌다고 해서 암에 걸린 사람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겠어요? 영성이 깊어지면 좌절이나 낙심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고 상처를 입을 겁니다. 테니스도 못 치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신을 못 쓴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 영성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죠. 그걸 잘 하기 위해서라도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했습니다.

## 제02강

### 초기 기독교의 배경

안녕하세요. 앞 시간에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주마간산 격으로 검토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됩니다. 초기 기독교의 현장이 출발점입니다. 기독교라는 공동체가 역사에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나 하는 겁니다. 그 배경은 당연히 유대교입니다.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유대교가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다고 봐야겠지요. 기독교가 유대교에 완전히 연속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처음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와 긴밀한 관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관계가 멀어집니다. 거기에는 많은 역사적 사연들이 있어요.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 기독교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기독교가 유대로부터 큰 압박을 받으면서 상황은 크게 변했습니다. 그건 세월이 좀 흐른 뒤의 상황이구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기독교 공동체만 있었으니까 유대교와의 관계가 예상 외로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 즉 우리 신앙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유대교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지만 유대교 전체를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와 연관된 부분만 개괄하는 식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

우선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왜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요? 그 답은 그렇게 오묘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이죠. 역사 안에서 살고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와 단절된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유대교라는 역사 아래에서 자라고 활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교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들락날락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맞춰 거기에 갔다는 건 유대교의 기도 시간을 잘 지켰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의 신앙 형식은 유대교를 그대로

따랐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사람들과 당장 관계를 끊고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뿐 아니죠.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의 경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 역시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신구약을 정경으로 결정한 때는 기원후 397년에 있었던 카르타고 종교회의였어요. 4세기 후반이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거든요. 그럼에도 유대교가 이미 90년 앞니야 회의를 통해서 경전으로 결정한 구약성서를 그대로 기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가기 힘들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런 일들을 볼 때 유대교와 기독교는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참고적으로 유대교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분파는 예루살렘 유대 기독교 공동체였고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기독교는 상당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격하게 유대교, 또는 유대 기독교와 투쟁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깊이 연관시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힘이 없어지다가 1세기말에 가면 유명무실해져요. 반면 바울을 태도로 하는 이방 기독교는 강한 힘을 갖고 활성화가 되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가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새로 썼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실제로 바울과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은 서로 사이가 나빴던 것 같은데, 누가는 이 관계를 가능한 우호적으로 보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배척 받는다면 바울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누가는 바울의 입지를 여러 가지 면에서 강화시키는 쪽으로 기독교 역사를 해석해낸 겁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제자들이 중요한 인물들로 부각되어 나오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그 정도로 제자들을 특별하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기독교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유대교라는 배경을 가능한 한 잘 알아야합니다. 단순히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다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역시 기독교가 유대교와 변증법적인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라는 테제와 기독교라는 안티테제가 융합의 방식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어요. 날짜는 달라졌지만 그 의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유대교의

묵시문학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기독교로 오면서 종말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구약성서를 기독교론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가능하고, 또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기독교론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도그마(교리)인데,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과 기독교론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두 교리를 분리시키면 기독교의 가르침을 통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독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론에만 치우치면 타종교와 대화가 부정됩니다. 보편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관점이나 성령론적 관점에서 보면 타종교와의 대화가 가능하죠. 이 말은 혼합적인 기독교를 만들자는 뜻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르침을 보편적 진리의 지평으로 열어내자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놓치면 기독교 신앙은 양극단으로, 즉 혼합주의나 독단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안티 기독교 집단이 주장하듯이 우스꽝스러운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 천재가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 2천 년의 역사에는 우주와 세계 전체에 대한 심각한 고민, 치열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그 역사는 자기 영혼과 온 몸을 기독교 신앙에 던진 사람들의 역사적 결과로 나온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너무 말초적으로나 지엽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늘 그리스도의 구속, 죽음, 부활에만 머물러 있어요. 다른 건 모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강조한 바르트 신학의 영향도 있지만, 한국교회가 바르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근본주의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론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종말론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고, 이 기독교론이 창조론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들 사이의 긴장 관계를 풀어내려는 신학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노력이 없으면 기독교론은 자칫 십자군 전쟁을 합리화하는 교리로 오용될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배경과 토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많은 내용들이 구약성서와 많은 유대 문헌에서 나온 걸 보면 유대인들이 위대한 민족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세계 어느 민족이 유대인처럼 거룩한 문서를 전승시키고 보관했을까요? 중국에도 노자나 장자 같은 사람들의 문헌이 많기는 하죠. 제가 고문서 학자가 아니라서 중국과 이스라엘의 고문서를 비교 연구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나라잖아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엄청난 문서를 보존해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인류 문명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들의 구약성서가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다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예민하면 예민하다고 볼 수 있는 기독교론도 그렇습니다.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기독교론이 더 풍부해집니다. 구약성서에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내세에 대한 생각도 구약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이상한 생각이 들 겁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완전한 진리와 계시를 담고 있던 게 아니었는가, 성서는 일점일획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왜 구약성서에는 내세에 대한 개념이 약하고 신약성서에는 부활과 종말에 근거한 내세 개념이 확장되었는가, 하고 말이죠.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역사의 능력이고, 역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요. 역사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서시대 사람들 보다, 즉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나훔 같은 선지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근원에 맞닿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아졌어요. 우리는 옛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게 됩니다. 어쨌든 구약이 신약과 다른 점이 많다고 해도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구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성서를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구약성서 대목을 공부할 때 말하게 될 거예요.

생각난 김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구약성서를 기독교의 경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경전으로 만들었으면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교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구약성서를 제외시키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어간에 독일 베를린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던 아돌프 폰 하르낙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세기에 구약을 거부했던 것은(마르시온, 필자 주) 잘못이었지만 위대한 교회는 이 거부를 올바르게 거절하였다. 16세기에 구약을 그대로 간직했던 것은 종교개혁이 아직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 구약을 프로테스탄트의 경전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 교회적 마비의 결과이다. ... 여기서 구약 자체를 일소해버리는 것, 그리고 고백과 가르침 속에 있는 진리에 명예를 주는 것, 이것은 오늘날 -이제 너무나 늦었지만-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 요구되는 위대한 행위이다.(에벨링의 <신학연구개론> 39, 40에서 재인용. A.v. Harnack, Marcion. Das Evangelium von fremden Gott, 1921, 1924, Neudruck 1960, 217, 222)



그런 문제는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히틀러의 나치즘과도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왜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은 대개 유대 포비아(phobia)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거지요. 다른 건 접어두고 신앙적인 문제만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거죠. 그게 옳은 주장인가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유대인의 책임으로 보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가 우리의 모태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유대교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 유대인의 생존 투쟁

구약성서를 읽으면 당혹스런 사건들을 종종 만나죠.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도록 명령을 내리시고, 이방민족을 죽이라는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여기면 곤란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온 삶의 경험이 놓여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소수민족으로 살다가 모세를 중심으로 탈출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왔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세방을 전전하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 정도로 약소민족이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계속해서 제국들이 일어났죠.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을 비롯해서 페르시아, 로마 등, 제국들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계속 느끼며 살았어요. 따라서 구약성서는 유대인들의 생존투쟁이라는 차원에서 읽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서 버텨낸 거죠. 실존주의자들은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고 말했는데요. 구약성서를 읽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윤리적이냐 하는 본질은 부차적인 거였어요. 늘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구약성서 안에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생존이었어요. 이 생존은 사실 진화론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공동체인 유대인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싸쓸이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생존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생존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방식은 그 당시 삶의 방식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내쫓고 억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형식이 그랬어요. 일종의 '제로섬게임'이었습니다. 오늘 그 성서 본문을 읽으면서 그 형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정말 큰 일 나지 않았어요? 성서는 어떤 면에서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그들이 경험한 영성의 깊이에서 성서를 읽지 않으면, 성서는 안티기독교가 말하듯이 완전히 반(反)평화적이고 반(反)휴머니즘적이며, 아주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제국주의적 종교로 오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류문화사적인 측면에서 구약성서의 어떤 것은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은 가치가 없는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질문이 생기죠?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약성서에 나오는 진술은 유대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생존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구체적인 것들을 선택한 거죠. 그걸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시하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짐승 중에서는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만 먹을 수 있었죠. 그것이 그 시대에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 근동 사람들은 피를 마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의 길을 갔어요. 그 결과 상당히 독단적이고 배타적으로 자기들의 생존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생존을 지켜준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 누구와 전쟁하고 누구와 평화를 유지해야 할지 모두 자기들이 판단해야 했어요. 그 판단들 중에는 옳은 것도 있었고 틀린 것도 있었죠. 구약성서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20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무자비한 죽임을 당했지만 자기들도 그랬어요. 오해는 마세요. 히틀러의 집단 학살을 옹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들은 구약성서를 집 등기문서처럼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하니까요. 아이 성, 여리고 성을 공격하면서 남녀노소를 죽인 일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일종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작성한 사건을 기억하지시죠? 산 아래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가시적인 하나님 형상 아래서 축제를 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자기 동족 3천명 이상을 죽였어요. 그것도 한 나절에 저질렀습니다. 일종의 내전

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일벌백계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다고 스스로 판단했던 겁니다. 모세는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3천 명을 죽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아간을 죽인 이야기도 성서에 나오는데요. 그것도 여호수아 자신이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묘사된 성서 구절이 있지만, 정말 그걸 끝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의 판단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위인들과 지도자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나중에 다 판단을 받을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 방식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은 살아남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생존 문제 앞에서는 본질이나 윤리도 부차적인 겁니다.

〈얼라이브〉란 영화가 있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첩첩산중 깊은 곳에 비행기가 조난당한 뒤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요.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구조대가 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미 죽은 동료의 살이라도 먹어야 한다고 말하죠. 동료의 살을 칼로 얇게 썰어 비행기 동체에 붙였다가 햇볕에 마르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죠. 동료의 살을 어떻게 먹느냐고 하면서 끝까지 먹지 않았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윤리적으로 옳다 아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각자 가치관에 따라서 말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한 쪽을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생존의 문제잖아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들은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많은 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가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도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한정적인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을 그 때 판단 받게 되죠. 그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백프로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판단까지 종말로 유보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겠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이스라엘의 배타성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한 선택과 투쟁의 성격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배타성입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절충과 타협을 따랐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먹는 것은 물론 혼인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하지 않을 정도로 배타적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함락된 기원후 70년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면서도 자기들의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전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나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배타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방식으로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확신한 겁니다.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생활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훨씬 막강했던 수많은 민족들은 주변 세계와 섞여 버렸어요. 이 문제는 인문학적으로 좀 더 검토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성서와 유대인들의 신앙 문제는 생존을 위한 배타성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이 반복되면서 규범, 규칙들을 만들어지고 구전되고 문서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결실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그들의 삶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는 구약성서가 형성되는 고대 유대인들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생존을 위해서 본질이 약해져도 괜찮은 시대가 아니라 생존보다 본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서바이벌 게임의 방식으로, 제로섬 방식으로 나가면 정말 곤란하죠. 한국교회가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배타적이고 이원론적이고 이기적이라는 평판이 많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패러다임을 내세우면서 세상을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성서적인 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하나님 신앙이라는 본질은 놓치고 대신 그들이 취한 공격적인 삶의 태도만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평신도의 신학공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독교가 뭐꼬?’ 강의가 평신도 신학공부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여러 계층이라서 한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기가 힘들지만, 기독교를 인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르게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강의를 너무 쉬울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들었던 교회의 성경공부와는 너무 달라서 낯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 천착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신학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해도 그 중심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설교비평을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기독교를 잘 모른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모른다는 말을 좀 이해해 주세요. 기독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변죽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거든요. 설교와 교회의 언어 형식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늘어놓으면 얼마든지 기독교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칭의와 성화의 신학적 개념을 몰라도 그 말들은 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영접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쓸 수 있어요. 개인적인 센티멘털리즘에 빠져 있는 것을 신앙체험이라고 오해하기도 하구요.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에도 차이는 큼니다. 여기 몇 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닌 분도 있을 거고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정보가 많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많은 정보만 수집하고 있을 뿐, 실제로 그 정보가 담아내고자 하는 콘텐츠를 맞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설교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삶이 늘 상투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 안식일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형성된 율법의 핵심은 안식일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알면 율법을 다 아는 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뭘까요? 우리도 성수주일을 강조하는데요. 안식일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전승이에요. 창조 전승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므로 모든 인간도 그 날에 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신앙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낭만적인 생각에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야외에 나가 '참 아름다워라' 하면서 찬양을 부른다고 창조 영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자연의 탈(脫)신성화가, 또는 탈주술화가 중요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연, 특히 태양을 숭배했어요. 그러나 유대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만든 분에게 집중한 겁니다. 다른 하나는 출애굽 전승입니다. 출애굽 전승은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하여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쉼과 자유, 창조와 해방, 이게 안식일의 핵심인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창조 사건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해방 사건이 크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전체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다른 일상은 멈추어야 합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지낸다는 것은 창조의 영성과 해방의 영성 속에 담긴 자유와 참다운 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파김치가 되

도록 교회 일을 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는 주일이 제일 힘들다고 하죠? 주일에 너무 많은 일에 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많이 해야만 신앙적인 업적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해예요. 복음은 뭐를 함으로써가 아니라 거꾸로 하지 않음으로써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적인 업적을 쌓는 일로 계속해서 우리의 영성을 소진시키고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영혼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탈진해버립니다. 그래도 이게 믿음이지 않은가,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한 분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셨네요. “유대인들의 자유와 우리의 자유가 어떤 상관이 있나요?”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우리는 그것을 근본으로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유와 평화를 누립니다. 구약에는 안식일 뿐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도 나와 있는데요. 희년은 구약성서에 문자로 남아 있었을 뿐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실행되기 힘들었어요. 그대로 되면 사회질서가 허물어지니까요. 안식년이나 희년은 이사가야 그 시대에 물질적 양극화로부터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했던 상상력의 산물이었죠. 선지자의 영적 통찰에서 나온 생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탕에 놓고 가능하면 그런 정신을 살려나가야죠. 어떤 학자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희년 정신에 따라서 제3세계의 빚을 다 탕감해주자고요. 일 년에 단 하루라도 전 세계의 모든 공장을 쉬게 하자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노동과 자본,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쪽으로 나간다면 안식일을 오늘의 삶에서 새롭게 해석해내는 것이 되겠죠.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연관해서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를 더 생 각해보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제03강

### 신학과 인문학

오늘은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은 강의에 대해서도 좋고, 그 이외에 기독교 전반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지금 질문이 없으면 미리 저에게 메일 등으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인문학적 성서 읽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죽음에 대해서 대답할 자신이 좀 없어서 말이죠. 제가 나름으로 신학 전문가니까, 그리고 매주일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대답은 해야 할 텐데 자신이 없으니 좀 딱하게 되었습니다. 대답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궁극적인 대답을 모른다는 압박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신학자와 설교자도 대답을 모른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핑계로 그냥 지나갈 수는 없구요. 할 수 있는 정도라도 대답해야겠지요.

#### 인문학적 성서읽기란?

제가 인문학을 본격적으로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문학이 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학을 전통적으로 문사철이라고 합니다. 문학, 역사, 철학을 말하는데, 이것은 인간 삶의 흔적들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 역사가 되고 학문이 된 거죠. 가령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두고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문학이든 철학이든 그런 문제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심화하고 확대했습니다.

성서도 그렇습니다. 성서에는 인간 삶의 흔적이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성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혹은 변죽만 울리는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인문학적인 삶이 무엇인지, 시간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은 기독교 신앙에서도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만 무조건 믿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인간이나 시간이나 역사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착각입

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서에는 삶에 대한 인간의 사유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어요. 이 말은 성서가 순전히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대답이 상호 변증법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성서 기자들의 당시 세계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 빛의 관계에 대한 성서 기자의 깊은 사유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인문학이 큰 도움을 줍니다.

인문학적 성서 읽기는 우리 삶의 근거들을 염두에 두고 성서를 읽자는 겁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하루에 수천 명을 죽인 사건이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와 아이 성의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인 사건, 또는 여호수아가 아간을 죽일 때 연좌제를 적용해서 모든 가족을 죽인 사건들을 무조건 실증적 사실로만 보려고 하면 성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성서 기자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서 기자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집단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관점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유대인들의 고유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성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바라본 삶의 이해구요. 삶의 이해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삶은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것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서 기자들이 진술을 삶의 차원, 또는 생명의 차원에서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는 공부가 인문학적 성서 읽기입니다.

이와 달리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한국교회의 성서 읽기는 교리 중심이죠. 교리 중심의 성서 읽기가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공한 조직신학이 교리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 교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많은 세계를 담고 있는지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천편일률적이거나 침소봉대 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도그마(교리)가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이 우리 삶과 어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놓치면 독단론으로 빠지고 맙니다. 구구단을 외우듯이 외우고 말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것도 외워버리고 말면 독단이 되는 거죠.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기자가 왜 그런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성서는 그 어떤 인문학 저서보다 훨씬 더 심층적인 생명의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성서를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수준이 더 떨어지는 것은 큐티(quiet time) 식 성서 읽기입니다. 굉장히 나이브한 것이죠. 이런 성서읽기에서는 성서가 수단으로 떨어집니다. 성서의 종교적 정보를 끌어다가 자기 삶에 적용하는데 머물고 만니까요. 이게 한국교회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는 성서 읽기입니다. 큐티에 관한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책을 보고 은혜를 만나요? 받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의 메시지보다는 예화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윤리적인 설교도 이와 비슷합니다. 윤리적인 설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윤리와 도덕 너머의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 본문이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해도, 그건 달이 아니라 손가락입니다. 그것을 통해 더 근원적인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적용 중심의 큐티 식 성서 읽기는 성서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성서를 읽고 있는 자기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기독교인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극단적으로 잘라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신앙의 세계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 앞에서는 그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개념이나 언어 진술은 어떤 연관성 속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앞뒤는 다 잘라버리고, 정 목사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윤리적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더라 하면 안 됩니다.

예언자들이 정의와 평화적인 삶의 변화와 행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서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해요. 큐티 식 성서 읽기는, 성서가 존재론적으로 확보하고 답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론적 메시아적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성서를 하나의 율법이나 교리문답으로 축소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는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답게 살 수 있는지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인문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존재론적 접근,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관계에 몰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사나 영성가들은 온전히 거기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과 존재론적 관계를 맺는 일에 매진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느냐, 혹은 내가 어떻게 교회나 수도원을 키우느냐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상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 하는 것과는 상관

없이 존재론적 깊이에서 일어납니다. 칭의(稱義)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게 칭의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가 아니라 그렇게 인정받는 뜻이에요. 이것은 값싼 믿음지상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여러 이야기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전달이 되고 있겠지요? 큐티 식 성서 읽기의 문제점을 말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게 전부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는 마세요.

###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해서

제가 받은 질문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교 1학년에 다니던 딸아이가 사고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면 정말 안식을 누리는 것인가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드려야 좋을는지요.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면 안식을 누린다는 말은 일단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명제로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이 땅의 삶에 안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즐겁고 안식을 쫓았다면 죽음으로 안식을 얻는 게 아닐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과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것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영원한 쉼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에 이 땅의 삶이 끝나야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대답이 질문한 분께서 기대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아니요 식의 대답을 원하는데, 상대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되는데요. 이 질문에 안고 있는 신앙의 전체적인 문제들을 정리해 보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인가 하는 이 하나의 질문만 갖고도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수백 가지의 질문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멀리까지 나가죠. 이런 연결을 잘 할 줄 아는 것이 신학적 능력입니다. 어떤 주제만 딱 집어서 대답하기는 힘듭니다. 어떤 주제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어떻게 흘러가며 어떻게 축소 혹은 확대되는지를 정확히 집어내는 것이 신학적 영성입니다. 천천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 왜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을까요? 불교는 인생을 고(苦)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죄를 그 원인으로 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지나신 뒤에 얼굴은 못 보고 등만 보았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죽으면 죄가 끊어지니까 그때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2) 그 다음으로 죽은 영혼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이것도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성서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고 신약 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에 대한 해명이 성서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만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죠. 이런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잘 못하면 신자들을 성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실명으로 말씀드려도 이해를 바랍니다. 연세중앙교회의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문제가 많더군요. 그분이 지옥 불이나 아브라함의 품을 아주 강조합니다. 성서를 정말 그렇게 접근해도 되는 건지, 나중에 주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려고 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나름으로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성서를 왜곡하면 그게 모두 허사입니다. 하도 인상이 깊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설교하기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는 살아 있을 때 예수를 잘 믿었는데, 부자는 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서를 왜곡합니까? 성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신자들이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한다면, 문선명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괜찮은 거죠.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삶 속에 있는 현실과 무책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쨌든 간접적으로 이런 성서 본문을 통해 본다면, 우리는 죽자마자 나뉘지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서에 따르면 마지막 때까지 다 잠을 자다가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살아납니다. 구원 받을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 받을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혼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걸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3) 그 영혼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냐고 질문한 분이 계시네요. 정확히 뭐라 말할 수 없죠. 죽으면 천국에서 그 영혼을 만날 수 있냐고도 했는데요. 성서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나기는 만나는데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방식의 만남과는 다른 겁니다. 군대에 갔다가 제대한 아들을 만낸다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닐 겁니다. 절대적인 세계를 자꾸 우리 방식으로 형상화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훼손하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죠.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플라톤의 동굴 비유예요. 아는 이야기라도 양해하고 다시 한 번 들어주세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강하니까요.

일단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추방을 당해 동굴로 쫓겨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에서는 발에 쇠사슬을 차고 살았어요. 그렇게 대를 이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손들은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몇몇 신화만 남아 있었죠. 그들은 동굴의 축축하고 침침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삶을, 햇불을 쬌야 볼 수 있는 동굴의 삶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발목에는 여전히 쇠사슬을 차고 말이죠. 장로들은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았어요. 그러다가 한 젊은 친구가 우연히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굴 밖에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거죠. 색깔을 보았고요. 나비가 날아다니는 걸 보았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화려한 세계가 동굴 밖에 있었던 거예요. 동굴 안으로 돌아와 자기 동족들에게 그걸 이야기했죠. 동굴 밖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동굴 밖을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죠. 장로들은 종교재판을 열었습니다. 더 말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이 젊은이는 자기가 경험한 동굴 밖의 세계를 외쳤고, 결국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 동굴은 예전처럼 조용해졌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플라톤이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독사발을 마시고 죽는 아테네의 현실을 비꼬아 말한 것 같아요.

이것을 기독교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굴 밖의 세계는 가뵤야 아는 겁니다. 동굴 안에 묶여 있는 한 동굴 밖의 세계는 어떤 상상력으로도 구체화할 수 없어요. 동굴 밖으로 나가야 해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 개념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형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외뵤야 알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범주와 경험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차원입니다. 바르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유비(analogia entis)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임박해 있습니다. 이게 말장난처럼 들리시나요? 여기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독단론으로, 혹은 불가지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건강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존재 유비가 불가능하다는 바르트의 진술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슷한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것을 예로 들기는 힘듭니다. 그것은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존재와 시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다면 감조차 잡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연필이 여기 있습니다. ‘있다’는 사실에 관점을 두지 않고, 없는 세계, 바깥, 없음으로써 연필을 연필이게 하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인데요. 우리가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죠.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잘 먹고 잘 사는 식으로 이 땅의 삶을 확장시키는 데 머물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신앙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는데 일단 논리적으로 생각해야죠. 영성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지만, 논리성과 합리성으로 해명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학이에요. 천천히 신학이라는 물에 발을 담그고 허리를 적시면서 더 깊이 들어가 돌고래 처럼 물놀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신학자, 영성의 대가들, 성서 기자들,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답이 되었나요? 질문한 분께 속 시원한 대답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이상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이 지배하는 아름답고 절대적인 곳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듯이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는 것보다 더 새로운 방식으로, 더 근원적인 방식으로 생명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이예요.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 희망으로 참척(慘戚)의 슬픔을 극복하십시오.

## 죽음 앞에서

제 강의 중에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결국 죽어야 할 인간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부

할 생명이 우리의 온 운명을 걸어두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부활 생명에 참여할 뿐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그 부활 신앙을 당겨 살 수 있습니다. 당겨서 산다는 게 뭘까요? 신학적 용어로 선취(先取)라고 하는데요. 오늘 현재의 삶은 그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삶은 밖에 나가야 보여요. 우리가 어떤 일에 아등바등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다 십 년이 지나고 이십 년이 지나면 우리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십 년이 지나도 반성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종말에 이루어질 생명을 목표로 하는 삶은 이미 종말에 가 닿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즉 현재의 삶을 이미 지나간 것으로 여기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종말론적인 눈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 지금의 삶을 지나간 것처럼 성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힘을 빼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운동을 해도 힘을 빼야 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힘을 뺐으면 해요. 삶에서 힘을 뺀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실 부활의 희망을 알고 믿으며 자기의 삶을 던지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살 겁니다. 현실에서 살다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악, 고통, 슬픔, 죽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결국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가 몇 가지 대답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완전한 대답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 또 하나의 창조 능력이 있는 존재를 인정한다면 이원론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악의 창조자가 됩니다. 물론 천사가 타락했다고 설명할 수도 있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를 타락하도록 만들었는가, 천사가 의지가 있다면 왜 하나님은 선한 의지만 갖도록 만들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들이 계속 되죠. 결국 이런 문제는 종말에 가서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순간 우리의 선택이 닫혀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기계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냐, 아니면 수많은 가능성 중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기독교는 후자입니다. 선택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끌어가죠. 그러면서 지나온 흔적을 볼 때 내 노력이 아니라 어떤 힘이 개입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칼뱅은 예정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축복 받도록, 너는 저주 받도록 예정되었다고 말한다면 칼뱅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 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그 정도로 밖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마치겠습니다.

## 제04강

### 역사적 예수

우리는 제2강에서 초기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가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요. 더구나 지금까지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볼 때 기독교와 유대교는 처음부터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초기의 (유대)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듯이 나사렛파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더 말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 예수와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뭐꼬?’라는 질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뭐니 뭐니 해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 번 짚은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럴 의향조차 전혀 없었다고 봐야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은 아직도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혹은 선입관 안에서만 볼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시간을 기다려보세요. 강의를 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모두 느끼는 바이지만, 용어 하나하나에 대한 전이해가 없으면 강의의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됩니다.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개념을 다 설명하기 시작하면 진도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설명을 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겠다고 생각될 때는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관계만 해도 한 학기 정도는 공부해야 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회당에 와서 한 말이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 모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이 말은 도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의 나라 쪽으로 옮기는 거죠. 도덕적인 변화가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나라 이해였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해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은총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첫마디를 그걸로 시작하셨어요. 그 후로도 공생애 동안 그 기준에 따라 살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해를 어디에서 가져온 걸까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찬찬히 잘 이해해야만 성서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성서가 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놓고 있으니까요. 제 동영상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설교를 전업으로 하는 목사님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설교에서도 방향을 놓치지 않고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비평을 할 때 강조한 점은 이것입니다. 도덕적 설교는 주일 공동 예배에서 선포되어야 할 케리그마(kerygma) 설교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서 이 땅에 정의로운 세계를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타적이고 전적인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런 힘 앞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뒀야 하지요. 온갖 계획과 프로그램에 빠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고 절대적인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제주도에 가 있으면서 파도를 실컷 보았는데요. 지구 표면의 4분의 3정도가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물은 어디서 유래된 것일까요? 언젠가 물리학 DVD를 잠깐 보았는데, 지구가 불덩어리였을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수천 년 동안 비가 되어 내려왔다고 해요. 그것이 바다가 되었고요. 여기에는 복잡한 물리학적 사연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다 앞에서 우리가 물 한 바가지 더 떠내거나 분는 게 바다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언뜻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자칫 오해 받을 수 있는 말이긴 한데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전적인 힘으로 이루어 가니까요.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군요. 이런 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낱말 뜻으로야 간단하지만 그런 사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는 거지요. 어떤 선입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합니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도 옳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업적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또는 종교개혁 당시 로마가톨릭교회의 업적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믿음을 강조할 수는 있으나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혹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착각하는 거지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도피하는 거지요.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상당히 위험해 보여도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한번 끝까지 나가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컨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개연성이 있다는 말이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겠죠. 그래도 그런 말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믿음이 무의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예수님 전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으며 여전히 종말론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깊이 이해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많은 가르침들은 서로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미가 촌촌하게 쳐놓은 그물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가르침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좀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지금은 생명으로 가득하지만, 혜성 하나가 날아와 부딪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우리가 쌓아온 모든 문명들이 한순간에 강그리 무너지고 맙니다. 혜성이 와서 충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0.01%라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혜성의 작용보다 우주론적으로 더 큰 힘이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냥 냅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입 벌리고 기다려야 하느냐 하는 반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궁극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전도는 뭐 때문에 하느냐고 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영성을 무위 개념에 가까워요. 노자가 말하는 무위(無爲)인데요. 의도하지 않음으로써 못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의론이 맞아요. 우리는 다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이며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를 가만히 기다리면서 주목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물론 여기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접했습니다.

### 예수는 누군가?

앞으로 당분간 예수님에 관해 말하려고 합니다. 역사적 예수를 생각해보세요. 이 분은 누굴까요? 역사 안에 살았던 그 예수 말입니다. 우선 역사에 대해서 말할까요? 역사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영어로는 히스토리(history)라고 하죠. 독일어에는 히스토리 외에도 게쉬히테(Geschichte)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스토리는 실증적인 역사를 말하고, 게쉬히테는 신학적으로 해석된 역사, 실존적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의 반대는 초월입니다. 역사 안에 들어있는 것을 역사에 내재한다고 하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역사예요. 역사 바깥에 있는 것을 초월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의 내재와 초월이 궁극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아직 다 모릅니다. 우리는 내재 속에서만 갇혀 있어요. 이 시간, 이 지구 안에서만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초월인 동시에 내재입니다.

유럽 철학은 역사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과정이었어요.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헤겔입니다. 그는 역사 철학자였죠. 마르크스도 헤겔학파에 속합니다. 헤겔에 의하면 역사는 정반합의 변증법으로 발전해간다고 합니다. 헤겔이 말하는 역사적 진보, 발전 개념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헤겔은 결국 절대 정신이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 혹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칼 마르크스도 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헤겔이 역사를 포괄적으로 접근했다면 마르크스는 경제와 노동의 문제로 접근했죠. 하여튼 역사 철학이 유럽 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공한 판넨베르크도 역사를 신학의 중심 주제로 끌어들이셨는데요. 뭉뚱그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런 신학이나 철학, 혹은 물리학의 대가들이 말한 명제 몇 개를 설명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했는지를 따라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역사로서의 계시란 말을 듣고 우리는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간단히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주 복잡한 전 작업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판넨베르크의 역사 계시개념을 비판하면서 히틀러가 행한 악한 역사도 계시냐고 반문하는데요.

판넬베르크가 말하는 역사는 실증적인 역사, 구체적으로 일어난 역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계시가 역사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역사를 신학의 포괄적인 지평으로 보는 겁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은가를 전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수에 관해서 한 달 정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가르침을 신학 전문용어로 크리스트로지(Christology, 기독교론)라고 하고요. 이걸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강의할 겁니다. 크게 나누면 역사적 예수와 그에게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이 대목이 우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과연 누구가요? 예수가 과연 실존했던 인물인가요? 이 문제는 소위 '예수 세미나' 그룹에서 이슈화했어요. 대구성서아카데미 사이트에서도 거론되었던 『예수 퍼즐』(썸크뱅크)이라는 책이 말하듯이 예수는 신화적 존재인가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제가 예수 세미나 운동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 보다는 그게 신학의 본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사회과학 혹은 고고학이거든요. 신학이 아니에요. 성서를 사회과학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정말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진수는 다 놓치고 변죽만 울리게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극단인 거죠. 보수주의적 입장의 신자들이 성서를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해석하고 자기 합리화에 이용 하는 것처럼, 예수 세미나에 속한 사람들도 성서가 말하는 핵심이 아니라 주변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마는 경향이 큼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면 동백꽃에 대한 시(詩) 한 편이 있다고 해요. 시인은 동백꽃에 여러 의미를 담아 시를 썼겠죠. 그럼 그 시를 시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 시에 나오는 동백꽃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만 자꾸 지적하는 건 무의미한 겁니다. 시인이 동백꽃에 대해 잘 몰라도 동백꽃과 교감한 영적 생명의 리얼리티를 전할 수 있잖아요. 시를 산문이나 과학보고서로 읽는 건 우스운 일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한다고 할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제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빈약하죠.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빈약하지도 않습니다. 2천 년 전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살펴 볼 때 예수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진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에 대한 정보가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역사적으로 복원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아프리카에서 의료선교로 평생을 바쳐 20세기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슈바이처(A. Schweitzer)

박사가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이미 그 기초를 다져놓았습니다. 그분은 19세기에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전의 권위적인 교회나 신학의 형태에서 벗어난 합리적이고 계몽적이며 이성적인 신학적 흐름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흐름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계몽 이전의 시대, 즉 군주가 모든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하던 중세 시대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주의라고 하면 죽일 놈처럼 쳐다보죠. 자유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문화개신교주의(Kulturprotestantismus)라고도 합니다. 이 시대적 흐름에서 로마가톨릭은 제외되었어요. 로마는 교황이 장악했기 때문이죠. 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학자들의 공헌이 아주 컸습니다. 문화개신교주의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은 교회가 아니라 문화, 즉 인간, 이성, 계몽, 종교성 등에 중점을 두었죠. 그래서 이 때 종교학이 발전합니다. 술라이어마허가 대표적인데요. 그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를 문화의 현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위험해 보이죠. 그러나 이들의 연구로 인해 기독교가 그 자신을 방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전통만 고수하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번역기간을 거친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 기독교가 아프고 열도 났지만, 그걸 통해서 20세기에 들어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의 공헌 중의 하나는 성서에 대한 역사비평을 철저하게 다루었다는 겁니다. 역사비평이라는 말은 성서를 역사적 문서와 똑같이 다루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서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던 것에서 태도가 바뀐 거죠. 헬라 철학의 여러 문서처럼, 그리고 고대 동양의 여러 문서들처럼 성서도 그런 문서들 중의 하나로 보고 분석해냈어요. 지금도 그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게 역사비평입니다. 어떻게 성서를 하나의 문서로 다루느냐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前)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형성 과정에서 역사적 사건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역사 내재와 초월이 함께 있는데, 성서에 자꾸 초월적인 부분만 있다고 보면 안 되잖아요. 한국 개신교 신자들에게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설화나 신화라고 하냐고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서 텍스트에는 분명히 고대인들의 신화적 표현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신화란 아무 근거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문학적 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고대인들이 어떤 근원적인 사실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신화적 표현이 아주 보편적이고 당연한 글쓰기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

다. 그걸 인정하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일반 평신도들만이 아니라 신학자들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수 세미나> 쪽의 얘기를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논의와 주장들은 이미 신학계에서 다 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비평 과정에서 다루어진 것들 중에 아주 작은 것들을 가져와서 침소봉대해서 새로운 것처럼 말하니까, 옆에서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현대신학을 잘 모르는 평신도들이나 나름대로 합리성을 추구하던 사람들에게는 뭔가 대단히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요. 이걸 선동이지 신학이 아니예요.

어쨌든 19세기의 역사비평을 잘 받아들였던 앨버트 슈바이처의 결론은 신약성서에서 역사적 예수를 복원해 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서에서 역사적 예수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해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서의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성서가 담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니까요. 물론 성서는 아주 역사적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서는 역사 내재입니다.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역사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신앙고백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거죠.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예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성서 안에는 분명히 예수에 대한 역사적 사건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손가락이에요. 바르트 식으로 설명하자면 그릇인데요. 성서라는 그릇 안에 뭔가가 담겨 있죠. 그릇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세미나 쪽 사람들은 그릇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릇에 담겨 있는 게 뭔지를 알면 충분하잖아요. 기독교 비판 앞에서 여러분은 겁먹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게 많아서 기독교 신앙이 근본적으로 위기에 처한 게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티기독교 등에서 제기하는 비판에는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잘못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성서 기자들과 2천 년 기독교 역사에서 활동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진리와 직면하고 그것을 해명해내려고 치열하게 투쟁했는가를 알고 우리도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판단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논의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이것은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안티기독교가 말하는 것에서는 생산적인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들어가지 말고 지나갑시다. 제가 말하려는 핵심은 기독교의 중심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의 계시, 생명 등이 어떻게 드러났으며 어떻게 전승되었는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에 집중하면 충분합니다. 전달되었나요? 공연한 것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좌고우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 마리아의 동정녀 문제

역사적 예수 문제를 언급할 때 첫 번째로 부딪치는 문제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글에서도 따로 길게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하세요. 여기서 이걸로 질질 끌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처녀 마리아라는 문제에만 집중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에 접근하면서 성서를 보는 눈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 할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선생을 통해서 저런 방식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최고의 선생을 두었다고 할 수 있죠. 처녀 마리아의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예수가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으니 얼마나 대단하냐고 합니다. 예수는 출생부터가 초자연적이니까 정말 메시아이지 않느냐고요.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니 기독교가 얼마나 무식하냐고 합니다. 양쪽 다 극단적인 태도인데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는 이야기는 물론 일종의 전승입니다. 초기 기독교 안에서 형성된 것인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형성되어 있던 건 아닙니다. 모든 교리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없던 것이, 혹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역사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 전승은 초기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에서 시작된 신앙적 표현입니다. 천사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전승이구요. 마태복음은 비슷한 이야기를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한 천사 이야기도 심상치가 않아요. 천사가 무엇인가요? 좀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는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었다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생략하지 않았을 겁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마리아 동정녀 탄생에 대한 전승은 복음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면서 요청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출생도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동정녀 탄생에서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사실에 있는 거지요.

참고적으로 성탄절 전승도 좀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톨릭과 개신교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정교회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성탄절은 역사가 많이 흐른 다음에 교회 전통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처음에는 성탄절이 없었죠. 역사 안에 있던 교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교회의 많은 전통, 교리 등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고, 공허하고, 작위적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가 어느 한 순간에 똑딱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마치 물리학이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 것과 비슷합니다.

동정녀 탄생의 전승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인간의 몸이 중요하지요. 몸이라고 하면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사르크스’이고 다른 하나는 ‘소마’예요. 헬라 사람들은 단어를 세분화했습니다. 육체, 물질로서의 몸과 약간 다른 뜻으로의 몸으로 구분했어요. 그런 구분이 신약성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바울의 몸 이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부활과 연관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는 것까지 살펴보려면 공부할 게 참 많죠. 부활이라는 것이 이 헬라어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다시 주제로 돌아가겠어요. 동정녀 탄생에서 핵심은 몸이고요. 동정녀라는 것은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동정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번역한 판넬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을 참고하세요. 이 책은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내용도 좋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모은 겁니다. 니케아 신조와도 거의 비슷하고요. 기독교 신앙의 모든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판넬베르크에 따르면 동정녀 출생의 핵심은 예수가 창조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창조적인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말하나요? 성령이죠.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종말의 영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성령론에 해당하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된 동시에 하나하나가 다 깊이가 있죠. 각각의 깊이와 연관성을 기독교 지도자들이 잘 알아야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왜곡하지 않고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론도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크게 오해되는지 모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끌어들이죠. 불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 울고 나서는 성령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그건 심리적인 자기 연민입니다. 심리적 작용과 성령 경험은 달라요. 성령론에 대한 깊은 공부를 통해서 성령과 진리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고, 또 진리를 교회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열린 상태에서 보편적 진리 논쟁과 함께 우리가 경쟁하고 있다는 것



을 알면, 우리가 불 받으라는 식의 성령론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기독교 신앙을 주변 사람에게 변증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독단에 빠지거나 자기 망상에 빠지겠죠.

다시 돌아와서요. 동정녀 마리아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 무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호는 인자, 메시아,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등등, 여럿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지역에 따라서 호칭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런 칭호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며 따르던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 대한 구성적 윤색과 설명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이해해야 한다는 건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헬라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정녀 전승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변증을 위한 윤색이었어요.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참 이상하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종속적인 것이라니, 그게 정말 맞나 하고 반문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허물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주입식으로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세우게 되면, 오히려 더 쉽게 허물어져요. 기독교에 초월적이거나 초자연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성서와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동정녀 출생이 성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라면 그것을 어떤 경우에도 붙들어야죠.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 핵심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핵심이 아닌 것을 붙들고 논쟁을 해봤자 소모적일 뿐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영지주의자들과는 달리 예수의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도 마리아의 몸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제05강

###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는 나이가 들면서 더 실감하게 됩니다. 달력을 열 두 번만 뜯어 내면 1년이 다 가죠. 날짜를 하나하나 잘게 보면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열두 번 만에 1년이 간다고 생각하니 많아 보이지 않네요. 1년이 끝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1년도 한 꺼번에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중심으로 시간을 계산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들은 태양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태양계 안에서만 이런 시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태양계 너머에서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말이겠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시간이 얼마나 비밀스럽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죠. 모든 일들이 참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남기는 업적들도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가능하면 힘을 빼고 살아야죠. 제가 또 설교조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절실히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달력을 한 장 넘기며 느끼는 상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설날에도 강의를 하냐고 물더군요. 다음 주가 설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가족 친지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사이버 강의실에 오지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정식 수업은 하지 않고, 시간 있는 사람만 따로 강의실을 열어서 특강을 하겠습니다. 수업은 나가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할 건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시다. 실제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 혹은 하나님 나라나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선택은 여러 가지로 열려 있습니다. 여기저기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절기 때 더 쓸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강의실을 열어놓고 특별한 강의를 하겠어요. 양쪽 다 불만 없죠?

#### 인간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동

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적이었다는 것, 즉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한 변증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서 핵심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여자의 몸을 통해 인간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인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하는 논의는 초기 기독교 때부터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아마 종말에나 가능하겠죠. 어떻게 한 인격체 안에 신성과 일성이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게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삼위일체론을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동정녀 출생이 예수님의 육체성, 즉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간 예수라는 부분을 짚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틴어로 표현하면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입니다. 참된 인간이며 참된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익숙하기는 하지만, 이 말의 실체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예수님은 반신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이며 온전한 인간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인간이며 전체적으로 신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힘들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 문제는 다른 것과는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는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incarnation)했는가, 또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양자(adoption)가 되었는가 하는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것이지만 모두 정통 기독교 교리입니다. 양자론은 계속 논란이 되기는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와 인간이 되었다는 교리와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교리는 상충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정체의 신비를 해명하는데 둘 다 적용됩니다. 참된 인간이며 참된 하나님이라는 이 명제에는 예수의 정체성, 성육신론과 양자론 등 주변의 많은 것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보통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말로는 참된 하나님이자 참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거의 신성화되어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다는 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는 인간을 구원할 자인데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니 신인 것도 옳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인 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기독교 정통 교리로 보자면 예수는 그것 뿐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자꾸 챗바퀴 도는 듯해서 미안합니다. 좀 까

다로운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신적인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인식론적으로도 그래요. 예수님을 인간적인 부분을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반만 아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해하는 신개념의 반 토막에 불과하다는 거죠. 기독교의 신 이해는 따지고 보면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 근원적인 차이가 나요. 유대교에서는 유일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던 인간 예수와 동일시할 수 있냐고 하면서 불가능하게 생각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극복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떤 경험을 했기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인식의 비약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천천히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잡자기 되지는 않습니다. 신비이기 때문이죠. 제가 신비라고 말하면 막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몇 번 설명했습니다. 막연하다거나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보통 동양에서도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이 있지요. 말과 언어로 담아 낼 수 없는 어떤 경험을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그분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한 신학자가 말한 표현을 빌리면 '선포한 자가 선포된 내용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선포된 내용이 선포한 자와 하나가 되는 그 계기에 어떠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경험이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를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식으로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조금 오해할 수도 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의 인식이 진리에 이르렀다기보다는 단지 생각이 좀 어른스러워졌다는 뜻이냐고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철이 들면서 뭔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뜻은 아닙니다. 표현이 좀 미묘하긴 한데요. 신학은 좀 그렇습니다. 신학은 그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집어내서 사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사건이나 흐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사상이 들어오기도 하고 초기 기독교의 독특한 경험 이 들어가기도 하며 헬라의 영향도 받는 등, 그 외의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지요. 흡사 장마가 졌을 때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물들이 들어와 큰 물줄기를 이루듯이 말이죠. 기독교는 그런 흐름 속에서 배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퍼즐』 류의 책들은 초기 기독교가 전혀 없었던 이야기들을 픽션으로만 들어낸 것처럼 주장합니다. 예수 이야기는 참된 예수가 아니라 신화에 불과하며 바울이 꾸며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이죠. 교회 바깥에서 단순히 현상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도록 내버려둬야지, 그걸 가지고 씨름하면 힘만 들어요. 그런 이들과 종교 논쟁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고유한 신앙 경험인데 그걸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이야 계속해야겠지만, 그게 논쟁이 되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논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 논쟁을 해야죠. 신앙도 없이 기독교를 종교학적으로 혹은 현상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과 기독교의 고유한 경험을 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 사람한테 제삼자가 너 그 사람 잘못 본 거라고 말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 퍼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요? 기독교 신앙은 고유한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해가 됩니다. 바르트가 신학을 교회의 기능이라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부활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추종하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자기들끼리만 비밀스럽게 통한다는 말이냐고 질문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세계를 향해 말하려면 신학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신학은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신학은 교회 밖의 모든 세계와 진리론적으로 열려 있어요. 진리는 독단과는 좀 다릅니다. 진리가 뭘까요. 기독교가 도그마(교리)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음악가들의 음악 경험이나 시인들의 언어 경험처럼 기독교는 분명히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하고 배타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보면 보편적이거든요. 따라서 어떤 것이 진리로서 옳은가 그른가를 논쟁한다면, 이런 진리론의 차원에서 대화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예수 퍼즐』과는 논쟁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논쟁이 가능합니다. 고유한 신학적 영성으로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했던 부활 등의 신앙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비판했어요. 프로이트나 니체나 포이에르바흐 등이 대표적이죠. 기독교 안에 비판 받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느 종교에나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 또는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죠. 어떤 공동체든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 종교 현상적인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기독교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없다고, 증류수처럼 아주 순수한 것만 있다고 말할 수 없지요. 다만 그렇게 본질적이지 못한 요소들이 있어도 그 중심에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진리와 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

니다.

교회 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쪽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온전한 인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으로 이해해야 해요. 저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과연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어디까지는 인간이었고 그 이상은 인간이 아니었을 거라는 어떤 선이 있었을까요? 육체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았으니까 화장실도 가야하고,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자에게도 끌리는 기분이 있었을 텐데요. 정말 예수님에게 이성적인 끌림이 있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은 별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인간이었어요. 어느 한부분이라도 인간적이지 않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 예수에서 두 가지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하나는 동정녀 탄생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성입니다. 이제 역사적 예수를 이해하는데 고려해야 할 항목들이니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일일이 다 말할 필요는 없는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짚고 있는 중입니다.

강의 중간에 어떤 분이 예수님의 인간성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예수님의 인간성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죄성도 인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네요.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풀자면 이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죄, 칭의, 창조, 하나님 나라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겹겹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풀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죄론에 대해 공식처럼 박혀 있는 것이 있어요. 원죄(原罪)와 자범죄(自犯罪)가 있다고 하죠. 원죄는 어떤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자범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런 말들이 근본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죄 문제를 이야기했는지 근원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아담 때문에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내 책임이 아니라 결국 아담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기독교에 원래부터 원죄 개념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문제예요. 원죄 개념은 주로 어거스틴 때부터 나온 건데요. 어거스틴과 서로 대적되는 신학도 있었죠. 누구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펠라기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죄를 말하기는 하지만

원죄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들에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온전한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만 가지고 대답하기는 힘듭니다. 여기에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전이해가 있어야 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 예수의 출가

예수님의 공생애 중 우리가 다음으로 짚어야 할 것이 출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서른 살 즈음에 출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3:23절에 근거하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서른 살인지는 모릅니다. 이제철 목사님은 어느 설교에서 예수님이 사십대 중반에 출가를 했다고 말하던데, 복음서에 나오는 ‘오십 세’라는 구절(요 8:57)을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서 기자들은 공생애 이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자기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았겠쎄. 목수입니다. 예수님이 서른 살 즈음 되었다고 하면 나이가 많은 건데요. 장가를 가도 몇 번은 갔을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성서에 명시적으로 나오나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서른까지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자 동생들이 시집을 가고 남자 동생들도 거의 자립을 했을 때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맡기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났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출가하기 전에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평범한 젊은이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고향에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도, 동네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볼 때, 아마도 예수님은 출가하기 전에 비범한 메시아적 특성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출가를 했을까요?

지금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무엇보다 기독교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즉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인문학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 쪽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들어

가는 중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평소 질문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의 가르침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해 불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출가하기 전에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본인 스스로 메시아라고 생각했을까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가 한두 군데 나오기는 합니다. 열두 살 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 신앙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서른 살 즈음에 집안과의 관계를 끊고 출가합니다. 그 때 예수님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 혹은 충격이 있었는지는 성서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 했든지, 내가 사명을 받아서 어떻게 했든지 하는 이야기가 거의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출가한 뒤에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금식하면서 유혹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예언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뭔가를 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가 사건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아버지에게서 듣고 본 것을 전한다는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비해 예수님을 좀 더 변증하는 쪽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관복음만 본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에게서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말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종교 창시자들의 예언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합니다.

## 세례 요한과 예수

예수님의 출가 문제와 세례 요한과는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사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은 먼저 출가한 세례 요한에게서 많은 영적인 자극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 출가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길을 예비할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초 상식으로 잘 알고 있을 테니 길게 끌지 맙시다.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로 인해 죽게 되는데요. 헤로디아가 헤롯과 재혼을 했습니다. 시숙과 결혼을 한 거죠. 그걸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혔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을 때 뭐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헤롯의 말에 그 딸이 세례 요한의 목



을 요구합니다. 헤로다이가 뒤에서 연출한 거지요. 그 당시 최고의 영적 거인이 이런 여인의 농락으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역사의 비극입니다.

세레 요한은 그 당시 에세네파 공동체의 일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이 있어요. 에세네파는 상당히 금욕적이고 엄격한 도덕성을 강조했죠. 이 에세네파를 콤란 공동체라고도 하는데요. 콤란 공동체는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던 모든 체제와 질서를 부정하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자기들만의 순수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남긴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대교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2년 동안의 시험을 거친 뒤에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대교 안에 있었던 극단적인 금욕주의적 공동체였어요. 바리새파는 그들과는 또 다른 유대 공동체였어요. 상당히 많은 분파들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가톨릭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도 여러 갈래가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 콤란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빛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어둠의 자식들을 증오해야 할 임무를 띠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 보았던 거죠. 선과 악의 이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영지주의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으니까요. 1947년에 사해 동굴에서 발견된 콤란 문서들에는 금욕적인 삶을 주제로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세레 요한의 삶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타이센이라는 독일 학자가 쓴 『갈릴래아 사람들의 그림자』(한국신학연구소)라는 책을 참고한 것입니다.

세레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한은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인가요, 아니면 더 기다릴까요.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좀 대라는 요구입니다. 그 당시에는 메시아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사이비 메시아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기대한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의 사건도 그 큰 운동 속에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세레 요한이 그걸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본인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렇게 대답했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진술들이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요.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 관과 예수님이 생각하던 메시아관이 달라서 그랬을까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겠죠. 이 문제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옳은가,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이

런 문제로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리 답변을 해야겠군요. 저는 예수님이 불확실하다거나 자신의 메시아성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오랜 과정을 거쳐 일어난 큰 구원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속 시원하게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으니깐 불안한 생각들 수도 있을 텐데요.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패 같은 증거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행동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할 만한 메시아로서의 어떤 가능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 큰 덩어리가 있어요. 그 안에 수많은 사연들이 담겨있고요. 그 사연을 하나하나 딱딱 끊어서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설명이 빙빙 도는 것 같네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던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연들을 거쳐 참된 하나님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딱 집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오실 그 이가 누구냐는 질문에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았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가서 심한 꼴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했어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최소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분이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메시아 운동의 흐름 속에 있긴 했지만 그 흐름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분이었고, 어떤 사건에 휩싸인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답합니다.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말하라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좀 더 전문적으로 알고 싶으면 책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여러모로 통하는 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한의 선포와 예수의 선포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두 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은 맞지만, 내용이 달랐던 거죠. 세례 요한은 금욕적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할 정도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경건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금식을 해야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요. 예수님이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생애 초반에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보도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습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교의 내용도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의 구체적인 도덕적 죄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덮어주고 용서해주라고 했어요. 요한은 심판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

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회개에 사용한 ‘메타노이아’라는 말의 의미는 세례요한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에게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존재론적 변화입니다. 존재라고 할 때 이것은 행위와 연관됩니다. 존재와 행위의 문제인 거죠. 그게 뭘까요? 존재론적인 변화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달성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어떤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행위나 도덕적 변화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일단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말했어요. 그러나 요한이 선포한 회개는 실제적인 삶에서 정의로워야 한다는 윤리적 변화를 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혼동을 합니다. 교양 있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변화해서 도덕적인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게 요한 식의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죄인이든 세리든 간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자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예, 변화해야겠죠. 그런데 또 그 변화가 뭐냐는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도덕적 변화보다는 더 궁극적인 존재의 변화를 선포했던 겁니다. 도덕적인 변화는 우리가 노력하면 돼요. 당근과 채찍으로 자극을 주면 사람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 존재의 변화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도덕적 변화를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더 근본적으로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사랑으로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 은총과 선물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것과는 상관없이 임해요. 생명의 나라, 자유와 평화, 종말의 나라가 임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이게 헛갈리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핵심을 잡은 건 아니죠.

## 제06강

### 예수는 왜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뭐꼬’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좀 거창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도 합니다. 이 제목에는 기독교가 뭔지 알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있고, 과연 우리가 기독교를 얼마나 알겠냐는 뜻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 질문할 수 있을 뿐이지 모든 대답을 찾아낼 수는 없다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질문 속에 대답도 있고요. 질문과 대답의 관계는 변증법적인 것 같습니다. 뭘 알아야 질문하고, 질문을 정확하게 던져야 거기서 대답을 찾을 수 있겠죠.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대답에 가까이 간 겁니다. ‘기독교가 뭐꼬’라는 말에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알아내서 그것을 소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 이것을 질문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역사적 예수

우리는 지금 크게 ‘역사적 예수’라는 관점에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앞의 4강에서 다룬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역사적 인물이었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연인이예요. 자연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인가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변증해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연인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자연인, 유대의 한 남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일반인, 그 사람이 어떻게 특별한 기능을 가진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인가 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대라고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끊임없이 그 질문을 받았을 것이고 지난 2천 년 동안에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하는 질문을 당연한 거 아니냐고 대답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우리끼리만 나누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믿고 사는 것으로 그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공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촌부들처럼 살면 되죠.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살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

가 이렇게 소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공부를 하고, 또 신학이 대학교의 수준에서 다뤄지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끼리만 통하는 비의적(祕儀的)인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계 전체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적 실존에서도 엄중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본회퍼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의 본질은 비종교적입니다. 비종교화 개념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일단 낱말 뜻으로만 본다면 기독교는 일반적인 종교와 다르다는 겁니다. 종교는 죽음에 두려워서 혹은 외로워서 어떤 절대자를 찾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나 표면적으로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그와 다릅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말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가 오겠지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나약함이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절대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역사적 인물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이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긴급하고 엄중한 신앙적 질문이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쉽게 피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포장하고 넘어가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뭘 그렇게 따지나 믿으면 되는 거지, 은혜로 다 넘어가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해명해 나갈 수 있다면, 자기 설득이 가능하다면, 혹은 설득은 되지 않더라도 은혜라는 하나의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은혜는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중심주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엄중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교회가 뭐냐, 성만찬이 뭐냐는 질문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사실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엄중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 회피하고 살아요. 매일 그렇게 고민에 휩싸여 살 수 있느냐, 좀 편안하게 소풍 나온 것처럼 사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우리가 만날 심각하게 머리 싸매고 살자는 게 아니에요. 늘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늘 노는 식으로도 살 수는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바탕에 놓을 것은 놓아두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삶을 윤희로 받아들이면서 존재

를 가볍게 할 수 있겠죠. 자기를 무겁게 하지 않고 가볍게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을 가볍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 예수를 생각하면서 하나의 화두와 같이 던져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왜 그리스도인가? 그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증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좀 난감한데요. 증거야 성서에 있지 않은가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약성서가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그것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약성서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증언이니깐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성서 자체가 어떤 실증적인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이 경험한 예수를 기록한 거잖아요. 따라서 성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히 못 박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성서는 증거가 아니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혹자는 믿음이 증거라고도 말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납득이 되어야 믿을 게 아닙니까? 또 뭐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예수 사건의 유일회성

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유일회적이다.’ 이런 말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메시아적 징표들과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단 한번밖에 없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유일회적인 것인 것이라는 뜻이죠. 예수에게 일어났던 사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많은 사건과 일어난 현상들, 그 모든 것들은 반복된 것이 아니라 딱 한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개념이라고 해도 꼼꼼히 이해하기만 하면 쉬워요. 이해하지 못하고 낱말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번뿐이라는 것은 반복이 안 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 말은 곧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하는 것들로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밖에 없었던 것인데 어떻게 그 증거를 댈 수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 지구에서 벌어지는 천체물리화학적 현상에 빗대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구라는 것은 우주에서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자연과학

혹은 법칙이라고 말하고요. 열역학 1법칙, 2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불가역의 원리라든지 질량불변의 법칙 같은 거 말이에요. 물리적인 사실과 수학공식들, 원소의 관계 등은 어느 정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전체의 현상, 지구 전체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사건은 어떤 과학적 가설로도 완전하게 해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뿐이니까요. 과학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은 실험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과학적인 근거를 갖게 되거든요. 약도 새로 개발되면 임상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시판돼서 쓸 수 있는 것처럼이요. 화학, 물리, 생물학, 유전공학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어떤 규칙을 찾아낼 수 있지만 지구 전체에 대해서는 찾아낼 수 없어요.

기상예보를 예로 들어볼까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일주일 후까지는 어느 정도 일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정확하지는 않죠. 게릴라성 폭우는 기상대가 내일 날씨라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의외의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일주일 이후를 내다보기는 힘들다고 해요. 대충 말할 수 있을 뿐이죠. 일 년 후 오늘의 날씨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소리를 듣더라도 일정한 주파수 안에 있는 것만 듣습니다. 높이 올라가거나 낮은 것은 듣지 못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구 안에서 경험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경험하는 거죠. 그 범주 너머에 있거나 다른 차원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몰라요. 그 모르는 것들이 다 이 지구 안에 연관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 세계를 해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현미경이 발달했다고 해도 더 무한하게 작아지는 세계를 볼 수는 없고, 아무리 망원경이 발달했다고 해도 무한하게 먼 세계를 볼 수는 없지요. 지금 우리가 망원경으로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수십만 년 전, 수억 년 전에 있었던 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없는 별이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 사실은 우주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구 안에서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요술 덩어리인데,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의 규칙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것을 파악해가고 있는 거죠. 물리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예수의 메시아 사건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건도 일회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 전체를 이해하려면 지구 바깥에서 차원을 달리하여 봐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가 끝나는 종말에 가서야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변 인용했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금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말하잖아요? 아주 옛날 사람인데 사물에 대한 직관력이 참 놀랍죠? 지금 물리화적인 관점으로 봐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과 같아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세계 안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이 세계 안에서 세계 자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동물원에 갇힌 원숭이가 정글을 알지 못하는 것과 비슷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 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가서야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기독교가 별로 확실한 종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또는 그런 대답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대목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예수를 믿으니깐 사람이 변화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기보다 증거가 되지 않아요. 예수만 믿어야 사람이 변화 되나요? 절에 나가도 사람이 변화되고요. 어머니 아버지의 훈계로도 변화가 돼요. 변화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보라, 성령이 활동하는 증거가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죠. 교회만 부흥합니까? 신천지도 부흥하거든요. 이단들이 부흥을 더 잘해요.

### 예수 메시아성의 종말론적 성격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변증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지난 2천년 동안 일어났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도 완벽한 증명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증명할 수 없어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증명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사건 중에서 부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요소인데 그것은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부활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 그게 무슨 말이나, 우리가 다시 사는 거 아니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부활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자꾸만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경험 안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해요. 우리의 생각을 투사시켜서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똑같은 반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나지 않는 논쟁에 휘말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례



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세계가 다 끝나봐야 이 세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때 가서야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즉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걸 어떻게 아냐,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자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거나, 또는 그런 건 지나치게 내세적 경향이 강한 거 아니냐, 하는 편견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런 트집 잡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런 방식의 논쟁은 소모적이기 때문에 무의미하거든요. 소위 안티 기독교와의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단에 빠져서도 안 되고, 기독교의 진리를 증명하려고 최선을 노력도 해야 하지만, 그런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이 바른 길이다, 이것만 밝히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논쟁을 한다면 또 다른 똑같은 반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기독교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이걸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유일회적인 사건이었기에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해나갈 뿐입니다. 증명과 변증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일회성 개념을 단지 낱말로만 생각하는데 머물면 곤란하구요. 그 개념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신앙 항목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종말에 가서 다 드러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을 변증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나 생물학 등이 부분적인 범주 안에서 어떤 사실들을 밝혀 나가는 것처럼, 우주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해명하고 증명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는 부분적인 겁니다. 이런 것으로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이해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설명하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실존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앞에는 어떤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건 은총이 아닐는지요.

## 예수의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나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의 가르침과 행위에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선포와 행위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합니다. 보통은 바실레이아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뒤에 ‘투 테우’까지 붙여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가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행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자꾸 예수님의 사건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엇이 일어난 건지 알아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하더라도 신대원이나 신학석사과정의 한 학기 주제로 공부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선포한 말이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일치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전적이고, 총체적이고, 실제적인 이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협소한 차원으로만 이해를 하죠. 예수 믿고 가게 되는 천당 정도로 말입니다. 이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신앙이 기독교 안에 분명히 담겨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죽음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천당과 일치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궐이나 호화 맨션쯤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많은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표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같은 표현들이 나오죠. 묵시 문학에 나오는 이런 말들이 뭐냐 하는 데는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새로운 세계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부분에서 연결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온다는 점에서는 연관이 됩니다. 유대인의 역사 이해라고 할 수 있는 묵시 문학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그들에게는 그 세계가 지금의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이원론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무조건 악하고 타락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망해야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제국, 특히 바벨론에 의해서 끔찍한 고통을 받았어

요. 기원전 587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지도급 인사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 희망이 없었거든요. 새로운 세상(에온)은 하나님이 지배할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세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종말론,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교의 묵시 문학처럼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이 바탕에 깔려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과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구분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전통 기독교는 이 땅을 그렇게 악한 세상으로 보지 않아요. 지난날 이 세상을 타락한 역사로 보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원론적 차원에서 세상을 악하게 보는 유대교의 묵시사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있는 삶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도 땅에 있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했구요. 예수님이 생각한, 예수님이 선포한, 예수님의 행위 안에 들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이 땅의 나라와 어느 정도로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딱 끊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공부가 더 필요합니다. 신학석사 논문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이를 알기 위해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연구해야겠지요.

요한계시록에는 공간적인 차원의 천당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묘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묵회 현장에서는 그런 것에 근거해서 교회에 충성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집에 들어가 황금 면류관을 쓴다고 가르칩니다. 하늘나라에는 상급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개털 모자라는 속설까지 나올 정도죠. 그 동기만은 그렇게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는 점에서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 깊은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깊이 생각하라고 강요하겠어요? 그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지도자들이나 지성적인 기독교인 혹은 역사를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가서 잘 살겠다는 그런 차원에 머물지 않고 역사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또 한 개인이 시민으로서 자기의 호구지책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좁은 의미로 축소시키지 말고 더 심층적인 차원으로 끌고 나가야 합니다.

## 소유와 존재 개념

이제 천당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서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든 천당이든 뭐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둘이 똑같이 사용되니까요.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라고 여러 번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입니다. 소유와 존재가 뭐냐? 여러 번 나온 이야기인데요. 경우에 따라 조금씩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소유라고 하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의미합니다.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거의가 소유죠.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연필은 소유하는 거잖아요. 내 손으로 다루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걸 존재론적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개념은 아마 6개월의 강의가 끝날 때까지 여러 번 반복되겠지요.

존재 개념은 신학 뿐 아니라 철학이나 인문학과도 연관되는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이 넓어지는 게 공부예요. 기독교 신앙을 정보의 차원에서 많이 아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요. 그보다는 그 개념 안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어떤 학자의 책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있고 자기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걸 경험해 봤나요? 거기에서 창조적인 학문, 예술, 신학, 신앙이 나옵니다. 창조적으로 되는 거예요. 루이스, 나우웬 같은 영성가들을 비롯해서 제가 전공한 판넬베르크나, 용엘 같은 학자들은 그 전에 많은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 세계가 존재론적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존재론의 세계는 하나님이니깐요. 그것은 닫히지가 않죠. 우리가 이용해서 써먹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스스로 운행하는 어떤 힘입니다. 하나님이 무소불위하고 전지전능하다는 말들은 사실 여기에 다 연관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런 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빨리 포착해야 합니다.

소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천국에는 집이 있어야 하고 먹을 게 많아야 하고 멋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시설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만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정도라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런 거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나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게 계속 반복되면 또 지루한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원해요. 아무리 귀한 것도 소유해버리면 일종의 매너리즘이라 할까요? 그냥 거기에 떨어져버립니다. 귀부인들이 귀한 보석을 손에 끼고 목에 차면서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남이 봐주니까 우쭐한 거죠. 혼자 거울보고 히죽 히죽 웃고 지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일단 소유와 도구의 대상이 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없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좀 웃기는 일이지. 그건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멉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들을 때 그 소리는 존재론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CD를 샀다고 해서 음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들을 귀와 음악과 존재론적으로 일치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 체제나 운동이나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체제나 질서가 아니라 변화와 운동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다 변화와 운동이에요. 사실은 변화와 운동이라는 말로도 다 답아낼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성격을 이야기할 뿐이지.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답아낼 수가 없습니다. 딱 움켜 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조직할 수도 있고 해체할 수도 있는 도구예요. 체제를 만들고 그 안에 온갖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으로도 교회는 가능합니다. 물론 보이는 교회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거죠. 교회는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손가락 자체가 달은 아니니까요. 교회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꾸 나를 보라고 하면서 달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전혀 모르는 데서 나오는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좋은 뜻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소유의 대상일 겁니다. 교회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교회 확장이 무의미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궁극적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확장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존재론적 통치인데, 우리가 답아낼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인데, 보이는 교회가 작아진다고 해서 그 나라가 축소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유 속으로 좀 들어가 보세요. 전혀 새로운 세계의 희망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고 거기에서 진리의 영인 성령과의 소통이 더 깊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절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허물어 삼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했으니까요. 물론 다른 해석학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안식일마저도 그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에 사로잡힌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로잡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귀신이 나갔다는지, 병이 나갔다는지, 죄의 용서를 선포한다는지, 그런 것들을 말한 겁니다. 예수에게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질문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됩니다. 성서 기자, 복음서 기자들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이야기들을 끌어왔어요. 끌어왔다기보다는 그 관점으로 예수의 공생애 동안 일어난 일들을 재해석한 거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됩니다. 아까 제가 경계선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아주 미묘합니다. 똑같은 현상도 경계선 밖에 있으면 그냥 넘어가게 되지만,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럼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계속 모르고 있다가 들어와야만 안다는 말인가, 왜 어떤 사람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인가 하고 물을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하기 힘듭니다.

## 하나님 나라와 팔복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대표적이라 할 팔복과 연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는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여덟 번째도 천국이 주제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팔복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판넬베르크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예수가 복을 선포한 이들은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희망을 걸 수 없는 이를 가리킨다.” 좀 놀랍지요? 예수님은 ‘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 어떻게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의를 위해 핍박 받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에는 희망을 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노숙자들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제3세계의 민중들을 가리킬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희망을 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부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른 데 희망을 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만을 희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팔복의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정치와 유대의 종교가 제시하는 가치를 향한 거부의 몸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 즉 로마의 평화를 이데올로기로 하는데요. 로마는 로마의 평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유대의 종교는 업적주의거든요. 사실 로마와 유대교가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형식만 다르지 내용은 같아요. 이런 것에 반동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 그쪽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 이것이 '메타노이아', 회심입니다. 전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용어마저도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심한다고 해서 모두 옳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옛날에 잘못된 걸 모두 회개한다고 해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할 만한 일들에 모든 무게를 두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일단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비평을 할 때 도덕적인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의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에서, 특별히 케리그마에 천착해야 될 주일 공동예배 설교에서 대학교의 교양학부 교수들이 할 만한 이야기나 결혼식 주례자들이 할 만한 말들을 뭐하려고 하는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해야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하는지, 신약은 뭐라고 하는지, 교회사에서도 어거스틴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20세기 초반에 스위스에서 있었던 종교사회주의는 하나님 나라를 핵심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 종교사회주의나 불세비키 혁명이 말하는 평등한 세계나,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가 말하는 미래가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겠지요.

## 제자 선택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별거냐고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별게 아닐 수도 있고 별거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질문하면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을 선택했는가 하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물론 복음서에 제자 선택

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딱 열두 명을 정해서 중요한 인물들로 생각했겠는가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타당한 질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복음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한 진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실증적인 사실로 적용시키면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하여튼 제자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열둘만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70명이든 300명이든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그렇게 예수를 추종한 1세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요. 사도들이 큰 역할을 했던 못했던 간에 그 1세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예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사도들이거든요.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오해했다면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은 니케아 회의와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나온 교회의 네 가지 본질(거룩성, 단일성, 보편성, 사도성) 중의 하나입니다. 사도를 통한 신앙, 즉 그 간접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내용이 옳은가 그른가는 둘째 치고, 그 사도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사도들이 기록한 게 아닌 다른 문서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변죽을 울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제가 미국 신학의 한 흐름인 '예수 세미나'에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제1문서들보다도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비록 사도들이 예수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뭔가를 사도들이 쓴 문서 안에서 찾아야지요. 그렇다면 성서가 제일 텍스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온 신학적 문서들은 예수를 바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헌들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을 요약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신앙 고백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의 여러 신앙 고백들은 전승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마 16:16)도 베드로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초대교회 전체의 신앙 고백에 가깝습니다. 로마교회의 세례문답,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4세기 로마교회의 고백문에는 예수가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시고 지옥에 내려갔다고 하는 문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이 나오나요?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음부'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는 이 말이 있을 거예요. 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만인구원론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고 해도, 그래서 설령 지옥에 갔다고 해도, 다시 거기서 예수를 통해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인구원, 즉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된다면 모순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다고 말한다면, 이건 또 코미디입니다. 이미 진리를 알았다면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 니케아 신조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셨군요. “샘터교회 예배에 사도신경이 아니라 니케아 신조를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약간 오해가 있었군요. 샘터교회에서도 평소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합니다. 다만 매달 첫 주일에 한 번씩 하는 성찬예식이 있을 경우에 니케아 신조를 고백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이게 다 중요하거든요. 내용도 비슷하고요. 『공동예배서』(한국장로교출판사)가 그것을 권면하더군요. 제가 보기에 두 개 다 중요해요. 사도신경은 전 세계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거니까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니케아 신조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공동예배서가 제시해준 거죠. 개신교를 비롯해서 예전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드리는 예배가 거기에 모인 그 사람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2천 년 동안 내려온 기독교 전체의 예배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절된 게 아니라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된다는 차원에서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등 예전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샘터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만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 즉 성자들과 성도들과의 교제도 되는 거예요. 성자와 성도, 모두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이 시간 공동의 예배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예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 제07강

### 영성과 신학

#### 태양계에 대해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탁구공이 보입니까? 이걸 태양이라고 한다면 비례해서 생각할 때 지구는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좁쌀은 너무 작은 것 같고 쌀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태양은 엄청나게 크고 지구는 엄청나게 작네요. 그리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내면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태양 빛으로는 9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지구를 쌀 한 알로 축소시켜 봤을 때 1억 5천만km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태양의 지름은 지구의 109배라고 하거든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약 12m 정도 돼요. 그냥 넉넉잡고 1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쌀알 크기로 10m 떨어져 있다고 하면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지구의 지름으로 1만 2천 번을 해야 태양에 가게 되네요. 태양이 사방팔방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10m 떨어진 곳에서 지구가 받는 에너지의 양은 태양 전체가 발산하는 에너지의 몇 %가 될까요? 수천만 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지구에 오는 그 작은 부분도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지 못하죠. 굉장히 머니까요. 이게 태양이라고 생각할 때 10m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태양에 붙어 있는 행성이 '수금지화목토천해명'인데, 명왕성은 태양계 안에서 행성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넣었다 뺐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행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자격심사를 하다가 몇 년 전에 뺐다고 해요. 모르죠. 나중에 또 들어올는지요. 하여튼 지구가 10m 쯤 떨어져 있다면 천왕성이나 명왕성은 최소 100m는 떨어져 있을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100m 떨어져 있는데 태양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햇빛이 그렇게 가는데 아마 해왕성에서는 태양이 아주 작게 보일 겁니다. 우리가 다른 별을 보듯이요. 그보다야 크게 보이겠지만 작게 보일 거고 어두울 겁니다. 햇빛이 거기까지 가려면 몇 달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 태양계라는 평범한 별들의 관계도 굉장히 놀라워요. 이게 도대체 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에게서 우주에 대한 설명을 듣잖아요? 그런데 우주를 그릴 때 선생님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리는 것

같아요. 태양을 그리고 옆에 좀 떨어져서 지구도 그리는데, 그렇게 그린 그림을 보면 태양과 지구가 크기는 거리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걸 아주 실감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머릿속에 개념으로 자리를 잡는데, 태양이나 별의 이야기를 남의 말 하듯 하니까 설명을 들어도 뭔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가끔 신학대학에서도 저학년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태양과 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요. 그러면 의외의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태양은 빛을 발하고 별은 반사시킨다고요. 초등학생과 비슷하게 대답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과 우주의 관계에 대해서 최소한의 상식도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학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마도 어렸을 때 공부가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고 산만하게 정보 차원에서 흩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원소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더라고요. 선생님이 물 분자를 그릴 때 동그라미 안에 H 자가 들어간 작은 동그라미 두 개와 O 자가 들어간 작은 동그라미 한 개를 넣습니다. 학생들은 물 분자 속에 원소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어떤 원소를 그릴 때도 핵과 전자가 몇 개인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춥니다. 원소를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하죠. 모든 원소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핵도 원소라는 공간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미미한 거죠. 이걸 그렇게 비교하더라고요. 큰 고딕식 성당이 있는데 성당 안에 찬송가가 있다, 찬송가를 펼치면 콩나물 대가리 하나가 나온다, 큰 성당 안에 있는 콩나물 대가리 하나가 원소의 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딕식 건물에 비교해서 본다면, 원소의 질량, 즉 그 모든 무게를 다 갖고 있는 핵은 실제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는 모두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물리학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상식적인 건데요. 상식적인 것마저 젊은 학생들에게는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림을 그릴 때 머릿속에 확실한 개념이 있어야 아이들이 오해하지 않게 그리는데, 선생님들도 자기가 배운 대로 그리고 점을 찍으니깐요. 우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작은 원소나 분자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잘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듯하게만 알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딱딱 집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렵듯하다는 그 사실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탁구공만 한 태양의 크기와 쌀알만 한 지구의 관계를 머릿속에 어느 정도 넣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처럼요. 그 거리도 엄청나게 먼데, 우리는 매일 태양이 빛나고

있으니까 가깝게 느끼는 거죠. 태양은 우리에게 정말 생존의 절대적인 조건인데도, 남의 것처럼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살까, 혹은 친구와 어떻게 지낼까 하는 사소한 일들에 모든 영적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나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더 근원적인 토대, 우주론적인 토대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순환되는 겁니다. 내가 태양의 아들로써 실질적으로 태양 에너지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둔다면 일상에서도 우리가 기본 토대는 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해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km가 떨어져 있다는 것과 태양에서 또 하나의 태양까지 가는데 2-3광년이 걸린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먹고 사는데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알아야만 우리가 의미 있게 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우주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에 바탕이 된다면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서도 영적인 혹은 생명의 역동성을 풍부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개념을 착실하게 잡아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든 설교든 많은 경우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걸 틀림없습니다. 그 대신 뒤에 관심이 있는지 대답이 나오죠. 사람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기 연민 아니면 이웃을 향한 공감이나 연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신앙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제가 앞에서 말한 것과 연관시킨다면 우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도, 인류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오늘 주식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지에 파묻혀 삽니다. 이런 것에 몰두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효용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에 나타나는 재미있는 현상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앎수록 설교의 파급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요. 비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구요.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죠? 일단 그런 걸 들으면 골치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자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주 이야기를 모르면 어

떠나 하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신자들은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들 끼리 뭐가 되거든요. 교회에서 학생회나 성가대에 봉사하면서, 또는 목장 관리를 하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거의 실존적인 차원으로 떨어진 거죠. 이것은 오늘 제가 한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설교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이었어요. 사실 설교 시간에는 그걸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다른 배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는 가능하면 꼭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활동했는지, 그리고 그걸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중심으로 말합니다. 설교를 처음부터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예수님의 권능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뒤나미스’라고 하고, 재림이나 강림은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약간 옆으로 나가는 질문인데, 신약성서는 왜 헬라어로 기록되었을까요? 성서 기자들은 대개 유대인들이었을 텐데요. 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서를 받아볼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였습니다. 대신 아람어를 썼어요. 그 지역에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거든요. 구약 성서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세계 역사에도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팔레스타인 히브리인들은 제국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독립 국가를 유지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기껏해야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어요. 별로 몇몇한 역사는 아니죠. 그러니 자기 나라의 말과 문화를 잘 보존할 만한 위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제사장이나 전문적인 종교인들의 학문 활동이나 종교 활동으로 남겨졌을 뿐 실제 언어로는 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지만 바깥 지역에는 헬라어로 지배된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성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성서를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이 원소나 우주에 대한 설명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개념을 심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했던 것처럼, 많은 경우에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있다, 창조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죽어 있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죽어 있는 정보에 머무는 지식이란 말이죠. 잘 모르는 선생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치면 오히려 학생들에게서 배움이나 앎에 대한 욕구를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그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 설교, 성경공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거였어요. 말이라는 게 참 그러네요. 어떤 흐름을 놓치지 말고 쫓 가야 하는데 말이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타

래를 푸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버리면서 풀어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끊기니까 다시 자리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신학 무용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태양을 설명하려고 탁구공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런 것을 아는 게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신학적으로 깊이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적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일반 성도들은 신학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래요. 신학은 말하자면 어떤 궁극적 현실(ultimate reality)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리적 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궁극적 현실’ 같은 말을 하면 일반 신자들은 굉장히 거리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사람의 사유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철학이 한국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인문학의 위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인문학자들의 책임입니다. 인문학자들이 인문학적으로 살지를 않았거든요. 좀 배고파도 근본적인 진리를 향해 나가야 하는데, 인문학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들이 요구한 게 돈이었다는 거죠. 정부 예산을 많이 따내자는 식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인문학이 살까요? 아무 도움도 못 받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프로젝트 하나 따내면 서로 연관된 사람들끼리 나눠 먹기식으로 하잖아요. 신학도 인문학이라서 하는 말입니다. 국가에서 몇 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두면 그걸 배분해야 하는데,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결정해야 하거든요. 감 잡을 수 있겠죠. 힘 있는 사람들이나 꾀발 있는 쪽으로 가요. 이게 잘 사용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인문학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호구지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쓸데없는 곳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신학 무용론에 빠져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요. 목사나 신학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말들을 하나씩 듣는 사람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신자들에게 와 닿지가 않니까요. 제가 거기에 고민이 많습니다. 인문학적 성서 읽기가 바로 그런 작업을 하자는 건데요. 여전히 제가 하는 말들은 뜬 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들은 뜬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걸 전달하는데 표현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직도 공부가 받쳐주지 못해서 그래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세계 전체에 대해 해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신학도 결국 그쪽으로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거든요. 얼마나 그것을 잘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소피의 세계』(현암사)란 책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작가 요슈타인 가아더가 쓴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소설입니다. 중학생 딸에게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예요. 딱딱한 철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합니다. 어른이 읽어도 좋아요. 저는 수년 전에 읽었는데요. 제 딸들에게도 꼭 읽으라고 주었는데, 작은 딸만 읽더군요. 이야기 형식은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철학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딸의 아버지는 군인 출신으로 멀리 가 있습니다. 멀리서 편지를 쓰는 거죠. 구체적인 건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마지막 장면에 그 소설 속의 이야기와 현실의 이야기가 뒤섞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 때 읽고 받은 느낌만 갖고 이야기할 테니 제가 틀리게 말해도 이해해 주세요. 어떤 아이가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는데 다리가 가렵다고 느낍니다. 그게 소설 안에 나온 어떤 이야기가 현실 안으로 투입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할 거면 확인하고 왔어야 하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현실과 초현실이요. 우리는 이게 딱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그걸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역사 초월적 존재죠. 그런 분이 어떻게 역사 안으로 들어와 있을까요? 예수님은 2천 년 전에 부활 승천해서 생명이 은폐된 세계로 갔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초현실이 어떻게 현실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잘 생각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에 대한 논리적 해명이 신학이고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아주 주술적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현실에 묶이게 되죠.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으면서 초현실로 들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합니다.

강의에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부분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어떤 부분들은 정리가 덜 된 것처럼 들릴 겁니다.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들린다고 해도 정리가 안 된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흐트러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추동력을 갖고 있으면 뛰어난 영성가가 되는 거죠. 제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요. 그러나 나름대로는 어떤 방향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잘 듣다가 한두 주 안 들으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일관성을 갖고 이야기는 하는데 매번 구슬을 꿰듯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하나 토막처럼 말하지만 나름대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주기 바랍니다.

니다. 다 설명을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미래를 당겨서 사는 것인가, 아주 초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현실적인 리얼리티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제가 리얼리티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고 사용할 겁니다. 실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궁극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언어 안에 개념적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리얼리티도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정말 더 뛰어난 학자가 나와서 더 풀어내고 심화시키면 그게 역사입니다. 언어 속에 개념을 담는 거죠.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나 칭의 등에 대해서 언어로 더 많은 것을 풀어낼 수 있으면 위대한 학자가 되는 겁니다. 바르트, 몰트만, 하인리히 오토 같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종말도 그렇고 창조도 그렇고, 모든 언어들 속에 기독교가 담아내려고 했던 세계들이 현실과 초현실의 신비적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것을 끌어가는 힘이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현실 너머에 있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확실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숙한지 다 인정하죠? 그런데 거기에만 판단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성서 기자들은 그걸 뛰어넘었던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도 하고 신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 현실과 초현실 사이에서 운행하고 활동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넓혀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우주과학에 대해서 아주 유치하게 알다가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아주 리얼하게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세계를 새롭게 보게 되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이고, 여기에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야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합니다. 답답할 정도로 안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고 재미가 없으니까 듣는 사람도 재미가 없죠. 그저 자기 일, 자기 재미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 상을 주는 방식으로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이자 메시아적 구원 공동체인 교회가 작동된다면 비극이죠. 많은 사람들이 유럽교회는 점점 썰렁해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데요. 큰 착각입니다. 왜곡이기도 하고요. 철없는 아이들이 천방지축으로 행동하거나 졸부들이 돈 쓸 줄 몰라서 거들먹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유럽교회가 겉으로는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문화와 삶 속에 기독교적인 사상이 배어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그쪽을 추켜세우려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전인수 격으로 우리의 신앙 행태를 절대화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몇 개 있다고 하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습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잘 했으면 합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한다면, 가끔 대구성서아카데미 사이트에 무신론적인 책이 소개되기도 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는데요. 『만들어진 신』, 『예수 퍼즐』 같은 책을 읽는 것은 제가 보기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책을 읽을 시간이 있으면 기독교 서적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크리스찬다이제스트), 판넨베르크의 『사도신경해설』(한들), 바르트의 책들도 많거든요.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대한기독교서회)이라도 읽으세요. 이게 건강한 책읽기예요. 전혀 신학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종교 현상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두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독교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나 루터, 아퀴나스 같은 신학의 거인들이 있었어요. 신비주의 영성가들도 대단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깊이 들어가야 그런 책들을 읽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진리론적 토대 위에 서있다는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불안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화론이나 자연과학적인 어떤 것이 나온다고 해도 쓸데없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옳은 것은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고유한 신앙 경험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바깥 세계로 나아가고 보편적인 진리의 토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 세례와 성찬에 대해

강의와 직접 관계된 건 아니지만,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세례와 성찬식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성서적이냐는 질문입니다.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이후 성찬식이 어떻게 시대마다 행해졌는지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제가 섬기는 샘터교회의 성찬 예식에는 어린아이까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교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찬 예식을 함부로 준비 없이 먹고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성서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성찬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오랜 전통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거죠. 초대 교회에도 성찬식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데요.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찬 예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애찬식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은 기독교 신앙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죠. 애찬식은 참석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두 개 모두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벌어졌는가 하면, 밥을 같이 먹는 애찬식이었어요.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넉넉하게 가져와서 자기들끼리만 먹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좀 따돌리고요. 집에서 형편없는 것을 조금 가져왔는데 부자들이 가져온 좋은 것들을 먹으려니 눈치도 보였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나온 것 같아요. 먹고 취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냐는 충고도 했으니깐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교회는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교회에 따라서 열어 놓은 데도 있고 닫아 놓은 데도 있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 제08강

### 칭의와 구원

오늘의 주제는 칭의(稱義)와 구원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전반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런 주제를 깊이 생각하는 건 영적 눈높이를 심화시키거나 승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말로 바꾼다면 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들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통하게 됩니다. 나름의 관점을 갖게 되니까요. 정용섭이라는 사람의 어떤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고유한 것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저는 제 관점으로 말하게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주제로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같은 관점의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제 관점이 옳든 그르든 깊이가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이 정용섭이라는 인격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저와 비슷한 삶의 경험이 있거나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와 상당히 유사한 관점을 가질 수는 있지만 똑같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만의 고유한 안목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깊은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사실 선생들에게서 배워야 될 지식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생 자체가 아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더구나 아는 게 있다고 해도 그걸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많이 알고 어떤 것은 조금 알고 있어요. 최소한 선생에게는 어떤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확보한 학자들은 정말 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예술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관점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도 경험을 했을 텐데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의 관점이 없는 걸 많이 봤죠? 이때는 이런 말을 하고 저때는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죠. 부분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넓게 보면 흔들리고 중심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강의 내용 자체보다는 제가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배우도록 해야 하고, 그걸 토대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유한 시각을 찾아야 합니다.

#### 인간 행위의 구원론적 성격

칭의 문제는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핵심 개념이기도 하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독립하게 된,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핵심이기도 하고,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는 초기 기독교 때부터 기독교 2천 년 동안 쭉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주제가 다시 강조되고 해석되고 심화되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칭의와 구원의 관계인데요. 주로 칭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 많습니다. 한마디만 힌트를 주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구원론을 저학년 신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독교는 사회의 모든 행위들과 구원론적인 면에서 경쟁하고 있다.” 경쟁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의 행위 자체가 구원론적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하잖아요.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들을 보세요. 그 행위로 사람의 병을 낫게 하거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원론적인 겁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굴에서 살다가 쾌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불편한 데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월드컵에서 붉은 악마들이 단채로 응원하면서 느끼는 카타르시스도 일종의 구원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강의를 하다가 받은 질문인데요.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도 결국은 알코올이나 마약에 취해 있는 그 순간에는 구원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거였어요. 알코올에 완전히 취해 있을 때, 아니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술에 취하는 경험은 구원 경험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은 증상이 비슷해요. 기독교 신자들이 술에 취해보지 못해서 구원을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듣고, 정용섭 목사가 술에 취하는 게 구원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술에 취하면 자아가 없어져요. 우리에게서 문제는 자아거든요. 나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식의 집착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내 생명이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좌절까지도 자기에 대한 집념이거든요. 판넬베르크는 죄를 자기집중이라고 했고, 어거스틴은 교만(휘브리스)이라 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모르 수이’ 즉 자기애(自己愛)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공통되는 것은 자기중심성입니다. 교회는 구원공동체라고 하잔가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자기가 아주 작아지는 경험, 하나님의 통치가 온통 자기를 빚처럼 감싸는 경험,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리얼리티예요. 우리가 구원의 궁극적 현실과 맞닿는 것은 죽음 이후에 죽음과 삶 전체를 아우르는, 아직까지 숨어있는 그 모든 생명의 세계가 완전히

드러나야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비유로 말했어요. 종말, 하나님 나라, 구원은 우리가 죽어야만 알 수 있는 절대적인 세계인 거죠.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작아져야 하는데, 이게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삶과 신앙에서 성육신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변죽만 울리고 있을 뿐이지 신앙의 실체를 맛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암시, 혹은 자기최면이라고 할까요? 자기 세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면 믿어지는 거 같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능력은 없어요. 믿는다는 말은 있지만,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복음에 대한 말들은 인플레이션처럼 차고 넘치지만, 능력은 떨어지는 거죠. 바울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실질적인 능력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과 경쟁하고 있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모든 인간의 행위 자체가 구원 지향적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이비 구원론에 가깝죠. 임시적으로 우리의 아쉬운 점을 보충해주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산다거나 지루하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 본다거나 자식들을 좋은 대학 보낸다거나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하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 순간에만 땀질하는 식으로 지나가는 것이죠. 강의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 자리에서 맴돌고 있군요. 구원 문제가 세상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말할 때 여기에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포함된 것이며, 인간의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구원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하고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이 구원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시작했지만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이미 시작한 그것마저도 종말론적으로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쓰는 이 신학 용어들을 자주 들어보지 못했거나, 들어봤더라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매우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강의가 끝나갈 즈음이면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질 겁니다. 이런 용어들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거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 종말론적으로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종말에 가서야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까지 이 세상과 혹은 다른 종교와 구원론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과연 구원의 리얼리티를 잘 담지하고 있고 그것을 종말론적으로 열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

교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심각한 질문이지만, 한국교회는 이런 것에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구원의 운동성

우리 주변에는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의 개혁은 행동주의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쓰지 않았으니 투명하게 하겠다, 세습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세습을 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이런 길로는 교회가 개혁되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지적해 봤자 자기 방어기제만 작동된다는 말입니다. 저놈들이 나를 비판하는데 어떻게 방어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목사나 신자나 모두 그쪽으로만 머리를 돌려요.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는 한국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신학논쟁이었습니다. 신학운동이에요. 이와 달리 대개의 혁명 또는 운동은 행동주의로 떨어져 버립니다. ‘의를 실천하자.’ 좋죠. 실천적인 것 좋습니다. 그런데 칼 마르크스에게서 시작된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사실은 행동주의가 아니라 학문이었습니다. 마르크스가 경제학자잖아요? 경제적인 논리를 제시했던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망하고 프롤레타리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인간의 의식을 변화시키자는 거였습니다. 의식을 변화시켜서 운동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운동과 의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혁명은 책상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 모두 책상에 앉아 있어요.

한국교회의 개혁이라는 이슈를 내걸고 현장에서 파이팅도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의식의 변화가 앞서야 하지 않는가, 그 일에 대구성서아카데미가 일조를 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와 의식의 변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운동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운동으로 나가지 못하고 만날 머리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죽은 의식이 될 텐데요. 의식이 죽지 않고 어떻게 생명력 있는 운동으로 연결되는가가 중요합니다. 머리만 크고 실제적인 실천은 하나도 없다면 우스운 꼴이 되겠지요. 대구성서아카데미, 즉 다비아 운동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실천보다도 의식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시작되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비아에 들락날락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칫 지적 유희로 머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곡된 의식을 깬다고 하는

점에서 그런 역할만 해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가능하다면 운동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의식과 운동과의 관계를 알겠죠? 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억지로 하면 모두 힘듭니다. 앞서가는 사람이나 끌려오는 사람이나 모두 힘들어요.

보통 어떤 역사적인 시점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정확한 지점에서 어떻게 그것이 발화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루터는 그것을 정확하게 잘 포착한 사람 같아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종교를 개혁해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단순하게 신학적인 논제들을 꼬집어냈을 뿐이거든요. 자기가 학자였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신학 토론을 하자는 아주 단순한 목표였는데, 이것이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개혁의 물꼬를 틀었던 것입니다. 물꼬를 틀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마른 숲에 불을 지른 역할을 했던 거죠. 개혁은 한 사람의 정확한 통찰력과 신학적 깊이가 있어야 하는 동시에 그것을 운동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시대적 계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거 없이는 대개 사람만 희생됩니다. 혁명가들은 대개 희생을 당했죠. 성공한 사람들은 얼마 없습니다. 종교 개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 신학공부

오늘 다루고 있는 창의와 구원의 관계만 보더라도 신학 공부를 해야 할 게 많죠? 아주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최소한 정직하게 대답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에서 쓰는 많은 용어들이 그저 그렇게 한 번 듣고 지나가 버릴 것이 아니잖아요? 신자들이 무작정 ‘믿습니다.’라고 앵무새처럼 되뇌게 하지 말고, 구원의 현실 안으로 직접 영적인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목사들이 도와주자는 거예요. 다른 데 너무 많은 욕심 부리지 말고요. 목사는 신자 하나하나가 영성 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할 뿐, 신자들이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영성 생활을 하는지는 성령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들은 신자들에게 애착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신자들한테 너무 많이 쏟아냅니다.

어젯밤인가? CTS방송에 광림교회가 나오더군요. 설교하는 분이 김선도 목사님의 아드님인가요? 부목사인가요? 카메라에 비치는 파이프 오르간이 대단하더라고요. 화중석도 연주회 홀 같고요. 그분이 담임목사가 맞습니까? 교회 세습을 하신 분인가요? 저는 시골에 있다 보니 그런 정보에 어둡기도 하고, 관심도 없어서 몰랐습니다. 어쨌든 사십대 초반 정

도로 보이던데요. 설교를 들으니 자기도 뭘 모르면서 말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비평을 오래 하다 보니 말을 함부로 쏟아 내는 것 같기는 한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분이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설교는 하는데 소화되지 않는 말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일반 신자들은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알고 하는 말인지 앵무새처럼 되뇌는 말인지 분간하지 못해요. 제가 보기에 그분은 자신도 소화하지 못하는, 하늘이나 천국, 구원 같은 단어들을 약장사처럼 마구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단어에는 각각 우주처럼 무거운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재미없으니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하니까 인격적으로만 목회를 하더라도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평신도들도 신앙이 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공부 좀 하자는 겁니다. 딱 한번 사는 거잖아요? 짧은 인생이기에 소중하고요. 더구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거는 일이잖아요. 현재 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거는 일인데 말이죠. 정말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 모두가 신학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신앙의 근본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의로울 수 없는 인간

다시 구원과 칭의의 문제로 돌아가죠. 칭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즉 실체론적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변화되어도 의롭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의를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왜 이룰 수 없는가? 사람은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의는 교양인이 되는 거와는 다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감옥에 안 가면 된다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더 근원적인 깊이, 심층적인 지평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즉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의로울 수 있다면 괜찮지요. 율법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다면 의로운 사람이겠죠.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고 오히려 죄인이라는 사실만 확인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과 삶에서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에게서 나온 아주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와 연관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나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의인은 도덕적인 문제와 연관되니까 이걸 예로 드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서 간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처럼요. 그러나 여자를 보고 혹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의 문제가 더 본질이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행위, 도덕적으로 잘 포장된 행위들이 불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옥한흠 목사님의 제자훈련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에 대해서 잘 한다고 박수는 못 칠망정 왜 흠집을 내려고 하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흠집을 내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보는 제자훈련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비슷한 노력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율법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 훈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제자답게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박영선 목사님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창피하게 말이지, 의로워지는 것은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화해야 한다.”고 말씀하거든요. 두 분 다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나 칭의론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아니에요. 중심이 아닌 것에 힘을 주게 되면 문제가 벌어지죠. 두 분 다 하소연하잖아요? 그렇게 평생 외쳐봐야 신자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 말이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뿐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결코 그건 아니죠. 이 맥락, 이 작은 차이의 긴장을 사람들이 자꾸만 놓칩니다. 우리는 늘 존재론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야 해요. 의식의 문제라고 했죠. 의식과 존재는 다른 말입니다만, 아까와 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또 막히네요. 존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 단어도(다른 단어들도 그런데요) 한두 번 들어서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에 쌓여서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면 그 의미가 확 잡힐 때가 있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안다고 해서 존재론적인 힘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전혀 다른 어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성, 이성, 오감 등을 통해 활동하는 그 힘이 무엇일까요? 참 신기합니다.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

고 종말의 영이니까요. 성령이면 성령이지 무슨 영이냐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령도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매일묵상에서 썼듯이 은폐된 세계와의 연관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존재라는 단어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의 차원에 놓이는 거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막히면, 즉 이 말이 오해되고 있으면, 또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알쏭달쏭하단 말이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언어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중요 합니다.

### 하나님과 존재론적인 관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대전제를 갖고 서, 여기에 몰입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영어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실에 몰입하고 천착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인 존재론적인 신앙의 토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우리 중에는 그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말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과의 존재론적인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 속으로 더 들어가야 해요. 그건 아마 우리가 죽을 때가 되더라도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받아야겠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표현도 다 개념적인 것입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신앙적인 용어들을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의 실용적인 용어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신학 공부의 일차적인 핵심입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자꾸만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라도 신학 책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 신학 책을 읽지 않는 것은 읽어봐야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모르니까요. 바르트의 신학 책을 읽고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바르트가 헛소리를 해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걸 알려면 아주 기초적으로 언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철학, 역사, 문학이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한국에서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밑 공부가, 기초가 너무 없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뜨거움만 갖고 가요. 심지어는 다른 욕망으로도 가고요. 또는 믿음이 좋으니까 신학교에 간다는 식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떨까요? 그런 방식으

로라도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면 쓰는 거죠. 그건 그분만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행위니까요. 우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한국교회가 개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한국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만, 또 그건 그분에게 맡겨야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독교 신앙이 보편적인 진리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거든요. 말이 조금 더 옆으로 나갔는데요. 좋은 신학재원들을 잘 뽑아야 합니다. 신학교에 아무나 보내지 말고요. 그걸 분간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적인 인재인지 말이죠. 하여튼 신학 책을 읽지 못하는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이 문제입니다. 그게 재미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한 눈을 팔 수 밖에 없죠.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들을 고쳐서 될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칭의론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 태도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존재론적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존재론적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도덕적인 주도권을 확보하며 살자는 식의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기독교의 선전구호로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이걸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존재론적 관계인데, 이것은 그냥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믿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믿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말만 하는데요. 복음과 믿음이 말로만 남아있지 능력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를 받아서 되는 일인가요? 장로가 되면 되는 일인가요? 교회에서 봉사하면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선교사로 간다고 되는 일인가요? 선교사나 목사가 된다고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선교사나 목사의 일들이 다 자기 밥벌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뿐 아니라 신앙 자체가 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율법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선의의 욕망 때문에 목사도 되고 목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런 방식으로 순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희생을 한다고 해도, 혹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요.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사랑은 우리의 낭만적인 느낌이나 기분을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방식입니다. 우리는 사랑

이 어떻게 우리에게 활동할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그냥 좋은 뜻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매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하는 용어들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지만 능력도 없이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사랑은 그 스스로가 자기 길을 갑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론, 하나님 나라의 존재론, 즉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관통하면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게 없이도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 줄 수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저 내가 세례를 받는 등의 몇 가지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칭의는 끝났으니까 성화하자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맥락을 이해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윤리가 바로 율법이 됩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세속적인 것이든 다 우리가 해야 될 바른 규범인 것이죠. 이 규범들은 역사가 오래 진행되면서 경험의 축적으로 나온 공통분모들입니다. 좋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관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서 자연적으로 나오게 될 하나의 귀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칭의론적인 관계(존재론적 관계)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행위의 문제(윤리적인 문제), 이 두 가지에 똑같은 무게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칭의가 상수이고, 행위는 변수입니다.

## 바울의 칭의론

제가 요즘 포항 YMCA에서 갈라디아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고 연구하면서 저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짚막하게 할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베드로는 아주 위대한 제자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책망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할 때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자리를 피했거든요. 그걸 본 바울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한바탕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안디옥교회에서 신앙논쟁이 벌어진 거죠. 베드로는 유대 기독교의 입장에 섰고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반대한 입장에 섰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똑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달랐습니다.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초기 기독교의 주류들은 유대 기독교였어요. 유대 기독교와 좀 상반되는 쪽이 이방 기독교였죠. 유대 기독교 안에서도 온건파가 있었고 강경파가 있었는데요. 즉, 바돌기파와 매파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는 온건파였습니다. 주류였죠. 온건파들은 유대교의 거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별로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바울도 이쪽에 포함되어 있었죠.

이걸 정리해 보면 유대교가 한편에 있고 유대교 안에 유대 기독교가 있고 거기로부터 나온 것이 이방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는 유대교였죠. 나사렛 예수를 따르지만 유대교라고 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처음에 여기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서 돌아선 거죠. 유대교인으로서 유대 기독교인을 비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대 기독교란 것은 지금처럼 역사 안에서 내려온 이방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유대교였습니다. 그 안에서 파가 좀 다른 거였죠. 바울이 회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확 바뀐 게 아니었어요. 파가 좀 달라서 공격했을 뿐이었어요. 하여튼 바울은 이방 기독교를 끌고 가는 주축이 되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이방 기독교와 유대 기독교 사이에서 벌어졌던 신학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이런 사람들은 처음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듯이, 네 가지만 금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타협을 보았는데, 갈라디아서 뒤쪽에 보면 안디옥교회의 논쟁을 통해서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유대 기독교 쪽으로, 즉 보수적인 쪽으로 선회합니다. 바울의 이방 기독교는, 이들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 기독교가 보수적으로 변하니까 점점 더 멀리 나 오게 돼요.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가 더 이상 접촉점을 찾지 못하고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유대 기독교는 역사 안에서 소멸되고 이방 기독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의 동생이나 베드로 같은 지도자들이 지도자로서 실질적인 힘들을 갖고 있지 않았나요? 성서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기에 이방 기독교가 역사 안에 남게 되었는지는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한 마디만 한다면 1세기 중반의 유대전쟁과 70년의 예루살렘 함락이 중요한 요인이었을 겁니다.

이야기를 정리해야겠네요. 이런 맥락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인데요. 바울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사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신앙(justification by faith)을 말한 겁니다. 칭의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반면 유대 기독교는 율법, 토라, 할례와 같이 가는 쪽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단절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기독교로부터 배척을 당한 겁니다. 바울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헬라 지역에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를 설립했고 계속 그쪽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바울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칭의였습니다. 그것이 구원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초반에 말한 구원 문제와 연관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날 날이 아니니까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텐데 그때 좀 보충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완전하게 설명하기도 힘들거든요. 다만 구원의 문제와 칭의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만 강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인정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실제로 의로워지지도 않았으면서 의로워졌다고 인정받는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轉嫁, imputation)되었다니, 그게 말장난 아니냐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게 말장난일까요? 그게 말장난처럼 느껴지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은 옳은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칭의론에 모든 기독교 신앙의 무게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걸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할까요? 법정 스님이 암자에 들어가 구도정진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결식자들을 위해서 밥이라도 한 끼 주지, 아니면 노숙자들과 함께 지내든가, 암자에 들어가 돈오돈수(頓悟頓修)와 돈오점수(頓悟漸修)를 붙들고 씨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계의 신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칭의, 다시 말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로워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자칫하면 말장난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우리 전체 혹은 기독교 전체의 무게를 담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승부수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칭의이기 때문이죠. 그 증거를 대는 것이 신학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인 율법시대의 구원과 신약시대의 구원은 다른가요?” 원칙적으로 구원이 어떻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입니다. 구원 그 자체는 하나인데,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겠죠. 출애굽도 하나님의 구원 경험이었고 개인의 병이 낫는 거라든지, 절망한 가운데서 희망을 얻는 거라든지, 그런 식의 구원 현상

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행위로서 하나입니다.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아요. 구원의 길은 물론 다릅니다. 질문한 분이 그걸 알고 싶으셨나요? 그건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합니다. 한마디만 한다면 구약의 율법은 업적을 통한 구원의 길이고, 신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 제09강

### 청교도 신앙에 대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강생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앞서 나온 질문 중에서도 시간이 되면 대답하겠다고 말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야 기억이 나네요. 쪽지로 준 질문들이 많아서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미안합니다. 그럼 시작하죠.

질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요즘에는 기도문에서 십자가, 보혈, 속죄, 대속, 구원이라는 말들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소위 복음주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주제들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다비아에서도 이런 말들은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주제들을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자리매김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신학적이기 보다는 신앙적인 것 같군요. 동영상 화면에 키워드를 쓸 테니 보십시오. 십자가, 보혈, 속죄, 대속, 구원. 복음주의 신앙 노선에 서 있는 분들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십자가, 대속, 보혈, 구원 등이 대구성서아카데미(약칭 다비아)에서 조금 약화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상의 영성에서 역동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지는 질문입니다. 질문한 분은 십자가, 대속, 보혈, 속죄, 구원이라는 단어들을 언급하면서, 다비아가 이와 같은 원초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좀 소홀하게 다루는 것 같다고 했는데, 다비아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정말 다비아에서 그런 걸 소홀하게 다루었던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다비아에서는 그런 단어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 해석의 차이 때문에 다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낀 걸까요?

이건 참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한 십자가, 대속, 구원 같은 것 말고도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핵심 용어들은 많습니다. 창조, 종말, 하나님 나라, 복음 등이 다 그런 거죠. 십자가, 속죄, 대속, 구원 등은 주로 기독교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두 기독교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이 꼭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론 중에 삼위일체만 하더라도 아들 하나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말해야 하거든요. 어느 하나라도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신앙을 편식하는 게 돼요. 이 질문이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 말



하자면 청교도 신앙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 청교도 신앙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복음주의라거나 에큐메니컬이라는 용어들은 대강 뭉뚱그려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주의라는 말이 굳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정확한 게 아닙니다. 복음주의를 영어로는 ‘이벤젤리즘’(evangelism)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와 반대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자유주의와 반대되는 쪽만이 아니라 모든 개신교가 복음주의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로마가톨릭을 ‘카톨릭쉬’(katholisch)라고 하고, 개신교회를 ‘에방겔리쉬’(evangelisch)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복음주의라는 말은 가톨릭과 대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처럼 보수적인 입장에서 사회문제보다는 개인구원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영성이나 구원에 집중한다는 관점으로 복음주의라는 용어가 정착을 했으니깐, 그렇게 쓴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복음주의는 주로 청교도 신앙 계열에 있는 로이드-존스라든지 존 스토틀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 거예요.

그러한 청교도 중심의 신앙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다 맥락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청교도 신앙이 개인의 내면적인 영성을 확고하게 하고 윤리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역동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로이드존스의 설교를 보면서도 느꼈던 건데,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선악의 대립 구조로 봅니다. 악을 대단히 실증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의 문제가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자칫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은총의 영성보다는 죄와 악의 실체가 더 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인간이 당연히 죄를 짓고 잘못했으며 죄가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현상적으로도 옳아요.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이야기들이 성서에도 많이 나오니까요. 악마나 사탄을 성서 기자들이 언급했다는 것은 악의 존재 근원을 염두에 뒀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와 성서는 악의 문제를 그렇게 나이브하게 다루지 않고 래디컬(radical)하게 다룹니다. 다시 말해 악은 우리가 교육을 받고 교양을 쌓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힘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청교도 쪽에서 죄와 대속을 강조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교리의 가르침이든지 독립적인 것은 없습니다. 악을 전체적인 기독교 조직의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악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악마는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악마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악마의 역할도 여전히 하나님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악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거기에서 두려움이 생겨나요. 물론 인간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말살하는 죄나 폭력의 존재론적인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죠. 기독교 성서에서는 이원론이, 선과 악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대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거든요. 좀 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악의 존재가 거꾸러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악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의 문제는 신정론과 연관되는데, 지금 제가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니까요.

이러한 청교도 신앙을 한국교회가 복음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이에 대해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청교도 신앙을 근본적으로 매도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청교도 신앙운동은 기독교 신앙의 큰 틀에서 볼 때 작은 지파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한 부분만 강조했어요. 일종의 신앙적 편식이지요. 유럽교회의 역사를 볼 때 청교도 이전 시대는 정통주의 시대였습니다. 17세기의 유럽교회는 종교 개혁 신앙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론화했어요. 종교 개혁 신앙이 다시 가톨릭과 같은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인의 문제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부흥운동, 각성운동, 회개운동, 도덕재무장운동 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거든요. 전체와 함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청교도 신앙에서는 특히 미국으로 건너간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부흥운동 등에서는 일부분이 침소봉대 식으로 강조되어서 전체적인 신앙의 건강성을 잃었습니다. 그런 운동들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큰 교회들이 청교도 쪽으로 나갔어요. 순복음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예외입니다. 어쨌든 한국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쪽의 신앙 핵심들이 십자가, 보혈, 대속, 구원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비아도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대림절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보혈이라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언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보혈의 문제, 즉 예수의 돌아가심이니깐요. 단지 그것만을 떼어 내서 침소봉대 식으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는 않았습니

히 창조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오던 복음주의적 성서공부나 설교와는 다르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fundamental theology’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근본주의 신학이 아니라 ‘근본 신학’입니다. 독일어도 똑같이 쓰는데, ‘기초 신학’이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우리에게서 근본이라는 말이 다른 뜻으로 사용되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특정한 이슈에 사로잡힌 신학을 말하지요. 그러나 영어나 독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초 신학을 뜻합니다. 신학 대학의 교수들 중에 주로 대가들이 기초 신학을 가르쳐요. 기초가 되는 부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죠.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십자가, 창조, 부활, 성만찬, 구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복음주의 신학이 말하는 관점과 제가 말하는 관점이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정리해보죠. 두 가지였어요. 첫째, 기독교 신앙의 각 부분들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관점에서 부분을 봐야 합니다. 대속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만 따로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창조, 하나님 나라, 종말이 두루 소통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독교 교리는 기본적으로 해석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구원의 문제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구원론적이에요. 그게 사이비 구원론이나 참된 구원론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모두 어디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지평들을 인문학적으로 풍부하게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석학적 관점이 필요한 거지요.

## 칼뱅의 이중 예정

지난 시간에 칭의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시간에 들어온 질문 중의 하나가 칼뱅의 이중 예정과 하나님의 배타적 행위의 연관성에 대한 거였습니다. 정확한 질문입니다. 칼뱅의 이중 예정은 만세 전부터 구원 받을 자와 영벌에 처할 자가 이중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 예정이 기독교강요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검토해보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읽은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이중 예정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면 굉장히 독선적인 게 됩니다. 위대한 신학자들인 루터나 칼뱅이 하는 이야기들은 역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잣대로만 그 말들을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칼뱅이 말하는 이중 예정은, 그것이 기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큰 섭리의 틀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신앙고백입니다.

이 이중 예정에는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한데요. 그 당시에는 알미니안주의와 칼뱅주의의 논쟁이 심각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어요. 인간의 부패도 전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며 인간에게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감리교 쪽의 존 웨슬리도 알미니안적인 성향들을 보입니다. 그에 비해 칼뱅은 전적인 타락을 주장했어요. 인간은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중 예정론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성도의 견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 책에 나온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택정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얻은 자는 모두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유지하여 끝까지 인내한다.” 이중 예정도 그것만 딱 떼어 내서 보지 말고 성도의 견인과 연관해서 본다면, 성도들의 신앙 태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도움보다도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조금 비틀거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견인해 가신다는 거죠.

이러한 칼뱅의 이중 예정과 제가 가끔 사용하는 배타적 행위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중 예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가 그런 용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질문의 요지 속에 그것이 들어 있어서 ‘질문한 분이 나보다 더 생각을 깊이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배타적 구원 행위와 칼뱅의 이중 예정을 연관해서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배타적 행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의 인식론적 틀 안에 담아내기가 불가능하니까, 그 사태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적합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칭의와 구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을 좀 보충하려고 하는데요. 칭의와 구원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부분을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의로움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인

데요. 의를 생각해 보세요. 의와 반대되는 것은 불의인가요? 의라는 것은 불의보다도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고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인간이 왜 죄를 짓는가 하는 부분에서 악마가 그 장본인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죄가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면 악마, 사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이런 용어들을 쓰기가 조심스러워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실체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성서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이 아니면 어떤 실체나 사태를 해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인간의 삶을 보면 죄로 인해 불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용어들은 그것들을 해명하기 위한 성서 시대 사람들의 대답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의 삶은 연역적이라기보다는 귀납적입니다. 죄가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귀하고 선하게 창조했는데, 인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해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능력 있다는 것이 엄연하고도 명실상부한 사실이라면, 그가 만든 세상에 왜 악과 죄가 만연하냐는 겁니다. 형제 살해가 일어났는데, 자기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파렴치한 변명을 해요. 이런 일들은 고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이만큼 발전했어도 계속 그 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그 대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근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악마, 사탄, 아담과 이브를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 뱀, 종교적 상징 등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해석학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중간을 생략한 채 설명하는 것이라 조심스럽네요. 결국 해석의 문제거든요. 성서 텍스트에 대한 해명인 신학 문서들도 어쨌든 다 텍스트거든요. 문제는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을 때 그것을 그냥 사실로 읽지 않죠. 그걸 통해서 괴테가 말하려고 했던 어떤 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텍스트는 언제나 해석이 관건입니다. 조금 옆으로 비껴나가는 이야기지만, 독일 신학은 성서 텍스트에 대한 해석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해석보다는 적용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흐름 자체가 그래요. 독일은 좀 더 본질적인 존재론이기 때문에 성서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심을 둡니다. 예수 세미나 운동은 미국에서나 가능한 거죠. 독일은 거기에 관심조차 없어요. 그것은 성서 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니까요. 예수 퍼즐이나 예수는 신화다 등의 주장들은 교회 밖에 있는 문서들을 종합해서 어떤 가설들을 만든 것에 불과한데요. 독일 쪽에서는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는 둘째 치고, 우선적으로 전통 안에 있는 텍스트, 즉 교회 안에 보존

된 문서들을 해석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담의 타락을 해석해 나가요. 기독교가 악마나 사탄, 원죄 등의 개념이나 교리나 상징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의 삶에 내재해 있는 죄를 심각한 어떤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고 볼 정도였으니까요. 안 그래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죄를 극복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죄와 반대되는 것은 의니까, 인간이 의로워지는 게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칭의의 개념이 나옵니다. 마르틴 루터의 세 가지 신학적 슬로건에 따르면 칭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바울의 칭의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율법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건데요. 바울은 인간이 이런 것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즉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 수 없다고 전제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 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벗어 날 수 없어요. 여기서 가리키는 죄는 겉으로 드러난 행태가 아니라 더 존재론적인 의미의 죄를 말합니다. 친구에게 욕을 하면 친구를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에 근거한다면,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죽어야만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바울의 말은 옳아요. 그러면 살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딜레마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말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 만인구원에 대해

만인구원론에 대해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구원의 가능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인지, 하는 질문입니다. 만인구원론도 결정된 교리는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의 배타적인 행위예요. 다만 성서의 가르침을 가지고 선택적 구원과 만인 구원이 경합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아주 궁극적인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궁극적인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거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다거나 농땡이 치던 사람들이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실체는 아니잖아요? 구원은 영원히 사는 건가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나요? 영원하게 사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나요? 우리는 유한한데, 계속된다(무한하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계속됨과 우리의 구원은 어떤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단어들은 다른 개념이 없어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등의 명제를 우리의 죄와 의로움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를 늘 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시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명제들로 혹은 도그마들로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그마(교리)가 불확실하거나, 또는 우리가 불가지론에 빠져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길로 나가야죠. 그것은 종말에 일어나게 될 참된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참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다 묘사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묵시의 방식으로, 극단의 상징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선택적 구원이나 만인 구원이나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방식을 넓히고 이해하려는 하나의 과정이지, 칼로 무를 자르듯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적이기도 하고 보편적이기도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중한 사실에 토대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구원 약속들의 실질들은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다 담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거든요.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어머니의 따뜻함과 호흡을 느끼는 것인데, 어머니의 실질이 뭐냐고 묻는다면 어린아이가 뭐를 알겠어요?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시간, 공간, 우주 등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행위인데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인데 말이예요. 그런 긴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천 년 역사 안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신조들과 교리들과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하려고 하는 실질을 느끼고 해석하는 동시에, 그것들이 독단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개방되어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마지막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신

양생활을 하고 신학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초 신학’의 깊이를 확실하게 붙잡 으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거시는가 하는 긴장과 역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인 구원과 선택 구원도 여전히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증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기 알리심, 계시, 우리의 인식, 그 과정인 역사, 거기서 생성된 도그마들, 가르침들이 종말까지 연결되면서, 오지 않은 미래까지 내다보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싫어하고 피곤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구원이 종말론적으로 열려 있다고 하면, 무슨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냐고 불안해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불안은 공포심으로 인한 불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좋은 뜻에서의 설렘입니다. 신랑을 맞는 신부와 같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요. 첫날밤이 아직 오지 않은,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긴장되고 불안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설레는 불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 조금 버거운 겁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많은 교리문답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하나하나가 우주적인 무게를 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교리문답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기독교 신앙만 그런가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삶 자체가 역설적이고 신비롭고 자기 해명이 안 될 때가 많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신의 삶이 토대가 있고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쌓아가는 업적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자기 위치를 확고하게 잡고요. 회사나 가정에서나 자리를 잡는 게 자신의 삶을 확인해 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요. 그러나 솔직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인터넷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게 우연한 사건들이 수백 번 얹혀서 일어난 것일까요? 십 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십 년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같은 사이버 공간 안에서 만났잖아요. 만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수십억분의 일도 없는 데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그래요. 도저히 우리가 어떤 것으로 계산해 낼 수 없는 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짝 맛본 사람들



이 성서 기자들이고 영성의 대가들이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모아둔 것이 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옳은 건지 말입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칭의와 구원은 기독교 신앙 전체와 연결되는 것이고 늘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백 퍼센트 완벽한 대답은 없다는 걸 늘 염두에 두세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불확실하다거나 부족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 품속에 안겨 있더라도 그 아이로서는 완전한 어머니의 경험이거든요. 미숙하지만 완벽한 어머니 경험입니다. 우리는 2천 년 동안 그런 경험의 역사를 가지고 배워왔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품안에 안겨 있는 경험만 갖고 모든 어머니를 경험했다고 말한다면 곤란하겠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롭게 어머니를 이해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신학 공부도 필요하면 하고 논쟁도 필요할 때는 하고 삶에서도 좀 더 기다려 보고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 제10강

### 죽음에 대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아주 필연적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평소에 이것을 의식하기도 하고 의식하지 않기도 합니다. 현대 문명은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죽음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적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친가 외가 이웃에서도 늘 초상이 났으니깐요. 그러면서 상여가 나갈 때 뒤 따라가는 경험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죽음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죽지 않고 병원으로 가잖아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을 보기가 힘들도록 단절되어 있죠. 장례식장도 병원에 많이 있죠. 전문적인 장례식장은 호텔처럼 되어 있더군요. 커피숍도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죽음이 슬픔인지 기쁨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죽음이 말하는 실 패나 충격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이거든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말입니다. 자기 업적, 취미생활, 자기 가족,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단절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다 아니다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죽음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삶을 관계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소유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경험하지요, 제가 자리하고 있는 목사의 위치라든지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모두,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현대 문명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소외시킨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삶을 소유하는 것으로만,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는 것으로만 우리 자신을 몰아가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한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 상태가 된다면 어떻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군요. 언뜻 생각이 나서요.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다가 무덤 옆에서 잠을 잤다고 하죠. 자다가 물을 마셨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 그 물그릇이 해골바가지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는 ‘야, 이게 별게 아니구나. 세상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구나. 그릇이 물을 마시는 일반 바가지일수도 있고 해골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체는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인도에서는 요가나 명상 훈련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이런 훈련까지 한답니다. 훈련갔다운 사람의 글을 읽었는데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정 시점에 학생들을 무덤 옆에서 자게 하는데, 해골을 안고 자게 한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게 가능할까요?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에 가서 혼자 자고 내려올 수 있을까요? 제가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혼자 갈 때 요즘 아주 춥습니다. 캄캄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나 혼자 땅속에 묻혀서 추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걸 인정해야 한다. 받아들이야 한다. 지금 나는 따뜻한 교회에 있다가 잠자리가 있는 집으로 가는데,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춥고 아무도 없는 땅속이다.’ 이 사실을 자꾸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한번 공동묘지 근처에 가서 있어볼까?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영적인 경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제가 어떨 때는 그게 가능할 것 같더니깐요. 죽은 자가 묻힌 무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깐요. 또 어떨 때는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머릿속에는 많은 것이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덤, 공동묘지, 귀신같은 것이 두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받고 자랐느냐가 중요한데요. 죽음과 삶, 이런 문제들을 늘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 혹은 훈련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는데요. 아이들에게는 그게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이죠. 지금은 다 좋지 않습니까? 특히 살기가 좋아진 상태에서 말이죠. 이제 아이들에게 정말 바람직한 가정교육인지, 학교교육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의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문제를 늘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죠. 창조를 말할 때도 무(無)로부터의 창조잖아요. 제가 조직신학을 해서 그런지 또 신학적으로 나가네요. 무로부터의 창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신학적인 걸 말하는가 하면 그게 결국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삶이고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학과 삶을 일치시키지 않아요. 창조라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지, 성서 기자들이 말하는, 2천 년 기독교 신학자들이 말하는 창조의 행위, 창조의 개념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은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그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남아 있을 뿐, 내 삶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는 겁니다. 삶과 신앙이 나누어져 있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것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반듯하게 잘 살아야 한다고들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실존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있어도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죠. 그냥 그 신앙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려고만 해요. 게다가 그걸 사람들은 살아 있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실존적인 신앙과 신학과 삶이 일치된 신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차이를 말해도 어떤 사람은 그걸 이해할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상투적으로 듣고 지나갈 거예요.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될 거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야기로 들리겠죠.

하여튼 창조만 하더라도 기초적으로 무로부터의 창조거든요. 신학에서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creatio ex nihilo)라고 합니다. 창조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창조가 무로 만들어진 유의 이야기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창조는 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로부터, 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토대 위에서 창조라는 신앙, 즉 하나님의 창조행위에 대한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창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없었던 무의 상태로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가 볼까요? 생각으로는 가능합니다. 삼십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아니 그 이전으로 더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은 그 때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결합된 배아 상태였나요? 기억이 나지 않죠? 그 배아로부터 여러분이 인간이 되었답니다. 더 들어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겠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능할까요? 큰 우주, 120억 년이 되었다는 이 우주, 팽창된 우주 그 너머는 뭘까요? 우주 안에만 뭐가 있고 그 너머는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만들어내고 관계를 맺었던 것들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다가 옆으로 나왔군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 무에 대한 경험

기독교 신앙이 다 그런 신학들과 연관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현실성(reality)들을 놓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어느 누구에게나 기독교 신앙의 근본으로 치고 들어가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창조에 대해 말했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무(無)에 대한 경험입니다. 만약에 그 무로 우리의 의식이,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죽음도 넘어 설 수 있는 겁니다. 칭의나 성만찬이나 죄 문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우리 생명의 밑바닥, 그 심층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가치거든요. 인문학적 성서 읽기는 바로 그러한 맥락을 꼼꼼히 살피면서 기독교 신앙이 풀어내려고 하는 핵심들을 잡아가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죽음은 사실 끔찍한 세계입니다. 왜 제가 끔찍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과 다 단절되기 때문이죠. 제가 놓칠 뻔했는데 세례가 바로 그겁니다. 세례는 죽음과 연관된 문제인데요. 세례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죽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가 죽겠습니까? 실제로 죽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세례는 죽음에 대한 경험입니다. 세례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실제적인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영혼이 밑바닥까지 가야만 합니다. 자기가 완전히 무가 되는 경험 말이에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아마 안 될 거예요. 누가 말하면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진실이 말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어른들이 암자에 들어가 수십 년 동안 용맹정진하며 구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돈오(頓悟)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독교적인 돈오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세례는 성만찬과 연관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죠.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는 겁니다. 세례의 반복이 성만찬이에요. 세례는 유일회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받고, 대신 성만찬을 정기적으로 행함으로써 우리는 세례를 반복합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경험인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일종의 기독교 예전이지요.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죽음과 삶의 우주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깊은 사유에서 나왔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와 성만찬은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하는 귀중한 예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제 신앙과 삶에서 세례와 성만찬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만찬은 떡덩이나 빵 조각 하나를 하나님의 몸으로 인식하고서 그걸 먹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먹는 거죠. 창조자이고 영이고 종말에 생명을 완성할 분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와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죠. 죽음을 하나님의 나

라에 간다는 차원으로 생각할 때, 죽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나와 의 관계로부터 하나님과 일치하는 관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사유의 비약이 필요해요.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벗어버리고 가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그 귀한 세계에서 우리가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현재와 같은 방식이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현재와 같은 삶의 방식은 소유의 관계에서만 자신의 삶을 확인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중심에 있습니다.

세례와 성만찬은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즉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충분히 훈련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 희망들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 때 영성도 깊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런 표현들은 너무나 진부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적당한 말을 찾아내지 못하겠네요. 그런 신학적인 용어 말고 우리에게와 닿는 어떤 언어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확인하는 신앙훈련에 몰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죽음과 삶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세례와 성만찬, 하나님 나라와 종말 등을 통해서,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우리를 확 사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해요. 좋은 뜻으로 훈련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정보를 얻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의 내면적 세계가 더 풍요로워지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심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늙음에 대해서 하등의 불안을 느끼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통과해야 할 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설령 지금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것들이 다 없어진다 해도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은 죽는 연습을 늘 해야 합니다. 신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죽는 연습이에요. 세례와 성만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신앙은 죽는 연습입니다. 예수님도 다 버리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버림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과연 버림인가요? 명색만 그렇지 실제로는 계속 뭔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축복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정신이 성취를 요구하니까 목회 마인드마저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 공허하게 됩니다. 길이 아니니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대정신은 사회를 개혁하고 밝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인 시대정신들, 즉 성공해야 하고 출세해야 하고 자기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기 때문에, 얼마간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짜릿한 성취감을 느끼게도 하겠지만 그것이 계속될 수는 없거든요.

영성은 자기 무화(無化)의 길입니다. 결국 자기를 제로에 가까운 정도로 무화시키는 거예요. 에크하르트나 토마스 아 켐피스가 쓴 글들을 보세요. 수많은 영성가들은 자기를 비우고 축소시킵니다. 말장난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특별한 게 아니라 모두 기독교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무와 창조의 관계에서 창조를 생각하면 창조가 놀라운 은총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무와 창조 전체에 해당하는 분이죠. 무와 창조, 이 전체니까요. 유(有) 안에만 있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소개할 책이 생각났는데요. 매튜 폭스가 쓴 『창조 영성 길라잡이 원복』(분도출판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영성이 긍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네거티브(negative), 즉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창조는 포지티브(positive) 하지요? 포지티브는 적극적이고 실증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거티브가 부정적이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실증과 반대되는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양쪽이 모두 기독교의 영성을 전하는 한 성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무에 대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 무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존재방식입니다. 단어들이 철학적인 용어라서 어떻게 설명해야 잘 전달될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자꾸 여기에 있는 방식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사고의 방식을 접어야 해요.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실증적인, 우리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는, 확신할 수 있는 세계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세계까지도 다 통치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직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모두 해체되어서 원소처럼 있을지도 몰라요. 원소 덩어리, 혹은 그것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가 너무 실증적인 방식의 삶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을 생각하라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미래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것을 성서 기자들도 빛으로 밖에는 말할 수 없었어요. 환한 빛 말이에요. 메타포죠. 그 이상으로 그것을 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놓고 성서 기자와 2천 년 동안의 신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해명하려고 한 겁니다. 죽음과 삶의 문제를 해명하려고 한 거죠. 도대체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방식은 뭐냐? 결국 죽음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는 이 방식은 뭐냐?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창조 이전과 죽음 이후까지 이루어지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세계)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개입해 있는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죽음의 순간을 자주 생각한다고 그랬죠? 누구나 다 그럴 텐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구에 60억 명 정도 사나요? 1초에 수백 명 씩 죽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줄로 서서 순식간에 차례로 가고 있어요. 우리 차례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금방금방 가게 됩니다.

송례문이 세워진 지 육백 년이 되었다고 하던가요? 그걸 세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런데 벌써 사오백 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요즘 그게 불탔다고 사회적으로 많이 시끄럽죠. 사오백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소동을 전해 듣는다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 사이에 시간들은 다 지나가버리는데요. 그 안에 있던 것들은 과연 다 무엇일까요? 지구 안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에 불과할까요? 시간과 공간,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아주 소중한데요. 그러나 이 삶은 하나님의 나라, 즉 창조 이전과 종말 이후까지 모두 포함한 그 전체를 전부 실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폐의 방식으로 우리 삶에 개입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설명하기는 힘이 듭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요.

## 교회와 세상과의 갈등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서 그 결과에 대한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어요. 기독교가, 특히 프로테스탄트가 지난 수년 동안 무지하게 욕을 먹었잖습니까? 욕먹을 짓도 했고요. 오죽했으면 안티기독교 사이트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개신교의 색깔을 가장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이명박 장로가 당선되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일반 대중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실제로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말이에요. 앞으로도 기독교는 계속해서 줄어든 텐데요. 물론 대형교회는 성장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기독교의 세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설문조사를 하면 기독교 지도자들을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한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그 사실만 놓고 본다면 아직도 기독교에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좀 우습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생각 같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민중이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지금 저는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민중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민중 또는 대중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합리적이고 정의를 추구하려고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적이고 대중심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잘못된 부분들, 예를 들면 대형교회에서 벌어진 세습이라든지 심각한 부도덕의 문제라든지 기복주의에 대한 강조라든지 극에 달한 교단 분열이라든지 서울시청 앞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반정부 기도회, 반북 기도회, 친미 기도회 등은 사실 욕먹을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중이 어느 정도 바르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순식간에 이기주의와 군중심리에 빠진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현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작은 분석이에요. 민중에게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또 교회와 연관을 시킨다면, 대중적인 교회를 따라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민중이거든요. 한국 민중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대형교회만이 아니라 신천지에 쏠리는 현상도 거기에 종교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교회를 꼬집어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여의도순복음교회 같은 곳에 70-80만의 신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대중 심리나 종교적 이기주의 등이 연관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설교 내용도 수준 이하인데도 수십만 명이 모이니깐요.

앞으로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런 걸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독교적인 색깔이 강한 대통령을 민중이 뽑은 것은 기독교를 선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와 결부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기독교에서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기독교가 사회에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기대를 걸만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명박 장로가 기왕 대통령이 되었으니 정치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명색이 장로나니까 속으로는 정말 잘하기를 바라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인수위의 모습과 최근의 발언 등을 볼 때 경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잘 나가는 교회가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생각과 비슷하게 국가를 끌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이런

이야기는 그만두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 교회 청소년 교육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기독교 신앙을 버림과 무소유 쪽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경쟁 위주의 교육체제 아래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신앙교육을 제시해야 어필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다니요?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주면 되죠. 예를 들면 ‘Boys! Be ambitious!’ 하는 방식의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무익한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교양강좌에 불과해요. ‘목적이 이끄는 40일’ 같은 프로그램도 기독교 신앙의 근원과 는 거리가 멉니다. 청소년들에게 할 수 있다, 열심히 하자는 식의 가르침은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러지 않아도 사회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다른 것을 말해야죠.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고, 개개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니까요.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 칭의, 성만찬, 세례와 같은 것들의 근본적인 의미들을 잘 살피고, 창조 안에서 창조질서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종말론적인 상상력들을 가르친다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판단할 겁니다. 제발 교회 선생님, 목사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삶을 프로그램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게 너무 심합니다.

이슬람 신앙에 대한 공부와 선교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한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일반 신자들에게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그거 말고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공부할 게 많으니까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정말 심심한 사람이라면 해도 괜찮아요. 이 질문을 한 선교사님 처럼,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들과 충돌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들에게도 어떤 종교성이 있으니까 그 바탕 안에서 기독교를 설명하려는 작업이 필요해요. 개척자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공부할 게 많은데 어떻게 다른 것까지 다 신경을 쓸 수 있겠느냐고요. 이 말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옳은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우리는 공부할 게 많아요. 특히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많습니다. 안티기독교나 예수 세미나 등 소위 말해 자유주의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저의 아쉬움은 생각이 열려 있는 것은 좋은데 기독교 전통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다른 것을 더 많이 아는 것은 무의미하거든요. 저도 장자나 노자의 책이나 동양 사상에 대해 책도 읽고 공부를 했고, 철학이나 물리학도 개론적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런 공부보다는 기독교 전통에 대해 더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2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는지 모릅니다. 선배 신학자들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무엇을 어느 정도로 가르칠 것인가가 핵심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기독교의 근본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설교도 변죽만 울리고 말거든요. 이런 표현을 써서 송구하지만, 그냥 수박 겉핥기 정도입니다. 수박 겉은 맛이 없잖아요. 수박의 속맛을 봤으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지, 하는 게 제 관심사예요. 정작 수박을 쪼개서 당도도 실험하고 느끼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 더 천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개는 프로그램 쪽으로만 관심을 둡니다. 그 한마디를 하려고 설교비평을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한 거예요.

예전에 관련된 책을 소개해 달라는 분이 계시네요. 제가 주로 보는 것은 두세 권 정도입니다. 하나는 『공동예배서』(미국장로교회, 한국장로교출판사)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예배기도』(박근원, 대한기독교서회)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기도문을 많이 읽어야 해요. 자기 멋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온 기도문들은 시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기도문을 형식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 안에는 깊은 생명과 신비의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나머지 한 권은 『새로운 예배찬송』(박근원, 대한기독교서회)입니다. 누가 제게 질문하기를 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왜 목사 가운은 입지 않는냐고 하더군요. 샘터 교회가 지금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운을 입기는 좀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더 괜찮은 공간을 얻게 되면 가운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사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예배 때 가운을 입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배시간에 제가 회개의 기도 순서에 성도들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다만 제가 맡은 역할을 담당할 뿐이죠.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 신앙이 종교적 감상주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포괄적이고 우주론적인 생명, 죽음, 삶 전체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언어개념이 내 삶과 일치되는 성육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오, 즉 실제적인 깨우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담고 있는, 혹은 풀어내려고 하는 세계에 용맹정

진의 자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 전문적인 신학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태도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제11강

### 십자가 사건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생각하라는 말은 안이하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선입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누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었다면 기독교의 신앙을 좀더 깊이 생각했을 텐데요. 아쉽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너무 교리적으로만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런가 보다 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려면 가능한 한 신학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해요. 모든 것들이 다 신학적인 내용들이니까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도그마들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이해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놓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과 자기의 삶은 평행선만 긋습니다. 그렇게 평행선만 긋게 되면 바울이 말했듯이 신앙이 말에만 머물러 있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 기적을 행한다거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뜻이기 보다도 신앙이 자기의 삶과 일치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일치되는 경험이나 신앙을 맛볼 수 없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가르침과 자기의 실제적인 삶이 하나가 될 때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라는 말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크게 행한다든지,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특별한 카리스마를 행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자신의 삶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큰 능력이거든요. 사실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들, 특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십자가나 부활 사건 등이 많은 경우에 공중에 뜬 이야기처럼 되어 버립니다. 구구단을 외우듯이 그냥 말로는 잘하는데, 실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제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가

르치고 있는 혹은 가리키고 있는 내용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여러 번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시작될 때부터 그런 훈련들을 꾸준히 했어야 하는데, 대개는 그런 훈련들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굳어져 버려서 잘 안 됩니다. 잘못된 습관은 고치기가 참 힘들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 삶과 유리된 것으로, 신앙의 정보를 알아 듣는 것으로 머물러 있게 되면, 그리고 그런 상태가 축적되고 반복되면 나중에는 상당히 고치기가 힘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잘 생각해 보라고 한 말입니다.

삼십대 초반의 한 유대인 남자가 로마 사형법인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이 왜 온 인류의 구원과 연관되는 걸까 하는 걸 진지하게 질문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인류를 구원했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했어야 했을까요? 십자가 처형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꼭 그래야만 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비(非)신앙적이라고, 혹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광신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신앙의 능력을 갖기는 힘듭니다. 광신자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광신자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거든요. 그 대신 자기가 믿고 있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갖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지요. 참된 믿음이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참된 믿음이란 믿고 있는 자신마저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믿어야 될 대상만을 신뢰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철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신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들은 실제로 신앙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지도 않고, 자기가 믿는다는 사실에만 집착을 하니깐요. 그런 신앙에는 자폐증과 비슷한 정신 병리학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신앙이 상식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상식을 바탕으로 두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비, 하나님에 대한 신비는 그 다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 단계가 없는 상태, 즉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을 분명하게 뚫어볼 수 있는 직관이나 통찰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해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결국 불안해지고 광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십

자카와 부활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케리그마입니다. 모든 설교는 결국 십자가와 부활로, 더 궁극적으로는 부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만 여전히 십자가에 대한 질문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질문들을 지금도 꾸준히 질문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 남자가 죽은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죽은 사람은 아주 많았는데, 인류 구원의 길이라고 하셨는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놓치는 사람은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오해는 마세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의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고 있는 궁극의 신앙적 현실성(reality)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 성서 해석에 대해

이야기가 옆으로 나가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지난해(2007년) 11월 초에 한국설교학회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두 분의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발제 강연을 했는데요. 그 글이 <기독교 사상> 12월호에 실렸구요. 그걸 제가 다비아 <설교비평> 메뉴에 올렸습니다. 몇몇 분들이 코멘트를 달았더군요. 저도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씩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인교 교수님보다 류응렬 교수님의 글이 좀더 객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인교 교수님은 너무 도식적으로, 교과서적으로 글을 쓰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글을 쓰기 위해서 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류응렬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글의 흐름이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좋았어요. 읽기도 편하고요. 그분들은 저의 설교에 대해서만 언급한 게 아니라 한국교계 전체에 일어났던 설교비평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주로 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죠. 그걸 전체적으로 코멘트 하기는 뭐하고요. 단지 저에 대해 류응렬 교수님이 지적인 한 부분만 짚어 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저를 칭찬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맙게 생각해요.

그분이 문제로 제기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훼손한다는 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화라고 하느냐는 거였죠. 그런데 그분이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 겁니다. 그분이 오해하는 것은 성서에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인데요. 성서해석학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데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화적인 방식

을 통해서도 말씀하거든요. 성서 안에 신화만 있습니까? 소설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시도 있고, 역사도 있죠. 역사라는 것도 실증적인 역사가 아니라 당연히 해석된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들도 실증적인 게 아니라 신명기사가에 의해 해석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걸 신명기사관이라고 하는데, 신명기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나와 있는 역사들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사실이 아니죠. 성서뿐 아니라 모든 역사 기술이 실증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쓴 사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해석이 나름대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제가 서울 오프 모임에서 강의할 제목이 ‘다윗의 통곡’인데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고유한 역사관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역사거든요. 역사 기술은 결국 승리자의 입장에서 쓰게 됩니다. 다윗왕조는 메시아의 가문이기도 했지만, 사울과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승리자였어요. 여러분이 성서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참 좋은 왕이고 사울은 못된 왕이라는 내용을 너무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합니다. 거기에는 역사를 보는 눈이 작용했기 때문이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우리는 이것을 나름대로 해석해야 하는 거죠. 성서 자체가 역사해석입니다. 모든 텍스트는 해석이거든요. 이미 해석된 텍스트란 말이죠. 그런 뜻에서 본다면 성서자체도 해석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서를 읽는 우리도 당연히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한 해석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류응렬 교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성서의 신화적인 요소를 사실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설교하게 되면, 고대인들의 신화적 세계관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판단에 대해 그분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라는 말로 훼손시킨다고 한 것 같아요. 이런 관점은 설교학이나 실천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신학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생각들이 부족한 데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이해가 공통으로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전이해가 없으면 또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는 안 나가고 매번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 십자가에 대한 열린 질문

다시 본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요. 우리는 계속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기독교 신앙을 심화시키고 바르게 나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저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인류를 구원하는 걸까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유대인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걸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의 문제는 말한 것 같은데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여기에 뭔가가 들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명명백백하게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변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변증들은 얼토당토않은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2천 년 동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노력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고요. 오늘날에도 신학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천 년 동안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신학자들이 자기 삶 전체를 투자하면서 핏대를 올리며 뭔가를 말하려고 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가르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르침이 근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하나의 공식으로 끝나고 만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도그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도그마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거리가 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역동적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는 어떤 것으로 머물러 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당분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할 텐데요. 이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의 개인 실존에게는 물론 역사 전체를 향해서도, 오늘의 신자유주의를 향해서도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은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신앙의 문제로 안으면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영성이고요. 그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役事)를 통해 우리가 반듯하고 확실한 대답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 그 사건에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역사가 흘러가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삼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단순히 주문을 외우듯이 우리의 욕구를 성취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 문구를 다시 사용할게요. 신앙을 도구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용해서 구원을 받아야겠다, 만족을 얻어야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통치 행위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세계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맥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해요. 우리는 우리가 짜놓은 프로그램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뭔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가 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미안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많았네요. 실제적으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복음서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일년여, 요한복음은 이 년여가 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예루살렘 순례를 몇 번 했냐,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은 계산입니다. 공생애는 아주 단순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해 점점 남하하다가,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야기죠. 다른 성인들, 즉 다른 종교 창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삶은 너무 짧았어요. 예수님과 비교해서 부처님은 천수를 다했습니다. 공자도 그렇고요. 마호메트는 몇 살까지 살았나요? 그분도 상당히 오래 살았을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오래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주 짧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짧은 시간과 좁은 지역에 살았던 것에 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다행이죠.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먼저 짚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미움을 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복음서에는 그 이유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반(反)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반성전주의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상대화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반도덕주의자로서 죄인들과 어울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의 세련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율법을 반대하고 성전을 반대하고 도덕

을 반대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반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자신을 던진 분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들이 세운 어떤 체제, 전통, 율법 등을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종교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낙인찍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마 16:13)고 질문한 적이 있었고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질도 몇 번 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면 죽는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이렀을 때 나귀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제적인 역사와 부합하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일들은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회상하며 말로 구전되다가 문자화 된 것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많은 것들이 가미도 되고 빠지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터무니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 유월절 만찬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후반부에 속하는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유월절 만찬, 겟세마네의 기도, 체포당한 것, 공판, 십자가형의 집행 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눴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이니깐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 우리에게 성만찬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제 강의안에서 한 대목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삶을 끝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유월절 만찬은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명증하게 드러내 주는 사건이다. 말 그대로 밥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다. 어떤 사람들은 돌레상 공동체라고 표현한다. 예수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는 늘 밥상 공동체적 기초에서 이해된다는 말이다. 오늘의 교회도 이런 지향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해방의 날인 유월절이 이제는 참된 나눔과 친교가 이루어지는 축제가 되었다. 정치적 해방이 이제는 분리와 소외로부터의 해방이 되었다. 결국 우리는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구원의 참 의미를 상징적으로 깨닫게 된다. 전통이 기독교 예배의 성찬식으로 전승되었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뭔가를 먹고 나눈다는 것은 결국 분리와 소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교회가 밥상 공동체의 성격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도 드러났고 2천 년 동안 기독교 교회가 성만찬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확실하게 드러났거든요. 다만 그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야 하는 거겠죠. 우리가 결식하는 자들 혹은 노숙자들과 밥을 나누는 것도 그것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그것이 하나의 행사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내가 뭔가를 베푼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밥상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겁니다. 노숙자들과 굶는 자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가 더 정의로워지도록 투쟁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지금 계속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세금을 걷어서 올바르게 쓰지 못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입도 뻥긋하지 못하면서 봉사나 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밥상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이 세계를 잘 모르는 것이고 그 책임을 확실하게 지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남북분단은 참 심각한 문제죠. 미국에서 전투기나 헬기 같은 것들을 몇 대만 사오지 않거나 국방비의 10%만 줄이더라도, 결식자들을 위해 많은 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테레사 수녀가 욕을 먹는 것 같아요. 그 나라의 부조리들에 대해서는 왜 침묵 하나는 거죠.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조리들을 합리화하는 길마저 열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너무 지나친 비판 같고요. 테레사 수녀는 훌륭하게 자기가 맡은 부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대형교회들이 경쟁적으로 결식자들에게 밥을 나눠 주는 일이 도대체 기독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쁜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가 그렇게 낭만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고대사회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모든 문제가 구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구조적인 관점에서 투쟁하며 해결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 한국 기독교의 대표 기업인 이랜드에서 비정규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똑바로 보았듯이, 이랜드가 그런 일들은 쉽게 처리해버리면서도 상당한 돈을 선교비로 쓰거든요. 아마 이랜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에 벌어들인 돈으로 결식자들을 많이 도왔을 거예요.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뱀처럼 슬기로우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똑바로 보아야 해요.

밥상 공동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이 말을 낭만적으로 즐겁게 밥 먹는 일

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는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예배 후에 식사하고 친교를 나누는 정도로만 끝나지 말고 교회 밖으로 더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3세계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노동으로 인해 학대당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대로 구조적인 불평등, 다시 말해 구조적으로 밥상 공동체가 깨지는 것에도 마음을 써야 합니다. 알겠죠? 예수님의 이 밥상 공동체,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 예식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전체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나누어야 합니다. 세계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세계에서 큰 나라들을 OECD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G7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나라들이 실제로 제3세계와 같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먹어야 한다는 사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선진국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살지 않고 있는 거죠. 미국이 그런 경향이 강한데,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나라도 기독교 신앙을 개인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셋세마네의 기도

그 다음은 예수님이 셋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던 날 저녁에 행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주소서”(막 14:36)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그럴 리야 없겠죠.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이기 때문에 두려운 대상으로 분명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세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몸도 다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다 따라서 죽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계가 되겠군요. 죽음은 참 두려운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 때문에 그렇게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소크라테스와 비교해 보면,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스토아적인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였으니까요. 그에 비해 예수님은 다소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글을 쓴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예수님의 잔을 물리쳐 달라는 호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랐어요.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와 철학적인 이해가 다르거든요. 헬라 철학은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바라봅니다. 그 관점에서는 육이 악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게 축복이죠. 영은 영원하고 본질이며 이데아에 속한 거니까 죽음은 해방인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고 할 수 있죠. 열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전통에서는 영과 육이 하나거든요. 정말 온전히 죽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혼 불멸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궁금할 텐데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여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기독교는 죽음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는 것을 죄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죄는 곧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갈 수 밖에 없는 길이 죽음이죠. 단순히 육은 죽지만 영은 산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과는 달리 기독교는 전체적인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두려워한 그 본질이 무엇이나에 있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두렵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실제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애국자들도 십자가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반로마 혁명을 일으킨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정말 힘들어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아마 “유대 나라, 만세!”라고 고함치며 자랑스럽게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아마도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기가 온전히 참여했었던, 하나가 되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끝나서야 되겠느냐 하는 절망감이 아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게다가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가는 이 길이 인류 구원의 길이라고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죽음이었거든요. 이걸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면 인간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고 확신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해서 좀 거북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확실하게 강조해야 여러분의 생각이 열리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이니깐 이해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설교비평을 하면서 가끔 비아냥거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직접 만나면, 글보다는 사람이 다르다고 말 하더군요. 글의 어조는 강한데, 사람을 보면 좀 유하니까 다르다고 느끼나 봅니다. 아마도 그와 같은 제 글의 특성이 사람의 마음을 좀 흔드는 게 아닌가 하고요. 그렇다고 제가 없는 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지나가는 길에 변명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내가 이 길로 가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나중해야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느꼈지만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길을 간 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자기가 그 동안 한 일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 였거든요. 그러니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히 실패니까요. 전달이 되나요? 이렇게만 말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켜든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 생각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순종한 거죠.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신이 꼭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기독교 신앙은 믿고 있는 자기 자신도 신뢰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라고 말했는데, 이것과 모두 연관되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예수님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이래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끝장나는 거예요.’라고 생각했고, 그 어디에서도 구원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민중들도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죠. 5천명이 넘게 따라다녔지만 순식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졌거든요. 이것이 민중신학의 한계입니다. 민중신학은 민중을 지나치게 이상화해요. 그렇다고 엘리트주의가 이상적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포퓰리즘이든 엘리트주의든 간에 그것을 절대화하면 바른 신앙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옳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조차 믿을 수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막막한 상태에서 힘들게 투쟁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스라엘의 종교는 변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 가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절망이죠. 피하고 싶죠. 다른 길이 없냐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죠. 그러나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라는 기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순종이죠. 확신하지 못하는 순종, 거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

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활이 뭔지 아나요?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을 확인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증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한 확실성을 갖고 있을 뿐이죠. 이게 애매하기도 하고 역동적이기도 하고 유기적이기도 하고 다소 변증법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십자가의 처형으로 다 끝날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말이죠. 그러나 다른 길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던 장면에도 한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려온 이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릅니다. 예수님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걸 근거로 기독교 윤리를 비폭력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기독교 윤리가 비폭력을 절대화하는가 하는 것도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비폭력을 그 바탕에 깔고는 있지만, 이 세계가 그걸 많이 악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폭력을 사용해야 할까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은 아니겠지만 반(反)폭력, 즉 폭력에 반대하기 위한 소극적인 폭력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지금은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접겠습니다. 어쨌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이 사건은 마지막 순간에 벌어졌던 에피소드입니다. 없어도 되는 거죠. 없어도 되는 건데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는 이것이 없어도 지장이 없는데 들어왔어요. 칼로 체포당한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가 칼의 역사를 심심치 않게 자행해 왔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통 교회는 조금만 자신과 다른 이야기를 해도 종교재판에 처했죠. 점성술사들, 수사들, 자유주의 과학자들, 인문주의자들, 집사들, 혹은 마녀들이라는 사람들에게도 박해를 가했습니다. 칼에 의해서 체포당한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가 다시 칼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 기독교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나가야겠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교조가 되는데요. 삶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칼, 칼을 준비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 강의 시간이 5분 남았네요. 급한 질문만 있으면 문자로 주세요.

##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 신성의 제한을 받았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신성과 인성의 문제인데요. 5강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질



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로 재듯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먼저 신성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하거든요. 보통 우리는 초능력, 역사초월, 창조의 능력을 신성이라고 합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불변, 영원한 생명 등을 신성이라고 하죠. 신성을 그런 것들로만 생각한다면, 지상의 예수님은 신성에서 철저히 제약을 받았습시다. 제약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온전한 인간이었죠. 그런 신성은 없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자기를 제한시키는 차원의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초능력자가 아니라 무능력한 자로서 자기의 신성을 낮춘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게 바로 무능력의 표현이거든요. 목마르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이 땅으로 낮아진 겁니다. ‘케노시스’(κένωσις)라고 하죠. 그것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 이해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모든 인간적인 한계들이 신성이예요. 신성과 인성은 칼로 딱 잘라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는 신성을, 인성을 뛰어 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한계와 일치되도록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이 라는 거죠. 이것이 삼위일체론의 단초예요. 이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하나님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꾸 창조나 종말과 같은 큰 것들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한계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이해도 필요합니다. 신성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아는 한계 안에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중이죠. 종말에 가면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죠. 양측이 서로 의존적입니다. 지금 이런 질문들은 삼위일체론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은 자존자, 단독자로서 성부 하나님입니다. 단독자이면서 동시에 인간 예수에게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하나님 이해에서는 하나님 스스로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칼로 잘라 내듯이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계시가 온전히 예수를 통해 드러났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초월이면서 동시에 내재하는 겁니다. 이걸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할 말은 없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제가 자꾸 신학적 사유, 개념, 언어, 사건, 세계에 대해 말하잖아요? 궁극적인 것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밥상 공동체를 위해서 투쟁하는 삶과 하나님의 배타적 구원과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밥상 공동체에서 투쟁하는 것과 하나님의 배타적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물론 멀리 보면 연결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배타적 구원이라는 말은 구원 자체가 배타적이라는 건데요.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문제들을 개선해가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밥상 공동체를 이룰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질문인가 본데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전제에서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청지기로서 참여합니다. 이런 설명으로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도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정의나 평화로운 밥상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런 전제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실천하자는 겁니다. 이건 윤리적인 차원이죠. 하나님의 배타적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라는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고, 밥상 공동체는 우리 기독교인들, 즉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윤리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상위 개념은 배타적인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제12강

### 십자가와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질문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시 말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여러분은 그거야 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가 공모해서 죽인 거 아니냐고 말할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들어서 아는 이야기이지, 성서를 들여다보고 스스로 찾은 대답은 아닐 거예요. 들어서 아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다만 들을 때 누구에게서 듣느냐가 중요하고, 들은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들은 내용들을 단답식으로 암기하고 말죠. “아,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으니 당연하겠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살펴봅시다.

####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는 과정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의 충돌이 그 과정의 출발입니다. 거기서 총대를 맨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구요. 제사장들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제사장이 보낸 군인과 사병들에 의해서 잡혔고, 그 제사장에게 재판도 받았습시다. 공적 종교재판이 산헤드린에서 심문을 당하셨다가 결국에는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죠. 이게 복음서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 사도신경에는 복음서가 보도하고 있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지도자들이 예수의 처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들의 책임이 큰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데, 사도신경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서신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작은 단서라도 있는지, 제가 그걸 확인하지

는 못했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정리해서 말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여튼 서신서 어디쯤에 그런 언급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제 머리에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서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빌라도와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말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의 처형이 제사장과 빌라도의 책임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었던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서가 신약 성서의 앞부분에 나오고 있지만, 복음서가 먼저 기록된 건 아니니까요. 기록된 연대로만 본다면 데살로니가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서신서와 복음서가 한 무더기로 기록되었어요. 요한복음은 훨씬 후대의 이야기예요. 서신서는 기원후 40년대에서 100년 전후까지 50-60년 동안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일관성을 갖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서의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없고요. 하여튼 복음서의 내용과 서신서의 내용은 연대기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 들쭉날쭉하게 공동체의 형편에 따라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복음서들 가운데 어떤 건 알고 있었을 거고, 어떤 건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복음서 기자들도 복음서를 자기들이 다 쓴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미 확정된 이야기들이 있었고, 전승은 아니지만 자기가 전해들은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편집의 과정을 거쳐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복음서든 서신서든 이것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제가 사용한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품이라고 하는 게 뭐하지만, 사람이 썼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는 공동체의 신앙고백이었어요. 그 신앙고백의 차원에서 복음서는 십자가 죽음의 책임에 대해 제사장과 빌라도 총독을 거론하는 반면, 서신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제가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백 프로 확신하고 말하는 것도 아니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성서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있다면 석사학위 논문으로 서신서와 복음서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의 차이에 대해서 써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 신학의 차이도 괜찮습니다. 이런 논문들은 벌써 많이 나왔지만, 아직도 우리가 공부해야 할 거리가 많거든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을 처형한 장본인들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왜 서신에는 그런 언급이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처형에 제사장과 빌라도가 그렇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는 말하기가 힘

들지만, 2천 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고 언급될 만큼, 이젠 거의 저주에 가까운데,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겠느냐는 질문이죠.

이런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놀랍게도 유대 기독교와 초창기뿐 아니라 그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나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은 사도행전에도 잘 나와 있죠. 물론 사도행전도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방향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었고 유대교의 기도 의식을 계속 지켰어요. 초기 기독교의 예루살렘 공동체는 유대교로부터 독립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일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제사장들을 예수 처형의 장본인들로 생각했다면 그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과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이 영겨 있을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활동과 유대교와의 관계, 유대교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생각들, 또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함락, 그것을 통해서 바리새파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유대 기독교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복음서와 서신을 기록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관계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들의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는 점이에요. 반복되는 말이지만, 제사장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빌라도에게 고발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중심이 된 예루살렘 공동체가 유대교와 선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의 실제적인 진실에 대해 정확하게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는 유추하고 예측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유대교나 헬라의 다른 사상들과 차별화됩니다.

### 수치의 대상인 십자가

성경 구절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2-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기적을 하나님의 행위로 생각합니다. 능력

을 바라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기적적인 것, 종교적인 것, 하나님의 큰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십자가는 부활의 길로 가는 그 길목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다른 종교와의 차이보다도 고린도교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성은 일반적인 종교와는 다릅니다. 기적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호렙산 바위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치니까 샘이 솟았다는 본문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니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라고 설교를 한다면, 이것은 성경 왜곡이라기보다 그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물론 성서에 많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가리키는 징표, 또는 표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있는 자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고상한 지식도 바울은 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설교비평을 할 때 자주 반복하는 말인데요. 교양 강좌 식으로 설교를 하면 곤란합니다. 그게 헬라인들이 원하는 지혜와 비슷한 거거든요. 도덕적이고 교양적인 설교는 기독교의 케리그마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그 안에서 쓰인 서신서 안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기는 해요.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징으로서 기적을 말하듯이,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 임재의 한 방식으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서른세 살 쯤 되는 유대인의 한 남자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온 인류의 구원이 될까요? 그게 과연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십자가는 그들에게 어리석음이었습시다. 아주 미련하고 무능력하게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그 죽음이 거리끼는 거였어요. 고상한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정말 우스운 죽음일 뿐이지요.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말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신론자였다가 정말 무식한 사람들로 보였을 뿐이거든요. 고상하지 않잖아요. 아주 초라하잖아요. 거기에서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

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엄청난 혁명적인 선포예요.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마찬가지로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을 걸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인데, 그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십자가가 오히려 요술램프처럼 미술적인 능력이 되어버리고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십자가를 하나님 구원 섭리의 놀라운 계획이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건 아니예요. 사람들이 아주 거리끼는 미려한 삶의 결과였던 십자가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를 구원하는가에 대해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오늘도 설교자로 강의가 끝나는 것 같네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오늘 강의를 들은 분들에게도 ‘아, 그래. 그럴 듯하구나. 내가 평소 생각하던 부분이구나.’ 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모든 걸 다 말할 수도 없고, 이것이 말의 한계인데, 또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단순히 구원의 길로 암송하고 주술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면 주세요.

## 신구약의 내세관

“구약의 내세관과 신약의 내세관이 다른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 사상이나 개념들은 변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구약의 내세관과 신약의 내세관은 서로 대립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뭐냐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기도 하고, 인간의 영혼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내세라고 하면 다가올 세상이라는 뜻인데요. 우선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다가올 세상을 에온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헬라 사람들은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똑같이 세상인데 말이죠. 그 안에 들어 있는 개념이 달랐어요. 히브리인들은 시간적으로 생각하고 헬라인들은 공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헬라인들은 세상을 커다란 공간 안에서 돌고 도는 새로운 것이

없는 것으로, 불로 다 태웠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영혼이 순회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코스모스라고 말했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공간이 아닌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안에서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세계관이니까요.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세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거든요. 내세는 세계가 무엇이나에 대한 문제와도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세만 딱 끊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칠게 정리한다면 구약에서는 내세관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신약과 같은 내세, 즉 종말론적인 내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같은 상징으로 표현된 그런 세계가 구약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죽으면 다 ‘스올’이라는 어둡침침한 곳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조상들이 돌아간 그 곳을 가기 위해 통과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내세라든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구약성서에는 이렇다 할 희망이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죽음이 구약 시대 말기쯤 묵시사상으로 연결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 열리게 돼요. 그 묵시사상이 신약의 종말론으로 연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적극적인 세계 이해로 바뀌게 됩니다.

## 만유내재신론

다음 질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매튜 폭스는 『창조 영성 길라잡이 원복』에서 유신론이 하나님과 인간을 주객관계로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유신론에서 만유내재신론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신론적 종교행위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제가 매튜 폭스의 저 책을 옛날에 읽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만유내재신론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지적은 옳습니다. 기독교는 거칠게 말한다면 유신론과 무신론 논쟁을 뛰어넘는 하나님 이해거든요. 하나님이 곧 있다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음으로써 하나님의 계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신론과 무신론은 있다 없다는 식으로, 즉 매튜 폭스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주객도식으로 이해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방식은 나와 너와의 관계로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은 나와 너의 존재 방식을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볼 때 유신론적 하나님 이해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통 신학도 시대적으로 어떤 때는 무신론과의 논쟁에서 유신론의 입장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그게 기독교의 정통 신론은 아닙니다. 정통 신론은 삼위일체론이죠. 삼위일체론이라고 해도 그것이 무신론을 지



지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다만 있음과 없음이라는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을 이 삼위일체가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과도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의 전능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력도 말하기 때문이죠. 보통 유신론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무소부재, 전지전능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죠. 무능력하게 자기가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하나님이예요. 역설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해야 할 부분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실증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유신론적인 하나님 이해는 이미 기독교 정통 신학에서 극복된 겁니다. 분명히 극복된 문제예요. 기독교 신학이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그런 사태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기독교를 실체론적 유신론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학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온 걸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튜 폭스가 말하는 만유내재신론(panentheism)은 이 세계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통 기독교의 신 이해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창조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곳곳에 임재해 있죠. 좀 더 매튜 폭스나 다른 신비주의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들레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곧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물론 매튜 폭스가 만유내재신론이나 범신론도 말할 텐데요. 우리가 그걸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면 그의 책을 갖다 놓고 대조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그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매튜 폭스가 말하는 만유내재신론은 물론 범신론과는 차이가 있어요. 아마도 신학적 입장의 차이일 텐데요. 범신론은 훨씬 더 세상 자체를 신으로 이해하는 입장이고, 매튜 폭스는 거기에서는 다소 비켜서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세상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 내재이면서 역사 초월인 특성을 놓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이 없어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독교 전통 신론에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튜 폭스는 그게 포기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세계 자체가 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과 동일시될 수 있고 신의 통치가 다 들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하나님의 초월성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가톨릭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과, 연옥의 존재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성이 있는 건가요?”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증적으로 알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연옥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서도 그런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도 있으니까, 그들이 연옥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에 대한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톨릭신자들에게는 마리아가 거의 신처럼 인식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톨릭 정통 신학에서는 마리아가 신은 아닙니다. 마리아를 강조하는 것은 마리아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 강조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가톨릭의 신앙 중에서 성모 승천 문제가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렵פות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가톨릭이 마리아를 신으로 섬긴다는 건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톨릭은 전혀 이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식하거나 독단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본줄기로 돌아갑시다.

## 역사의 신비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 몇 년도인가 하는 생각이요. 지금이 2008년인가요? 갑자기 글을 쓰고 하다 보니, 아니 시간에 많이 쫓겨서 그렇지, 뒤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독서삼매에 빠지는 것과 비슷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보거나 성서를 보거나 공부 준비를 할 때뿐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하거든요. 노을이 지는 것을 볼 때, 어떤 향기를 맡을 때,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때,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장면이 뭔가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문득 깜짝 놀라는 거죠. 정신이 펴 뜨 드는 거예요. 각성이라고 할까요? 내가 그 장면을 객관적으로 내려다보는 겁니다. 내가 길을 가는 것도 한 장면이잖아요. 영화의 한 장면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행인들도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서 먼지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종이가 날리기도 하고요. 그런 순간순간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평소에는 놓치고 사는데요. 우리가 예민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어떤 근원에 닿아 있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듯이 말이에요. 제 경험이 꼭 그렇다는 게 아

나라 그런 느낌이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아마 시인들도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어떤 순간에 영원을 경험하는 거죠. 황지우 시인의 시집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의 제호로 잡힌 바로 그 시에 이런 묘사가 나와요. 주막집에서 소주 한 잔 부어놓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나, 먼 훗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는 나를 보게 될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노년을 미리 그려 보는 거예요. 20년 후에 자기 모습을 보니, 모든 걸 내려놓고 주막집에서 소주 한 잔 부어놓고는, 소주가 줄어드는 거만 바라보고 멍하니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추할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짐에서 벗어나 그냥 어떤 순간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내다보는 거죠. 그러한 경험 말이에요. 이게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을 하고 있든, 길가에 좌판을 벌여놓고 과일을 팔고 있든, 그 순간은 다 똑같거든요. 대통령 취임만 위대하고 의미가 있으며, 좌판을 벌여놓고 과일을 파는 게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모든 것들이 이 세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런 게 무지 많아요. 하나하나가 우주와 같은 무게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어 있는 영성으로 포착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술가들의 영감일 수도 있고, 시인들의 영감, 철학자들의 각성, 종교인들의 깨우침일 수도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문득 정신이 차려지면서 지금이 언제가 2008년인가? 아니면 2108년인가? 아니면 더 거꾸로 돌아가서 1008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책상 앞에서 컴퓨터도 치고 성경도 읽고 내일 저녁에 포항에 가서 공부할 것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직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반도 채 못했는데, 내일 오전에 해야겠어요. 포항에서 공부하는 게 벌써 두 달 정도 지났군요. 처음에는 쉽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요즘은 좀 부담스러워요. 동영상 강의도 해야 되고 다른 글들도 써야 하다 보니 그래요. 하지만 조금 힘들어도 하다 보면 재미있거든요. 이런 공부들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하다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교 공부도 필요하고, 박사 학위 코스도 필요해요. 그 과정이 대단한 건 아닌데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얻는 게 많습니다. 저도 무리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할 때는 좋아요. 재미있으니까요.

간혹 강의 준비를 하다가 문득 지금이 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갈라디아서가 기원후 50-60년대에 기록되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복음 사이에,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 사이에 첨예하게 논란이 되었던 토라와 할례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항

했습니다. 바울이 왕따를 당하는 형태였어요. 조금만 타협하면 예루살렘교회로부터 인정도 받고 서로 좋았을 텐데 바울은 왜 그렇게 유별나게 대립을 했을까요? 그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 갑자기 2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바울이 살아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주변 환경, 소위 말해 그가 처한 객관적인 삶의 자리도 그렇지만, 바울이 혼자 경험했던 신앙의 깊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실질적인 그의 신앙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갑자기 2천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더군요. 그리고 또 2천 년 후가 올 텐데요. 2천 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오늘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를 돌아보겠죠. 모든 순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흔히 하는 말로 리얼한 연극의 한 장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장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것의 진면목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대개 우리는 이것을 다 놓치고 살거든요. 다른 데 우리의 신경이나 영성을 다 빼앗기기 때문이죠. 다른 게 뭔지 알죠? 이런 상황은 일반 사람은 물론이고 목사마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목사로서 본질적인 것보다는 다른 것에 힘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규모 있는 교회가 되면 교회를 관리해야 하고, 그 안에서 기계처럼 돌아가야 하죠. 그래서 참된 영성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2천 년 전인 기원후 50년대에 갈라디아서를 썼던 사도 바울과 그 삶의 자리, 그리고 2천 년이 지나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죠.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역사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모든 역사에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되면 그 모든 장면들이 재생(replay)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찍어두어야 그게 가능할까요?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평가되고 숨긴 것이 드러나게 될까요? 여러분, 연극을 생각해 보세요.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연극은 셰익스피어가 희곡의 대본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만일 셰익스피어가 대본을 다르게 썼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셰익스피어가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작가의 머릿 속에는 수백 가지의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햄릿의 운명을 죽느냐 사느냐의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결정되어서 역사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가능성에 그친 것과 역사에 나타난 것의 차이는 뭘까요? 그걸 헬라 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잠재태와 현실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들은 다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중에 어떻게 하나가 선택되어서 우리의 운명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그냥 가능성으로만 남고 역사가 되지 못한 것과 실제로 역사가 된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그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장난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의 생각이고 성서 신학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요.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명백하다고 생각하는 이 현실과 역사가 그렇게 명백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 스승들의 말에도 있듯이 삶을 대몽(大夢)이라고 하잖아요. 큰 꿈이라는 말이지요. 꿈은 깨봐야 그게 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쩌면 현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 이전의 다른 것들이 더 현실일 수 있으니까요. 현실로 드러난 역사 말고 가능성으로 남아있었던 것들이 더 참된 것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숨어있는 것들이죠.

### 하나님의 은폐성

제가 하나님의 은폐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계시는 노출이면서 동시에 은폐라고요. 숨어있는 것과 노출되는 것의 차이가 칼로 두부를 자르듯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무언가가, 무슨 이유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전에 제가 한번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왜 존재하는 것들은 세상에 있고 역사로 드러났는데, 무(없음)는 왜 숨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無)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신학자나 성서 기자, 혹은 시인이나 예술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이런 인식이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걸 생각해야만 창조 행위가 가능해요. 숨어 있는 걸 의식하고 드러나게 해야 창조이지, 이미 드러난 것만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창조겠어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은 것과 드러난 것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 하거든요. 도대체 그런 것들과 기독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쪽으로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하나하나 점목시키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반성 하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데요. 이것을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전문적인 신비주의자나 영성가나 신학자처럼은 되지 못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 게 바탕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성령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는데, 삶의 능력을 거기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중심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위로 떠버리면 조금만 옆에서 건드려도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된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가장 밑바닥에 둔다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존재 바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일반 성도들도 이런 훈련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삶의 신비를 더 들여다본다면, 성서 텍스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인문학적 성서 읽기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역사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 외에 또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읽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제가 자주 예를 들듯이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는 동네 바둑에 머물지 않고 바둑 전문가들이 쓴 책을 보거나 그들이 둔 바둑을 복기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역사의 신비를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먼저 그것을 공부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면 일자무식이라도 역사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서가 있는데, 사실은 성서가 가장 영적인 책이에요. 우리는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역사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 제13강

### 십자가와 부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야 하는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교우나 직장 동료나 이웃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과 인간적인 연대성을 확실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그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역동적으로 잘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삶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사태 앞에서 긴장을 잘 유지할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데요. 그게 힘들죠. 왜냐하면 두 가지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나 연대성 속에 폭 빠져서 온통 그것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인 양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걸 완전히 무시한 채 초월적인 세계에만 치우쳐 살아갑니다. 동료애적인 연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멀리 있는, 즉 사람들과 밀착된 관계에서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동시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개 한국 사람들은 정에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결탁, 이게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역감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가족 이기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개교회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경상도에서는 동창회나 계모임 같은 게 많습니다. 사람들끼리의 결속에 휩싸여 버린단 말이지요. 그런 모임들이 개인과 사회 공동체를 개방적으로 만들고 역동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쪽으로 작용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지역적인 편차가 심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뭔가 지역적으로 통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건 이해가 됩니다. 유럽 사회는 인간관계가 상당히 쿨(cool)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한 쪽이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에서도 교우들 사이에 신앙의 연대성이 굉장히 중요하더군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독자로 설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려면 신자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멀어져야 해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를 가깝게 유지하면서도 동시

에 그것과 떨어질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 로마 총독 빌라도

앞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는 몇몇 과정들을 짚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단락인 손 씻는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체포당한 뒤 예수님은 두 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는 종교재판이고 하나는 사법재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종교재판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식으로 받습니다. 복음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 가기 전에 대제사장 관저에서도 심문을 당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벌어진 종교재판에서는 거의 선문답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 예수님을 심문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께 신성모독 죄를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적인 언사가 있었는가, 그런 행동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그런 것까지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복음서만으로 말하기는 힘들어요.

『초기 기독교 형성』(트로크메, 대한기독교서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트로크메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꾸려 나가면서 유대교와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선고받았어요. 예수님에게는 신성모독 죄로 보일만한 부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선포된 반(反)율법적인 명제들을 보십시오. 모세가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모세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원래 다른 뜻이지만 성전을 허물면 삼일만에 다시 짓겠다는 주님의 말씀도 오해받기 맞춤 한 거지요. 복음서 기자들은 그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보았지만, 그 말을 직접 들은 제사장들은 기분이 크게 불편하게 생각했겠지요. 복음서의 그런 보도들이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내려온 전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마디만 끊어서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전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성서의 맥락과 전체적인 기독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짚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직면하는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쉽지 않은 이야기죠? 어쨌든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모독자로 선고를 받았어요. 그 당시 산헤드린은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이었다고 한다면 실정법으로는 어떤 죄목이었을까요? 빌라도에게서 받은 재판이 실정법으로 작동되는 건데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복음서가 전하는 전체적인 뉘앙스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에피소드가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의 재판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지 말라고 빌라도에 말하기도 했고, 빌라도는 유월절에 죄수를 석방하는 풍습에 따라 예수를 살려주려는 시도도 했어요. 빌라도는 나중에 손을 씻으면서 자기는 이 문제에 상관이 없다는 퍼포먼스도 벌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의 실체가 뭐냐는 겁니다.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그 실체 사이에 어떤 간격들이 있거든요. 그 사이를 잘 포착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성서개론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지금 이 단락만 놓고 본다면 복음서는 기독교가 로마 정부와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이야기야 다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에 대한 사형선고는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산헤드린과 로마 정치를 대표하는 총독이 함께 만든 합작품입니다. 종교적 광신과 정치적 폭력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종교인이라면 종교인답게, 정치인이라면 정치인답게 자신들의 합리적 논리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할 텐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오지 못했어요. 게다가 이 사건에서 비열한 점은 산헤드린과 총독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산헤드린이 예수를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한 인물로 판단했다면 유대의 사형법대로 돌로 때려 죽였어야 했는데 그들은 교묘하게 빌라도의 정치적 힘에 기대보려고 했던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산헤드린에게 사형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형과 유사한 것들은 벌어졌거든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요. 산헤드린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의도로 예수님의 사형 문제를 빌라도에게 떠넘겼던 겁니다. 빌라도 역시 기왕에 자신이 사형선고를 내려야만 했다면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끝까지 정치적, 사법적 정당성을 붙잡고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손을 씻는 몸짓으로 자기 행위의 불가피성을 비굴하게 합리화했던 거예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악

은 그렇게 줌스럽습니다.

하여튼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그건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오판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름으로 정당한 판단이었을까요? 빌라도는 상당히 직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방장관으로서 유대지역에 총독으로 왔을 정도면 로마에 가서도 한 몫 할 만한 사람인데요. 그가 근거 없이 예수를 죽이라고 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서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의 재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상황을 유추해 본다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를 사법 처리하는 게 로마의 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복음서에 보면 군중들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빌라도가 몸보신의 차원에서, 즉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따라 자기의 판단을 굽혔다는 뉘앙스로 보도됩니다. 빌라도가 타협을 한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총독이 그만한 걸로 쉽게 타협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마도 그는 예수에게서 반로마적인 요소들을 분명히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는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예수님은 로마의 사형제도인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십자가는 티(T)자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손바닥에 못을 박혔습니다. 몸무게를 지탱해야 할 손바닥이 찢어지겠죠. 그래서 거기에만 무게가 실리면 사형수가 십자가에서 떨어지니까 엉덩이를 받쳤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정도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십자가에 매달라둔다고 합니다. 보통 건장한 남자는 숨이 끊어지기까지 일주일이 걸려 있었다고 해요. 일주일 동안 손바닥에서 계속 피와 진액이 빠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정신이 혼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 놓고 집행했기 때문에 일벌백계 식으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잔인한 사형 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체력이 약했는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성서가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한 말을 가상칠언(架上古言)이라고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죠. 가상칠언이 각각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의안을 보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들을 외치며 호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숨 막히는 순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

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바로 제비뽑기였어요. 거기에 어울릴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일을 네 복음서가 모두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몸부림치며 죽음과 투쟁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제비뽑기, 일종의 여흥에 빠져 있는 거죠. 정말 어울리지 않는 두 모습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는데, 십자가 발밑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작은 것마저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닐까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동 현장이나 목회 현장은 물론 가족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한쪽은 갖고 있는 작은 것마저 다 빼앗기는데, 다른 한쪽은 그 상황에서도 더 차지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절박한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경험을 했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데서도 한두 번 말했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잔을 물리쳐달라는 인간적인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뭔가 불안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성서는 예수님이 불안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간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와 똑같은 30대 초반의 한 남자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죽음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두려움보다 자기 삶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절망 말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이 죽는 것은 받아들이다고 해도 다른 가능성이 좀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미래를 이끌어간다는지, 혹은 자기가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으니 막막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은 막막하게 돌아가셨어요.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호소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황에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신앙의 근거로 삼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에 해당되는 이 현실을 극복하려는 신앙적 노력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실패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참된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

을, 하나님의 행위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전한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죠. 모든 게 많이 있어야 되고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요즘 장관 후보 청문회를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모두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것이 일반 세상이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기독교도 그런 쪽에 휩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그래왔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명실상부하게 신앙의 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상황, 그 문제와 직면해야 하는 거죠. 이게 말은 쉽지만 저도 그런 게 싫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대화가 좀 통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않고 알차게 지내고 싶고, 여유가 있으면 문화생활도 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신학에 의하면 그것은 기독교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살 때 기독교인들은 자꾸 실패하고 지지리도 못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고 묻겠죠?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 하느님께 대해 누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라는 부정의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죠. 하여튼 십자가 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잘살고 잘나가자고 하는 청부론은 기독교 근본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지지리 못나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러 이상하게 살고 게으르게 사는 걸 기독교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게 아니거든요. 어떤 길을 가다가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그 길로 가겠다고 작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상태를 저주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떤 가능성, 즉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가능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너무 이상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들리나요? 그렇다면 아직 기독교의 영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버림받은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의 불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기독교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과연 이러한 곳이 어딜까요? 팔복에 나오는 가난한 자일까요? 그러나 무조건 물질적으로 궁핍하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진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이 모두가 달려 있는 거니까요. 이 말을 여러분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해서

설명해야겠군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절망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절망감, 그런 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삶에 대한 의미를 찾기 힘든 상황이죠. 이걸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겠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 부활과 빈 무덤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가족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어요. 그 이후에 거기에서 벌어진 일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했다고 합니다. 여섯 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아마도 체력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안장만 했지 장례절차는 밟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밟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돌문이 열려져 있고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서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입니다.

그 뒤로 빈 무덤이거든요. 무덤이 비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데요. 무덤이 비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활이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이 현현했다는 내용도 여러 번 나옵니다. 한두 제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열한 제자 모두에게 나타나기도 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났다고 해요. 게다가 오백여 형제에게도 나타났다고 하고요. 오백 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을 텐데, 복음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복음서에는 왜 나오지 않는 걸까요?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칠삭둥이로 태어난 자기에게도 나타났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말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말이 옳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말이 옳을까요? 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걸까요?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나타난 일이고, 바울이 전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라서 복음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나 서신이나 기록된 연대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같다고 봐야 합니다. 복음서가 조금 먼저 기록되었고 그 내용들이 서신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적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형성되던 지역과 바울이 편지를 쓰던 지역(공동체)이 지리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2천 년 전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시작될 때는 정보 교환이 잘 안 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과 안디옥이나 갈라디아 혹은 빌립보에 있던 사람들은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소통하기도 힘들었겠죠. 연락이 안 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신앙의 내용들이 달라졌습니다. 즉, 이방인 기독교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기독교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멀어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 성서학자들이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이에요. 복음서에 있는 부활 경험의 대상자들과 바울이 말하는 부활 경험의 대상자들이 왜 차이가 있냐는 거죠. 생각을 해 보세요. 성서신학 분야의 석사학위 논문 주제로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이런 상황은 부활이 뭐냐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차이들을 해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있다가 승천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승천했다면 어디로 간 걸까요? 딱 40일 동안만 이 땅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0일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를 했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렇게 40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지상에 머칠 동안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구약에 기초해서 해석된 건데요. 사실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 자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을 좀 내려놓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에 부활의 개념이 너무 확실하면 성서가 이야기하는 부활 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요.

우리는 일단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강의안에 나오고 다른 하나는 나오지 않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서너 번 정도 언급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복음서에 나오고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죠? 제자들은 망탕이었을까요? 몇 번 들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든지 아니면 무덤이 비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음직도 한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현현하고 나서야 그걸 알았다고 하는데요. 또 알았다고는 해도 부활에 대해 실증적으로 이해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죽은 사람은 땅에 묻혀 썩어야 하는데, 그러리라 생각했던 선생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이걸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당연히 허깨비나 귀신을 본 것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금방 공동체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경험은 상당히 산만한 체험이었어요. 논리적이지 않았거든요. 복음서도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부활은 더 확실한 게 되죠. 만약에 부활이 꾸민 이야기라고 한다면 뭔가 그럴 듯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느 누가 부활을 믿겠어요?

그러나 복음서는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생생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활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몇 번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만 확실하게 전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경험했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금방 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게 뭔지 몰랐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제가 앞서 바울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울이 오백 명과 누구누구가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고 말이죠. 그건 상당히 후대의 이야기거든요. 부활의 주님이 40일 만에 정확히 승천했다고 한다면, 지상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이후로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후속보도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한 부활의 주님은 실질적인 주님이 아니라 환청, 환각, 실존적인 깨달음이었을까요? 이미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볼 때 그게 당연하잖아요.

여기에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리얼리티가 특이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자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결코 성서가 말하는 부활의 실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딱딱 끊어서 말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부활이 단순하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주론적으로 한번 밖에 없었고 한번 밖에 없는 사건(유일회성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까 모순에 빠지고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면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말해야 하죠. 이 말이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실증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신학의 기초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그만큼 부활은 제자들을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문제를 생각하려면 구약의 묵시 문학과 연관해서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부활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부활 현현은 왜 믿는 사람들에게만 경험되었을까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만 부활이 나타났던 걸까요? 여기에 부활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부활은 마술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잖아요. 모세가 열 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행했을 때, 나일 강이 피로 변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만 본 게 아니라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그런데 왜 부활만은 예수님과 관계있는 사람들에게만 인식되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부활의 핵심이 있는데요. 부활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인 겁니다.

이런 말로 그 사태를 정확하게 전달한 건 아닌데요. 다시 한번 전체 그림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험실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생물학적이고 물리화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묵시문학적 성격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기다림이었거든요. 전혀 다른 세계, 이 세계가 아니라 저 세계 말입니다. 장소만 다른 세계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슷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허황된 거 아닌가, 이 세상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거라니, 그건 말장난이 아닌가, 그런 걸 어떻게 진리라고 할 수 있는가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주눅 들지 마세요. 바로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특성이 있어요. 부활은 근거가 확실한 겁니다.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험이 필요하죠.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가서야 다 드러나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진리의 투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가 참여하게 될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허무맹랑하고, 이 세계의 물리학이나 생물학에 비해서 근



거가 훨씬 부족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부활의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제가 일단 질문의 형태로 말했지만, 대충 대답이 되었을 겁니다. 자연과학과 부활의 관계를 보충한다는 뜻으로 저의 강의안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자연과학을 신봉하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 부활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려고 들 것이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러나 과학만이 진리를 드러낸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게 아닐까. 부활은 하나님이 이루게 될 종말사건이며 종말희망이며 종말적인 신뢰인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논증하라는 주장은 과학의 자기 한계를 넘는 발언이 아닐까 모르겠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이론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현대 물리학을 끌어들이 필요도 없이 최소한의 직관만으로도 이견 분명하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과학이 시간의 실체도 아직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종말론적 진리까지 과학적 증거로 재단한다는 것은 과학만능주의적 발상이 아닐는지. 좀 더 실제적인 문제를 제기하자면, 자연과학이 인간과 우주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감당했으며 앞으로 감당할 몫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했을 뿐이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많은 것을 생산하긴 했지만 자연의 조화를 깨뜨리고, 우주를 여행할 가능성을 열었지만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유럽의 중세기 때처럼 신학적 도그마가 자연과학을 규정해버리는 행위를 종교적 독단이라고 한다면, 역으로 오늘의 과학이 신학적 진리를 자신들의 틀 안에 가두려는 태도도 역시 자연과학적 교만이다.

이런 말은 자연과학자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태도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제 말씀은 기독교의 가르침에는 진리에 이르는 고유한 길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것도 연관됩니다만 부활은 이 땅에 있는 생명 형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러기에 우주 역사에서 한번밖에 일어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일어나야 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편적 생명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에서 진리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도 종말에 완성되지만 이미 성취되었다고 신학적으로 이해하잖아요. 자연과학자들은 그것을 형이상학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실증적인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앞에 있는 이 책상도 없어지고 다른 것으로 변해버릴 텐데요. 자연과학이 말하는 자연법칙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간마저도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과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은 아니에요. 그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려는 자연 과학과 신적 계시의 차원으로 진리에 도달하려는 기독교 신학은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배타적으로 되지만, 얼마든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가 이 세계와 이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는 독특한 눈을 배우자는 거예요. 시각적 영성을 배우자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부활을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생명 사건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자연과학과도 배치되지 않는 독특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중간에 설교조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마무리는 설교조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제 강의안을 읽는 것으로 이 대목을 정리하겠습니다. 들으시고 질문을 주세요.

위의 신학적 대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고 싶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것 아니냐, 부활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지내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대답은 이와 같다. 아무리 부활의 세계에 대한 희망이 강렬하다고 하더라도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는 요구는 신앙적인 게 못된다.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게 될 그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구체화시킬 수는 없다. 생각해보라. 지금 우리가 최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세계라고 해봐야 이 지상적 삶의 확대이며 그것의 연속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삶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통치하게 될 세계를 우리 인간의 상상력 안에 끌어당겨 고정시키기 보다는 하나님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훨씬 신앙적인 태도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열려져 있는 미래와 종말에 대한 희망에 근거해서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린 자를 하나님으로 믿었고, 결국 그런 믿음으로 유대종교와 로마정치와 헬라문화의 틈바구니에서 독자적인 정신세계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었다.

## 예수의 부활 인식에 대해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몰랐을 가능성이 높죠. 알았더라도 부활의 사실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백히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부활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세계 전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하지만 실증적이지 않은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원해요. 실증적으로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든지 말이에요. 현실, 즉 리얼리티가 차원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확실하다고 보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확실한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 신부처럼요. 아마 그 세계가 오면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여태까지 익숙했던 것을 연장시키려고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현 나라죠. 현 나라요. 그 현 나라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변화이고,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러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정말 눈이 반짝반짝할 거예요. 정말 그때는 깨어 있을 겁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것,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토탈리터 알리터’(Totaliter Aliter), 즉 절대타자예요. 전적인 새로움이죠.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지상낙원은 아니예요. 지상에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이 세상의 사회과학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걸 무시한다는 건 아니예요. 실증적인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다른 쪽으로 변화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지금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설렘과 기다림인지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에 들어가게 되면, 늘 기쁘게 평화로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전적인 새로움! 오늘은 그것을 기억하고 가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전적인 새로움을 꼭 생각하세요.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죠.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겠다고 해서 부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무덤에서 죽음과 싸워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거예요. 부활 사건에는 수동태적 성격이 있는 거죠, 깨움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입니다.

## 제14강

###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

주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요즘 개인적인 일로 좀 바닷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들이 밀려요. 내일 포항에 가서 강의할 내용도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일도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중간에 다른 피치 못할 일들이 생겨요. 그런 일이 생기면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다른 일까지 얹혀 버립니다. 그런 일들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제가 대답하는 시간인데요. 아직은 질문이 없네요. 그러나 질문이 없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학생이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더라도 학생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항상 예상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학생들의 마음을 뚫어 봐야 선생이니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에서 생각하다 보면 뭐가 궁금할지 알게 되더군요. 동영상 메뉴에 구체적인 질문을 올려놓지 않아도 주일 저녁 시간을 끌고 나가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꼭 질문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기독교가 뭐꼬?’의 기본 틀이 되는 원고는 원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안이었 습니다. 일종교의 기독교 교양을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교양과목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든 표현은 좀 달라지겠지만 그 내용 만큼은 사실 똑같은 무제입니다. 신학, 삶, 역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지, 듣는 학생이 누구냐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해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 착상을 다 빼 버리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듣는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 맞도록 표현은 다르게 하겠죠. 목요일 밤에 한 시간 하는 수업으로는 사실 강의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 밤에는 질문도 질문이지만 목요일에 충분하게 하지 못했던 내용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 예수의 부활 예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직접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

겠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거라고 배웠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또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비유로 말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크게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든 생각하지 않았든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중요한 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생각이거든요. 신구약성서 모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복음서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복음서 안에 있는 일들과 시간들과 인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도하고 있는 성서 기자들과 그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뿐 아니라 서신을 포함한 모든 신약 성서에서 언급되는 예수님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신앙으로 고백되고 해석된 예수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역사 안에 있었던 바로 그 예수와 초기 기독교에서 이해되고 해석된 예수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던 그들의 생각이요. 이 말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중요하지 그걸 전달한 사도와 초기 원시 기독교가 왜 중요하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사건이나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중요해요. 성서론이나 계시론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중요합니다. 계시니까요.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일치하기도 하고 작은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작은 차이까지는 여기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하거나 글을 때 용어의 개념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학문적인 글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바지만, 설교 한 편으로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과의 언어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달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그걸 일치시키려면, 즉 의사소통을 정확히 하려면 일일이 그 개념을 다 설명하면서 넘어가야 하는데, 한정된 시간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특히 설교는 더 그렇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은 신학적인 개념인데, 그런 것들을 강의 속에서 모두 짚고 넘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전체적인 흐름만이라도 알고 따라온다면 그런

차이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 당연히 중요하죠. 문제는 성서와 연관시킬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거예요. 성서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 자체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것은 언어나 문자가 아니잖아요. 사건이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는 구원 사건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문자로 만나요. 그런데 문자가 어떻게 사건 자체를 담아 내겠어요? 이걸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아주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건은 문자로 다 담아 낼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원초적인 구원 사건, 예수 세미나에서 말하는 역사적 예수의 실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걸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요. 2천 년 전과 지금 우리 사이의 역사적인 틈을 메워주는 것은 오직 글자, 즉 성서거든요.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언급하게 되겠지만 기왕 말이 나왔으니 지금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는 신문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보고 적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사실 신문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쓴 거라 해도 엄밀하고 객관적인 걸 다 잡아낼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신문기자가 글을 썼다고 해도 자기 머리를 통과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을 통과할 때, 기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기사 내용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객관적이고 초보적인 사실은 누가 쓰더라도 차이가 없겠지만 사건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문보도도 해석이 들어가는데, 하물며 역사 문서인 성서는 당연히 해석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잠시 이야기가 옆으로 나갔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걸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여러분이 성서를 읽어야 해요. 성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통해서 왔다는 말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전을 허물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부활과 연계시키는 것은, 즉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부활을 예측한 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본문을 좀 더 연구해 봐야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후대의 해석입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받은 질문이라서 충분한 주석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서 해석된 것이지 처음부터 결정되고 예정된 어떤 사건의 실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냐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말로 하기는 참 힘든데요. 뭐가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잘 찾아보세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런 사건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서 해석되었던 겁니다.

앞 시간에 부활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언급했을 텐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식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자들은 이런 문제를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도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분명한 사실로 경험되는 것인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나타났던 걸까요? 만약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요? 더구나 죽음을 이기고 종말론적인 생명을 선취한 부활의 몸을 입었다면 사람들 앞에 떼떈하게 나타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빌라도 앞에도, 제사장 앞에도, 유대 민중들 앞에도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라고 했으면 예수의 메시아성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인식되지 않습니다. 부활 현현이 없었어요. 이게 뭘까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게 일종의 딜레마일 수도 있고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일 수도 있어요.

초기 기독교 안에서 형성된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려오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실증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증적이고 객관성이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믿음의 증거를 대라고 하죠.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 습니다. 굉장히 희미하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확실했어요. 확실성의 차원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이해하겠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확실성을 경험했을까요? 그들은 부활한 예수 앞에, 즉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현상 앞에 직면해 버렸던 겁니다. 그들도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걸 경험한 거죠.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었던 경험이었어요. 그걸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구약의 어느 부분에서 말한 죽은 자가 떠오르기도 하고, 삼일 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다는 말 등이 생각나면서 예수의 부활이 구약에 근거한 예언의 성취로 해석된 겁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그들이 경험하고 이해한 독특한 방식으로 확실성에 이르는 길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그 길은 다른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는데요. 자연 과학처럼 실험실에서 반복을 통해 똑같은 답을 얻어내는 그런 확실성은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경험한 확실성은 계시적인 확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야만 겨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확실성인 거죠. 이것이 자연 과학과 대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고유의 진리에 이르는 인식론이요, 진리 인식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독특한 거죠. 일반 실증적인 세계가 말하는 방식의 확실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성에 근거한 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야, 이걸 말장난이다. 도대체 이 세상의 실증적인 확실성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확실성이 다르다고 하면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의 테두리 안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 영성, 신학적 사유에서는 말이 됩니다.

질문한 분에게 대답을 드려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말을 했다고 성서 기자가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서 기자가 기록한 내용과 예수님 자신의 생각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성서 기자들의 공동체에 의해, 즉 전승에 의해 그렇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다고 생각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들을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신학자들이 더 연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학의 길은 거의 끝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 무엇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등등 이렇게 말했잖아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ἐγώ εἰμι)로 시작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에고 에이미’ 식의 정형화된 예수님의 자기표현 방식은 요한복음의 신학이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터무니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부활의 역사성

질문이 이어지는군요. “부활이 구약의 예언에 근거한 초대교회의 해석이란 말은, 부활



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질문도 더 정확하게 풀려면 질문한 분이 말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미리 말해야 합니다. 역사적이라는 게 실증적인 역사를 말하는 건지, 해석된 역사를 말하는 건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둘은 전혀 다른 뜻이거든요. 그러나 무슨 뜻으로 질문했는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굳이 학문적으로 문장을 해석하려면 더 세세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해석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에게 부활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구약에 근거해서 해석했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 현현 사건은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벌어진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건 실증적인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뭔가 사건이 있었던 거죠. 제가 말한 부분을 잘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영적인 눈에만 나타난 하나의 사건이 부활 현현이었어요.

오늘 샘터교회의 설교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맞아 랍비라는 칭호를 받고 이사야서를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들은 말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한 설교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하는 등의 이사야 예언들입니다. 그런 게 회당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가 선포한 구원의 해, 복음의 해, 희년의 해와 일치된다는 걸 말하거든요. 거기에도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질문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자체와 일치시켰는데, 즉 선포된 것을 선포자와 일치시켰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거죠. 여기에는 더 궁극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새로운 인식론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인식론은 어떤 것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 맥락 안으로 들어가는 게 신학적 사유이고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 이야기를 하다 말았군요. 그러니까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이사야의 그 예언이 바로 예수와 일치되었다, 예수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눈 먼 자가 당장 눈을 뗀 건 아니에요. 신앙적인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모순을 풀어야 합니다. 아직은 눈먼 자가 보지 못하고 앓은뱅이가 일어나지 못했는데, 이미 예수에게서 실현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인식, 그 통찰, 그 해석이 초기 기독교의 고유한 예수님 이해이고, 하나님 이해이고, 역사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에 혹시 설교할 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설교자인 목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 맥락 안으로 일단 목사가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서는 뜬 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든지 아니면 실용적으로 씨먹을 도구가 되

고 맙니다.

성서는 영적 현실에 대한 문서인데요. 영적인 세계는 허황하고 비현실적인 세계가 아니라 가장 심층적인 생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탄탄한 거예요. 탄탄한 인식, 즉 사유 방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학적인 사유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일어난 것과 똑같다고, 다를 바 없다고, 거기에 도달해 있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미 구원이 실현되었다, 현실이 되었다고 인식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보통 우리는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닌', 또는 거꾸로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라고 하는 변증법적인 관계로 설명하잖아요? 그 맥락인 거죠. 그것이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와 연관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직 눈먼 자가 눈 뜨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것과 똑같은 어떤 세계를 보는 것 말입니다.

최종적인 세계를 최후 혹은 종말이라고 하죠. 우주론적인 종말의 그때,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때 말입니다. 그때에 가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이, 소급해서 혹은 선취(先取)적으로 예수에게서 발생했다는 것이 곧 부활인데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영적인, 신학적인, 심층적인, 신앙적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사실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종말과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하겠죠. 그것을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 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드러나서 존재하는 분일 뿐 아니라 오히려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존재하게 하는 원초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틀을 승화시키고 넓혀 나가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부분적으로 말을 더듬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신자들이 다 안다고 전제를 하고 설교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신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성도들이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제가 머뭇거리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직 제가 설교의 베테랑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겠죠. 전달이 잘 안되더라도 진도를 짚고 나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아직은 아닌데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살아내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이 주일 저녁이니까 설교조로 말해도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러나 금방 죽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의미가 있다고 해도 아주 사소하고 상대적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생명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게 됩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잘 안되니까 문제인데요. 실제로 그런 게 잘 되는 사람들을 신비주의자 혹은 영성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이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 것과 다른없는 그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건 신학공부를 많이 해야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 성서를 잘 읽고 영성이 열리게 되면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서로 다른 인격(personality)인데 말이죠. 그냥 감정적으로 일치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실증적으로 느끼는 거는 아니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비의 문제예요. 존재론적 신비입니다.

### 예수의 초능력에 대해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앓은뱅이가 일어났다는 성서의 증언을 실제로 예수님이 행한 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초자연적 기적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 이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전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서가 무엇인지, 기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질문한 분의 생각에 따라 필요한 대답들을 조금씩 열어간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 일들은 일단 가능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앓은뱅이가 일어나는 거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심청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죠? 심청전의 마지막 대목으로 기억하는데요. 심학규 씨가 왕비가 와서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게 웬일이냐, 내 딸 좀 보자!”라고 하면서, 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장면을 절절하게 창을 하더군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 건 가능할 거예요. 저는 그게 창이지만 실제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자연 현상과 초자연적 현상은 크게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범주에 따라 다르니까요. 작은 범주 안에서는 초자연적이지만 큰 범주 안에서는 자연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정용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간 2008년 3월 2일 밤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5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은 가능한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사실 기적이죠. 초자연적이죠. 그러나 범주를 넓히면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것으로 해명이 가능해져요. 예화가 적당한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예수님 앞에서 눈을 뜨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고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

고 다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나 여기에서 짚고 싶은 것은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하물며 고대 사회에야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런 일들이 더 많았겠죠. 예수님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떤 목사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도 초자연적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의 공생애에 나오는 일과 비교하지 마세요. 전혀 다른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건 자체도 다르지요. 신유집회의 전문가인 그 목사님의 경우는 사기인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럼 사기꾼인가요? 저한테 어떤 대답을 바라세요?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다고요. 의도적인 사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기가 된 걸 뭐라고 하나요? 아, 그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군요. 외워 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설교비평에서 한번 다뤘는데요. 많이 순화시켰습니다만 문제가 많은 분이십니다.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기독교를 크게 병들게 하는 요소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야 교회만 키우면 만사오케이잖아요. 이게 정말로 심각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야단이지만, 그들도 더 커지면 한국교회 안에서 힘 꽤나 줄 수 있을 걸요. 저는 신천지 신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할 처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단과 정통 사이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는 강단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하면 낫습니다. 치료됩니다. 믿습니까?”라고 하면서, 자기 머릿속으로 그리기만 해도 낫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말하면 사기 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성서 기자들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잡아야 합니다. 치료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계적으로 그런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요.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었는데 고대인들에게 그 게 초자연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기적이라 부르는가?』(알폰스 바이저, 분도)라는 책을 한 번 보세요. 대구성서아카데미 사이트 알림판에 추천 도서 목록을 올려 놓았는데,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한 것이 사실이나 아니냐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고대 사회에서 흔한 거예요. 어느 정도 대중적인 카르스마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정도의 인물로 격하시키면 곤란하지요. 초자연적 기적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아닙니다. 호기심일 뿐이죠. 그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르침, 심판, 재림 등에 귀를 기울이세요.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차츰차츰 더 이야기하도

록 하죠.

## 신학적 사유에 대해

오늘 강의는 처음에 올라온 질문이 없어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강의 중에 질문들이 올라와서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좀 더 말하려고 했어요. 기독교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 즉 부활을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요. 죽는다고 할 때 육체만 죽는 것인지, 영혼은 불멸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들을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단답식으로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앞서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도, 부활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생명 현현의 경험으로서, 구약성서에 근거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었다고 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과 육의 문제도 딱 한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새롭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헬라철학이나 자연과학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기독교가 말하려고 했던 인간, 구원, 생명의 문제들이 풍부한 내용을 갖게 되었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나 가르침도 아직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관점이기도 하고, 신앙의 기본 토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인식의 한계인 동시에 인식의 방향이기도 하고, 진리의 어떤 속성이기도 합니다. 열려져 있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것이 단절된 것은 없어요. 종말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역사적 맥락과 단절된 채 어디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루터는 500년 전의 그 역사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로 인해 기독교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역사적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한국 교회가 더 건강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고, 절대적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역사의 속성입니다. 그 말은 곧 종말론적으로 열려 있다는 뜻이고요.

오늘 중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하고 끝내야겠네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책 한권을 읽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할 줄 아는 게 어

려워요. 생각한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해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보다 뛰어난 다른 신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자의 반열에 서지도 못해요. 그러나 신학적 사유의 꼬나풀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그런 걸 조금 맛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평신도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기독교의 정보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2천 년 기독교 역사에서 축적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 다 이야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신학적 사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전문적인 신학자가 아니어도 그건 가능하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은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살이가 고달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에 직면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실증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으니, 비존재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절대 무능력한 모습의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좋은 것, 잘되는 것, 성공하는 것, 능력 받는 것들이 늘 우리를 자극하고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이나 신앙인이나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 모티브가 똑 같잖아요.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형식은 종교적인데 내면으로 치고 들어가면 일반 보험회사 직원이나 회사 운영자와 다른 게 없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다수의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사유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유를 영성과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잘 믿고 감성적으로 따뜻하게 위로 받는 센티멘털리즘, 즉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하면서 가볍게 살아가겠다는 태도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제15강

### 기독교 역사 개관

오늘 하루도 재미있게 보내셨나요? 다들 잘 살아 있죠? 이런 인사가 의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진지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 있다고 하는 게 특별한 일이니까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입니다. 그렇게 길게 남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 있지만 죽은 것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기독교가 뭐꼬?’라는 주제로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두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도 남아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들을 설교 형식으로 전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것이 저의 영적 순례의 한 순간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제가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서 완전히 소화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소화되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했다는 말도 되지 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말하는 그 사실, 말하려는 내용들, 말하는 행위, 글 쓰는 행위 전체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 존재론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제 강의를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에게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신자들을 어떻게 잘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킬까에 집중하지 않고, 일단 제가 설교하는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목요일과 주일 밤에 강의한 내용이나 주일 예배 때 설교한 것들이 늘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포항에 가서 강의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강의를 제게 시간적으로 부담감을 주기는 하지만 저 개인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모두 그 나름대로 제 생각과 영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수요일이어서 교회 모임에서 시편강해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의 삶을 끌여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정리하다가 갈라디아서 강의와 연관해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뒤에 말하도록 할게요.

실제로 대학 강의도 그렇거든요. 강의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인문학이나 철학뿐만 아니라 물리학이나 자연과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얼마나 인문학적으로, 혹은 자연과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되느냐가 핵심이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 학생이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자연과학의 길 혹은 인문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강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예수와 바울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와 서신서가 이에 대해서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고요. 바울은 복음서의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걸 신약 성서학자들이 더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제가 나름으로 생각한 부분들을 말하려고 해요.

복음서와 서신서는 사실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좀 빠르고 늦고의 차이만 있어요. 그리고 신약성서의 각 권들은 권위가 있는 어떤 단체에서 확립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서로 다 다른 곳에서 기록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나 노회, 혹은 WCC와 같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단체에서 체계 있게 만든 게 아니라, 전혀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각각 여러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수집되고 문서화되고 편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관성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공동체와 마태복음 공동체가 달랐어요. 서로 다른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과 그보다 더 원천이 되는 예수님의 어록집 같은 게 공유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도 그런데 서신서는 오죽하겠어요? 다 제각각입니다.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진술한 문서들이 바로 신약성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복음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바울이 복음서를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 나름의 경험이나 해석에 따라 그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을 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 말할 때 언뜻 비추었지만, 바울은 동정녀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만 언급할 뿐이죠.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서를 몰랐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그가 생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이유만으로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직접 만나지 못했다고 해도, 또 굳이 복음서가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전승들이 곳곳에 알려져 있었을 텐데, 왜 그 많은 편지들을 쓰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참 재미있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와 아울러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유대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의 원형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의 못자리와도 같아요. 예루살렘 원시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유대 기독교입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기독교에 있는 게 아니라 유대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독립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거기 머물러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방 기독교와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이방 기독교의 태두는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기독교와 바울이 세운 이방 기독교가, 즉 바울의 신앙과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 크게 다릅니다. 장로교니 감리교니 하는 교단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파가 다를 정도로 달라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을 사악하고 간사하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단을 대하듯이 말합니다. 유대 기독교의 대표자는 야고보이고요. 베드로도 유대 기독교 지도자의 대표에 속합니다. 베드로 성당에 가면 베드로와 바울의 상이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은 기독교에서 쌍두마차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이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절실하게 다가온 하나의 숙제거든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인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언급은 회피한 채 순전히 케리그마로서의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바울이 역사적 예수님을 죽이고 헬라화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 예수는 빠지고 그리스도만 살아 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예수 이해를 다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들이죠. 오늘

이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제시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한 걸까요? 아니면 흔히 말하듯이 일종의 음모론 비슷하게 바울이 예수님을 왜곡한 걸까요? 지금 여기에서 다 풀어내기에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방향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걸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만 제가 여기서 조금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전통과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통이 각축을 벌였는데, 거기에서 역사적으로 살아남은 파가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서 살아남은 기독교는 내용적으로 바울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고 그 전통이 가톨릭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베드로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잘 어울려 있는 상태인지, 어울려도 될 만한 것들인지, 아니면 임시조치로 그렇게 된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3-4세기에 성서가 경전이 되었는데, 그 때 바울이 유대 기독교와 겪었던 갈등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덮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은 제가 학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말한 게 아니라,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문제를 짚어 본 건데요. 이것이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진수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에서, 베드로나 그 쪽 사람들보다 바울이 더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서로 같은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갈라디아서만 놓고 본다면 복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기독교 교리의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이와 같은 복음의 문제는 로마서도 다루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초기의 작품이고 로마서는 다소 후기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는 바울의 신앙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어떤 사상가라도 초기, 중기, 후기의 사상이 조금씩 변천해 간다는 일반론에 따르면, 갈라디아서의 칭의론과 로마서의 칭의론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같더라도 말이죠. 신약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주제로 논문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나타난 칭의론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의 사상이 전기에서 후기로 변천되는 과정을 짚는다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있는 작은 뉘앙스의 차이들을 통해 그것을 분명히 짚어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의 관계에서 우리가 전제로 해야 할 것은, 일단 다르다는 사실

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동생과 대다수의 사도들이 포함된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 이해와 바울의 예수님 이해는 결국 달랐어요. 유대 기독교는 토라와 할례를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전적으로 그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화해하여 의로워진다고 하는 바울의 신학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의 사도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토라를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는 사실 알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를 찾기 위해서 서신들을 살펴보면 될까요? 베드로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신학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역시 찾기 힘듭니다. 베드로전후서가 베드로의 편지라는 증거도 없으니까요. 반면에 바울의 편지는 70-80%가 바울이 저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유대 기독교의 운명

다른 이야기가 길었네요. 제가 초기 기독교 역사에 대한 문제들을 좀 짚은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기독교의 정통 역사가 회의적이고 불확실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역사적인 힘들이 개입되었고, 그러한 힘들을 뚫고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가르침, 내용, 도그마 등 그 하나 하나가 치열한 투쟁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기독교 신앙의 꽃이 피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황무지 같은 환경 속에서 역사를 통해 여러 사람이 이런 저런 방식으로 참여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과정을 거쳐 기독교가 지금까지 버텨왔던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들시들해져서 예루살렘 기독교가 유대교에 합병되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린 것처럼 그냥 사라져 버릴까요? 이게 참 역사의 역설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세웠던 쟁쟁한 예루살렘교회, 즉 유대 기독교는 지금 흔적조차 없거든요.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건 바울이 세운 이방 기독교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루살렘교회가 기독교의 모체라고 생각하는데, 따지고 들자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연대기적으로 따라 간다면 바울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교회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원천으로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시작한 이방 기독교는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합의 끈나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가 살아나왔습니다. 우리도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르게 유지하지 못한다면 유대 기독교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유대 기독교는 유대교와

의 충돌을 두려워해서 타협하다 보니까 토라와 할례를 곁꿨던 것 같아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이방 기독교와 비슷했지만, 유대교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생각 때문에, 결국 살아남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졌던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우여곡절이 많았겠지만 말이에요.

기독교의 운명도 유대 기독교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죠? 그러나 가능합니다. 몇 백 년 후를 내다보지 말고 몇 천 년이나 몇 억 년 후를 내다 보세요. 몇 억 년 후에도 여전히 지금의 기독교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종교로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사뮈엘주의 무당들이 고대에서는 정신세계를 지배 하던 주류였잖아요. 지금은 변방으로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독교도 우리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역사의 변방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온다면 다행이고요. 또 그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역사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 기독교가 했던 선택이 아니라 바울이 했던 선택, 즉 진리를 향한 치열한 노력과 투쟁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역사가 내려 왔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네요.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보다 바울이 더 월등하게 예수님에 대한 케리그마를 정확히 서술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런 대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 월요일에 포항에서 그 문제가 나오니까 어떤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그런 대답을 하더군요. 그 학생이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돌베개)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책을 대충 훑어보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태일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변호사가 전태일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보다 전태일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썼다고 하더군요. 그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만나본 제자들보다 바울이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게 아니냐고 말이죠. 좋은 통찰력을 얻었는데요. 바울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초기 기독교 안에 있었던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냐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뿌리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의 기독교만 본다면 방향을 잃고 말 겁니다. 눈길을 걸을 때 미끄러질까봐 발밑만 보고 걸어가면 결국 뱅뱅 돈다고 합니다. 멀리가지를 못해요. 조금 힘들어도 지나온 출발점을 보고 가야할 길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놓치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초기 기독교 안에서 벌어졌던

복잡하고 진지했던 논쟁 혹은 사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기독교 2천 년의 역사를 짚 훑어 보려고 합니다.

## 오순절 성령 강림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2천년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긴 역사를 한 시간에 다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꼼꼼하게 살피지는 않고, 중요한 대목만 짚겠습니다. 나중에 보충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오순절 성령강림입니다. 이것은 주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외에 다른 곳에 기록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독교의 역사이긴 하지만 실증적인 역사는 아니에요. 역사를 다룰 때도 어떤 시각이 존재하거든요. 사도행전의 시각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기독교 공동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변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될 시점인 기원후 80-90년은 이미 예루살렘 공동체가 망한 후, 또는 급격히 쇠락한 후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쪽에 세운 교회들이나 로마의 교회들이 명실상부하게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뿌린 씨앗들이죠. 물론 바울은 죽은 후였고요. 그때 누가라는 이름을 빌려서 어떤 저작자가, 그 당시 역사 안에 살아 있던 이방인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사도들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관점에서 글을 썼습니다. 이 말은 이방 기독교가 유대 기독교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 간격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뿌리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역사적 근거를 예루살렘에 두려고 하는 해석학적 방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의 첫 출발이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오순절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오순절은 원래 유대인들의 절기였어요. 유월절이 지나고 오십일 후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절은 유대교의 유월절과 연관이 있어요. 유월절이 시작될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있었으니까요. 하여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처음으로 성령이 강림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이미 창조사건 때부터 존재했었고, 성령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성령 강림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초기 기독교의 특별한

신앙 경험, 혹은 은사 경험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방언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그런 현상들이 신을 경험하는 매개가 되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에 그런 방언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광적인 신비주의 은사 운동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의 뿌리를 예루살렘교회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오순절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확실성은 없습니다.

성서의 진술에는 역사적 확실성이 없다고 말하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 말을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역사적 확실성을 무조건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보다는 더 근원적인 어떤 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라는 이름을 빌려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묘사하게 된 데는, 반드시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초기 기독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영적인 사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누가 기록을 했겠어요, 아니면 사진을 찍었겠어요? 다 지나간 일인데요. 누가복음이 80년대에 쓰였다고 하면, 성령 강림 사건은 그로부터 50년 전의 일이거든요. 지금처럼 정보가 잘 교환되는 시절도 아니었고요. 한구석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났던 현상들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사실처럼 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말하려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들이 특이한 영적 경험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영적 에너지죠. 그게 없었다면 그들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뚫고 나가기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어떻게 된 걸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아람어로 말씀을 전했어요. 오순절에는 세계 곳곳에서 성지 순례를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모르거든요. 제 각각 자기가 태어나서 살던 곳의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아람어를 다 알아들었다고 해요. 그게 어떤 현상이었을까요? 그걸 음성학적 차원의 사실로 받아들이면 좀 무리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마가의 다락방을 초기 기독교의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사마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점점 더 퍼지게 돼요. 그러다 결국 로마의 중심부까지 기독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책에는 제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에 대해 조금

다루기는 했는데요. 그 책을 쓸 때는 미치 갈라디아서를 깊이 있게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와의 갈등이 컸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짚지 못했습니다. 책을 개정 증보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좀 더 보충할까 합니다. 하여튼 구도가 이렇습니다. 유대교가 있고요. 유대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 기독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유대교와 유대 기독교가 있었어요. 둘이 하나라고 봐도 좋습니다. 둘 사이가 나뉘지 않았으니까요. 유대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있는 하나의 파였습니다.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했다가 돌아섰다고 한 것은, 유대교로 있으면서 유대 기독교를 반대했던 겁니다. 그러던 바울이 나중에는 이방 기독교가 되면서 유대 기독교와 싸웠던 거죠.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나 완전히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나, 사실 바울이 계속해서 싸웠던 대상은 유대 기독교였습니다. 이방 기독교와 유대 기독교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유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유대적인 것을 그대로 안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회색분자였죠. 이방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유대 기독교가 더 위험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유대교가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박해하지는 않았더라도, 유대 기독교에 많은 압력을 넣었을 겁니다. 유대교의 압력으로 인해서 유대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고 유대교 쪽으로 많이 기울어집니다. 이때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 또 다른 모순이 생기네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순교한 게 맞나요? 그렇다고들 역사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초대 교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만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 313년

유대 기독교는 유대교와 이방 기독교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자리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70년 이후의 시점이 중요해요. 유대 기독교가 유대교로 기울어집니다. 결국 유대 기독교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죠. 만약 유대 기독교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방 기독교와의 관계를 더 강하게 했다면 기독교 역사가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것은 지나간 역사입니다. 유대교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심해집니다. 콜로세움에서 격투사와 싸운 이야기, 카타콤으로 들어간 이야기 등,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종종 봤을 거예요. 저는 1996년에 카타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카타콤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일부러 땅굴을 판 곳이 아니라 원래 로마에서 만든 지하공동묘지예요. 로마는 깨끗한 도시였기 때

문에 법률적으로 무덤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회암을 파고 들어가 묘지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또 하나의 지하세계였습니다. 그런 곳에 숨어 들어갈 정도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을 받는데, 그 해가 313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313년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한꺼번에 훑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지 숫자에 담긴 사연을 알게 되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내린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겠다고 공포한 게 아닙니다. 단지 인정을 받지 못했던 종교에서 공인, 즉 공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국교로 인정된 것은 한참 뒤인 391년입니다. 그때의 황제는 테오도시우스였습니다.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요. 기독교를 국교화한 테오도시우스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예요. 역사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대개 독재자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쟁을 앞두고 환상을 보았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기독교를 이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콘스탄틴은 직업 군인인 아버지와 여관 주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황제가 됩니다. 그 때는 로마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참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은 자기 누이의 남편, 즉 매제가 되겠죠? 그 사람도 또 하나의 황제였는데 그를 죽였고, 자기 장남도 죽였어요. 자기의 왕위를 넘본다는 생각이었을까요? 더구나 자기 아내도 욕조에서 질식사를 시켰거든요. 권력에 방해가 되는 대상은 다 처형해 버렸던 것 같아요. 콘스탄틴 이후로 종교와 정치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과정을 걸었습니다. 긴 과정에 대해서는 강의안을 참고하세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됨으로써, 기독교는 손대지 않고 코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지만, 그 반면에 갈릴리 예수의 복음은 역동성을 상실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래 1054년, 1517년 항목은 당시 강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이번 제2판을 기해 강의안의 해당 내용으로 대체했다. 필자 주)

1054년

콘스탄틴은 330년 로마제국의 수도를 로마로부터 보스포리스 해협에 있는 비잔티움으



로 옮겼다. 후에 이 도시는 콘스탄틴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지금은 이스탄불이라 함)이라고 불리었다. 두 바다(지중해와 흑해)와 두 대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거점도시로서 콘스탄티노플은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적 색채가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로마의 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시나브로 이곳의 주교는 로마의 감독이며 주교인 교황과 맞서는 경쟁적 위치에 서게 된다.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을 양 축으로 한 기독교는 869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마지막 에큐메니칼 종교회의를 기점으로 그 사이가 벌어지다가, 결국 1054년에 로마의 교황과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서로 상대측을 파문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분리된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역시 상당한 기간 동안 신학적, 정치적 반목과 대립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분상이나마 하나의 교회였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것이다. 그 분리가 지금까지 계속된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을 그 본질로 하는 교회로서 너무나 큰 상처다. 그 어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11세기 중엽에 비잔틴제국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었다. 로마의 교황 레오 9세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러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미카엘 케룰라리오스(1043-1058 재위)는 오히려 차제에 로마의 간섭을 막아내고 자신이 동방교회의 명실상부한 교황이 되려는 야망을 키워나갔다. 그는 동방교회를 서방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했다. 케룰라리오스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서로마교회의 라틴계 교회와 수도원을 모두 폐쇄했다. 이런 사태 앞에서 로마의 교황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측 사이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일단 양측은 대화의 장에 나섰다. 로마교황의 대사들이 콘스탄티노플에 와서 양측 교회의 신학적 문제점들을 논의해나가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앙금만 쌓이게 되었다. 급기야 케룰라리오스가 로마 교황청의 대사인 훔베르트 추기경의 글들을 소각시켜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격분한 교황 대사들은 1054년 7월16일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성 소피아 교회의 제단에 파문장을 던져놓고 로마로 돌아갔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의 대주교들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케룰라리오스에게 힘을 모아주어 로마교회를 파문하기에 이른다. 로마 교황과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는 한 치의 양보나 관용도 없이 서로를 적그리스도로 간주함으로써 기독교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뉘었다. 그 비극적 역사가 일어난 해가 바로 1054년이다.

참고적으로, 서로마 정치권에 있었던 교회를 서방교회라 하고 동로마 정치권에 있었던 교회를 동방교회라 한다. 서방교회의 중심은 로마이며, 동방교회의 중심은 콘스탄티노플이다. 요즘에는 각기 로마 가톨릭교회, 그리고 정교회라 통칭된다. 그때 분리된 이래로 지금

까지 일천년 가까이 이들 두 교회는 서로 비슷한 교리와 종교형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적대적으로 지내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몇몇 대화시도가 있긴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 현재 로마 가톨릭교회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그들이 식민지화했던 중남미 등 세계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정교회는 그리스, 러시아, 그리고 지난날 소비에트연방에 속했던 몇몇 나라들을 중심으로 그런대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가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만한 절박한 사정이 실제로 있는 것일까? 그것도 거의 원수기간처럼 말이다. 우선 그들 사이에 어떤 신앙형식이나 신학의 차이가 있는지 중요한 요소들만 몇 대목 추려보자. 우선 이들 양측의 공통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325년부터 787년 사이에 개최된 세계종교회의(공의회, Konzil)의 교리들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며, 동정녀 마리아를 믿고 성화와 성유물을 경배한다. 성례전에서도 일곱 가지를 함께 받아들이며, 화체설을 믿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한 미사를 드리며, 사제의 교권을 절대시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미사형식 같은 것들이 거의 유사하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로마 가톨릭은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유출된다고 하지만, 정교회는 성부에게서만 유출된다고 주장한다. 로마 가톨릭은 로마의 교황이 세계적인 권위와 무오성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정교회는 이를 반대한다. 동정녀 마리아의 무죄성을 로마 가톨릭은 인정하고 그녀의 승천설 까지 주장하지만 정교회는 부정한다. 로마 가톨릭은 사제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지만 정교회는 하급 교직자들의 경우에 한해서일지라도 결혼을 허락한다. 성만찬 문제에서 로마 가톨릭은 평신도들에게 떡만 배분하지만 정교회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준다. 이런 차이점 중에서 특별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화상(畫像)문제와 성령론이다. 교회당 안에 화상을 설치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의 황제, 교황, 감독, 수도사들 사이에 8-9세기 동안 가열차게 전개되어 동서방교회의 간극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결국 로마 가톨릭은 화상숭배를 거절하게 되었고 정교회는 상당부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유출되는가, 아니면 성자에게서도 역시 유출되는가 하는 문제는, 즉 단출설과 복출설문제는 너무나 복잡한 신학문제가기 때문에 여기서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고 그것이 동서방교회 분리에 어떤 계기를 마련했는가 하는 관점에서만 짚어보도록 하자. 기독교의 신론이 삼위일체론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대두된 현안은 삼위격인 성령을 어떤 위치에 놓는가 하는 점이었다.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처음 결정된 신조에는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후에 “우리는 성부에게서 나신 성령을 믿습니다.”로 변경되어 모든 교회들이 받아들이는 명제가 되었다. 589년 톨레도에서 열린 3차 세계종교회의에서는 니케아신조 라틴어판에 처음으로 ‘필리오케’(그리고 성자에게서)라는 구절을 삽입하게 되었다. 서방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받아들인 반면에 동방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양측 교회는 이 신학적 문구를 두고 오랜 세월을 걸쳐 반목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역시 여전하다. 참고적으로 개신교는 이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 서 있다.

1054년 어간의 분열역사는 여러 정치, 사회, 신학적 배경을 고려해야만 설명될 수 있지만 다층적이한 여러 정황 가운데서도 결정적으로 작동한 요인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기독교의 교권화라는 것이다. 교회가 로마제국의 존재기반이라 할 힘의 논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신앙의 본질 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온갖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것을 확대재생산하려다 보니까 결국 극단적 행동까지 마다하지 않게 되었다. 만약 기독교가 이러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지 않고 온전히 봉사하는 공동체로서, 즉 소외된 자를 위해 봉사하며 수난받는 공동체로 남아있었다면 종파분열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기독교회가 세속권력의 맛을 포기하기까지는 그 후로 5백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했으며, 그걸 감당할 만한 인물이 등장하기를 기다려야만 했는데 그가 바로 마틴 루터다.

## 1517년

1517년 10월31일 95개 조항의 신학 명제가 기록된 일종의 대자보가 비텐베르크 성당 출입문 상단에 나붙었다. 이 대자보 내용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 덕분에 삽시간에 독일 전역에 인쇄 배포되었으며, 그 반향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이 대자보의 작성자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사제이며 교수인 마틴 루터 박사였다. 교황청은 이 사건을 접하고 직간접으로 루터에게 압력을 가하여 이 소책자와 그가 출판한 그 이외의 반교황적 문서들을 자진 폐기처분토록 명령을 내렸지만 루터는 교황의 뜻을 따르지 않고 훨씬 더 강력하게 자신의 신학적 주장을 널리 확산시켜 나갔다. 처음에는 루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교황은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제국의회가 열리는 보름스에서 그를 종교재판에 회부했다. 루터는 그 재판에 당당히 참석해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 결과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다행히 프레드릭 선제후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할 수 있었으며, 그는 그곳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등 많은 신학 문건들을 완성시켰다. 교황청의 유죄선고와 출교령 이후로 루터는 교황청과 완전히 결별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를 지지하던 많은 독일 사제들과 귀족들, 그리고 중산층 상공인들의 도움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지배받지 않는 새로운 교회가 출현하였으니, 그 교회가 바로 프로테스탄트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과정을 살펴보면 단순히 신학적, 혹은 교회 실천적 요소만이 아니라 독일인들의 반이탈리아 정서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교구의 재산이 시간이 갈수록 이탈리아 로마로 옮겨가는 것을, 그리고 교황이 거의 이탈리아계로 선택된다는 사실을 게르만 민족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르네상스 이후 형성된 민족주의와 상공인 중산층의 확대로 인해서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독일 지역 안에서 탄력을 얻게 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제 교황청의 중앙집권적 교권에 반기를 들고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 교권이 훨씬 강한 설득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외부적 요인만이 아니라 교황청이 루터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과민했다는 내부적 요인이 일개 무명의 사제요 신학교수에 의해 제기된 작은 신학적 불씨를 교회만이 아니라 유럽의 쏘사회, 문화, 정치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큰 불길로 확대시키게 아닌가 생각된다.

종교개혁의 씨앗이 된 95개 항목의 대자보는 원래 교황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래서 그것에 반하는 교회를 새롭게 건설해야겠다는 뜻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신학자로서 자신의 교회에 신학적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해보자는 제안이었을 뿐이다. 이 작은 논제들이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독일의 민족주의와 교황청의 알레르기 식 반응으로 인해서 견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루터가 제기한 논제들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 문제에 집중된다. 하나는 면죄부이며, 다른 하나는 교황무오설이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 건축비가 예상 외로 많이 들어가게 되자 교황청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연옥에 있는 조상이나 형제들의 영혼을 위해서 면죄부를 구매하면 그 돈이 현금함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당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선전했다. 루터는 이를 비성서적이고 비신학적인 주장이라고 공격했다. 교황무오설은 원래 로마 가톨릭의 본질적인 교리는 아니지만 교황권을 강화시키려는 교황들로 인해서 점차 교리화 된 내용이다. 루터는 교황이 무오하다는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교황보다도 주교회의가 더 권위 있는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루터,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참조).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신학적, 실천적 차이는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 사이의 그것 보다 훨씬 분명하다. 우선 주변적인 몇 가지 사실부터 점검해보자.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승천한 분으로, 무죄한 분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께 세상 사람들의 기도를 전달해주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개신교 신자들은 마리아의 종교적 의미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톨릭교회의 사제들은 예외 없이 남성독신\*\*이지만 개신교 성직자들은 거의가 남성기혼이다. 가톨릭은 일곱 가지의 예전을 (영세, 고해, 영성체, 견진, 혼배, 서품, 종부) 실행하는데 반하여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식 두 가지만 예전으로 취급한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만이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데 반하여, 만인제사장직을 주장하는 개신교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다. 1962-1965년에 열린 2차 바티칸 공회의 이후로 로마 가톨릭은 많은 점에서 전향적으로 개혁되어서 개신교와의 관계복원에 힘쓰고 있다. 예컨대 적대적으로 대하던 개신교를 ‘나 누인 형제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라틴어로 드리던 미사를 자국어로 드릴 수 있게 된 것들이다.

적지 않은 개신교 신자들 중에는 아직도 로마 가톨릭을 이단이라거나 우상숭배자들과고 몰아붙이는 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깊이 알지 못함의 소치로 일단 접어 두기로 하자. 같은 기독교 형제로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아직 요원한 듯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언젠가는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를 전제한 가운데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 1948년

우리는 앞에서 기독교의 대분열인 1054년과 1517년에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분열의 역사가 개신교 안에서 더 심각해졌어요. 1948년은 개신교 안에서나마 이런 분열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일이 일어난 때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창립총회가 개최된 해입니다. 1948년에 암스테르담을 시작으로 9차까지 열렸어요. 1차는 암스테르담(네덜란드, 1948년), 2차는 에반스톤(미국, 1954년), 3차는 뉴델리(인도, 1961년), 4차는 옴살라(스웨덴, 1968년), 5차는 나이로비(케냐, 1975년), 6차는 밴쿠버(캐나다, 1983년), 7차는 캔버라(호주, 1991년)에서 열렸는데요. 7차 총회에서 우리 한국의 한 여자 신학자가 오픈 예배에 설교를 해서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습니

다. 한쪽으로는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다른 한쪽으로는 비판적인 반응을 받았어요. 정현경 교수지요. 이화여대에서 조직신학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뉴욕의 유니온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국내 메스컴에도 가끔 글을 쓰는데요. 아주 독특한 종교 간의 대화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저와는 취향이 별로 맞지 않아요. 어쨌든 대단한 분인데 이때 뒀습니다. 8차는 하라레(짐바브웨, 1998년)고, 9차가 2006년에 브라질의 포르타알레그레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WCC 총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도 열렸는데 아시아에서 거의 제일 막강한 기독교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에서 총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게 말입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열리지 않을까 싶네요. WCC 1차부터 9차까지 열렸던 문서들을 검토해 보면 세계교회의 신학적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강의가 있고 얼마 후에 10차 총회가 2014년 10월30일-11월8일 부산에서 열리기로 결정되었다. 필자 주)

WCC와 연관된 우리나라의 단체가 한국교회협의회(Korea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KNCC), 일명 '교회협'입니다. 그냥 NCC라고도 하죠. 여기에는 기장, 예장(통합), 기감, 성공회, 복음교회, 구세군, 하나님의 성회, 정교회가 회원 교단으로 있습니다.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에큐메니컬 단체인데 요즘에는 힘이 없습니다. 대신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 막강하죠. 소위 돈 있는 부자교회의 목회자들이 한기총에서 활동하고, 가난한 교회 목회자들은 NCC에서 활동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뭔가 비정상적입니다. 교회협 신학을 용공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1948년에 WCC 창립총회가 있었고, 그로 인해 개신교의 에큐메니컬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이제 끝났군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한 번 쪽 살펴보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원시 기독교 모임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예루살렘 전체와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안디옥까지 쪽 퍼져서 세계의 중심 종교로 확장되었습니다. 중요한 시기들을 좀 짚었으니까 잊지 말고요. 로마의 인정을 받고 동서 교회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일치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 제16강

### 종교개혁의 세 가지 신학명제

지난 시간에 교회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1517년의 종교개혁 사건을 언급했어요. 종교개혁의 신학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제시한 핵심적인 신학의 세 가지 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솔라 피데(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오직 은총), 솔라 스크립투라(오직 성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엄격하게 다루려면 순서를 다시 정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루터나 칼뱅, 어거스틴, 안셀름 같은 대가들의 신학은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따라가질 못할 뿐이죠. 제가 자주 예로 드는 바둑만 해도 그래요. 수 하나에도 생각할 것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1517년에 마르틴 루터는 95개 조항의 신학 명제가 들어 있는 대자보를 비텐베르크 성당 출입문에 붙였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게 돼요. 루터의 개혁 과정을 보면 단순히 신학적이고 실증적인 요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독일인들의 반이탈리아 정서도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었다는 거죠. 순수하게 종교적인 것만으로는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힘들습니다. 글쎄요. 이런 말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역사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왔어요. 그런 정치의 흐름까지도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마르틴 루터보다 앞선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외쳤지만 다 실패하거든요. 정치적인 힘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대가 받쳐 주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희생만 당할 뿐 성공하지 못합니다. 영웅이 시대를 만드느냐, 시대가 영웅을 만드느냐 하는 말도 있듯이,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딱 맞아 떨어질 때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 해가 바로 1517년입니다.

비텐베르크는 조그만 도시예요. 베를린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로마에서 볼 때는 오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볼 때 갈릴 리가 오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16세기는 로마가 종교적으로 헤게모니를 잡고 있을 때였죠. 따라서 교황이 보기에는 비텐베르크에서 신학을 가르치며 성당의 몇몇 사제 중의 하나로 일하던 사람이 대자보 형식으로 95개 조항의 신학적 명제를 내걸었다는 건 아주 가소로운 일이었어요. 만약에 교황청에서

마르틴 루터의 시도를 그냥 모른 척하고 아무 일도 아니란 듯이 지나갔다면, 오늘과 같은 개신교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굵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말대로, 교황청에서 이 사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물론 지나간 역사에 대해 만약이라는 가정을 둔다는 것이 우습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교황청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마르틴 루터를 종교재판에 붙였어요. 보름스 제국회의가 열리는 곳에서 종교재판을 열었습니다. 보름스(Worms)를 영어로 하면 ‘웜스’라고 읽죠.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학자적인 양심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로마가톨릭교회의 몇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을 제기해 보려고 한 거죠. 이런 논지를 갖고 한번 신학 토론을 해보자고 한 겁니다.

그 때 마침 급속 활자가 발명되었어요. 그 덕분에 95개의 조항이 활자로 찍혀서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만약 급속 활자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역사가 다르게 흘러갔을 거예요. 종교개혁이 나름대로 성공한 이유는 신학적 배경이 탄탄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들이 잘 따라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독일의 기업가들, 부르주아 계급들이 막 발흥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돈과 힘 있는 상인들이 많이 나와서 발언권을 갖게 되었는데, 그들이 루터를 지지했어요. 또 다른 배경으로는 독일이 이탈리아와 관계가 나뉘었습니다. 독일에서 거둔 현금을 다 로마로 갖고 가는 걸 독일이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반로마, 반이탈리아 정서가 만연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열기설기 엮여서 독일을 중심으로 지지 세력이 형성되었던 거죠. 그 안에 마르틴 루터의 신학적 노선이 있었던 거고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리키는 신학적 슬로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솔라 피데는 의로움의 문제예요. 의로워지는 게 오직 믿음으로인가, 아니면 우리의 행위도 필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솔라 그라티아는 구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가, 아니면 인간의 업적도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는 삶의 기준이 오직 성서냐 아니면 교회냐 하는 거예요.

솔라 피데

-믿음인가 행위인가-

왜 그 당시에 의의 문제를 생각했을까요? 의는 오늘 제가 전한 설교 본문인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포항에서 강의하는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구약성서 전체가 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 성서 기자들이 의로움의 문제에 집착했을까요? 의라고



하면 불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의롭지 못한 세상, 왜 세상이 불의하냐고들 하잖아요? 앞서 연역적이다, 귀납적이다 라는 말도 나왔지만,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연역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명제로부터 죽죽 나오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귀납적입니다. 세상이 불의하다는 걸 뚫어보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살해나 강도가 많은가? 이런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다가 결국 의로 연결되었던 겁니다. 죄로 인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귀납적인 결론을 얻었던 거예요. 이것은 죄로부터 왔고 죄를 하나님과의 분리로 생각하면서, 훨씬 더 종교적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죄는 몇 가지의 불의를 행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현상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불의하게 된 근원이 뭐냐 하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죄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그 죄의 원인을 인간에게 돌리기는 좀 어렵죠. 인간을 하나님이 지었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책임이 아닐까요? 인간의 풀이 우스운데, 그 인간을 만든 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책임이 맞잖아요. 우리가 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이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일을 한다면 그걸 만든 과학자에게 책임이 있듯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서 기자들이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 마귀, 뱀 등이 등장하는 거죠. 그들의 꼬임에 빠져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대립하는 근원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맞서 대항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욕기에 봐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하기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나 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아니면 해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사탄 혹은 마귀의 꾀에 빠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이 설명을 자꾸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릴까봐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이 에덴동산에서 뱀이 유혹하는 내용을 실질적인 그림으로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면, 그건 성서가 말하는 근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고대인들은 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뿐이고, 그걸 통해서 죄의 근원적인 뿌리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뱀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제자리로 돌아가서요. 의의 문제는 성서 기자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거야말로 불의로 인해 분리된 하나님과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한 거죠. 이러저러한 6백여 가

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의로움을 획득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로워지기 위해서 믿음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행위도 따라야 하는 건지 하는 문제가 바로 루터에게서 생긴 거죠.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게 사실은 손에 확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기독교 신앙은 실증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자꾸 실증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독교인다운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옛그제 기독교 인터넷 신문에 실린 글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기독교가 세상을 좀 감동시켜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말이 좀 그럴듯하긴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모범적으로 해서 그들을 감동시키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행위 강조는 교회 안팎에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련된 교회는 교양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요구는 끊임없이 기독교 2천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작은 부분, 즉 변죽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중심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군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귀결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목표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게 힘든 겁니다. 믿음만이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 공염불이 되고 관념적이 되고 말장난이 될 공산이 크거든요. 따라서 그 믿음이 말장난으로 떨어지지 않고 솔라 피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것을 인식하고 뛰어 들어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칭찬받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론적 변화를 뜻합니다. 자기 자신을 설득시키는 게 가장 힘들어요. 자기 자신의 존재론적 변화는 참 어렵습니다. 그게 잘 안되니까 사람들이 행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옥한흠 목사님이나 박영선 목사님도 기독교인답게 사는 데 관심을 갖자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필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율법의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이미 그분들의 논리 속에는 칭의론, 즉 ‘솔라 피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전제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이것은 평생 동안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끝나지 않는 종말론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용어들이 역사 이해나 기독교 신앙 전반에 걸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솔라 피테,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종말론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게 신학적 사유입니다. 신대원이나 신학석사를 졸업했다고 해도 그런 생각을 못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옥한흠 목사님이나 박영선 목사님처럼 훌륭한 분들이 잘 가다가 조금 뒤뚱거리는 것은 신학적 토대가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제가 훌륭한 설교자요 목회자인 분들께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게 우습긴 합니다만, 신학적 토대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것뿐이니 이해하세요. 그분들에게는 청의, 성만찬, 교회, 창조, 종말, 에큐메니컬 운동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비단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신학교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신학적 사유를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도 못한다고 봐야겠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정보를 얻어다가 알려주는 것뿐이지, 자기 속에서 소화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 많은 신학 정보를 나열해서 알려주는 거지만, 그들에게서 신학적인 사유를 배울 수 없는 거죠.

이 솔라 피데는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인 지평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실제로 당장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종말에 가능한 겁니다. 의의 문제는 실질적인 게 아니라 법적인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될 뿐이지 실증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실증적인 것을 요구하거든요. 실증적인 것, 포지티브한 것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만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신앙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의 문제에서 루터가 솔라 피데를 강조한 것은 일종의 신앙의 화두와 같은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실증적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문제이고, 그 기다림의 문제가 바로 종말론적인 문제거든요. 그걸 좀 더 생각해야겠군요.

신학은 한 두 과목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꾸준히 붙잡고 나가야 할 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청의가 종말론적으로 완성된다는 말에는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남아 있을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으니깐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위로 나가든지, 교회를 확장시키든지 하면서 가시적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 주관에 빠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믿음의 어떤 사태 속으로 들어간다고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성에 매여 있습니다. 결국 솔라 피데가 말하고자 하는 종말론적 지평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조급증에 의해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냥 희망만 갖고 기다리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의로움이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종말은 지금의 생명 형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 안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생명이거든요. 알에 있다가 새가 되는 것처럼, 혹은 번데기로 있다가 누에나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생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이걸 결코 실질적인 게 아닙니다. 약속이고 미래적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맹탕이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이고 미래이고 기다림이기도 하지만, 그 기다림이 현재 우리의 삶에 실존적으로 선취된 겁니다. 다시 말해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의로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맥락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선교사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만족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걸 자기만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령만이 알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만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완전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사람이 간사하기도 하고 자기도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착각하거나 자기최면에 걸리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상태인 의는 순전히 종말론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유와 평화입니다. 그런 것들은 남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해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는 말이 있죠. 그것이야말로 능력입니다.

제가 정말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역학적이고 심층적인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솔라 피데라는 주제 하나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이야기도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은 믿음을 다루면서 인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하거든요. 믿음이란 게 인간 이해와도 연결 되니까요. 인간론에도 심리학적인 인간 이해, 사회학적인 인간 이해 등 많이 있잖아요? 또한 타종교와의 관계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도 말할 수 있죠.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 솔라 그라티아

-은총인가 업적인가-

솔라 그라티아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의로워지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일치가 곧 구원입니다. 모두 연관되는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업적과 행위도 연관이 됩니다. 루터는 오직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로마가톨릭은 은총과 함께 인간의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가톨릭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루터교회와 로마가톨릭교회가 구원 문제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소식통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 10월 31일 로마가톨릭 측의 에드워드 카시디 추기경(교황청 교회일치위원장)과 독일의 루터교 세계연맹 크리스티안 크라우저 감독은 독일 남부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열린 예배에서,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신의 사랑’에 의해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 공동선언문은 각자의 전통을 수호하면서도 서로의 신앙적 지평을 넓힘으로써 일치의 틀을 마련한 것이죠. 그동안 루터교회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조와 소요리문답서만을, 로마가톨릭은 트리엔트 공의회를 결정만을 신앙적 기초로 주장했었거든요. 이제 이 공동선언으로 인해서 지난 500년간의 종교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초보는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모임은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서 좋았던 거 같아요. 한국교회도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솔라 스크립투라

-성서인가 교회인가-

사실 솔라 스크립투라와 교회의 문제는 로마가톨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까다롭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무조건 우리가 다 옳은 게 아니예요. ‘솔라 스크립투라’는 성서가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우리의 입장에서 옳은 이야기지만, 사실 성서를 결정한 공동체는 교회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있었느냐, 아니면 성서가 먼저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뻔합니다. 교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게 성서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가 더 상위개념

인 거죠. 그러니 로마가톨릭교회의 주장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쪽에서도 할 말은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교회가 먼저 있었겠지만 더욱 근원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서가 먼저 있었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 등이 성서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성서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성서가 더 상위다, 아니 교회가 더 상위다 하는 식의 정당성을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개신교가 로마가톨릭을 비판하거든요. 가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을 섬기는 우상 숭배 집단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사실 속으로 더 들어가서 파진다면 개신교에도 우상이 많습니다. 가톨릭에는 교황 하나지만, 개신교에는 수천, 수만의 우상이 있어요. 오직 성서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 개신교가 성서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까? 교회 전통, 법, 불문율, 습관 등,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로마가톨릭을 보고 우상 숭배 집단이라고 비판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 부활과 빈 무덤에 대해

문자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복음서의 보도와 부활의 확실성의 관계를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 문제를 몇 번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때 전달이 잘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은 저도 대답하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제가 거리낌 없이 대답해 보겠습니다.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복음서의 보도는 어느 정도의 역사적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역사적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역사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우리가 가서 무덤을 직접 열어보고 시체가 없는 걸 확인했다는 방식의 역사적 사실은 아니거든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을 예로 들게요. 여인들이 안식일 후 첫날에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빛나는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때 무덤의 돌문이 열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 내용들은 전설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굳이 돌문이 열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직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방문이 잠겨 있었지만 들어왔으니까요. 돌문이 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활 현현은 가능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돌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혹은 여성들이 올 줄 알고 미리 그들

을 위해서 준비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무덤 안에서 여자들은 천사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예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막 16:7). 왜 갈릴리였을까요? 여기에는 갈릴리 전승과 예루살렘 전승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현현이 갈릴리에서 먼저 있었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먼저 있었는가 하는 신학적인 논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갈릴리 공동체와 예루살렘 공동체 간의 어떤 알력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말들이 있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성서의 진술들이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예수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느냐 못했느냐는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깜빡 하고 잊어버리기 전에 짚어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고 했는데, 그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삼일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주석에 보면 새벽 시간에 여성들이 향유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안식일에는 향유를 살 수 없었을 테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하더라도 새벽에 물품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 미리 준비된 거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에 대해서 성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과는 무관한 겁니다. 성서 기자들에게 확실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현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가야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무덤이 비어 있어야 하는 상황을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전설의 형식을 띠면서 빈 무덤 설화가 초기 기독교 안에 전승되어 왔고 결국에는 복음서에 들어온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과 그 근본들이 너무 불확실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토대가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십자가 처형 앞에서 보인 제자들의 비굴한 모습 등을 볼 때, 복음서에 시간 순으로 차근차근히 보도되고 있는 빈 무덤이나 부활과 같은 것들이 확실한 객관적 증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훨씬 후대에 부활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것을 해명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 대목에서 제 말이 좀 막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용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것은 흡사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사실 동정녀라는 게 중요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가현설에 대한 반론으로서 여자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확실성을 말하기 위해

서 동정녀가 들어왔던 거죠.

제가 연역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연역적이 아니라 오히려 귀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현현의 확실성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역으로 찾아 올라가는 거니까요. 마리아라는 여성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놀라운 사건을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동정녀가 들어왔듯이, 빈 무덤도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토대로 도입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꾸며서 한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말하기가 힘듭니다.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한 건 아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무덤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역사적 신빙성이 있는지는 학자들 사이에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은 무덤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을 찾아가 허락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특별한 사건인 거죠.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요? 로마 총독이 법에 어긋나는데도 굳이 예외를 인정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초기 기독교 안에서 많이 돌아다녔고, 그런 것들을 복음서 기자들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복음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복음서들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본문이 초기 기독교 안에 이미 형성된 내용인지 아니면 성서 기자의 이야기인지를 세심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에 ‘빈 무덤’이라는 낱말이 나오나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초기 기독교의 신조(creed)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끌어갔던 핵심들이 담겨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요. 장사했다는 말은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빈 무덤에 대한 건 없어요. 그렇다면 빈 무덤 관한 것은 설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설교비평 글에서 설화나 신화라는 용어를 썼다가 류응렬 교수로부터 위험한 신학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성서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서 안에 여러 문학 장르들이 있으니깐, 그걸 구분하자는 거예요. 복음서 안에 여러 가지 설화들이 복잡하게, 때와 필요에 따라서 첨삭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 사실을 전제로 하고 빈 무덤을 읽어야 합니다.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중요한 점을 짚자면, 부활은 죽었다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부활은 창조입니다. 창조를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잖아요? 무로부터의 창조, 즉 크레아티오 엑스 니hil로 (Creatio ex nihilo)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를 좀 외워 두세요.

방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동정녀 탄생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바인데 이걸 설화로 봐야하나요? 예, 그렇죠. 설화라는 걸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우리의 논의로 돌아갑시다. 부활은 기본적으로 창조의 문제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으로의 창조죠. 지금 살고 있는 모습으로 복귀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 이후에도 지금의 몸으로 살기 원하세요? 부활을 이런 몸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부활은 무로부터의 창조와 똑같이 때문이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건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며, 부활을 해명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서, 그 당시의 글 쓰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다른 종교의 신자들에게는 무덤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서 경배도 하고 성지 순례도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무덤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는 무덤 이후를 말하기 때문이죠. 무덤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생명을 기대하니까요. 그 세상이 어떤 거냐? 거기에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로 넘겨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참지 못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가 입으로 말은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독교 신앙의 맥락 속으로 신자들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확인하고 싶어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실증적인 걸 요구해요. 실증적인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청부론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경제적인 실증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복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실증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삶에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거나 무능력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는 거죠. 설교조로 말한다면 그래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론적으로 통치하도록 맡겨두고 우리는 거기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 문제와 빈 무덤의 문제는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설명이 얼마나 적합한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독교 신앙의 정보들을 자세하게 많이 가르치겠다는 걸 강의의 목표로 삼지 않았어

요. 다만 어떤 신학적인 영성을 전하려고 한 겁니다. 사유하는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부활과 빈 무덤의 관계를 딱 부러지게 잘 설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한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학적 영성의 맥락 안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 제17강

### 구약과 초기 기독교

오늘부터 기독교의 경전인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구약입니다. 저는 구약성서의 핵심을 헤브라이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브라이즘은 시오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약성서에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해야겠군요. 기독교인들은 구약성서를 왜 읽어야 할까요? 초기 기독교에서도 구약성서를 기독교 경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어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구약성서는 기독교회에서 결정된 게 아닙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천천히 형성되었는데요. 물론 그들에 의해서 신약성서가 결정되기는 했지만, 구약성서는 유대교에 의해서 결정되었거든요. 앞에서도 한 번 짚은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와 합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철천지원수 관계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 문제가 그렇게 칼로 무를 자르듯이 정리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구약을 왜 읽어야 하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전을 기원후 90년 암니아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약 39권이 유대교의 경전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런 사태가 조금 재미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성서가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어왔을 텐데 왜 90년에 가서야 경전을 결정했을까요? 그 전에는 구약성서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가 가장 권위 있는 성서로 받아들여졌고, 그 뒤의 예언서는 그보다 좀 낮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성문서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었어요. 암니아 회의에 이르러서야 이 모든 문서들을 통일하게 되었던 거죠.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중요한 사건은 70년에 일어났어요. 그 해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도 했습니다. 이 해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

교로 보아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기독교 교회를 전공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강의 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70년이 예루살렘의 유대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압박을 심하게 받게 되는 기점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서서히 그 모양을 갖추게 되었어요. 최소 40년 동안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별 충돌 없이 오누이처럼 그 안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된 뒤에는, 유대교가 종교적으로 내적 통일성을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율법을 강조하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나사렛파, 우리로 보자면 원시 기독교인데, 그들에게도 율법을 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 요청 앞에서 원시 기독교가 고민을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었지만,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율법을 그대로 지켰던 거예요. 그런 문제로 예루살렘 원시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 사이에 계속해서 충돌이 있었고요. 여기에 예루살렘교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요구하는 율법에 더 비중을 두면 이방 기독교와의 관계가 더 꺾그러워질 거고, 유대인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면 유대교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니까요. 그 압박이라는 게 노골적인 박해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은 곧 로마로부터의 종교적인 보호막, 혹은 방패막이를 전혀 얻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90년이 중요합니다. 이 때 암니아 회의가 열리면서 유대교가 구약성서를 정경화했고, 한참 후에 기독교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4세기 말이었어요. 이걸 보면, 기독교는 오랫동안 명확한 체계 없이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전도 있고 교리도 있고 신학도 발달해 있지만요. 기독교가 나름으로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노회나 총회 같은 것도 있으니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초기 기독교에도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경전이 겨우 4세기 말에 결정된 걸 보면 확고한 체계가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종교든 세월이 지나가야 체계가 잡히기 마련이구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에 기독교의 구심점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학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 지역에 공동체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 공동체들은 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횡적인 관계였거든요. 예루살렘교회의 공동체로부터 그리스의 교회 공동체들이 별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깐요. 복음이 북아프리카로도 많이 전해졌는데,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기만의 강한 기독

교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학파들이 서로 팽팽하게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묶어낸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경전도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등, 서로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룩한 문서들을 따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두 취합해서 정경화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한국의 개신교가 150개 이상의 교단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도 이런 형편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90년의 암니아 회의를 통해서 경전이 된 구약성서를 기독교가 몽땅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유대교는 기독교와 분명히 반대되는데, 왜 그들의 경전을 기독교가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 그걸 내쳐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키온인데요. 그는 이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단은 정통과 크게 달랐던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마르키온이 주장한 내용은 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보세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오면, 베를린에서 교회사가로 활동하던 하르낙 같은 사람들이 구약을 기독교 경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속적이지는 않았지만 간혹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경전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것이기에 자연스러웠을 테고,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방 기독교에서도 분명히 구약성서를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 같아요. 이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토라와 할례 문제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토라는 보통 모세오경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토라와 초기 기독교가 받아들였던 모세오경은 좀 다른 의미로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토라는 주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네요.

이방 기독교라 하더라도 바울이 세운 교회와 다른 교회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바울만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로마서도 사실은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공동체에 쓴 편지거든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가기 전에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어요. 안디옥교회도 이방인 교회인데요.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물론 안디옥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반 정도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디옥교회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왔던 이방인들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이방 기독교라고 해서 다 바울이 세운 게 아니고, 세운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바울이 세운 이방 교회들과 다른 이방 교회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서 강의진행이 좀 혼란스러운데, 다시 방향을 잡아야겠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와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갈라디아교회를 두고 예루살렘 공동체와 바울이 삼각관계였다고 할 수 있어요.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싸우는 배경 속에서 바울이 자기 입장을 진술한 게 갈라디아서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은 쟁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요한 등, 예수님의 측근들이 전부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일당백이라고 할 수 있죠. 게임이 안 되죠. 실제로 바울이 밀렸어요. 자기의 선교지도 다 놓치고 다른 쪽으로 가게 돼요. 갈라디아 지역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쪽으로 쫓겨 가게 되니까요. 그런 상황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을 듣고 바울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진 이야기인데요. 실체적 진실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서 선교지 확보 싸움에 져던 거예요. 밀린 거죠. 그걸 봐도 한동안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의 발언권이 아주 강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바울이 유대교의 흔적을 교회에서 다 일소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는 치열하게 투쟁했습니다. 유대교 경전을 보통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 근본적으로 구약성서의 모세오경인데, 바울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것들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교회 공동체는 역사의 뒤로 물러가고, 바울이 세운 이방 기독교가 결국 주류가 되었으니까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울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루살렘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초기 기독교 안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성서를 그대로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결국 경전으로까지 받아들였으니까요.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의 경전을 받아들인 사연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는데요. 하여튼 거기에는 우리가 한두 마디로 간단히 끝낼 수 없는 어떤 사연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구약성서를 기독교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볼 때, 구약성서 안에 다른 것들은 그래도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지만, 메시아 개념에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유대교

인들과 우리는 메시아니즘에 대한 이해가 결정적으로 다르니까요. 유대교인들은 구약성서에 근거해서 나름대로의 고유한 메시아 관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들과는 실제로 다른 메시아 관을 갖고 있지 않나요? 같은 구약성서를 받아들이면서, 유대인과 우리 사이에 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걸까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구약성서 해석이 옳은가요? 아니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우리의 구약성서 해석이 옳은가요? 둘 다 똑같은 구약성서를 갖고서 다른 메시아 관을 갖고 있기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왜 다를까요? 그들이 잘못됐고 우리가 옳은가요? 그들이 옳고 우리가 틀린 건가요? 아니면 둘 다 틀렸거나 둘 다 옳은 건가요?

이 단락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둘 다 옳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해석도 옳고 우리의 해석도 옳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느냐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실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도 노력해 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오니즘에 근거해서,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평과는 다른, 정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메시아니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들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죠. 그런 범주 안에서 예수와는 적대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예수는 민족주의적 헤브라이즘과는 달리 보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민족적인 메시아니즘의 범주를 뛰어 넘었던 거죠. 그 정도로 설명이 되었을까요? 이 헤브라이즘과 기독교는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해석의 패러다임이 달랐습니다. 지평이 달랐던 거죠. 일단 헤브라이즘은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이라는 렌즈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반면, 기독교는 그걸 뛰어넘으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서로 해석의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상대방을 단죄하거나 재단하거나 매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범주를 인정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생명, 하나님, 세계라는 범주와, 우리가 생각하는 각각의 범주에서 각자 최선인 것을 단순히 비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기독교적으로 너무 애매 모호하다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심지어는 유대교를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구약성서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물리학을 예로 들겠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뉴턴의 고전 물리학을 바라보면 적지 않은 한계가 발견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뉴턴이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구약과 유대인들을 뉴턴에 비유한 겁니다. 현대 물리학도라 하더라도 뉴턴의 물리학적 기초를 그냥 뛰어넘으면 안 되고 그걸 배워야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 역

시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유대인의 구약성서를 배척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읽고 배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의 영적 공간으로서 기독교인의 신앙을 풍부하게 하는 구약성서를 초기 기독교가 받아들인 것은 당연하고 잘된 선택이었습니다.

##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구약성서는 크게 세 구조로 나뉘어 있어요.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입니다.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누고요. 후기 예언서도 다시 대(大)예언서와 소(小)예언서로 나눕니다. 전기 예언서는 예언자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왕정역사이구요. 후기 예언서는 말 그대로 예언자들의 설교입니다. 전기 예언서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둘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전기 예언서는 예언자들의 활동이고 후기 예언서는 예언자들의 설교입니다. 예언자들의 설교도 부피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작은 것들을 열두 소예언서라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을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구약성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을 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어느 땅으로 가라.’ 하는 식으로 나오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 많은 영적 대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은 걸로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을 할까요? 언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즉 소리로 말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입이 있을까요? 입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한다고 하잖아요? 창조 사건에서도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로 빛이 생겼다고 합니다. 빛이 있었다고 하는 이 아포리즘을 제가 뒤에서 해석하게 될 텐데요. 구약성서에서 중요한 한 대목이거든요. 그 방향만 살핀다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성서에 의하면 창조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론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헬라어와 비슷한 뜻이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할 때 로고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었고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하죠. 말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하나님의 존재론이 무슨 뜻인지 조금 보충해야겠습니다. 사람이 개입해서



처리할 수 없는 궁극적인 힘을 존재(Sein)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누구나 하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무언가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걸 하나님의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 그 어떤 것으로도 변형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존재론이라고 한다면, 말 혹은 언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이데거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이데거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이데거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요. 그의 설명에 의하면, 신학은 철학보다는 자연과학에 가깝다고 합니다. 신학은 오히려 실증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거든요. 반면에 철학은 실증이 아니라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전혀 차원을 달리한다고 말해요. 하이데거의 존재론에서 하이데거는 자기가 말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가 말하는 존재는 기독교의 성령론이나 신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언어는 하나님의 존재론이고 창조의 힘입니다. 창조의 힘도 사실은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실체론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어요. 옥황상제라든지 산신령처럼 어떤 실체(substance)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실체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론을 말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규정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 도덕경에 나오는 도(道)와 비슷해지는데요. 하나님을 규정하면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규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근본적으로 계시론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머리를 굴리거나 인식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구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큰 착각이에요. 신학은 뭘 연구해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데요. 자연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어떤 원리를 발견해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드러내는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그 반응이 신학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진술에서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는 게 아니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내는 것은 곧 없어져요. 그런 건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인식되는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 규정을 내리면 이미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자기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나를 부른 분을 누구라고 백성에게 말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그런 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존재 근거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은 그분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몰라요.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질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저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의 소임을 감당할 뿐이죠. 전혀 차원이 다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이름, 즉 신명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I AM THAT I AM)입니다. 루터는 그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 그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존재하게 될 자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좀 까다롭고 애매하지요? 어떤 신학자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 거죠. 그런 점에서 신학은 종말론적으로 열린 학문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만큼 그 계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업을 신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종말까지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말했다는 하나님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죠.

말이 옆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언어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언어로 존재합니다. 그 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창조의 힘, 생명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어라는 걸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안으로만 축소시키지 마세요. 이것은 더 근원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언어 철학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무가 있기 전에 이미 나무라는 말이 있었다고요. 나무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이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을 갖고 볼 때 그 나무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언어 철학을 잘 모르지만, 오늘 여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성서의 진술만 놓고 봐도, 그 말은 말이 되거든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로고스를 음성학적으로 나타나는 소리 언어로 축소시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언어 속에는 훨씬 더 창조적인 생명의 근거가, 혹은 힘이 들어 있어요. 하이데거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말을 한다고 말이죠. 언어가 말을 한다고 해요. 그것은 살아 있는 언어를 지칭하는 겁니다. 창조적인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학적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말이, 하이데

거가 말하는 식의 언어가 말을 한다는 것과 잘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오늘 제가 언어와 창조의 문제를 말했는데, 무슨 뜻인지 감이 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문자적 차원이 아니라 언어존재론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해하겠죠? 하나님이 말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라’, 혹은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라고 했을 때 정말 소리를 내서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순진하기는 하나 좀 우스운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일종의 신탁인데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정말 귀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아니면 깨우침이었을까요? 그도 아니면 자기의 삶에 대한 반성을 통해 느낀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약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다만 거기서 하나님이 말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네요. 앞서 언어가 하나님의 존재론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구약성서는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이 자기를 알린 겁니다. 어떤 개인, 어떤 민족, 어떤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계시인 거죠. 그렇다면 성서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성서는 영감론으로 설명합니다. 성서가 성령의 영감(inspiration)을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구분된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축자영감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좀 열린 사람들의 입장으로 전체 영감설이 있습니다. 전자는 문자 하나하나를 성령이 축자적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기계적인 방식의 기록을 강조합니다. 반면 후자는 전체적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방식의 기록을 강조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서 기자입니다. 기자가 기계적으로 참여했는가, 혹은 역동적으로 참여했는가 하는 거죠. 이 말은 곧 성서의 역사성을 묻는 것인데, 성서가 역사에 의존하는가, 아니면 초월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느 영감설이 의존한다고 보는지 답이 나오죠? 역동적 영감설이 성서가 역사에 의존해 있다고 보고, 축자적 영감설은 성서가 역사에 초월해있다고 봅니다. 어느 입장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바로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초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역사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저도 이쪽에 포함

되는, 역사비평을 통해서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서를 역사적 산물로 보느냐,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역사 안에 있다고 볼 때 역사적 비평이 필요한 거죠. 역사비평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 전승으로서의 하나님 말씀

신학은 가장 오래된 학문입니다. 신학은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성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성서를 연구했기 때문에 그 어떤 학문보다도 훨씬 더 발전되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역사비평입니다. 성서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것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찾아내려는 작업이죠. 재미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성서개론을 다룬다는 점에서, 우리는 전승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전승을 독일어로는 ‘위버리페어룽’(Überlieferung)이라고 하는데요. 전승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라 구전으로 시작되어 조금씩 전해져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소박한 기독교인들은 구약성서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구조와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성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바다 속에서 솟아나거나 어떤 고목나무 밑둥치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에서 출현했어요. 역사 과정에서 출현했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아주 오래 전으로 생각을 옮겨보세요. 이미 태초에 구약성서가 있었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구약성서를 읽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구약성서를 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성서가 없었어요. 아니면 훨씬 후대로 내려와서 이집트에서 해방된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서를 읽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로 편집되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한 왕정국가의 모습을 다진 이후였어요. 그리고 구약성서를 최종적으로 정경화한 시기는 놀랍게도 기원후 90년이었습니다.

이 왕정시대가 주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중요해요. 오래 전에 구약성서는 단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건에 대한 구전이 있었겠죠. 그런 구전들이 편집이 되고 문서가 됩니다.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출애굽 사건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누

가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었어요. 입으로 구전이 되었죠. 오랫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단편적으로 다르게 전해지기도 했어요. 미리암에 대한 전승을 비롯해 수많은 전승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문서화가 됐고, 그런 문서들도 나중에 편집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바로 결정적인 시기가 다윗과 솔로몬 때라는 겁니다. 이때 나라가 탄탄한 자리에 서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뿌리가 어딘지를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울 때는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 부모나 조상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처럼, 조상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학자들을 시켜서 뿌리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 결론이 출애굽 공동체였습니다. 출애굽에서 더 올라가면 어디냐고요? 족장들 시대로 올라가고,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상은 뭐냐고요? 설화들로 되죠. 올라갈수록 희미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우리가 원역사라고 하는데 사실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건 접어두고요. 하여튼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간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구약성서는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이 두 개의 기둥을 이루고 있어요. 이 두 사건이 구약을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중심으로 한 신명기적 관점으로 자기들의 역사를 재구성했는데요. 이걸 주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주로 바벨론 포로 시절에 많은 활동을 했어요. 이 때 예언서들이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뒤로 가면 성문서가 기록되는데요. 성문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후기에 쓰였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에서 멀리 갈수록 희미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창세기의 앞부분으로 갈수록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기 힘들고, 뒤로 갈수록 점선이 나와요. 그러다가 신구약 중간기에 가면 또 희미해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전승입니다. 전승은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승이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전해오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말 재주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들어가지도 하고 빠지기도 하죠. 흡사 우리나라의 민담처럼요. 해님이 된 오빠와 달님이 된 누이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억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성서가 무조건 근거가 없는 설화라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전승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중복되어 나오죠. 참고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3대 족장이라고 하고, 그 외에 또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요셉입

니다.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 아들, 손자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아브라함 전승, 이삭 전승, 야곱 전승, 요셉 전승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창세기를 기록한 최종 편집자에 의해서 한 가문처럼 기록된 겁니다. 그 증거가 있냐고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사실 성서를 읽을 때 서로 다른 전승인지, 아니면 정말 한 가문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찾으려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역사비평과 같은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승이 중요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그렇게 전승된 것이 문서화되고 편집된 다음, 정경이 되었다고 앞서 짚막하게 설명했습니다. 캐논이 되었어요. 캐논은 기준, 잣대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서를, 기독교인들은 신구약성서를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성서가 오리지널이 아니라 사본이라는 데 있어요. 이것은 성서개론을 공부할 때 기초적으로 나오는 말인데, 제 강의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본이 상당히 여러 곳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서를 양피지에 일일이 받아 썼어요. 이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서기관들이 그 일을 했고, 수도원에서도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도 오리지널은 없고 사본만 있는데, 사본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사본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본들은 유물이기 때문에 박물관에 있어요. 어떤 사본은 고린도서만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은 복음서만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본은 신약 27권만이 아니라 외경들까지 들어 있기도 하고요. 사본만 연구해도 굉장히 큰 작업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떤 건 팔호로 치고 난외주로 표시하기도 하죠. 그 구절이 어떤 사본에 따른다거나, 어떤 사본에 없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성서를 번역할 때 어떤 사본을 택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컴퓨터 작업을 해보니까 현재 세계 기독교계가 쓰고 있는 것은 거의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거의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하지는 못했어요. 그건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군요. 핵심은 성서를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본이 아닌 번역본으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번역본 위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고, 그 위에 정경이 있습니다. 정경 위에 편집된 여러 개의 문서들이 있겠지요. 그 위에 구전이 있겠고 구전을 따라 올라가면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 출애굽 사건, 예수님의 공생애 사건,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 등이죠. 그럼 사건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는 사건이 없어요. 2-3천 년 전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직접 올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는 지금 번역된 성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성서를 읽고 있는데, 이걸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으로 가야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말이죠. 한꺼번에 뛰어 넘을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극단으로 가면 이단이 됩니다. 문선명이 『원리강론』을 썼잖아요. 그걸 보면 성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성서를 그냥 읽고 나서 그걸 하나님의 사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짚 밟아 올라가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석은 가능한 대로 사건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18강

### 성서 텍스트와 해석 문제

안녕하세요? 어느 새 봄이 성큼 다가왔네요. 오늘은 기분 좋은 주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습니까? 사는 게 재미있나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죠. 사는 게 뭔가 하는 질문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어려운 질문이죠. 삶이 뭐냐는 것도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둘은 좀 다릅니다. 하나는 본질에 대한 물음이고 다른 하나는 방법에 관한 물음이니까요. 보기에 따라서는 둘로 나눌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신앙의 차원에서 보자면 본질주의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를 아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두 개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생명 경험

이번 주간은 날씨가 계속 좋았어요. 정말 이 순간에 살아 있는 제 자신을 보면 신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텐데요. 도대체 삶이 뭔가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춘기 때부터 시작되죠. 나이가 어려도 그런 생각과 대화는 가능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사춘기에 들어서면 삶에 대해 더욱 본격적으로 질문하게 되죠. 나이가 들면서 그에 대한 생각도 성숙해지는데, 끝이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멈추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에 대한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점심을 먹거나 이런 저런 일로 제가 하루에 한두 번은 밖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운전할 때, 걷어갈 때, 순간적으로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삶에 좀 밀착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많은 경우에 삶이 겉돈다고 할까요? 착 붙어 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것은 차이가 큼니다. 테니스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저 사람이 테니스공에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공을 세게 친다고 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테니스를 칠 때 공



을 안고서 치라고 합니다. 자기 몸의 중심과 테니스공이 맞는 순간을, 그 임팩트 되는 순간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도 똑 같다고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곁돌지 않고 삶에 딱 붙어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또 설교조로 나가는데요.

겉도는 삶이란 소유 지향적이고, 업적이나 성취에 몰두하는 율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산해내는 어떤 성과물들을 확인하면서 거기에 몰입하는 삶이죠. 그런 삶은 늘 흔들려요. 자기 성취가 많으면 즐겁고 성취가 없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바람에 뒹구는 겨와 같다고 할까요? 시편기자가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삶은 생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에 대한 완전한 대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삶에 가능한 대로 붙어 있는 겁니다. 생명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 봄날에 내리는 햇살이나 아지랑이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생명의 현상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 버리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대학교수로 살든 기업가로 살든 국회의원으로 살든 혹은 시장에서 좌판을 벌여 놓고 살든 상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면에서 모두 똑같으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삶의 차이가 아주 큰 것 같지만 말이에요.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영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과 밀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경험은 생명 경험과 똑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생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론도 다뤄야할 테니까요. 성령이 생명의 영이니까요. 하여튼 그런 하나님 경험을 하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그만 둔다고 해도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아주 분명해요. 제가 간혹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저녁에라도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된다면, 제 생애에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될 겁니다. 테니스도 못 치게 되고, 서울이나 다른 곳에 강의하러 다닐 때 불편한 게 많겠죠. 그렇다고는 해도 그것이 결정적으로 저를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어도 생명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존재론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제가 존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썼어요.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도 했고요. 바로 그겁니다. 존재는 사람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세계, 그런 능력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존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자인’(Sein)이 바로 그거죠. 영어의 비(Be) 동사에 해

당하는데요. 하이데거는 ‘자인’(Sein)과 ‘자이엔데’(Seiende)를 구분합니다. ‘자이엔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사물이라고 할 수 있고, ‘자인’은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인 어떤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대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게 큰 인연이죠. 게다가 우리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으며, 어떻게 범주화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걸 우리는 다 놓치고 살아요. 제가 단순히 자연주의자들의 자연예찬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과 자연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봄날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었습시다. 비가 내려도 좋아요. 바람이 불어도 좋아요. 봄에 황사가 일어도 좋습니다. 모두 얼마나 귀한 생명 경험입니까? 제가 다른 글에도 잠깐 썼지만, 황사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해요. 우리나라 산천이 다 산성화가 되었는데 이 황사로 인해서 알칼리성으로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 노약자는 황사를 주의해야겠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이 모든 삶을 순간순간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면 월급이 좀 작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자기 집을 마련하지 않고 전세로만 산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사실 먹고 사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지금 20대들이 88만원 세대다 뭐다 해서 야단들이지만, 하양만 하더라도 노동자들을 찾는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일인 것 같은데, 그게 2차 산업인가요? 하여튼 일자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곳에서 열심히 일하면 150만원은 받지 않겠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사교육 많이 시키지 않으면서 부부가 같이 일한다면 살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나 경제구조를 그대로 수용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 걸림돌이 있더라도 우리가 존재론적인 생명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2008년의 봄을 쓰레기처럼 버리지 말자, 황홀하게 살아 보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이 올라왔네요. 두 질문 모두 성서 텍스트의 해석과 관련된 거군요. 첫 질문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성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왜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적대적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가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체포 사건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책임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유대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초기 기독교와 별로 대립적이지 않았는데, 복음서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

습니다. 질문한 분은 마태복음 26장 47절을 인용하면서 거기에는 분명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군인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 아마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주고 고용한 사병들일 겁니다. 공식 군인들이 아니라 사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겔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잡으러 온 건 분명합니다. 공관복음뿐 아니라 요한복음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공통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보충설명을 필요하긴 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유대교가 그리 나쁜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 번 말했지만, 사도행전만 봐도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으로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하곤 했거든요.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돌렸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에 드나들 수 있었을까요? 또 초기 기독교의 신앙고백인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빌라도와 더불어 제사장들에게도 비슷한 무게로 돌아간다면 사도신경에도 그것이 다뤄졌겠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책임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지, 복음서가 전하는 제사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 추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많은 공부와 필요하고 또 공부해 볼 만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복음서들도 사람들에게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의 삶의 자리가 있었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이 있었다면 마가의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을 질문한 것이 마가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나 바울의 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막연하게 그냥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예요. 구체적인 삶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생겨난 구체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이러저러한 전승들이 묶여서 문서가 된 겁니다. 그게 성서예요. 복음서든 서신서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 제사장들이 상당히 깊숙하게 관여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게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복음서가 놓여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나온 해석일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질문을 설명하면 이런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 성서해석의 문제

새로 올라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인가요?” 질문하신 분은 제가 지난 2월에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본문으로 설교한 걸 읽어 봤나요? 그 내용은 다비아 사이트의 설교모음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공관복음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고요.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관이라는 말이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시놉틱’(synoptic)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공관복음서에 시험 받은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40일 동안 계속 시험을 받았다고 나오지만 시험 받은 세 가지 내용은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계속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시험을 받았다고 하고 세 가지 시험 받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세 가지의 순서가 첫 번째는 마태와 누가가 같은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바뀌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예수의 시험에 관해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면 왜 복음서마다 다르게 말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은 그것을 생략까지 했을까요? 여러분이 늘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성서를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어떤 사연들을 알기 위해서 말이죠.

이 시험이 정말 객관적인 사실이냐고 물었는데요. 정말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심리적으로 어떤 유혹이 떠오른 것일까요? 그도 아니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연관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등장했다는 것은 악을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거든요. 악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만화에서 보듯이 뿔 달린 어떤 모습의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음성학적으로 소리를 내서 말한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생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서학자 중에 에두아르트 슈바이처(E. Schweizer)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아닙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도 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쓴

주석서를 보았어요. 이 사람이 쓴 마태복음 주석서인 『마태오복음』(Das Evangelium nach Matthäus)을 조금 참고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시험은 첫 번째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로 성전에서 뛰어 내려라, 세 번째로 사탄 혹은 마귀에게 절하라는 거였어요. 슈바이처의 말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세 번째 것이 제일 먼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시작되었다는 말이지요. 이 세 가지 가운데 마지막 것은 좀 특색이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스스로의 해결 능력을 보여야 하는 것인 반면, 세 번째는 사탄과의 대결입니다. 사탄에게 절하라는 것은 사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이게 가장 처음으로 중요하게 초기 기독교의 신앙적 주제로 부각되면서 앞선 전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전승들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초기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앞서 제가 말한 대로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가 그것을 요구했다는 뜻이에요. 삶의 자리가 있었던 거죠. 노파심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전혀 없는데, 초기 기독교의 삶의 자리가 그런 이야기를 요구한 것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연대기적으로 쪽 정리되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거든요. 또한 여러 사람들의 소문으로 남아있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초기 기독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들은 조금 비중 있게 받아들여졌고, 어떤 것들은 약화되기도 했고, 어떤 것들은 좀 더 비현실적으로 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비현실적인 것들은 거의 외경으로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초능력을 행사했다는 전승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방대하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신빙성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편집이 되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기독교가 처해 있던 삶의 자리였어요.

이 내용을 비유적으로 설명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정용섭 목사가 동영상이나 다비어나 오프 모임 등을 통해서 강의를 하다가, 어디론가 떠나게 되어서 만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다비안들이 정용섭 목사에 대해 기억하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억들은 다 다를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기록이라도 해놓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입으로 구전되는 가운데 어떤 것은 축소되고 확대되었던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저에 대해 기억할 겁니다. 저와 관련된 일이라도 저 역시 객관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 이해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공관복음서가 같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 다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알죠? 수난설화입니다. 수난설화란 말에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지 말고요. 이번 주간이 수난 주간이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일들이나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부피가 많은 내용입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공관복음서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공통으로 들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한 복음서에만 들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한다면, 이런 자료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신약성서에서는 그것을 Q자료라고 하는데요. 어록자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고, 있었다고 가정만 하는 거예요. Q자료는 독일어로 ‘크벨레’(Quelle)라고 합니다. ‘원천, 샘’이란 뜻이에요.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 마가복음 기자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기자가 마가복음과 Q자료를 포함해서 마태복음을 썼고요. 누가복음도 마태복음과 비슷하게 자료를 공유하면서 썼습니다. 그렇게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부분을 Q자료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공통적인 부분들을 모아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촘촘히 잘 살펴봐야 성서 안에 나오는 전승들이 과연 초기 기독교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지, 마태복음만의 고유한 것인지, 자기가 편집한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 분석을 역사비평이라고 합니다. 역사비평이 성서 해석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기초가 되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완성된 텍스트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중요한 관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사실이나 아니냐, 그것만 따집니다. 또 사실이라는 것도 역사적 사실로도 볼 수 있고,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미 설명한 대로, 히스토리와 게쉬히테(Geschichte)가 있어요. 어떤 사건들은 실증적인 히스토리이지만, 그것을 기초로 한 더 포괄적이고 함축적이고 역동적인 역사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 없다면 우리는 텍스트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게 믿어야 하는 것이지, 학문적으로 따지고 들면 되겠냐고요? 오히려 이것이 더 신앙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데요. 연대기적이고 실증적인 시간 너머에서, 그 심층에서 흐르는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더 깊이 있게 파야 하지 않겠어요? 무턱대고 믿는다면 카이로스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즉흥적으로 말하는 중이라서 다소 앞뒤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말할게요.

성서를 볼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했는가를 문제 삼고, 어떤 사람은 저자의 편집 의도가 무엇인지를 문제 삼습니다.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전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했다는 그 전제에 집중합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보다는 저자의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중요하지 왜 저자가 중요하냐고 물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이 텍스트가 담아내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100% 다 담아낼 수 있다면 누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이 텍스트에 나온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니까, 전부 예수님이 말한 것으로 믿을 수 있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로서는 결코 텍스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광신이라면 가능해요. 또 그걸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예수를 잘 못 믿어도, 최소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세세하게 정확히 알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돼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살면 됩니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기독교가 점점 세계로부터 위축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구원했는데, 이 모든 세계의 주요 이슈나 담론에 대해서 기독교가 점점 대답할 말이 없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과 대립하게 돼요. 좋은 뜻의 대립이 아니라 무모하게 싸우는 것이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같은 것이나, 진화론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등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게 되면 결국 기독교는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선교적 차원에서라도 성서 텍스트를 바르게 해석해야 하는데요. 성서 해석에서는 저자의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저자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로봇 같은 기계가 아니라 살아 있는 영혼이잖아요. 우리가 창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한다면, 성서를 기록한 사람이든 그 기록된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이든 모두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걸 가능한 일이거든요. 창조론에서 볼 때 이것이 더 실용적이에요. 만일 축자영감설을 믿는다면, 마태복음 끝부분에 나오는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세요. 그런데 꼭 그런 부분은 상징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우리는 마태복음 기자가 처해 있던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이 본문(마 4장)의 삶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왜 사탄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모두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의 내용인데요. 이 성구들은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어릴 때부터 거의 암송하고 있던 겁니다. 그 말은 곧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절하라고 하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절하고 다만 그분만 섬기라고 대답했는데요. 왜 그게 마태 공동체에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까요? 그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이해하려면 우선 기원후 60-70년대 팔레스틴의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맥락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도 지금 FTA, 주한미군, 빈부양극화 같은 상황 속에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목사의 설교가 어떤 특징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맥락 말입니다. 성서에도 정치, 사회, 경제적인 상황들이 간접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맥락 속에서 성서가 기록된 겁니다.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자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나 성서 신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해요. 이미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설교비평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왜 많은 설교자들이 기초적인 성서 주석을 참고하지 않는 건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설교 시간이 성서를 주석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설교를 준비해야죠. 설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소한 성서 주석을 거쳐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가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설교자들이 상당히 게을러요. 아마 신학 저서를 읽기가 좀 지루하기도 하고, 싫기도 하겠죠. 다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그런 책들은 그쪽으로 머리가 열리지 않으면 읽히지가 않습니다. 신학적인 훈련이 목사님들에게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신학생 때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이긴 합니다. 바르트의 책을 읽어내는 신학생들도 없을 걸요. 읽으면 졸릴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번역이 되어 있어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번역서 자체가 원서보다 더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목회 현장에 나가서 임상 문제로만 씨름을 할 뿐이죠. 신자들은 뭘 원하나요? 자기 집에 와서 심방하고 기도해주길 원하죠. 신학적 사유들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에게는 신학적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은 기본적으로 신학적이어야 하고요. 이 이야기는 그만 하죠. 하여튼 최소한의 훈련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적 영성을 요구하지도 않는 시장바닥 같은 목회 현장에 들어가니, 목사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학적으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이런 신학적인 이론 자체를 강단에서 말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설교자라면 이런 문제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통해서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창조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 마태 공동체의 메시아니즘

제가 지금 슈바이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중인데요. 마태복음 공동체에서 요구되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메시아니즘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사실 복음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니즘에 대해 생각해 봤나요? 오늘 샘터교회 설교 주제가 메시아니즘이었어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예수가 메시아냐? 구원자라면 왜 그렇게 시시하냐? 마태 공동체가 그런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 열망이 특히 강했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메시아 상에 의하면, 구원자는 로마를 한 칼에 날려버리고 시오니즘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설립하는 거였어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계가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 공동체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대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제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고 했는데요. 특히 60년대에 열혈당원들이 무장봉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쯤 지났겠죠? 이즈음에 본격적으로 반로마 무력투쟁이 아주 뜨겁게 일어났어요. 그들은 무력을 써서라도 독립을 해야 한다고, 그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라고 주장했고, 그 주장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이런 질문들 앞에 직면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대답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도 나가서 독립투쟁을 하자고 해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공동체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대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대답했던 겁니다. 좀 엉뚱한 대답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전혀 엉뚱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투쟁과 메시아니즘에 대한 지평을 옳긴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가 그걸 놓치지 않았던 거죠. 이 세계의 변혁은 우리의 투쟁으로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분만 경배하라는 방식으로 대답한 거예요. 사탄에게 절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대답은, 곧 마태공동체가 처했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제시한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악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력투쟁을 통해서라도 로마를 제거하는 것이 악을 제거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로마에 무력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열심당원들이 두세 명 있었거든요. 그들은 예수에게서 그런 기미나 가능성들을 엿보았는지도 모

룹니다. 가롯 유다도 그 입장에 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수에게서 악을 일소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보았는데, 아무리 같이 있어도 전혀 그럴 기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자꾸 다른 걸 말하니까, 결국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도 무기력하게 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개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지배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였어요. 악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조직신학에서 많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악, 사탄은 이게 뭐냐가 아닙니다. 그게 뭔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 성서나 기독교는 악이나 사탄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모든 죄의 열매들(악, 폭력, 살인, 수군대는 것 등)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설교자들에게서, 좀 세련된 설교자들에게서 보이는 잘못된 바로 그겁니다. 그런 설교자들은 우리가 죄의 열매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는데요. 칭의는 믿음의 문제이고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조금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각설하고 결론만 말한다면, 칭의를 순간적인 상태로 본다면 성화는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교회의 예전으로 보자면, 세례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고 성만찬을 통해 그것을 지속하는 거죠. 성화는 당연히 우리의 삶에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오류에 빠집니다.

악이나 폭력이 모두 윤리적인 건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위를 고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더 존재론적인 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기독교 윤리학과 논쟁할 문제인데요. 윤리학자들에게서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것들을 존재론적으로 보지 않고 행위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이 심리학, 인간행동 발달에 대한 연구, 상담학 등 사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악을 존재론적으로 봅니다. 악의 근원이 존재론적인 차원에 놓여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사탄이나 뱀으로 상징화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제와 연관해서 말한다면, 사탄에게 절하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는 예수의 대답에는 이 존재론적 근원인 사탄도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좀 모순처럼 들리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온갖 부도덕한 일들에는 존재론적인 힘이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그 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할 겁니다. 그게 서로 모

순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성서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건 천천히 더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악의 근원은 존재론적이지만 그것도 이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의 원인도 하나님이나? 하나님에 의해서 악이 존재하게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악이 존재론적으로 있다는 차원과 하나님의 존재는 다른 의미예요. 인간보다 더 우월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론적인 악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악은 꺾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악은 이미 힘을 잃었어요. 이것을 전제로 기독교 신앙은 이 세계의 악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를 담보한 거죠. 선취(先取)한 겁니다. 이걸 말장난이 아니라, 신학적 사유이고 영성이예요. 여러분, 이런 신학 공부에 막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참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우리가 세계 안에서 기독교적인 삶을 올곧게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구도정진의 자세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없어서 시시때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것이, 무력을 통해서라도 로마로부터 유대가 독립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와, 예수가 메시아인 증거를 대라고 하는 도전 앞에서 초기 기독교가 제시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말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또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했는데, 다른 것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귀에 떠들었느냐 아니냐는 성서 읽기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이 마태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서 나온 신앙고백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와는 연관이 없지 않은가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는 오늘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딱 끊어서 이거다 저거다 하지 마세요. 성서 텍스트의 고백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나온 거지만 예수님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깊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맥락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죠. 그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신학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들을 충분히 거쳐야 설교가 가능해요.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 목사는 싸구려 약장사가 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제19강

### 모세오경

오늘은 매화꽃 수정을 한번 해봤어요. 보통은 벌이 날아와야 수정이 되는데요. 이 화분이 아파트 안에 있으니 벌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우 한 분이 붓으로 하나 하나 다 건드려 주었어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림 그리는 붓으로 색칠하듯이 하더군요. 놀라웠어요. 과수원에 있는 매화꽃들을 멀리서 볼 때는 그냥 화사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매화꽃을 화분에 심어 놓고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이거든요. 꽃에 수정을 시킬 때, 붓으로 건드리니까 꽃가루가 하늘에서 눈이 오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꽃이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붓으로 살살 건드려보니까 꽃가루가 정말 대단히 많더군요. 매화꽃은 별로 크지 않는데, 꽃가루가 아마 수백 개는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꽃가루였습니다. 그걸 확대해서 본다면 장관일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아주 작은 것들, 보통 마이크로(micro) 세계라고 하는 것들을 다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큰 세계, 매크로(macro) 쪽도 놓치고 살기는 마찬가지겠죠. 아주 작은 것도 놓치고 큰 것도 놓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평범한 세계 안에서만 경험하고 사네요. 오늘 저는 매화꽃 수정하는 작업을 30분정도 하면서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 구약의 구조

우리는 지금 구약성서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성서의 구체적인 내용 속으로 들어갈게요. 모세오경에 대한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구약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론적인 걸 설명했어요. 구약성서는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아주 초보적인 것으로, 구약 39권의 내용을 압축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성서에 대한 전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좀 따분할 것 같아요. 한쪽에 TV를 켜두고 건성으로 들어도 됩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다 아는 이야기라도 아는 것에 수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죽집계 과외가 있죠? 입시준비하면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걸 집어내는 사람들 말이에요. 가능한 한 제가 그런 자세로 해보겠습니다. 실용정부도 들어섰으니 우리도 실용적으로 나가보지요; 사실 우리나라가 언제는 실용적이 아니었나요?

미국을 닮아서 언제나 실용적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실용 정부라고 하나 까, 저도 성경공부를 좀 실용적으로 해보려고요. 여러분에게 꼭 시험에 나올 이야기만 하겠고,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야기만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어디에 가더라도 구약 성서에 대해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약성서 39권의 핵심 내용이 무얼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어야 구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구약성서는 전체적으로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예언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성(聖)문서라고 하고요. 독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모세오경을 지칭할 때, 우리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부르지 않고, 모세의 첫 번째 책, 모세의 두 번째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섯 권이 모세의 저작이라는 전통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얽힌 여러 가지 사연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토라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서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이 구약성서의 핵심입니다. 성서 안에서 중요도를 따진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따져야 합니다. 신약성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미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와 같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 밖에 다른 성서도 비록 경전 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권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외경은 권위가 좀더 떨어지구요. 위경은 훨씬 더 멀리 있는 것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뿐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수많은 문서들이 있었는데, 오리지널도 있었고, 위작도 있었고, 그 중간 쯤 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많은 설교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설교들은 정말 기독교 전통에 바르게 설 뿐 아니라 설교를 들어야 할 청중의 삶도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가 하면, 사실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설교들도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넨베르크의 설교가 전자에 속한다고 보는데요. 몰트만의 설교도 괜찮고 폴 틸리히의 설교집에서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흔들리는 터전』(폴 틸리히, 대한기독교서회)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 대가들의 설교는 역시 다릅니다. 그러나 후자에 속한 설교를 누가 100년이나 200년이 지난 후에도 읽겠습니까? 그런 설교들은 기독교의 중심이 아니라 기독교 바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설교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인기를 끄는 걸까요? 사람들이 전통, 깊이, 본질 같은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설교들이 자기 개인의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종교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가 겹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늬는 신앙

의 모습인데, 속에는 육체의 욕망(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이 가득한 거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자극하면 사람들이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이단 논쟁이 늘 많은데요. 신천지나 영생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발붙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이나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저 청중들에게 종교적인 만족만 주면 되거든요.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여튼 성서가 기록되고 편집되던 그 당시에 많은 문서들이 있었고, 각각 무계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율법서)을 가장 먼저 경전으로 결정했어요. 암니아 회의 때(기원후 90년) 구약 39권이 경전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은 성문서까지 포함한 구약 전부가 결정되었다는 것이고, 모세오경은 그보다 앞서 경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중요한 문서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는 성서였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 안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기 예언서는 역사이고, 후기 예언서는 예언자들의 설교입니다. 보통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문서에 속하는 역대기가 역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전기 예언서와는 좀 다릅니다. 물론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는 성문서로 분류됩니다. 이런 성문서는 주로 남(南)왕국의 패망과 포로귀환 등 혼란한 시대에 형성된 문학 작품이에요.

모세오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주로 네 단계로 나눕니다. 우리가 조그만 냇가를 건널 때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그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밟고 가야 냇가를 건널 수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의 전체 윤곽을 잡기 위해서 제가 네 개의 디딤돌을 만들었습니다. 그 네 개가 창조 이야기, 족장 이야기, 애굽 이야기, 광야 생활이에요.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직전까지예요. 제가 이걸 표시하고 있어요. 지금 동영상의 화면에 그 도표가 나오죠? 오늘 실시간 강의를 직접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화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모세오경이 뭐냐고 할 때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생활이 그겁니다.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첫째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 주제가 창조예요. 물론 여기에 창조를 중심으로 타락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와 타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11장까지를 보통 모든 역사의 근원이 된다고 해서 원(源)역사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우어게쉬히테’(Urgeschichte)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역사에 대한 근원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민족사, 족장사가 시작하기 이전의 보편적인 세계 이해를 설화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거죠. 세계가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와 그 세계가 타락한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세계가 시작하기는 했는데, 인간의 삶을 보니까 폭력과 살인 등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런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귀납법적인 원인 제시로 타락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신학적 해석이자 고백으로 받아들여야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원역사에 속하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가 언제일까요? 물리학자들이 보통 말하는 120억 년 전이 바로 그 순간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원역사 부분에는 창조사건,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 가인과 아벨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주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중에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보는데 따라 그 사람의 신앙적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창조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창조 사건을 앞에 놓고 이야기할 것이고, 인간의 죄나 죄 사함 등 사죄의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타락 이야기를 앞에 놓고 이야기하겠죠. 저는 창조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창조된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하늘, 육지와 식물, 별, 마지막 여섯째 날은 들짐승과 인간,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통 우리는 여섯째 날에 인간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들짐승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고요. 일곱째 날에는 안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통 J문서와 E 혹은 P문서가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J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 문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E문서의 기자가 말하는 창조 이야기도 있어요. 둘이 좀 달라요. 그것만 비교해서 설명해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간단하게 인간 창조로만 이야기하자면, E문서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J문서에서는 남자를 만들고 나서 그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생각해야겠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창조 이야기도 조금씩 문서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창조에 대해

창조 사건에서 저는 주로 빛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

하신 것을 누가 보았나요?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맨 처음에 빛을 창조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를 했다고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성서 안의 모든 사실이 실증적인 사실로 자리 잡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모순이 일어나게 돼서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물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성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성서기자의 편집의도라고 말했지요? 성서 기자가 왜 창조 순서에서 빛을 가장 첫머리에 놓았을까요? 그 점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해요. 왜 성서 기자들은 빛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썼을까요? 이걸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주 물리학적인 지식에 미개했던 고대인들이지만 세계를 직관하는 것은 우리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그 당시 고대인들이나 현재의 우리나라 세계를 직관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를 기록할 때가 약 3천 년 전(약 2천5백 년에서 3천 년)이라고 해도, 그때 그들이 바라보았던 빛과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빛은 똑같잖아요. 그들은 그 빛 앞에서 충격을 받았습시다. 태양, 빛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모든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던 겁니다. 오늘의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으니까요.

참고로 성령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성서 기자들이 성령을 이야기했을까요?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을 이야기했겠지.”라고 말한다면 성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큰 잘못은 아니지만, 그건 성서 이해가 아주 미숙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영을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왜 영에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게 바로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람과 영이에요. 고대인들은 평소에 바람과 영을 똑같은 걸로 본 거예요. 바람은 공기죠.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있어서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처럼, 생명의 영을 생각한 겁니다. 성서 시대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걸 염두에 두라는 뜻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 앞에 직면해 있는 빛, 우리도 지금 그 빛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이 빛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모든 생명의 근거라고 봤기 때문이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그들의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주변의 다른 종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벨론이나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이 빛에 대해서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빛에 대해 뭘 알까요? 제 생각에는 고대인이든 현대인이든 궁극적인 것을 꿰뚫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걸 다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해명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해요. 그런 점에서는 고대인이나 우리나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빛을 우리는 잘 몰라요. 보통 물리학자들도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밝혀내지 못한다고 하네요. 빛은 그렇게 신기한 겁니다.

여기에서 빛의 문제만이 아니라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만 해도 한 시간이 다 가졌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빛의 창조인데요. 있으라고 하니 있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입니다. 보통 창조론에서 이야기할 때 무(無)로부터의 창조를 말하죠. 무로부터의 창조. 비존재로부터 존재. 무를 독일어로는 니히츠(Nichts)라고 하는데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참 대단하죠. 이걸 생각하면 어떤 현묘(玄妙)를 느낍니다. 깜깜합니다. 어떻게, 왜 없는 데서 있는가? 있는 거는 뭐고 없는 거는 뭔가, 말이죠.

하이데거가 프라이부르크 대학 취임 강연을 할 때, 그 제목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한 것인데요. 그는 존재를 ‘자인’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을 ‘자이엔테’라고 했어요. ‘자인’과 ‘자이엔테’는 다릅니다. 하이데거가 복잡한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 자인인데요. 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고, 무는 없는가 하는 사태를 해명하려고 했어요. 태양이란 것도 있으니까 있는 거겠지, 하고 말하면 간단하죠. 그런데 왜 태양이 빛을 내야 할까요? 참 신기합니다. 하이데거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토끼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그 중간은 왜 없는 걸까요? 반드시 그래야만 하나요? 하이데거는 그 ‘없는 것’에 주목합니다. 없는 것을 통해서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 바로 무예요. 그것이 바로 존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물에 중심을 두지 않고 없는 쪽에 더 중심을 두고 이 세계를 해명한 겁니다. 형이상학(metaphysics)이라는 것이 물리적(physic) 세계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찾는 것이니까요. 탈레스가 세계가 물이라고 했을 때, 그는 물을 보편적 원리로 본 겁니다. 하이데거는 그건 잘못되었다, 그건 늘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다, 그거 말고 오히려 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 거예요.

저는 하이데거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했다는 사실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물론 이마저도 신비롭기는 합니다만, 이 세상뿐 아니라 무까지도 통치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실 우리는 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없어요. 단어적인 의미만 봐도 그래요. 어쨌든 구약성서의 기자들이 빛에 대해서, 빛을 창조의 첫 번째 사건으로 설정한 것은 옳다, 바르게 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빛에 대해서 약간 조사한 것을 강의안에 썼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태양과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 데 8-9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디오게네스에게 얽힌 이야기도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텐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고목나무 등치에 살고 있는 디오게네스에게 뭐를 줄까 물었더니, 당신 때문에 햇빛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아첨하지 않는 철학자의 반 골기질을 이야기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디오게네스가 사유하고 있는 존재론적 근거가 빛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빛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존재하게 했다는 사실이 신기하죠.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창조의 세계를 떠나게 됩니다. 무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걸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세계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뛰나는 것에 대해서 성서에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죽장 이야기

그 다음은 죽장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이스라엘의 주요 죽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삭은 격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죽장 설화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인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기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누가 정확하게 느꼈을까 하는 것도 더 생각해 봐야할 부분인데요. 구약성서에는 아브라함 전승이 주를 이루고 데라는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데라가 분명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와 손자를 데리고 떠났는데요. 왜 다른 아들들은 같이 가지 않았을까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서울 오프 모임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강의해 보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서울 오프 메뉴에 가서 읽어 보세요.

저는 이 족장 이야기의 중심을 ‘떠나라’는 말에 두고 싶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原)역사에서는 제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족장들의 설화에서는 떠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노마드(nomad)라는 말이 자주 쓰이더군요. 유목민의 정신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는 분명히 바벨론 문명입니다. 성서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지적하고 있으니까요. 구약성서는 바벨론 문명과 이집트 문명, 이 두 곳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외에 하나를 더한다면, 모세가 생활 했던 미디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 율법을 완성한 모세는 이집트에서 사십년을 왕자로 살았고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으니까 바벨론, 이집트, 미디안, 이 세 곳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독자적으로 나온 것은 없어요. 기독교도 기본적으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고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정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반유대적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유대교 신앙을 그대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뿌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차이도 분명히 있지만 유대교와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어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말론도 기본적으로는 유대교의 묵시사상에서 나왔습니다. 묵시사상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세상을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쭉 가는 거죠. 혹은 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공간적인 것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선악의 대립이죠. 이 세상은 악하고 오게 될 예은, 새로운 세계는 선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종말론적인 시각을 토대로 기독교 공동체가 새로운 종말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이원론적인 시각이 있지만 많이 퇴색되었죠. 이 세상은 악하고 오는 세상은 선하다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으니까요. 묵시사상과 종말론 사이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뿐, 시간 개념은 분명히 일치합니다. 세계를 시간으로 이해하는 종말론적인 시각,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다시 돌아오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키워드를 찾는다면 ‘떠나라.’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갔어요. 여기까지는 데라가 주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어요. 왜 데라가 하란에서 멈추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데라와 아브라함 등이 이주할 때 집단 이주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개 집단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떼거

리로 이주를 했는데, 이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거기에 집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미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민 사회에서 정말 세계를 새롭게 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민들 간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소명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우연한 것 같지만 필연으로 가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하란을 떠나 가나안까지 갔어요.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에 갔다 오고 이삭도 갔다 왔어요. 일시적으로 갔다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이집트로 갔어요. 요셉에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야곱을 중심으로 한 70여명의 사람들이 고센으로 이주해서 살았는데,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자기 식구들에 대해 말하면서 자기 형제들이 모두 목동이라고 했고, 그로 인해 고센 땅을 불하 받았습니다. 이 족장들의 삶을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할 수 있어요. 계속 떠나서 결국엔 이집트로까지 떠나게 되었던 거죠.

## 엑서더스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겠군요. 모세오경의 두 번째는 출애굽기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400년 정도 터를 잡고 살다가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계속 떠나죠? 그 후로 광야에서 계속 살았어요. 가나안 정착은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는 단초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편하게 안주하고 있으면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호세아가 그랬나요? 오히려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허니문이었다고 말이지요.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영적으로 쇠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나안 문명이 화려하고 편안하니까요.

엑서더스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장자가 죽는 열 번째 재앙 이후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미리암과 함께 여자들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부른 노래는 우리나라의 아리랑 같은 노래였을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출 15:21)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형화된 신앙 표현이었습니다. 홍해란 말은

원어로 보면 갈대밭이라는 뜻이에요. 영화에서 보듯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넌을 개연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모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거든요. 그 쪽 지리에 익숙합니다. 어디로 가면 높지가 있는지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모세가 없었다면 홍해 앞에 걸려서 건너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산 것은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 시키기 위한 사전준비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고 파라오 기마병들은 바다 속에 수장되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신앙의 본질과 관계가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암과 여자들이 불렀던 노랫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찬양이죠.

유대교가 세 개의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집트, 바벨론, 미디안입니다. 이런 영향 속에서 고유한 신앙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간 겁니다.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명료하게 알았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명료하게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으니까요. 계시는 종말까지 계속 됩니다. 세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결합인지도 모릅니다. 나무에서 파란 잎이 나오는 이유도 생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오는 근원적인 이유는 몰라요. 이 세계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죠. 세계가 중층적이니까요. 그 세계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이 자기를 다 드러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완전히 자기의 실체를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80년을 사는 사람들이 수십억 년의 세계를 다 알겠어요?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끼리의 작은 털 하나를 붙들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군요. 모른다고 해서 불가지론에 빠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사건에 의존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사건입니다. 성육신, 부활, 십자가를 전체적으로 포함한 예수 사건 말이에요. 이거 하나에 우리 기독교가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사건이 그럴 만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증을 해야 합니다. 변증(apologetics)은 독단, 도그마가 아닙니다. 변증은 주변에 있는 보편적인 토대를 가지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왜 진리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역사를 거쳐 왔습니다. 왜 예수 사건이 종말론적 진리이고 생명의 근원인지에 대해서 사도들과 특히 교부들이 변증을 했어요. 2천 년

신학의 역사는 모두 이 변증의 역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종교로부터 조금씩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기독교 신앙이 주변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한국의 토착적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토착화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만의 독특한 세계 이해들이 기독교 신앙에 접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복 입은 예수님을 그리고, 성찬식 때 포도주 대신 막걸리를 쓰면 한국 식 기독교가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 것들은 하나의 형식이니까 그걸 토착화라고 하면 곤란하고요. 토착화는 어떤 면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삼위일체가 그런 겁니다. 삼위일체가 처음부터 있었던 교리는 아니거든요. 어거스틴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구성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변증의 과정을 거쳐서 도그마가 된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변증하는데, 하나님은 한분이라는 게 모순이 되잖아요? 모순이 되지만 두 개 다 진리인데, 그걸 해명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자 참된 인간이라는 사실이 삼위일체에서 명료하게 해명 되거든요. 이것은 헬라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고대 유대교가 바벨론이나 이집트에게 영향을 받았듯이, 역사적 기독교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의 본질을 더 드러나게 된 거죠. 이런 과정이 실제로 계시, 즉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구성되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한 분, 바로의 군대마저도 손쉽게 바다에 던지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유목민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 없어요. 잔잔한 호숫가로 인도해주면 됩니다. 양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풀이 있는 곳이면 충분하니까요. 늦은 비와 이른 비는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합니다. 이걸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서의 역사이자 2천 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변화, 흐름, 정체성 확보 등이 역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비둘게 나가기도 하고 가지를 치기도 하고 막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흐르는 게 있습니다. 2천 년 역사 중에 1517년에 나온 가지가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가톨릭과 개신교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는 생각의 여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엔 같은 물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여기에서 많이 빠져 나갔다고 봐야죠. 그 다음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인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20강

### 출애굽 전승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고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텍스트에 관계된 문제인데요. 성서가 텍스트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성서 텍스트입니다. 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 문자가 있기 전에는 언어가 있었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어린아이들도 문자를 배우기 전에 엄마에게서 언어를 배웁니다. 언어 이전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서 텍스트로 존재하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형제 살해, 노아 홍수, 족장들의 서사, 출애굽 등등입니다. 그 사건 자체가 그대로 뒤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건은 역사에서 한번 일어난 겁니다.

사건은 언어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이게 역사죠. 5천 년 전이나 백 년 전이나 그것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단지 그것에 대한 해명만이 남아 있게 되죠. 사건이 생긴 다음에는 언어가 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모든 내용이 그대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변형이 돼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사건의 내용도 조금씩 변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텍스트로 자리하게 됩니다. 텍스트가 되고 나면 변하지 않아요. 문자가 정전이 되는 거죠. 구약성서가 완료된 다음에 텍스트로 굳어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사건입니다. 이 사건까지 가려면 텍스트와 사건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를 역추적 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까지를 설화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전체적인 흐름만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공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모두 필요한데요. 하나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는 방법입니다. 전자는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개념 파악이거든요. 성서도 개념이고 부활도 어떤 면에서는 개념이에요. 불확실하다는 차원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확증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은 생각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이

해하느냐에 따라서 부활에 대한 생각들이 열립니다. 부활은 고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기 때문이죠. 계시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실은 텍스트에도 해당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텍스트도 완료되거나 고정되지 않은 겁니다.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이 뭐했고 뭐했다고 성서에 되어 있지 않느냐고 말하겠지만, 그건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도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그 깊이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개념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뜬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이 안다는 말입니다. 수학도 역시 개념입니다. 숫자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는 게 참된 수학 공부예요. 음악도 그래요. 제 큰 딸이 바이올린을 하는데, 그 아이에게도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음악의 세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계나 개념이나 다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군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샘터교회에서 부활절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설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에 대한 개념은 생명과 연관되니까, 생명을 이해해야 하고요. 생명은 시간과 연관되니까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 이것은 영에 대한 문제와도 연관이 되거든요. 이와 같이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과 유치원 아이들처럼 부활을 마술 같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전반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활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할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신학이든 하나님 이해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화를 설명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의 삶에 대해 설명하는 구약 텍스트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직접 본 사람이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이야기들을 한참 후대에 와서 어떤 성서 기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편집한 겁니다. 전승된 이야기들이기에 설화인 거죠. 설화라고 하면 신화처럼 근거가 없는 꾸며낸 이야기라는 느낌이 많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출애굽 사건들

지난 시간에 엑서더스 이야기를 하다가 놓친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엑서더스에 열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마지막에 있었던 재앙, 이집트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의 말



배가 모두 폐죽을 당했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홉 가지 재앙이 내렸는데도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으로 이집트 전역에 죽음의 천사를 보냈어요. 죽음의 천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죽음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그냥 천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성서적 표현으로는 천사가 맞겠죠. 적군과 싸울 때 싸울 힘을 주는 게 천사라고 한다면, 천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천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천사와 대립하는 것을 악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사나 악마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혹은 악한 것들을 성서가 현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악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야기하는 더 근원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그게 있다는 관점입니다. 선한 일들도 그것을 끌어가는 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서 기자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일단 이게 성서가 보는 관점, 세계관입니다. 이걸 누가 옳다 혹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의 천사가 가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그게 없었던 집은 장자가 죽고 짐승의 만배가 폐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깜짝 놀라서 두 손을 들고 모세를 내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정말 사실일까요? 이런 것들을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만 접근하면 좀 곤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인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파라오를 죽이는 거라면 또 모르죠. 파라오의 마음이 완강하다고 했던가요? 여기에서 이런 표현도 재미있는데요. 파라오가 아홉 가지 재앙을 받고,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서는 것을, 출애굽기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를 완강하게 한 거라고 말합니다. 묘한 뉘앙스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면 그 책임이 파라오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출애굽기 기자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책임은 파라오에게 있지만, 결국 그것마저도 총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아래 있다는 걸 성서 기자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역사에 대한 일원론적 시각인 겁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겁니다. 천사든 악마든 모두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요. 지배 아래 있지만 악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악마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순처럼 들리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각자의 책임이라고

하나까요. 이젠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종말에 가세요. 왜 그런지는 우리도 잘 몰라요. 다만 성서 기자들과 또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2천 년 동안 해명해온 기독교 신학에 의하면, 이 두 가지 명제, 즉 “악마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러나 “악의 책임은 악마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있다.”가 양립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둘 다 옳은 뜻입니다. 이런 명제들이 많아요. 각각의 명제는 옳은데 서로 합쳐 놓으면 모순이 되는 명제 말입니다. 그러나 모순 속에서 이 세상의 신비를 볼 수 있어요.

신비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 자체가 신비인데요. 다 해명이 되지 않으니깐요. 세상은 제가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세상 앞에 서게 되면 아득해져요. 성서를 봐도 아득해지고요. 장자나 만배가 죽는다는 이 사실은 대단히 불합리한 이야기인데, 왜 성서 기자들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젠 정말 부도덕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썼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아득해집니다.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게 한두 가지겠어요?

모순 된 명제들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말을 예로 들다가 옆으로 나갔는데요. “하나님은 유일신이다.”라는 명제도 옳고, “인간 예수도 하나님이다.”라는 명제도 옳습니다. 그런데 둘이 합쳐 놓으면 모순이에요. 이 모순을 해명하기 위한 기독교의 하나님 개념이 삼위 일체입니다. 이것은 신비죠. 하나님 존재의 신비요. 기독교는 잘 설명할 수 없고 모순이 되면 다 신비라고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막연하게 해명이 안 되니까 신비라고 하고 도망가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두 엄연한 진리인데, 그 사이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인식론적 통로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의 만아들을 모두 죽였다는 이야기에서처럼 적을 모두 죽인다는 이야기가 구약성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이방인들을 씩씩이하듯이 죽이거든요. 여호수아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한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되지 않은 것을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말은 성서가 역지를 부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어떤 진리를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해석하는 고유한 성서의 눈 말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성서에 있는 것들을 실증적인 역사로만 밀어붙인다면, 패권주의나 제국주의적인 생각밖에 나올 수 없어요.

엑서더스에 있었던 장자의 죽음이야기로 돌아가죠. 일단 장자가 죽은 것이 정말 사실

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죽인 게 사실일까요? 강의안에도 기록했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전염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위생 상태가 취약했으니까요. 유럽에서도 중세에 페스트 같은 것이 있었잖아요. 인구의 1/3이 죽었다고 하던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먹을거리도 가려 먹었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고지방질 음식은 안 먹었죠. 그렇게 사는 게 건강위생에 좋았거든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같은 전염병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은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사건들을 나중에 성서를 쓰는 일정한 역사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한 거죠. 후대의 해석이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관은 신명기사관입니다. 신명기사관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따르면 복을 받고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건데요. 권선징악과 비슷하긴 해도, 그건 아니예요. 권선징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아주 치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은 다른 민족과 구별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출애굽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설화예요. 전승입니다. 후대의 해석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출애굽 공동체라고 말하는데요.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당위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뿌리에 대한 신적인 권위를 확보해야 하니까요. 소수 민족으로 고센에서 살다가 나온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사명을 주신 바로 그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은 목사들이 설교했을 거 아니예요. 친일 인사들은 다른 말을 했겠지만, 역사의식이나 민족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설교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그런 해석이 가미된 거예요. 애굽 탈출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거기서 벌어졌던 수많은 이야기들, 열 가지 재앙을 비롯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흐름을 타고 정리된 겁니다.

## 계시와 해석

여기에서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성서는 인간이 후대에 하나님을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구약성서는 해석입니다. 그렇

다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는 게 아니냐고요? 예,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 계시의 개념을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했어요. 사건으로서의 계시, 쓰인 계시, 선포된 계시로요. 쓰인 계시는 성서, 선포된 계시는 설교, 사건으로서의 계시는 원래 계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성서 하나죠. 이것을 바로 계시와 직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계시는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이죠. 사건이기도 하고 그것이 문자로도 기록되었고 그것이 선포된 것, 이 모든 것을 다 계시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성서를 굳이 계시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해석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해석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바르게 드러나는 것이고 잘못 해석하면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늘 우리의 해석에 의존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인식론적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아니예요. 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데, 의존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성서의 기자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구약성서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쓰인 계시만이 단독으로 계시가 아니라 성서 말씀보다 우선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성서는 그 많은 원래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해석 자체가 다 옳은 것은 아니예요. 우리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앞에서 말한 대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 서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거죠. 성서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몽땅 다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옳았던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자기 뜻을 알렸느냐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사건에서도 야간을 죽이는데요. 야간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도 다 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야간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몇 벌의 외투를 개인적으로 착복했고, 그 일로 재판을 받고 나서 결국 죽게 되는데요. 야간만 죽였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가족들을 모두 다 죽이고 돌을 던져서 아골 골짜기를 만들었다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이게 하나의 전설로 그렇게 내려오는데요. 과연 여호수아가 판단을 잘한 걸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 부활의 오늘과 내일

15분쯤 남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보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달걀을 먹었어요. 우리 교회는 시장에서 파는 무정란 달걀이 아니라 유기농으로 키우는 농장에서 가져왔어요. 유정란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병아리로 부화되는 계란을 먹었으니까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기념한 것 같습니다. 달걀을 먹는 전통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부터 이야기할까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부활의 오늘과 내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뭐냐? 부활의 실체를 얻지 못한 상태죠. 즉, 아직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그 확신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와 더불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이미 부활했지만 부활의 실체는 아닌 거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은폐성인데요. 부활의 오늘은 숨어 있는 생명입니다. 그 은폐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설교에서 조금 설명을 했어요. 아마도 현재 드러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나뭇가지를 예로 들었는데요. 나뭇가지가 있고 여기서 잎사귀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나뭇가지를 아무리 잘라서 실험을 해보아도 잎은 없어요. 잎이 나오기 전에는, 이것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죠. 잎이 숨어 있어요. 실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냐는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부활의 상태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부활의 내일은 뭐냐? 예수님은 이미 부활의 실체가 된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부활의 실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론적인 길로 언어가 그것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어떤 부활 생명의 개념, 세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부활은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 속에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의 경험만 갖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건 좀 비겁하다, 자꾸만 이 세상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토대가 탄탄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건 변명하려는 거 아니냐고 따질지 모르겠군요. 그와 비슷하게 기독교 정통 신앙이 상당히 관념적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비판하고요. 저는 그런 비판들이 기독교 신앙을 전혀 모르고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뭐가 과연 실체냐? 무엇이 정말 참된 리얼리티(reality)냐 하는 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리얼리티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방식의 참된 리얼리티니까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현실, 정말 참된 것, 이런 것들을 세상의 실증으로만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럼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을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이 시간에는 그만 하겠습니다.

## 하나님의 은폐성

여기서 은폐성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자궁 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양수 속에 떠 있거든요. 어머니의 영양분을 탯줄을 통해서만 받아요. 아기의 생명 방식은 그겁니다. 철저히 어머니에게만 의존해 있어요. 그 아이에게 어머니 밖의 세계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도 흡사 그런 정도로 세상을 이해하고 삽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는 어머니 뱃속의 아이와 똑같은 수준이에요. 존재하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모르니까요. 빛이 왜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만 겉으로 드러난 것들, 존재하는 것들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참된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이데거는 없음으로서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백 년만 지나도 우리가 이 땅에 있었는지조차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때쯤 되면 우리의 몸은 지구의 원소로 다 변해 있겠죠. 그래서 허무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부활 생명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종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입니다. 그날이 오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에 가서야 뭔지를 알아요. 제가 자주 인용했던 바울의 말대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압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확실성들이 유보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골로새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활이죠) 우리가 영광중에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게 될까요?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생명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총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숨만 쉬고 있을 뿐이죠. 그 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화려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지구가 반쪽이 날 수도 있고, 불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빙하기가 오면 얼음덩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생명이 죽겠죠. 그 정도로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아주 토대가 약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나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들의 궁극적 실체가 종말에 드러나며, 예수님이 오는 그 때가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맞다고 전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세계관인 거죠. 신앙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고 종말에 모든 것이 드러나지만, 2천 년 전 예수에게서 부활의 리얼리티, 생명의 리얼리티가 미리 일어났다고 하는 세계관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세계를 이해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운명을 건 겁니다.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판단할 문제예요. 그것은 계속 검증 받아야 합니다. 종교학자들이나 과학자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이 옳은지 그른지 검증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다만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바를 꾸준하게 구도 정진하는 자세로 알아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믿고 변증하는 것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게 아닙니다. 종말에 드러난다는 말이 불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증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과학도 아무것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니까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말했듯이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고 무엇이 왜 있고 없는지도 모릅니다. 지구에 왜 현재와 같은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게 확실하다고 하는 자연과학도 사실은 정말 작은 것을 정직하게 해명해 보려는 노력들입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연과학도 코끼리의 꼬리털 하나를 붙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드러난다고 하는 말도 터무니없는 게 아니죠. 다만 이런 것들이 왜 근거가 있는지를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찾아내야 합니다. 이진 신학자들의 몫이죠. 교회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 삶에서 드러나도록 해야 하고요.

지금 제가 부활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확실한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방향만을 말했어요. 사실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은 뭐냐, 종말은 뭐냐, 창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현재 우리의 부활이 은폐되었다고 하는데 칭의와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다 말한다고 해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만 말합니다.

나뭇가지에 매화꽃이 어느 순간에 확 피듯이, 현재는 은폐되어 있지만 종말에 가면 생명의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는 그 때를 희망하며 삽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성취하는 것들에 모든 승부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이원론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악하게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정적입니다. 잠정성, 이것이 전제됩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설령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것도 잠정적입니다.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민족주의 안에 빠질 수가 없어요. 남성과 여성도 계속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어쩌면 인간이 다 중성이 될지도 모릅니다. 절대적이지 않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잠정적인 것들에 생명을 걸고 그게 내 삶을 보장해줄 것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이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두 번째 이야기이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잠정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기독교 신앙을 해명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잠정적이지 않은 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영생, 부활, 하나님 나라, 천당인 거죠.

이런 말은 기독교 신앙이 불확실하다는 게 아닙니다. 성서와 2천 년 기독교 신앙은 명백한, 리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리얼리티의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종말론적이고 창조론적이고 생명 지향적이고 칭의론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진화론과 맞서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진화론은 부분적으로 이 세상의 생명 현상을 바르게 설명해주는 거니까,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연과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신학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있어요. 확실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판자이며 그에게서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참된 생명이 선취되었다는 믿음으로, 무상하지 않고 잠정적이지 않은 생명의 알갱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구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누구는 개털 모자를 쓰는 것처럼 거기에도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유치한 겁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는 세속주의, 출세 지상주의, 조금 더 나가 복지활동 등을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밖으로 나오듯이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생명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래도 막막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라고 하면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세상과 생명의 세계가 신비롭죠. 막연한 신비가 아니라 굉장히 확실한 신비니까 안심하세요.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데 부활의 기쁨도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요. 그때 우리가 그냥 공기처럼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평화와 기쁨과 생명일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겠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 제21강

### 광야 이야기와 예언서

#### 물 이야기

저는 요즘 아파트 베란다에서 봄별을 찍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화초에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는데요. 요즘은 물을 많이 먹어서 이틀에 한 번 주기도 하고, 어떤 화초는 아침마다 주기도 합니다. 화초마다 좀 다르더군요. 제가 거기에 맞춰서 주고 있어요. 물을 줄 때마다 너무 신기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 조리 있잖아요? 물 조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볼수록 신기한 거예요. 다른 돌멩이나 모래 같은 것들은 물 조리에 넣고 아무리 뿌려도 물처럼 멋진 모습을 연출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거든요. 어떻게 지구에 물이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해도 자꾸 신기해요. 제가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학자들이라 하더라도 어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H_2O$ 라는 분자 기호는 말할 수 있겠죠.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구의 특별한 현상이 아닐까요? 그런 원소가 있다는 자체도 그렇고, 그 원소들이 그렇게 결합해서 물이 된다는 것도 그래요. 결합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물을 줄 때 잎사귀들을 보게 됩니다. 큰 나무가 심겨진 화분의 잎사귀들은 다 잎이 크고 초록색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잎사귀마다 다 다르더군요. 어느 날은 큰 잎사귀가 화분 밑에 약간 마른 채로 두 세장이 떨어져 있었어요. 물을 주다가 물 조리를 옆에 내려놓고 그걸 보니까, 그 마른 낙엽에는 물이 젖지를 앓더라고요. 신기하더군요. 여러분도 매번 느끼겠지만, 저는 그게 참 새롭게 느껴져요. 정말 보석 같더군요. 다이아몬드나 루비 같은 것만 보석이 아니라, 물도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동의할 거예요. 일반적인 보석은 없어도 우리가 사는데 큰 지장이 없지만, 물은 없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가장 밑바탕에 물이 있으니까요. 태양 없이 물만 있으면 원시 생명, 초보적인 생명은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모든 생명의 토대인 것 같아요. 탈레스가 만물의 본질은 물이라고 한 말이 헛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오버한다는 말을 듣더라도, 한마디 더 할게요. 제가 죽은 다음에 물이 된다고 해도 큰 아쉬움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이 평화인 것 같아요. 좀 엉뚱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는데요. 여러분도 부활 생명에 대해 생각했을 겁니다. 다음 세계에서 우리가 다 물이 되는 게 우리 미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크게 잘못 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물과 비교되는 게 기본이 나쁘겠지요. 우리가 훨씬 탁월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이것은 창조론과도 연관되는데요. 과연 인간이 다른 존재, 생명체는 접어두고 생명이 없는 사물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다른 것보다 더 보기에 좋았더라는 말이나, 인간에게만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이나 책임을 주었다는 말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말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런 내용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침마다 물 조리로 물을 주다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자연적 영성의 차원에서 말한 겁니다. 부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속되게 말해서 천당에 간다는 말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속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당도 복지 사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복지잖아요? 모두가 잘사는 거 말이에요. 모든 국민이 생명 보함에 가입되어 있고 무상 교육을 받으며 정의로써 살게 되면 복지 사회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당하지 않고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세계, 그걸 복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도 복지가 극대화된 곳인가요? 우리는 그런 표상(表象)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도 사실은 실증적으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 안으로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죠. 세계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열려 있다는 말을 가끔 했는데요. 그것을 낱말 뜻으로는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해하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것의 의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높은 수준의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배움에서는 배우는 사람의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약이라는 것은 없어요. 자기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듣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자주 실증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잘못된 그림만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부활은 생명의 궁극적 실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부활을 계량하거나 범주화하거나 실증적으로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에 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부활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부활이나 하나님 나라, 혹은 삼위일체 등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

다. 양극단인데요. 하나는 이런 것들을 인간학적인 구도에서 자기 욕망의 실현으로 그려내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요. 그게 극단으로 가면 신인동성동형론(Anthropomorphism)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비아 사이트에서 잠시 거지 나사로 비유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비유의 근본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과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사실로 보려고 합니다. 그건 정말 우리의 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자기 무의식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이자 자기 투사에 불과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대개 거기에 매력을 느껴요. 설교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길 원해요.

또 다른 하나는 아예 이런 것을 언급조차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혹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말만 하지, 부활의 리얼리티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2천 년 동안 그것에 대해 말하려고 했던 흐름들을, 역사적 발자취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극단이긴 한데, 양극단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둘 다 문제예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무슨 정답을 찾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과정인 거지요. 그런 과정은 종말론적으로 열려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바르게 진리론적으로 상응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개 우리는 부활을 욕망의 실현으로 삼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표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 신앙이 말하려고 하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물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런 시가 있지요. 우리 다시 물이 되어 만나리. 우리가 다시 물이 된다면 정말 속상할까요? 제가 지금 일반적인 자연주의적 이야기와 신학적인 이야기를 섞어서 하고 있는데요. 혼란스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이 된다고 하면, 지금의 관점만 가지고는 그게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인격도 없고 하나님 찬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물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들은 이미 물이 흘러가면서 소리를 내는 걸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이 하는 이 방식만이 하나님과 최고로 가깝게 소통하고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물이 되어보지 못했으니까 물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를 뿐이죠. 우리는 지기를 우주의 중심에 놓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피조물이고 물과 돌도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절대화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이나 우리의 설계도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가진 영적 시각을 맞추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강의를 라이브로 듣는 여러분의 컴퓨터 앞에 차 한 잔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차 한 잔 마시는 걸, 보석 덩이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액체로 된 보석을 마신다는 겁니다. 이걸 자기만 죽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사실 다 부자인 거죠. 물은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얼마나 넉넉합니까? 우리가 다 부자라는 넉넉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아도 됩니다. 지금 돈도 못 벌고 배도 고프고 애들 교육도 못 시켜서 힘들다고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조금씩만 노력한다면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된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 영적 스트레칭

다른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두세 주일 전에 제가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어깨가 좀 아파서요.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팔을 들 때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 테니스를 치기에도 좋지 않았죠. 밤에 자다가 아픈 쪽 어깨로 돌아눕다 보면 통증이 심하더군요. 이 증상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해요. 그 의사 선생이 하는 말은 테니스를 치다가 어느 부분이 다쳤을 텐데 그것 때문에 팔 근육을 쓰지 않는 바람에 어느 부분이 굳었다는 겁니다. 굳은 쪽으로 팔을 옮기면 아프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오른쪽 어깨가 움직이는 반경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굳어지면서 근육이 점점 축소돼요. 다른 근육도 점점 굳어지고요. 이게 악순환이 된다고 해서, 약을 받아먹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안 갑니다.

이번에 아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아프다고 근육을 쓰지 않으면 더 나빠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파도 써야 된다는 거죠. 의사 선생의 말을 듣기 전에는 팔이 아프니까 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황이 더 나빠진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내 생각대로 했다가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좋은 걸 배웠는데요. 제가 어딘가에 글로 쓰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스트레칭이 필요하다고요. 아파도 참고 해야 합니다. 아프긴 해도 그 다음엔 조금 더 좋아져요. 이번 근육 통증 때문에 이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육을 안 써요. 영적인 어떤 부분을 안 씁니다. 아프니까 안 쓰는 거예요. 매번 쓰는 것만 계속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은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건강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던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풀어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잘 쓰지 않던 것들을 영적인 스트레칭을 통해 풀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 생활에서는 영적인, 혹은 신학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알고 있죠? 인격적으로 잘하면 대우도 받고, 얼마든지 모범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장로도 되고요. 성경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쓰지 않는 근육을 움직여야 해요. 그게 신학입니다. 영적인 스트레칭은 바로 신학이에요. 창조, 종말, 무죄한 자의 고난 같은 것들을 신자들은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언제 그것까지 다 생각하나, 바쁜데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복 받고 성실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무죄한 자의 고난이라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든지 혹은 신 존재 증명이라든지 칭의와 성화같은 주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합시다. 그러다 보면 쓰지 않는 근육이 굳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날이 갈수록 굳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평생 신앙 생활해 보세요. 죽을 때쯤 되면 아무 생각도 안 남을 겁니다. 그냥 교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반복했던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암시 같은 것만 남을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거예요.

##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오경을 설명할 때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창조의 첫 사건인 빛에 대해서, 고향을 떠나는 족장들에 대해서, 엑서더스에 대해서요. 오늘은 광야에서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간의 사정은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니깐요. 광야는 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만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성서 텍스트와 세계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설교에서도 했고 서울 오프 모임에서도 했는데요. 만나는 지금도 있습니다. 만나는 어떤 식물에서 나오는 진액이 밤 동안에 굳은 거라고 하네요. 그게 햇빛이 나면 녹아버리고요. 지금도 미디안 광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흔한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지 알고 있었

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백성들을 끌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만나가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자연적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받아들입니다. 아까 제가 물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이 보석이에요. 오늘 저녁에 샤워하면서 물이 여러분의 몸으로 흘러가는 걸 느껴보세요. 황홀합니다. 그걸 어디에서 느낄 수 있겠어요? 지구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다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거든요. 머릿속이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차서 소중한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로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온갖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이 만나를 다른 민족들은 시시하게 봤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심심풀이로 아카시아 꽃 같은 것 따먹고 했잖아요. 진달래꽃도 먹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것을 먹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영성이예요. 가난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거죠. 먹을 게 많은 사람에게는 만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을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야만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이 사소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외로운 사람만이 사람의 정을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다 그러냐, 추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더 길게 말하지는 않겠어요. 거기에도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십 년 동안 생존의 위기를 경험했어요. 생존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만나를 정말 달게, 맛있게 먹은 겁니다. 참고로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산 것은 아닙니다. 광야를 오가는 대상들에게서 먹을 것도 좀 샀겠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 보석들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도 그런 것만 갖고는 살아가지가 힘들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야생 토끼를 비롯해서 여러 들짐승도 잡아먹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만나가 굉장히 중요한 먹을 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만남은 그날 자기 식구들이 먹을 것만 갖고 가야지, 내일 것까지 준비해 두면 썩었다고 해요. 실제로 만남은 보관을 못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햇빛에 닿으면 그냥 녹아버리거든요. 바로 그 한 날의 먹을거리였어요. 놀라운 영적 통찰입니다. 생존에 딱 맞부딪쳐서 살았던 거예요. 정말 일용할 양식이니까요. 이 경험이 하나님 경험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생존의 경계선으로 가서 사는 것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생존은 먹을 것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

절망, 허무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실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무와 유, 없는 상태와 있는 상태의 그 경계선에 늘 놓여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이면十方世界現全身(十方世界現全身)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백 척이나 되는 절벽에 서 있다면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어라,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불교 개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면한다는 것은 끝자락에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생존을 보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존의 토대로 경험했던 거죠. 그것을 확인해 가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국력을 키우거나 부강해지려고 하면 늘 부패했어요. 우상숭배는 뭘을 쌓아두는 겁니다. 풍년이 들어 창고에 많이 쌓아 놓고 놀고먹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신들, 바알이나 아세라는 그걸 보장해줍니다. 아훼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생존만 지켜줘요. 살아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을 떠올릴 텐데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많은 약속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약속도 과연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더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죽음과 삶의 경계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게 죽음과 삶의 경계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의미예요. 원칙적으로 보면 주일 예배마다 성만찬을 해야 합니다. 죽음과 삶의 확인, 세례의 반복입니다. 피에로가 줄타기를 하듯이, 우리는 늘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아마 그게 잘 안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든든한 게 많으니까요. 통장도 있고, 주식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도 있잖아요. 게다가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인생살이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런 게 없으면 정말 불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다시 내버려 두고 그 경계선으로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늘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영성이예요. 그런 영성을 가지면 세계가 새롭게 보입니다. 물이 정말 보석으로 보여요. 그렇게 살면 남편이나 아내가 새롭게 보여요.

잠시 동영상 화면의 문자로 질문이 들어왔군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구름 기둥이 뭐냐는 거죠. 구름 기둥은 화산 폭발로 봐야합니다. 밤에는 불이고 낮에는 구름이죠. 그럼 아무 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자연 현상을 기준으로 광야에서 나아갈 방향을 정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 눈이 중요합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과 유일회적인 지구 안에서의 생명 현상을 생각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게 다른 것처럼, 화산 폭발을 보고 우리의 갈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고 생각한 것은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생존 조건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생존에 대한 확신, 즉 하나님이 나의 생존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점입니다. 생존은 삶의 경계선, 가장 밑바닥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가 있으면 다른 것들은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한 영성에 들어가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답입니다. 만일 제 다리 하나가 잘린다면 상당히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생존의 경계선에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장애인들의 아픔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요. 장애인에 대한 아픔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다 보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창조와 그 경계선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약속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걱정은 우리가 밑바닥에, 생존의 경계선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타인의 생존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존도 지켜야 합니다. 이걸 아마도 복지 차원일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를 나와 네가 더 불어 살아가는 세계로 끌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윤리적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자연적인 것이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 예언서

구약의 두 번째 단락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에는 대(大)예언서와 소(小)예언서가 있습니다. 전기 예언서는 왕정시대에 예언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는 사실을 보도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 안에 가나안 땅 정복과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등의 역사가 다 담겨 있어요. 후기 예언서는 예언자가 왕과 귀족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는 분량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인데, 모두 길어요. 소예언서는 열두 권으로 된 예언서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 기죠.

전기 예언서는 사실상 1천 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연대기적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가나안 입성,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북이스라엘 멸망(BC 721년), 남유다 예루살렘 멸망(BC 587년), 바벨론 포로, 포로의 귀환(BC 538년), 예루살렘 성전의 복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 간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어요. 성전을 복구한 뒤로는 역사가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전기 예언서는 이스라엘 1천 년의 역사입니다. 가나안 입성에서 포로귀환까지예요. 그 뒤의 이스라엘 역사를 친구 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역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부터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히브리어를 쓰지 못했던 겁니다. 제국들의 흡수 정책에 따라 언어를 잃게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오래 지속 되었다면 우리나라 말을 잃어 버렸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은 그 기간이 수백 년의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통용되던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팔레스틴 안에도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만 살았던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돼요.

전기 예언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잘 모르면 강의안을 읽어보세요. 여기에서는 결론 부분만 말할게요. 전기 예언서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반부에 진술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영토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영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참 기구한 운명의 민족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사십 년을 지난 뒤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시작한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약성서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냥 읽으면 정말 기독교나 구약성서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트집 잡힐 만한, 부도덕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전쟁의 신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여리고 성이나 아이 성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신의 명령을 해석학적 토대 없이 읽는다면, 구약성서는 잔인한 신의 싸움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해석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김용옥 선생도 조금 경솔합니다. 기독교에 관심을 가져 주는 건 고맙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성서 해석을 한다는 게 보기가 좋지 않아요. 주석서 등 필요한 책들을 천만 원어치나 사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신학이라는 게 1년 정도 바짝 공부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워낙 명석한 분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치지만 허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 책 제목이 뭐죠? 없는 신? 죽은 신? 그런 책들도 허점이 많습니다. 『만들어진 신』(리처드 도킨스, 김영사)이군요.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다. 그러나 읽어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허점이 많고요. 조직신학적 관점으로도 허점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이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고대 시대의 영토 싸움이라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전무냐, 전생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윤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메타 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성서는 그 당시의 보편적인 윤리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하는 마당에 무슨 윤리가 개입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독보적인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살았던 삶이 다 고상했던 게 아니에요.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방식 중에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게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이해하고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 선택이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는 거죠. 여리고 성을 침략한 것은 제가 보기엔 잘못된 선택인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 겁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왕정이 들어선 이후로 조금 안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과 예언자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영토를 중심으로 한 일곱 부족과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왕정이 들어선 다음에는 왕과 예언자들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왕정이 들어섰다는 말은 상비군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사들도 거의 왕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만 지도력을 발휘하긴 했어도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군인을 모집했어요. 모병제죠. 왕정이 들어섰다고 하면 상비군이 있었다는 건데요. 사무엘 뒤로 그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왕은 당연히 힘을 키우려고 했고요. 그러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지요. 왕권을 무한대로 확장해 보려는 왕과 귀족들, 그리고 그들의 권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하고자 하는 예언자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투쟁합니다. 그것을 통해 성서는 참된 예언자들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국가가 시련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역사를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앞서 전기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했고, 후기 예언서는 예언자들의 설교를 모은 거라고 했는데요. 보통 예언서라고 하면 예언을 기록한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역사가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예언자들은 지나간 역

사를 보고 오늘의 삶을 비판하며 앞으로 나갈 길을 제시해줬으니까요. 물론 그들은 훌륭한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예언자들만이 갖는 영적 경험 말이에요. 역사 안에서 일어난 경험입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예언자들은 설교를 하고요. 오늘날의 목사는 이 두 가지 전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도 안된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깐 힘들겁니다. 옛날에는 예언자가 설교를 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 제사장 쪽에는 왕족들이 많았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되었던 흔적들이 있어요. 예언자들에게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신탁(oracle)이라고 합니다. 신이 자기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싶을 때, 신이 그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 그가 그 뜻을 듣는 사건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으로부터 신의 뜻이 인간에게 온다는 게 가능할까요? 신이 어떻게 인간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르메스가 나옵니다. 헤르메스의 역할은 제우스의 심부름꾼이었어요. 제우스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해석학을 허무네틱스(hermeneutics)라고 합니다. 예언자들이 바로 헤르메스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말로 번역, 해석, 통역하는 거죠. 과연 그게 뒀었을까요? 아모스 같은 사람들은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다고 외치면서 예언자로 나섰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같이 양을 치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 말을 들어라.’ 하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정상으로 보이겠어요?

그 당시 예언자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대중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 당시의 예언자들이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의 대중 설교자들처럼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언자들끼리 각축을 벌였어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여기 저기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대가 어려울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언자들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누가 사이비다, 누가 어떻다는 식으로 그 당시에 설교비평을 하듯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반면에 포퓰리즘에 빠진 사람들, 즉 청중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예언자들도 많았어요.

이 둘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신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중들은

그것을 구분할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깐요. 거짓 예언자들은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와 맞서고 있었던 사람들, 즉 대중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겁니다. 혹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게 아니면 서도 그럴 듯하게 교언영색으로 대중들과 자신을 속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좀 좋게 본다면 정말 자기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은 것처럼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서도 그럴 수 있어요. 동기는 순수한 거죠. 그러나 참된 예언자인 예레미야의 눈에는 그런 것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일반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중의 의식을 깨워서 메시아적인 메시아니즘으로 끌여가는 것이 얼마나 낭만적이고 순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성문서

구약의 마지막 대목은 성(聖)문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바벨론 포로 전후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종교적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욥기, 잠언, 다니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테르, 룻기, 아가, 전도, 예레미야애가 등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사건이나 농경풍습과 관련된 설화, 시, 격언, 소설이 들어있습니다. 소설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올지도 모르겠군요. 욥기는 종교적 형식으로 기록된 픽션입니다. 시간 상 이것은 길게 설명하기 힘들겠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구약성서는 헤브라이즘의 영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부단히 인식해나갔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정신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적 신앙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토양이라는 점에서 초기 기독교가 구약을 경전으로 삼은 것은 잘한 선택이에요.

## 제22강

### 기독교 신앙과 현실성 문제

오늘 제가 샘터교회 예배 때 전한 설교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현실성’이었습니다. 설교에서 모든 걸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설교의 한계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보통은 30분 내외로 하는데요.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비약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대목이 나올 때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또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해도 설교는 듣는 사람과의 상호 작용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냥 넘어가요. 좀 더 궁극적으로 보자면 모든 깨달음은 성령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보혜사니까요. 보혜사라는 말에는 깨닫게 한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성령은 아주 근원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진리, 참인 것, 생명, 창조, 좀 더 나아가 종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초적이고 역동적인 통치 능력이 성령입니다. 우리는 다 이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창조 안에, 생명 안에, 진리의 힘 안에, 종말론적으로 열린 세계 안에 들어 있어요. 결국 우리의 깨우침들은 영의 문제입니다. 저는 세월이 갈수록 이 부분을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도 늘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선생과 학생으로 자리 잡고 가르치고 배우기는 하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한 집안의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목사라는 것도 선생이고, 집 안에서도 아버지로서 선생일 수 있잖아요? 일단 선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생의 장점은 조금 먼저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먼저 간 길을 안내한다는 점에서 선생이 됩니다. 그러나 선생이라는 위치는 많이 위험해요. 이것은 저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미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선생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누가 선생이라고 나설 수 있겠느냐는 거죠(마 23:1-8, 약 3:1 참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선생 노릇하기를 좋아했거든요. 그게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의 문제라기보다도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인간이 자기중심적이니까요.

선생들은 대개 자기가 알고 있는 관점으로만 세계를 봅니다. 고정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틀이 있죠. 저도 제 관점으로만 뭘 보거든요.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건 그

안에 함몰되는 것이 아닌데, 선생들은 계속 그 안에 머무르면서 학생들을 그리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물론 좋은 선생들은 아예 그러지를 않죠. 음악 선생을 예로 들게요. 음악 선생이 학생들에게 레슨을 할 때, 시원찮은 선생들은 자기 식대로 가르칩니다. 자기를 따라 하라는 거죠.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하라는 식으로, 사실은 자기도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클라리넷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깊이가 100이라고 한다면 자기도 겨우 3이나 4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이 자기가 들어가 본 만큼만 아는 거잖아요? 자기가 들어가 보지 못한 것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100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영적 세계인데요. 우리가 부활, 재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합니다. 선생이 3정도만 안다고 할 때, 그 다음 이야기는 남의 말을 그냥 전하거나 변죽을 울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부분을 바탕으로 뭔가를 아는 것처럼 말해야 하니까 힘이 들어가고 과장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 자체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으니까 들어오는 학생들을 쥐어짜는 겁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게 잘 안 되어 있으면 학생들을 들볶아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왜 연습을 안했느냐고 말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학생들을 들들 볶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잘 따라하는 학생에게는 점수를 잘 주는 거죠. 제 말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네요. 이 부분이 중요해서 강조하느라 그렇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궁극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선생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정말 괜찮은 선생은 자기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음악의 소리와 만나도록 합니다. 선생이 직접 만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다만 학생에게 소리가 저기 있으니까 저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몸짓만 하는 거예요. 학생과 소리가 만나게 되면 그때 예술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선생을 따라서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기술자가 돼도 사람들은 예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설교에 종교적 교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술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만 듣고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술의 세계로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원적인 힘인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힘으로 나타나는 진리의 세계들이 바로 성령의 활동이니까요. 나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는 동시에 아는 것마저도 다 설명하기 힘든 그러한 한계 때문에, 저는 그냥 지나칩니다. 몰라도 괜찮다고 말이죠. 결국 성령과의 소통이 신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면, 제가 비약하고 지나가더라도 영적

인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 광신과 신앙 사이에서

오늘 설교 ‘보이지 않는 현실성’에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겁니다. 이것저것 성경 본문도 이야기하고 나름의 논리로 설명했지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다른 명제를 통합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첫째 명제는 부활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부활만 보이지 않는 세계일까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즉 현재와 질적으로 다른 세계로 우리가 옮겨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신성불가침인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명제는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의 확실성이죠.

이 두 명제는 각각으로 보면 옳지만 함께 보면 모순됩니다. 우리는 보통 보이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그런 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증적 세계관이죠. 그 틀에 묶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실하다고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신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광신과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정통 기독교 안에도 광신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딱 선명하게 구분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신앙들이 실제로 생명 지향적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생명 지향성으로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생명 지향적인지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료된 대답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신실해졌다, 술 담배도 안하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아내하고 옛날에는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졌다는 식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생명 지향적으로 변했다고 말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혹은 옛날에는 생태적인 마인드가 없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물건도 아껴 쓰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생태 운동에도 참여하더라고 하면서 이걸 생명 지향적이라고 보기도 할 겁니다. 물론 이것도 생명 지향적이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생명 지향적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삼자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속으로는 욕구 불만이 가득한데도, 겉으로는 상당히 세련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대충 파악할 수



있을 뿐이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힘든 겁니다.

광신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확실성에 깊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기 쉬운 또 하나의 현상이 자기 연민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데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자기 연민으로 경험합니다. 요즘 다비아 사이트 사랑채에 어떤 사람에게 신학이 필요한가에 대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연민입니다. 신앙을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축소시킨 채 그분을 증명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신앙적이고 실존적인 대상으로, 위로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부처님을 믿어도 되죠. 아니 바위를 믿어도 됩니다. 일단 믿으면 어떤 능력 비슷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돌이 나를 구원한다는 절절한 신앙이 나올 수 있어요.

자기 연민은 우리의 전체 삶을 광범위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매스컴은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때로는 자기연민이 자학적으로도 나타납니다. 남편에게 습관적으로 구타당하면서도 그냥 붙어서 사는 여자들도 있는데요. 그들이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자기 연민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구타하는 남자가 어느 순간에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심리적으로 거기에 묶여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생활에서도 자기연민이 크게 작용하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니까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교회에 가서 습관적으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사람에게서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배설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신앙적인 퇴행인 거지요. 퇴행을 생명 지향적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다른 길을 모르니까 그 길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요. 단순하고 소박하게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그런 길로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른이 어린아이의 행동을 한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둘 사이를 구분하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자꾸 착각을 합니다. 믿음을 심리적인 위로로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사람들은 세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로만 받으면 그만이지요. 이게 인간 심리에 나타나는 사도마조히즘(sadomasochism)과 비슷합니다. 새디즘과 마조히즘의 복합적인 현상을 가리킵니다. 공격적이기도 하고 자학적인 심리 현상인데, 병적인 거죠. 교회 안에서 이걸 병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이게 종교적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

문입니다. 포장을 뜯고 속을 까보면 그냥 ‘묻지 마’ 식의 광신, 퇴행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만족하고 살겠다면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이 대목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의 세계를 믿는다고 하는 명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좀더 진도를 나가지요.

## 부활의 확실성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를 먼저 말해야겠습니다. 부활의 확실성, 과연 확실 하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했냐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에서 짚은 것은 사도성의 문제였어요. 잠시 차 한 잔 하겠습니다. 홍차인데, 참 맛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한 잔 하세요. 제가 전에 물이 보석이라고 했는데, 그 보석을 마시고 있습니다. 많이 우려냈네요. 지금 한 분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진도부터 나갈게요. 가능하면 질문을 문자로 올려주세요.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근거로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말할 근거가 얼마 없습니다. 자연과학적으로 그것을 가타부타 결정할 수는 없는 상태죠. 자연과학자들도 부활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혹은 반대로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자연과학은 실증학문으로서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제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연과학도 미완의 학문인 거죠. 그래도 학문 중에서는 가장 실증적입니다.

심리학을 이야기했는데요. 정신분석학 말이에요. 이것도 마음에 대한 과학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일정한 유형을 가지고 있어서 분류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정신도 많은 가변성이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로도 다 계산해 낼 수 없는 많은 변화의 가능성들이 있어서 기계적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단지 확률일 뿐이에요.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심리학과는 달리 물리학이나 생물학은 확률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엄밀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심리학, 생물학, 그리고 과학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요. 신학적 접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자연과학과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신학적 접근이 생물학이나 물리학의 접근법에 비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한 것 같은데 다시 짚고 넘어간다면, 자연과학은 지금 세계를 끌어가고 있는 과학적인 것들에 대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압니까? 모르는 상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더 많은 설명

이 필요한 내용을 공연히 끄집어낸 것 같네요.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은 사도들의 증언에 근거한 겁니다. 일전에 말했듯이 예수 부활현상은 사도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사도들과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 등이 그들입니다. 그들을 통틀어 제가 사도라고 말하는 건데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신앙 경험이자 궁극적인 생명 경험이었습니다. 그냥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알아 볼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종교나 성별에 상관없이 객관적인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만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니케아-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나온 네 가지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사도성이었죠. 단일성, 보편성, 거룩성, 그리고 네 번째가 사도성이었어요. 우리는 일단 이 사도적 신앙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사도들의 경험이 옳았다, 진리였다, 궁극적인 생명의 경험이었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도들을 통해서 확립되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사도들의 부활 경험에 근거해서 부활이 확실하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것 같죠? 사도들이 만약에 잘못 경험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말짱 헛일일 테니까요. 만약 그게 의심스럽다면 기독교 신앙을 좀 유보하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종교든 아무리 그 종교가 객관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는 주관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잖아요. 그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단하는 거지,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내 운명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사도들의 부활 경험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좀 더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요. 나중에 생각하면 더 하기로 하죠.

이걸 보충해야겠군요. 그럼 사도들이 하는 말은 말이 안 돼도 믿어야 한다는 뜻일까

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었어요. 2천 년 전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한계를 갖고 어떤 궁극적인 경험, 역사적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따라서 그들의 표현은 고대인들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조금 구분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2천 년 전의 세계관, 그 한계 안에서 뭔가 절대적인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들이 놓여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2천 년 전에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모두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거라고 말한다면 곤란한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에 대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성령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도들의 예수님 경험이 진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전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가야 해요. 지금은 이 땅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들도 없고요. 다만 그들이 전한 문서, 성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실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 부활 변증에 대해

강의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들어왔군요. ‘부활의 확실성을 사도들의 경험에만 근거를 둔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변증해야 하나요?’ 부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변증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생명의 궁극적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유비(analogy)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세상이 끝날 때 우리가 참여하게 될 궁극적인 생명인데, 무슨 수로 사람들에게 변증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인이라는 말이 너무 진부하죠? 그러나 적당한 다른 단어가 없네요. 아퀴나스가 신 존재증명을 열 가지로 했나요?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에 의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긴 했는데, 그건 하나의 방식으로서 또 다른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해명의 문제예요. 변증은 해야 합니다. 변증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예요. 하지만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능한 대로 보편적인 근거에서 해명하고 변증하지만 어떤 단계에 이르면 선택의 문제가 돼요.

기독교 신앙이 철학적인 접근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맞지 않습니까? 보세요. 철학을

보통 형이상학, 즉 메타피직(metaphysic)이라고 하는데요. 피직(physic)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말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창조입니다. 이 세계에서 성령이 활동하고, 특별히 2천 년 전의 예수님에게서 생명과 부활과 하나님의 성육신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에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데 철학적 사유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존재와 인식,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와 형상, 하이데거의 존재 이해, 화이트헤드의 과정 등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현실성을 포착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천당에 가는 것 등, 이 모든 것에서 보이지 않는 현실성을 잡아내야 하는 겁니다.

철학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철학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철학은 현상학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계시론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어요. 현상학적이라고 하면 좀 더 귀납법적인 것 같아요. 이 세계를 잘 뚫어봄으로써 원리를 찾아내기 때문에 귀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의 철학은 고전적인 철학을 다 버린 상태라서 궁극적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분산되어 있어요. 반면에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연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설명한다면 철학은 세상을 설명함으로써 궁극적인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죠. 그렇게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나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세계라는 게 어떤 것인지 느낌이 오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already) 왔지만 아직은 오지 않은(not yet)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증적으로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확실성에 대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야겠는데요. 우리가 왜 보이지 않는 현실성 쪽으로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하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던져져 있어요. 주어진 존재들입니다. 이 안에 던져져 있는 존재예요. 따라서 그걸 넘어서는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미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다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보통 물리에서도 4차원 6차원 7차원을 이야기하니까요. 낮은 차원에서는 높은 차원을 전혀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다 없다, 확실하다 아니다, 보인다 안 보

인다고 하는 말들은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현재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수 있어요. 컴퓨터로 말하자면 5백 년 전에는 컴퓨터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가 있죠. 없던 게 있어요. 이제는 현실이 된 거예요. 5백 년 전에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미래의 있어야 할 어떤 거였어요. 그렇다면 5백 년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는 그것이, 5백 년 전에는 현실(reality)이 아니었을까요? 5백 년 전에도 여전히 현실이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5백 년 전과 지금의 컴퓨터가 연관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컴퓨터는 뭔가가 발전해 온 거 아닌가요? 5백 년 전에는 다만 실체로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현실성은 현실성입니다. 나중에는 드러났으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부활 생명도 아직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백 년 전에 과학자가 컴퓨터가 현실성이라고 말했다면 미친 사람이란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5백 년 전이나 5백 년 후나 다 존재하는 분이잖아요? 이미 미래까지 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2천 년 전에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사건을 끝어다가 나타낼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너무 논리적인 설명인가요? 말장난 같이 들리나요? 그 미래는 5백 년 후가 아니라 수억 년 후 일수도 있습니다.

그 미래에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미래의 완성을 내다보는 관점이 종말론이죠. 종말에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5백 년 전에 없던 컴퓨터가 5백 년 후에 실제로 드러났듯이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종말론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종말론을 말하면서, 휴거나 새 하늘과 새 땅 등, 우리의 현실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막연하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현실과 종말론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우리의 신학적 준비가 미비해서 해명하지 못할 뿐이지, 종말론은 오늘의 삶까지 지배하고 있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컴퓨터가 어떤 방식으로 5백 년 전에도 이미 현실성이었는지, 지금은 알 수 있지만 그 때는 몰랐듯이 말이에요. 이러한 종말에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의미와 근거와 희망을 두고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2천 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해명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설교이고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희망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생명의 완성을 믿는 거죠. 5백 년 전에도 컴퓨터를 믿을 수 있던 사람, 그것을 현실로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언자 같은 사람들이죠. 기독교인들은 우주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몇 억 년 후일지는 몰라도 그때 세계가 완성된다는 희망에 부풀어서 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꽃이 피듯이 확연하게 생명이 발현한다는 희망을 갖고 말이지요. 구체적인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차원이 다르니까요. 5백 년 전의 컴퓨터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 컴퓨터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종말은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질적인 변화, 극단의 변화니까요.

오늘 설교 중에 인용하지 못한 본문이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씀도 정말 우주론적이거든요. 보지 못해요. 은폐되어 있죠. 숨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믿어요. 이게 광신이 아니잖아요. 이해하겠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현실로 믿는 ‘보이지 않는 현실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삶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구원이 뭔가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영혼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인문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신학이기도 하고 다 비아가 추구하고 있는 인문학적 성서 읽기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일상적인 걸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구성요소인데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예요. 인간 생명의 가장 깊은 차원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구원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세계를 향한 진정한 희망을 열어 가십시오.

## 부자와 나사로 비유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인가요? 이 비유는 신인동성동형론과 관계가 있나요?” 아닙니다. 신인동성동형론과는 관계가 없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몇 장 몇 절이죠? 누가복음 16장이네요. 오늘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것과 함께 제가 오늘 설교한 ‘보이지 않는 현실성’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보충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성서를 잠깐 보겠어요. 사실 성서의 한 부분을 해석한다는 것은 독립된 단락도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전체를 본다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 안에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맥락에서 거론된 것인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고대인들의 어떤 세계 이해인데요. 저는 지금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들은 딱 결정되어 진술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석되어 가는 과정에 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그런 개념들은 어느 시점에 딱 결정되어서 그대로 고수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서 더 심화되고 풍부해지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도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부활이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주변의 여러 다른 종교들에서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와 동시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고유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섞이면서 부활이 초기 기독교의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거론하면서 예수님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걸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서 윤석전 목사님처럼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생결단하고 잘 믿었다.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이 땅에서는 비록 구더기처럼 살았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비유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상식적으로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째, 이 비유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에 대한 것은 하나님만이 결정한다는 하나님의 결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뿐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도 그렇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식을 뛰어넘으니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편에 갔다고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자는 아주 고상하게 살았어요. 윤석전 목사님은 여기서 부자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나사로는 결사적으로 믿었다고 하는데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이 부자가 하나님을 훨씬 더 잘 믿었을 겁니다. 욕기에 나온 대로 말이죠. 욕기도 역사가 아니라 소설입니다. 어떤 것을 전하고자 하는 구약의 문학 장르예요. 욕기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고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삶과 그들의 판단,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한다면, 부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본문은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 본문은 거기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냥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날마다 즐기더라고 간단하게 말하죠. 다른 묘사는 거의 없어요. 멋있게 살았어요. 사치스럽게 살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라고 트집을 잡을 수도 있지만, 성서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욕기의 욕처럼 복 받고 잘 살면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가난하고 병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서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거지 나사로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었고,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고 합니다. 그 밖에 부자와 나사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면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나사로보다는 더 복 받은 사람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가면, 이 부자가 지옥 불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살아 있는 자기 형제와 자식들에게 이 상황을 말해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운데서 살아나온 사람이 와서 권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연구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둘째, 이 본문은 이 부자에게 사회적 책임의 부재를 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자가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서 타인의 가난을 외면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비유의 말 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 제가 그 이상의 것을 말하기는 힘듭니다. 뒷부분에 나온 내용을 본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좀 더 영적인 생각을 가미한다면, 사람은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패러다임은 한 번 굳어지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제23강

### 신약의 형성 과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한국은 전형적인 봄날입니다. 사이버 강의실에는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도 들어와 있어서 여기가 한국이라고 말했어요. 공기 알맹이들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오늘 좋은 봄날을 보냈는지요? 우리는 오늘 신약성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것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강의 내용이 너무 일반적인 거라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았어요.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들으면 지루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이고, 또 다른 이유는 누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배운다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선생 자격이 없는 건데요. 뭘 가르쳐야겠다는 에너지가 강하게 솟아 나와야 하는데, 제게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 재미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 교회 개척

한국에는 개척교회가 많습디만 정착하는 교회는 드뭅니다. 80,90년대만 하더라도 신자들이 작은 교회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21세기 들어와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습디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대형교회를 찾아갑디다. 마치 시장 보는 분들이 동네 작은 슈퍼보다는 대형 마트를 찾아가는 거와 비슷합니다. 결국 작은 슈퍼나 작은 교회는 생존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지요. 목회자의 영성이 이런 풍토에서는 견뎌내기 힘들습디다. 교회 개척도 어렵지만 기성 교회에 들어가는 것도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줄 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건 뻔하거든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줄 잘 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신학교 다닐 때부터 큰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일단 안면을 많이 터야 합니다. 교권도 있고 목회적 영향력도 있는 목사님 밑에 가서 잘 보여야 해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학교 시절도 그래야 하지만, 졸업한 다음에 전도사

나 초년병 목사가 되면 그 때 더 좋은 교회를 가야 합니다. 좋은 교회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능력 있는 교회, 서울에 잘 나가는 교회에서 학생회나 청년회를 맡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부서를 일단 부흥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 근방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도 주목하게 되죠. 그러면 담임 목사도 그 부목사를 키워주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개입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자기를 따라주는 젊은 목사들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합니다. 젊은 목사가 학생회나 청년회를 부흥시키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전도사나 부목사로 있을 때 큰 교회에 좀 있었거든요. 잘했습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지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교회 프로그램 중에 재미있는 걸 하면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잘 해주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그 부서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회도 자기가 쏟아 붓는 만큼 성과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성과를 보이면 능력을 인정받고요. 담임목사가 키워주려고 합니다. 서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다가 어느 교회에 자리가 비게 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느 큰 교회에서 정치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파송할 목사로 뽑히게 되면, 부목사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움직이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개교회주의, 자본주의적 착상이거든요. 교회는 단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단일성 회복이 한국 교회의 미래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겠어요. 교회의 단일성이란 말은 가톨릭교회처럼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을 모두 하나로 생각하는 겁니다. 보편성이기도 하죠. 그 전체가 다 하나의 교회니까요. 교구, 노회, 총회 같은 것들을 하나의 교회로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개척을 어디에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개교회가 정하는 게 아니라 총회 차원에서 하게 되고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들의 사례비 같은 것도 큰 틀에서 결정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로마가톨릭교회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본받아야 해요. 그런데 개신교가 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똑같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은 비슷하게 가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거리가 멉니다. 물론 장로교 통합측 같은 곳에서는 최저생계비란 것을 좀 지원하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교회의 본질이 뭐냐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단순히 정보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방향을 잡는 겁니다. 선생이 해야 하는 일은 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정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방

향을 제시하는 거죠. 저쪽으로 가 봐라, 저쪽에 가면 생각할 것이 있다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꼬?’라는 강의를 통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일종의 화두를 던지는 거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신학적인 문제예요. 교회의 본질이 뭔지, 어떻게 그냥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한국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개 교회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한 교회에 평생을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죠.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열심이 있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쫓아내도 나가지를 않아요. 이것도 참 비극이에요. 평생 동안 한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기는 게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일 뿐이지 자기 교회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자기 교회라는 확신은 교회가 뭔가에 대한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냥 종교적인 친목단체인 거죠.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중요하지만, 유럽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독일에는 입학식도 없고 졸업식도 없어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졸업식을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다. 박사 모자나 가운도 없이 그냥 사무실에 가서 증서 하나 주고받는 정도예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동창회도 아마 없을 겁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고 독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초등학교 반창회도 해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도 그런 걸 내걸더군요. 하양에서도 그런 모임들을 자주 봅니다. 띠 동갑들끼리 하는 친목 모임도 있어요. 교회도 그런 정서가 상당히 강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교회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렇게라도 마음을 붙이고 살겠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 ‘우리들 교회’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진량에 있는 한 교회에 대해 말할게요. 이 말은 다음 주일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에는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미리 당겨서 말할게요. 샘터교회 예배처소 겸 대구성서아카데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를 봉황삼주아파트 단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커요. 시끌치고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모여 있기는 드뭅니다. 하도 많이 모여 있으니까 초등학교도 새로 하나 짓고 있어요.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두세 달 후면 학생들이 다닐 것 같아요. 아주 예쁜 초등학교가 들어서는데요. 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 언덕길이 있는데, 그 초입에 교회당을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그걸 한 몇 주 전에야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침탑도 있고 아주 예쁘게 짓고 있더군요. 크지도 않고 아담한 게 위치도 좋고요. 숲은 아니지만 나무도 좀 있고요. 전반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교회당이었어요. 말하고 싶은 건 이 침탑에 붙인 교회 이름입니다. 교회 이름이 뭐냐 하면, '우리들교회'예요. 진량 읍내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량교회라고 한 것 같은데 여기로 옮기면서 '우리들교회'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 앞에 설령당을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요. 그 식당 사장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이름을 '우리들교회'라고 지었을까요? 신기했습니다.

아마 '우리들교회' 같은 교회 이름은 온 세계에 한국 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런 거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이름이 많습니다. 사랑의교회도 사실 제가 보기엔 교회 이름으로는 마땅하지 않아요. 지역 이름을 따는 것은 괜찮아요. 상주교회, 봉황교회, 진량교회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보면 이 교회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 지역민들 전체의 교회이고 우리들의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도 자신들의 소유의 대상으로서 교회를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비평을 하다 보니 이런 것마저도 비판적으로 보네요. 죄송합니다. 교회가 뭐냐는 생각을 하다가 교회 이름까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언제 쯤 우리는 우리들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향하게 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집입니다. 그러나 교회 이름마저 우리들교회라고 짓는 것을 보면, 실제로 많은 목사들이나 신자들은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거창한 신학적 논리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이거든요. 신학은 어떻게 보면 인식론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활동에 대한 논리적 해명이지만,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밝혀내자는 게 아니거든요. 신학자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가짜 신학자들은 풍월만 읊겠죠. 그러나 어거스틴, 오리겐, 루터, 칼뱅, 바르트, 몰트만, 용엘, 오토 같은 신학자들은 영성가입니다. 분명히 영에 대한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신학적 이론을 전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신학적 토대가 너무 부실합니다. 한국교회가 정서적으로 신학 무용론에 빠져있고, 신학 폐기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향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교회에 대해 조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목사로서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지금 이 공부 모임에 우리 교회 신자들도 몇 분 있는데, 제 말을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정 목사가 샘터교회를 그만두려고 하나,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에서 목사로 산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못 될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한국 개신교가 우리의 영혼을, 인생 전체를 던질 만한 공동체인가 하는 점에서 별로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들지 않으면 참 불안하거든요. 오늘 제가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걸 저는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구약은 보편성이 약하고 신약은 강하다고 말입니다. 그 차이를 한두 가지 더 말한다면 구약은 주로 의로움에 대해 다뤘고, 신약은 사랑, 혹은 은총에 대해 다뤘다고 할 수 있어요. 늘 의와 은총이 대립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의마저도 은총일 수 있어요. 사랑이 의로움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완전히 대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로 보자면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성서가 유대인이라는 민족에게 집중한다면, 신약성서는 인류 전체를 지향합니다. 구약성서는 특수성이라는 성격이, 신약성서는 보편성이라는 성격이 강한 거지요.

좀더 설명하겠어요. 구약의 구원이 주로 정치 경제적인 차원이 강하다고 한다면, 신약은 정치 경제를 뛰어 넘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네요. 메시아니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정치 경제적인 해방을 가져다주는 반면,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전혀 차원을 달리 하는 거죠. 정치 경제적인 것은 하나의 결과이고요.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말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론이 정치 경제와 관련이 있다면 기독교의 독특한 그리스도 이해는 개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인데요. '부활 생명'이라고 대답이 나왔는데, 이건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는 부활 생명의 하부 구조예요. 그런데 진보주의자들은 자꾸 정치 경제로만 나간단 말이지요. 전인 구원이라는 답이 나왔는데, 좋습니다. 저도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 진보를 정치 경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정치 경제의 문제는 일종의 복지 향상 아니겠어요? 정치나 경제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차원으로 올라가자는 거죠. 휴머니즘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늘 상대적입니다.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기독교 공동체가 말하려는 것은 이러한 복지 향상, 휴머니즘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겠지만, 복지와 휴머니즘을 아무리 발전시킨다고 해도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말할 필요조차 없죠.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이 한 말은 옳습니다. 어거스틴은 “당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어디에서든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했거든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반면 복지와 휴머니즘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할 괜찮은 나라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말장난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어요. 노력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력을 하면서도 노력 자체를 끊임없이 상대화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 노력을 최소한으로 상대화하고 하나님이 이루는 것에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놓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기독교의 신앙을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재림 신앙이죠. 생명이나 온전한 구원 등은 성서나 신학이 말하고 있는 방향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구약성서는 주로 의로움, 유대민족, 그들이 살았던 삶의 특수성들,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해방, 시오니즘,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세계 지배가 특징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제국주의군요. 유대적인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라는 게 모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하는 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걸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요. 교묘하게 하기도 하고, 힘으로 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세계관을 온 세계에 확산하려고 하는 걸 제국주의라고 한다면, 유대 민족들도 사실은 그 바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뭘 이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다립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온다고 믿었잖아요? 임박한 종말론을 받아들였죠. 종말론도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실현된 종말론, 미래적 종말론 등으로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명명한 것은 장난삼아 한 게 아니라 종말의 성격을 그런 식으로 해명한 거예요. 이러한 신학적 성찰이 없으면 기독교 신학은 죽은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서나 심리가 아니예요. 저는 젊은 목사들에게 상담 목회나 교육 목회 같은 거 하겠다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건 다 정신과학, 심리과학이거든요. 기독교는 심리나 정신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은총에 대해 말하는 것이니까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담을 한다는 게 마음을 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중 설교자들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중들의 심리를 잘 읽어요. 필요한 걸 딱딱 제공하는 거죠. 그게 설득력을 얻습니다.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중들이 속는 거죠.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걸 생각하기 싫어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옳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지역감정도, 정치인들이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에 무게를 두어야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보고자 하는 시민단체, 시민운동, 진보적인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성인으로서 역사 안에서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저도 생태운동을 위해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기독교의 구원론으로 대체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는 다른 차원의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기독교의 역사적 기점

신약성서와 구약성서는 완전히 다른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말하기로 하죠. 신약성서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구약성서를 할 때 이미 말했지만, 신약성서도 구전된 이야기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입으로 전달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고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은 메시아니까 잘 적어줬다가 후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수를 잘 믿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전혀 몰랐어요.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지낸 거예요. 그러다 실망해서 떠나기도 하고 남기도 한 거죠.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부터 토대가 탄탄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가 아니라 죽은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적 기점이지요. 십자가에 처형당한 뒤에 부활 현현이 일어났어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지요. 그리고 승천 이야기들이 서로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부활과 승천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궁극적인 생명에 들어간 일이니까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현상적으로 나타났는데 부활 현현이라고 합니다. 부활체로서 현현했다는 현상, 즉 만질 수



는 없지만 볼 수는 있는 그런 현상, 그게 뭘까요? 저도 그게 알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물론 그것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해명해 나가는 것이 신학이거든요. 성서는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진리에 직면한 사람들의 당혹스러움이 복음서에 그대로 묻어나요. 그런 점에서 신약성서는 어떤 사실을 아주 논리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학문적 문서가 아닙니다. 어떤 구원의 현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시적인 고백이자 표현이예요. 예수 부활이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현상을 경험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생물학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나타난 부활 현현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시쳇말로 지금 우리가 귀신을 봤다고 하는 것보다 더한 거죠. 귀신은 그냥 두렵기만 한데, 예수님의 부활 현현은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과는 다른 생명의 궁극적 현실과의 만남이거든요. 생명의 궁극적 현실 같은 개념들을 일반 신자들은 골치 아파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목사들도 잘 모르고, 또 그것을 해명할 생각도 하지 않죠. 반드시 신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생명의 궁극적 현실이라는 게 어떤 세계를 담고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궁극적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우며 중층적이고 종말론적인지, 그 두려움과 당혹감 속으로 일단 들어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없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 게 지루한 거예요. 전부 예수 믿고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뿐입니다. 만날 뭐 하자는 말만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 이야기는 많이 하는지,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살아요. 왜 그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되었고 저렇게 되었다는 말을 많이 하는지, 세상살이를 조금 알고 철이 난 사람들이라면 교회에 붙어 있지를 못합니다. 저 같아도 뛰쳐나갈 것 같아요.

성서는 생물학, 물리학, 역사학 같은 것들이 감히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궁극적 현실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자 호소예요. 자기들이 그것을 논리적으로는 해석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두서가 없더라도 말한 것입니다. 놀라운 어떤 세계를 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는 모르더라도 좀 알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게 영성이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깐요. 진리를 알게 하는 힘이 성령입니다. 성령에 감동받는 것이 영성이지 않

습니까? 성령과의 소통과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영성이라고 하는데 요. 예수의 부활, 재림, 종말, 칭의, 천지 창조, 하나님의 통치, 나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알고 싶어 하는 영적인 상태는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반대죠. 그런 걸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뭘 알고 싶어 하나요? 믿는다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요. 정말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까놓고 보면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처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만 재미있으면 그만이죠. 종교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걸 잘하면 교회가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건 신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행위는 신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학이 하나님을 죽이고 추상화한다면서, 믿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여태까지 들은 설교들이나 교회 가르침 속에서 생명의 깊이를 열어주는 것은 별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설교비평에서 몇몇 괜찮은 분들을 추천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상황에서는 최선이었어요. 이번에 저는 판넨베르크의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저로 하여금 어떤 세계로 가도록, 그 세계에 관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믿음의 기쁨』(Freude des Glaubens, 2001)이라는 그의 설교집을 한번 읽어 보세요. 저 혼자 신나서 좋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기억과 구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부활 경험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그 부활의 빛에 의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조금씩 알게 된 거죠. 아주 천천히 기독교의 정체성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순식간에 조직이 만들어지고 체계가 잡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전 날에 잡혔다가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을 경험하고 갑자기 오순절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그와 비슷하게 연대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추정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로 남아 있는 게 아니죠. 구전(口傳)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구전이라는 말은 그것이 다 기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사무관처럼 따라다니며 기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의 특징이 뭔지 알죠? 모든 게 일일이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생각나는 겁니다. 사람은 기억하고 싶은 부분만, 특별한 부분만 기억을 해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그것이 전승이 되고 문서로 기록되면서 편집되거든요. 최종 편집자를 성서 기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가진 신학적 바탕에 의해서 취사선택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신약성서의 형성이 결정적으로 원시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에 의해서, 그들의 기억에 의해서,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본인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사도들에게 어떤 것을 기록하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은 성서가 기록될 것이라고 예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성서는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역사적 산물입니다.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역사죠. 삶의 자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초기 기독교에서는 구전되고 전승되고 편집된 역사적 문서들이 많이 생성되었습니다. 많은 분량의 복음서와 서신들이 기록되면서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읽히기도 하고 다른 평가를 받으면서 혼란이 생기게 되죠.

신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다 신학자들이죠. 마르키온 같은 사람은 구약을 기독교 경전에서 빼자고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40년경에 10편의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만으로 인스트루멘툼(instrumentum)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일종의 정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향을 미치던 교회에서는 이 성서를 사용한 거죠. 신기하죠? 왜 마르키온은 네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을 정경으로 인정한 걸까요? 타티아노스(Tatianos)라는 사람은 160년경에 네 복음서의 차이점을 조화시킨 디아테사론(Diatessaron)을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시리아역으로 번역되면서 그 지역의 표준 정경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지요? 무라토리단편(the Muratorian Fragment)이라고 알려진 정경이 있었는데요. 무라토리가 뭐하던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많은 걸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네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등 13편을 포함한 22편의 신약성서와, 지금의 정경에는 들어 있지 않은 베드로게시록, 헤르마스 묵회서신 등을 정경으로 사용했습니다. 2세기 중엽에는 페시트라고 불리는 신약성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오늘의 신약성서가 망라되어 있고요. 2세기 후반의 라틴어역 성서인 베투스 라티나는 무라토리단편과 거의 일치하는 것들을 경전으로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역마다 사용하는 성서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고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명한 회의예요. 이때는 이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어 있었어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었고,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되죠. 이때는 로마의 강력한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도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날처럼 단일한 성경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가능했던 것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였기 때문이죠. 이때 27권의 신약문서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정경의 기준

27권을 결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였어요. 내부적인 기준으로는 그 문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고요. 외부적인 기준으로는 그 저자가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이 기준에 들어온 것만 신약성서의 경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복음서를 보면 마태나 요한과는 달리 마가와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사도적 권위를 가진 속(屬)사도였기에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개중에는 문제가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그랬습니다. 또 유세비우스(Eusebius)의 교회사에서 거론 되는 아주 중요한 문서들이 정경에 포함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바울행전, 헤르마스의 목자, 베드로계시록, 바나바 편지, 디다케, 베드로복음, 도마복음, 맛디아 어록, 안드레행전, 클레멘스 서신, 이그나티우스 서신, 폴리카르포스 서신 등은 그 당시에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정경 목록에는 들어오지 않았습시다.

이와 같은 신약 성서의 형성과정을 볼 때, 오늘날의 우리는 어느 정도 영적인 가치가 있는 외경들을 읽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또 신약성서 27권 안에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배타적 권위가 있는 것일까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397년의 결정(제3차 카르타고 종교 회의)은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27권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조심스런 이야기라서 제가 뭐라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다고 말했어요. 종교 개혁자들의 말을 들으면 복음서들도 권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로마가톨릭교회에는 외경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쨌든 27권을 그냥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읽을 때 너무 폐쇄적이거나 문자적인 자세는 벗어나야 하죠. 또 하나님의 영이 성서에만 의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서를 뛰어 넘으니까요. 폭넓은 진리론적인 자세로 신약성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서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비판적 성서 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신화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역사비평입니다. 역사비평적 성서 읽기. 이게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신 신화적 성서 읽기를 하고 있어요. 성서 안의 신화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신화적 성서 읽기가 신자들에게 먹히는 이유는 신자들이 하나님이나 성서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알고 있다는 자기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신앙이 자꾸 자기 연민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을 자극하는 목사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자기 연민에 잘 빠져요. 그게 좋다면 할 수 없죠. 옆에서 말려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여튼 저는 성서를 역사비평적으로 읽자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성서의 권위를 끌어 내리자는 게 아니라, 성서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영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명실상부한 성령론적 성서 해석이죠.

오늘은 다른 이야기가 많아서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한 대로 간단한 내용이니깐 강의안을 혼자서 읽어도 충분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음서나 사도행전은 공부했다고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짚고 갈게요. 주로 바울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신약성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쓴 바울과 기독교의 관계는 관심 있게 다뤄볼 분야라고 생각해요. 갈라디아서를 석 달 공부하면서 그 차이를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바울이 기독교가 형성되는데 끼친 영향, 그와 대립해 있었던 예수님의 사도들, 바울과 사도들의 관계 등은 우리가 신약성서를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려고 해요. 복음서가 하나면 되지 왜 네 편이나 되는 건지에 대해, 사도행전은 역사서가 아니라 해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 마디씩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24강

### 신약의 구조

안녕하세요. 6개월을 계획했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청중들을 직접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통해 이야기를 하니깐, 소통의 다이내믹이라고 할까, 그런 게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이런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강의라도 가능하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다는 걸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서신과 요한계시록을 다루려고 합니다. 신약성서의 내용에 들어가는 거죠. 그 내용을 일일이 다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나 강의안에는 없지만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 왜 복음서는 네 권인가

복음서부터 시작하죠.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보통 앞의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까지 묶어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권위를 빌린 초기 기독교 문필가의 진술입니다.

신약성서는 크게 복음서와 서신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하지만, 이것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도행전은 주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활동에 대한 진술, 혹은 해명이예요. 따라서 사도행전도 전부 편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른 것은 접어두고, 이 복음서가 왜 네 권이나 신약성서에 들어왔을까 하는 점을 짚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성서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핵심적으로 한 권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일생은 복음서에 보면 크게 서너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한 활동이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수

난입니다. 이 네 번째는 크게 보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제가 세부적인 것은 다 줄이겠습니다. 제가 갈릴리와 갈릴리 호수를 비슷한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이 둘은 조금 구분되기는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삶을 시작했는데요. 일단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유대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혹시 왔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간 건 아닐까요? 예수님의 연대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복음서는 연대기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정확하게 쓴 게 아닙니다. 순서가 엉클어져 있는 게 많아요. 특히 요한복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제쳐 놓아야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공관복음과 연관해서 요한복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공관복음에 있는 사건들이 나오기는 해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중요한 것들은 요한복음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전달방식이나 해석이 공관복음과 다릅니다. 다르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본질 자체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달랐기 때문에 표현 방식에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여튼 이 공관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연대기적 역사를 추정해 낼 수 없습니다. 대충 윤곽만 잡는 거예요.

큰 덩어리로 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 첫 번째는 갈릴리 호수 이야기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대부분 수난설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부활이 들어가죠.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갈릴리로부터 유대까지의 여행,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야기, 수난 이야기. 여기까지가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할 수 있고요. 부활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공생애와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여러 번 했으니까 접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것이 한 권이면 충분할 텐데, 왜 신약성서 안에 네 권이나 들어갔을까요? 게다가 왜 네 권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까요? 물론 네 권이 전부 같다면 들어갔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도 네 복음서 중에 괜찮은 거 하나만 선택하지, 왜 네 권 모두 경전으로 했을까요?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라기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만 한 주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강의안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정의했는데, 대충 맞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이래요.

초기 기독교는 절대적인 교권이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 교회가 독립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 교회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자기들의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서 각자 나름대로 예수에 대한 전승들을 편집할 수 있을 정도로 열려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 마가 공동체, 또 나중에 들어오게 된 요한 공동체가 각자 예수에 대한 전승들을 따로 수집했고, 그로 인해 예수에 대한 신앙고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던 거예요. 공동체 나름대로 그러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 중요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문서(복음서)가 하나도 배척되지 않고 경전 안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복음서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외경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복음서에 비해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쳤습니다.

네 복음서는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결정되었어요. 상당히 후대죠. 397년이라고 하면, 거칠게 계산해도 예수님 부활 승천 후 3백5십년 이상 흐른 시대입니다. 그 기간 동안 복음서들은 아직 신약으로 결정되지 않았던 거죠. 그 기간이 예상보다 길었어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사건 이후에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금방 경전으로 결정했어야 했는데, 왜 안했을까요? 아마 일반 평신도들은 신약성서가 처음부터 경전으로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397년에 가서야 경전으로 결정되었어요.

앞 시간에 말했지만 초기교회는 90년 유대교 학자들이 암니아 회의에서 경전으로 결정한 구약성서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신약 공동체는 분명히 유대교와 다릅니다. 초기에는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가 점점 쇠퇴하고 이방 기독교 공동체가 활성화 되면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상당히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경전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성서는 정경화하지 못했을까요? 그게 좀 의아스럽죠. 사실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 때 결정적인 정경화 작업이 일어나기는 했어도, 이미 그 전에 정경화 작업을 위한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통한 경전 결정은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거예요.

초기 기독교가 거룩한 문서들을 397년까지 경전으로 정하지 않고 지내왔다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굳이 정경화 작업이 일어나야 할 긴박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좋았어요. 각각의 지역 공동체마다 자기들만의 경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27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거지요. 정경화 과정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거예요. 그러다가 397년에 그것을 결정한 것뿐입니다. 사실 이런 종교회의라는 것은 전혀 없었던 걸 새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지역 공



동체에서는 27권에 대해 동의된 상태였어요.

## 신학논쟁

초기 기독교가 일사분란하게 체계를 이루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교회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이단 논쟁들도 많았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신학적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살아 있다는 뜻이겠죠. 논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식이 살아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는 교권이나 이권의 차원에서 다툼은 많지만 진리에 대한 신학 논쟁은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화석화 되었다고 할까요? 형해(形骸)화 되었다고 할까요? 박물관의 유물이나 미라처럼 모셔져 있어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죠. 교회 안에서 신자들도 질문할 줄 모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와 신성과 인성 같은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신학적 논쟁의 중심 주제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가현설(假現說: Docetism) 논쟁이나 아타나시우스(Athanasius)와 아리우스(Arius)의 ‘우시오스’(예수 본성 본질) 논쟁 등이 다 4세기 안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조금씩 논의되던 것들이 4세기 때 아주 첨예하게 신학화가 되었던 것이죠.

말하다 보니 생각이 나는군요. 기억해 두세요. 이 4세기는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위대한 세기입니다. 니케아 회의나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다 4세기 때 있었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많은 논쟁들이 전개되어 왔다가, 4세기에 가서 기독교 교리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그 유명한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은 거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었다고 말하면 될까요? 그러나 이건 정확한 묘사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기독교가 유럽 세계의 저변에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했던 안했든, 이미 기독교는 허물어지지 않을 만큼 힘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콘스탄틴은 그러한 기독교의 흐름을 빨리 포착해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죠. 한편으로 그는 정치가니까요. 그가 그렇게 신앙의 사람이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어요. 하여튼 이 4세기 때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들이 결정되었습니다.

4세기 초에 삼위일체 논쟁으로 유명한 아타나시우스 기독교 역사에 등장했고, 1세기 후반에는 어거스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이전부터 이 시대까지를 교부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때 헬라 철학과 기독교 신학이, 가다머(Gadamer)식 표현으로 하면 지평융해를 이루었습니다. 가다머의 유명한 해석학 책이 『진리와 방법』

(Wahrheit und Methode, 문학동네)인데요. 이 책은 철학과 신학을 망라해서 해석학의 고전입니다. 그는 거기서 해석의 근간을 지평융해(Horizontverschmelzung)라고 말합니다. 텍스트의 지평과 콘텍스트의 지평이 만나서 융해되어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 안에서 소화가 되듯이, 새로운 지평, 제3의 지평이 융해되어 나온다는 거죠. 헤겔의 변증법 발상과도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와 헬라 철학의 지평 융해를 통해서 기독교가 교리화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교리화, 신학화입니다. 제 강의가 자꾸만 옆으로 나가네요. 기독교 역사에서 4세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다가 그와 연관된 몇 가지를 짚었습니다.

신약성서든 구약성서든 이미 어떤 역사적 흐름에 의해서 경전의 역할을 했던 것들이 397년에 이르러서 경전으로 결정되었을 뿐입니다. 그 때 왜 복음서를 네 권으로 결정했을까요? 그 상황이 어땠는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추정한다면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도 총선을 했는데요. 각 당에서 추천을 하잖아요. 늘 힘이 팽팽하게 맞선 후보들 중에 누가 미는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카르타고에 모인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자기 지역에서 사용하던 문서들을 경전 안에 밀어 넣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기준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나쁘다고 보면 곤란합니다. 종교적인 교리가 결정되는 중에 정치적인 게 조금 연결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세속적인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권리, 교권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할 때도, 결국 주도권을 쥔 쪽으로 회의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라는 것이 순전히 정략적이고 정치 공학적이냐, 아니면 진리이기 때문에 교권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점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순전히 정치 공학적인 힘만 작용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결정된 것은 진리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타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정략적인 힘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바른 선택이었고 네 복음서가 정경에 들어간 것은 아주 잘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복음서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네 복음서가 모두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제가 요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명제로 다비아 사이트에 목상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나가게 될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복음서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라고 하면 자연인 예수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었고 어머니는 마리아였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큰 아들로 태어난

예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인가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초기 기독교는 왜 이걸 고집했을까요? 똑같은 예수를 두고서 유대교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왜 기독교만 그를 구세주라고 인정할까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예수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신의 그림자라고 보는 가현설이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교부들이 여기에 아주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예수의 인성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사상이 있으면 이단으로 몰아냈어요. ‘베레 호모’(참된 인간)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중에서 튀어나온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몸 안에서 열 달 동안 있다가 태어난 자연인이란 말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왜 자연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걸까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현현이거든요. 지금도 이걸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적이나 그 밖에 특별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가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맥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이죠. 물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저주의 대상이자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해되었던 걸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무슨 근거로 가장 수치스런 방식으로 죽었던 예수를, 예수의 십자가를 인류의 보편적인 구원의 길로 선포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그럴 목적으로 자기 외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물론 계시의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원천적인 통치와 힘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사유와 인식과 해석을 관통했다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기독교의 해석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실은 이것보다도 사도 바울을 많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리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는 신약성서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했다는 것에 대해 한마디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은 곧 그들이 생각한 구원 이해의 독특성에서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에 비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은 전혀 구원으로 이해하지 못한 반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구원의 리얼리티로 경험했

어요.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의 구원 이해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걸 이해해야죠.

앞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은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기적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가 구세주인 걸 이해하려면 구원에 대해 이해해야 하고, 구원을 이해하려면 창조와 종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교리는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어서 우리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생물, 살아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로 표현하면 ‘에어아이그니스’(Ereignis)라고 합니다. 생기(生起), 즉 생생하게 움직이는 기운인데, 딱 결정 되어버린 사실, 즉 팩트(fact)와는 다릅니다. 영어로 굳이 번역한다면 이벤트(event)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 교리는 유기적으로 살아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참 놀랍죠. 우리 인간도 유기적인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같은 창조적인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강의를 하는 것도 유기적인 관계성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은 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달리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저잖아요. 제가 여태껏 걸어왔던 삶의 과정들, 제가 맡았던 꽃향기, 하늘 색깔, 봄기운 같은 것들을 제가 아니면 대신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뿐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경험도 저와 똑같이 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학습했지만, 그리고 여전히 미숙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저와 똑같이 영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기독교를 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꾸 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을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기독교 교리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살아 있는 사건이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신학자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왜 이것 강조하냐 하면, 여러분이 기독교 교리(도그마)를 구구단을 외우듯이 외우고 말거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도그마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손가락질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구원통치로 나가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도그마입니다. 군주시대의 군주가 농노들에게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고 하는 식의 도그마인 거죠. 그것은 죽은 문자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좀 살아 있는 것으로 대하라는 거죠. 시인의 감수성, 예술가적 감수성, 실험실에서

새로운 물리학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과학자와 같은 심정으로 기독교 신앙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영성이거든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새롭게 길을 내는 사람, 기독교가 사실 그런 겁니다. 그것만이 신학적인 영성이예요. 여러분이 그것만이라도 조금 생각을 한다면, 이 강의가 목표로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 바울과 기독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명제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제 바울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스테반의 순교 자리에 증인으로 참가했다거나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정보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울을 생각할 때, 빛을 보고 완전히 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과학적으로 생각해 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바울과 서신의 바울이 좀 달라요.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상당히 연설 솜씨가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는 반면, 서신에 보면 바울은 말에는 부족하다(고후 11:6)는 표현을 썼어요. 그 밖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메섹 도상 사건을 말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서 그런 대목이 나오면 저한테 말해 주세요. 저는 바울의 편지에서는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스테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바울이 직접 증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반적인 역사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바울에 대해서도 주로 바울을 변증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변증이지 기록영화가 아니에요. 지난주일 저녁에도 제가 주석서를 읽으면서 말했지만 성서는 기록영화가 아닙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독자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뭘 납득시키려고 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 서신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 즉 신학적 진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자꾸 신학적이라고 하니까, 기독교 신앙을 너무 이론적으로만 접근한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까봐, 염려의 차원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신학적이라고 말할 때는 신앙과 대립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적(spiritual)인 것이 신학적(theological)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궁극적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죠. 이 세계,

혹은 생명의 가장 밑바탕에서 생명을 결정하는 어떤 힘을 가리켜 우리가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신학이라는 말은 데오스(Theos)와 로고스(Logos)의 합성어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뜻이니까, 생명의 가장 심층적 세계를 말한다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영적이라는 것과 신학적이라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쓰는 용어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학적 진술이든 영적인 진술이든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심층적인 진술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바울의 다메섹 경험이 정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의 증명서를 가지고 가다가 회심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게 바울이 회심한 결정적인 증거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까요? 물론 자기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반대했던 기독교는 역사에 나타난 그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 기독교예요. 초기 기독교의 상황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유대교가 있고 유대 기독교가 있고 이방 기독교가 있었다고요. 유대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같은 유대교예요. 유대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나사렛파, 사두개파가 있듯이 그 안에서 같이 기독교적 진리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바울이 정확하게 거론하지 않지만, 바울이 이방 기독교의 태두가 된 겁니다. 이 과정을 제가 정확히 잡아내지 못했어요.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교 안의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가장 극단적인 바리새파 운동을 하다가 결국 이방 기독교인이 되었는데요. 그가 예수 부활 경험으로 갑자기 이방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유대 기독교를 거쳐서 갔는지는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직접 이방 기독교인이 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이방 기독교로 가기 전에 그는 신학적 논쟁을 많이 벌였어요. 이방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도 유대 기독교와 싸웠고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잘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루살렘 기독교와 헬라 지역의 이방 기독교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약성서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아직은 정확하게 말하기가 힘든데, 큰 그림만 설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동생이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이방 기독교에는 주로 바울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언젠가 설명한 적도 있고 시간도 없으니까, 여기서 접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방 기독교와 거의 이단 논쟁을 하듯이 싸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라는 식으로 말하

거든요. 과연 바울의 이런 공격이 타당한 것일까요? 그것이 좀 더 생각해봐야할 주제입니다. 내용을 보자면 분명히 바울이 옳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진다고 하는 칭의론을 극단적으로 붙들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토라와 할례도 같이 가야 한다고 했거든요. 토라와 할례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전적으로 옳은 거죠.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유대인들의 경전인 구약성서를 그대로 경전으로 받아들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제한다면, 유대 기독교의 입장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전통, 즉 유대 기독교 전통과 이방 기독교의 전통이 역사 안에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건 접어두고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예루살렘교회 공동체와 바울은 도저히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그리고 역사의 과정을 보면 유대 기독교는 사라졌습니다.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리새 운동이 극단적으로 일어나면서 유대 기독교는 유대교와 타협하게 되는데요. 그 때 나사렛파의 특징을 살려 나가던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유대 기독교의 나사렛파라고 하는 명맥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신앙적으로 괴멸되고 말았고요. 그 대신 이방 기독교가 기원후 70-80년에 유럽 지역의 큰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바울의 역할이 독특했는데요. 그건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초기에 열두 사도를 임명한 걸로 나오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열두 사도는 역사 후대의 산물입니다. 사도들의 지위가 확고해지면서 열두 사도의 전승이 복음서 안에 들어간 걸로 보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말할 입장이 아니고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도들의 권위가 초창기에는 별로 없었다고 봐야겠죠. 사도행전에서도 열두 사도의 활동이 골고루 잘 나타난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 편중되어 있잖아요. 중간 부분에는 주로 바울에 초점이 맞춰지고, 앞부분에도 베드로와 요한 정도지, 그 밖의 사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서신에도 사도들의 편지는 별로 없어요. 베드로전후서도 베드로의 편지라고 인정되지 않거든요.

## 요한계시록

대충 신약성서에 대한 설명을 마쳐야 하는데요. 지금 복음서와 사도행전, 서신들이 전

반적인 연관성 속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의 상황을 강의안과는 상관없이 설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빼놓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따라가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중요한 문서입니다. 문학적 장르로 보자면 묵시문학(Apocalyptic)에 속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알레고리로 해석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 색깔 등을 신앙의 본질처럼, 아니 신앙의 특징처럼 말하죠. 예를 들면 14만 4천이나 666 같은 숫자를 두고 구원 받은 사람들의 숫자라고 하고 적그리스도의 숫자라고 합니다. 주로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1990년대에 많은 기승을 부렸습니다. 유럽 연합까지도 적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이야기하고, 바코드와 연관시키기도 하고요.

이런 관점은 근본적으로 성서의 묵시문학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묵시문학은 현대의 극단적인 난해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혹은 초현실주의 추상화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지만, 더 궁극적인 예술가의 경험을 말하고 있잖아요? 뜬 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상을 통해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역사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당대의 역사도 있지만, 미래의 역사도 있어요. 종말론적인 미래의 역사죠. 종말론적인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에서 하나님의 현실들을 진술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거나 바다 속에서 용이 튀어나온다고 하는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은 역사를 정확히 훑어 본 어떤 예언자의 놀라운 문학적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오늘날에도 요한계시록 기자가 처한 삶의 지평에서 역사를 해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거기에 가면 생명수가 사시사철 흐른다고 나오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사실처럼 설명하더군요. 어린이들은 거기에 혹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겠어요? 계속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상에 가서도 맛있는 거 먹고 재미나게 살기 원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극단적으로 좋아지는 최고의 복지 국가를 원하세요? 어른이 되면 더 이상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번으로 족해요. 전혀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묵시문학적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새로운 역사에 대한 희망인 거죠.

계시록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종말에 가서 완성되니까요. 묵시문학이라는 모판에서 자란 기독교의 역사 이해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기독교의 역사관이예요.



세계관이죠. 세계의 흐름이 역사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현실 안에서 역사를 볼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부족한 걸 보충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 제25강

### 민중신학에 대해

오늘은 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낮에는 좀 더웠습니다. 대구샘터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치고 친교 식사를 한 뒤에 교회 옆에 있는 숲을 단체로 산책했어요. 숲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돌면 과수원과 논밭이 나오는데, 그 샛길을 돌아서 저수지 끝을 가로질러 갔다가,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약간 덥더군요. 위의 겉옷도 벗고 와이셔츠만 입고 돌아왔습니다. 경치가 좋았어요. 복숭아 과수원을 지났는데 꽃들이 막 피려고 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팝콘이 터지는 것처럼 꽃들이 나온다고 표현하던데,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갖 종류의 과일 꽃들이 이미 한창 피기도 했고 터지기도 했더라고요. 숲 속에 들어가니까 조그만 앵두나무 꽃이 있었어요. 저는 그 꽃을 잘 분간하지 못했는데, 샘터교회에 그런 걸 잘 아는 교우가 앵두꽃이라고 가르쳐 주더군요. 아주 예뻐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 시간이 우주의 시간 중에서 딱 한 번 주어진 겁니다. 물론 길로만 보면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슷해요. 내년 봄이 되면 또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같은 날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의 4월 6일은 금년의 4월 6일과는 다릅니다. 날씨가 더 따뜻할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같은 날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봐도 이걸 아주 명확합니다. 지구가 45억 년 동안 쭉 진행되고 있으니, 결국은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45억 년 후에 지구가 사라진다고 하면, 그 동안 지구가 나이를 먹어 늙어가는 거니까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신학적으로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기독교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은 딱 한 번뿐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는 가끔씩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새로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저도 다른 별에서 살다 온 사람처럼 이 지구를 경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주일 저녁은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인데요. 올라온 질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말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계속 숙제로 안고 있는 민중신학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그것을 주제로 한 글을 <기독교사상> 4월호에도 기고했습니다. 그리

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설교한 본문에 대한 것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강림이 나온 뒤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은 곳은 바로 그 다음이거든요. 그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강림부터 쪽 연관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지금 우리가 신약성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성서 형성과 역사의 신비(역사성)에 대해 짚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제목만 붙여도 아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방금 물리학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다 역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약성서도 그 현상 중의 하나거든요. 그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 진보신학

제가 신학단상에 올리기도 했고, 〈기독교사상〉 4월호에도 쓴 글의 제목이 “진보신학, 비판적 성찰”입니다. 이 글에서 민중신학에 대한 문제를 짚었는데요. 이건 저의 실존적인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중이라도 혹시 질문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시간 봐서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신입니다. 그 교단을 약칭 기성(基聖)이라고 합니다. 성결교는 기성과 예성으로 나뉩니다. 예성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약칭입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와 예수가 싸운다는 우스개소리가 있어요. 예성이 더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데 기성도 보수에 속합니다. 예장의 통합보다 더 오른쪽으로 치우쳤다고 볼 수 있어요. 기성과 예성이 갈라진 이유는 1960년 어간에 WCC에서 탈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아마 예장에서 통합과 합동이 갈라진 이유도 WCC 문제였을 겁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면서 제3세계 같은 곳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교회가 정서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남아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갈라졌어요. 처음부터 갈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기성도 예성과 같이 탈퇴를 했는데, 결국은 갈라졌어요.

저는 학부에서 서울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 학교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신학교를 갈 때는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 학교가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교수들의 어떤 분들인지 전혀 모르고 가는 거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목사가 추천하는 곳으로 그냥 갑니다. 제가 그 때 성결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서울

신학대학으로 간 거예요. 어쨌든 기성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러나 제가 일반적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목사들, 즉 대구 경북지역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목사들은 대개 좀 진보적이에요. KNCC의 인권위라고 있어요. KNCC는 WCC와 연관된 단체인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 인권위에 속해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목협이라는 단체도 있는데요.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의 약자입니다. 양쪽 모두 한국을 대표하는 진보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결교회 목사들 중에 이런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거기에 들어갔느냐고요? 글썄요. 왜 거기 들어갔을까요? 이런저런 연유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의 신학적, 신앙적 정서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가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에서 부회장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이미 인권위 대표 회장을 할 때도 지냈는데, 고사했습니다. 다른 할 일도 많은 데 책임을 맡으면 시간이 쪼들리니까요. 미안한 마음이지요. 이런 일들이 무거운 짐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일임하고 이름만 걸어 두는 정도입니다. 꼭 내가 참여해야 할 경우는 물론 참여하지요. 제가 속한 교단의 뿌리는 보수적인 기성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단체에서 활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활동하면서 조금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 진보 쪽에 있다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에서 당파성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당파성이에요. 이걸 당파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계열이라고 할까요? 민주노동당에서 평등파와 해방파인가요? NL과 PD, 무슨 뜻이죠? 하여튼 그 사람들이 나누는 것처럼 말이에요. 진보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톨레랑스가 더 많아야 하지 않겠어요? 역사의 진보와 미래를 내다보고 일치를 내다본다면 작은 차이 정도는 극복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걸 극복하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보수적인 사람들은 더 할지도 모르죠. 한국교회에 교파가 백 몇 십 개로 갈라져 있는데, 갈라진 교파들이 거의 보수에 속해 있어요. 예상 합동측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에서도, 본인들은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3자가 볼 때는 별로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없는 그것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그 안에 알력 관계도 많습니다. 제가 진보 쪽에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꼴인데요. 그래도 이런 문제는 극복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진보적이라면 훨씬 더 큰 관용의 자세로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정신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말만 진보지 그 중심은 전혀 진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L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

인데요.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민주투사입니다. 지역의 대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무슨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진보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지,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사람의 한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런 것 자체가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새마을금고 여사무원들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많이 절약했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순수익을 많이 올렸다고 해요.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속이 좀 불편했습니다. 진보라면 늘 안에서든 밖에서든 인간의 정의, 평화, 인간의 인간다움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거든요. 사회를 향해서는, 남을 향해서는 정의롭고 평화롭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면서, 자기 이권이 걸린 문제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 형식으로 인건비를 낮춘 것에 대해 자랑한다면 안과 밖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게 많습니다. 사회에서는 정의나 평화를 외치면서도, 진보 인사이자 목사인 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가부장적인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사회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왜 집에 들어가면 아내에게 폭군처럼 구느냐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작은 차이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분들과 같이 연대를 하면서도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게 인간의 한계다. 그래도 좋은 뜻을 갖고 역사 진보를 위해 활동하면 좋겠지.’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중 메시아니즘

“진보신학, 비판적 성찰”이라는 글은 저의 실존적 고백에서 나온 겁니다. 민중신학이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은 민중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중 메시아니즘! 제 생각에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민중이 역사 진보의 주체가 과연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민중들의 현주소거든요. 그러니까 민중은 결코 역사 진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민중이든 그 반대의 개념으로 엘리트든 다 인간일 뿐이죠.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인간,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민중신학이 인간인 민중을 이상화함으로써 기독교의 메시아니즘을 세속화했다고 봅니다. 성서가 보는 인간, 즉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하고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도그마가 훨씬 더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이자 아주 심층적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 청의론은 바울, 루터, 칼뱅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이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도대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선거를 해야 할지, 말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비아에 젊은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글을 올리고 하는데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는데 입 다물고 있습니다. 별로 희망적이지 않아서요. 기독교 신앙은 죄론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는 비판론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본다는 면에서는 낙관론이기도 하죠. 비판론과 낙관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인간만 본다면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기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민중신학을 비판한 겁니다. 왜 민중들에게 희망을 거냐고 말이죠. 민중을 의식한다거나 돕는다는 것은 그냥 묵회, 하나님 나라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민중신학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민중신학이라는 말을 붙이자면 민중 메시아니즘에 근거해야 하거든요. 민중이 주체적으로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니깐요. 이게 과연 가능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서가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심층적인 인간이해라고 생각해요.

민중은 기회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하면 부도덕한 대통령도 선택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된 한두 가지 일만 보더라도 이 분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실증은 없어도 심증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 이야기는 제가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중들에게 다 공범의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졸부 근성도 있어요.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대중심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 민중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제가 지금 세속적이고 물량적이고 이기적이고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다만 그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죠. 저를 포함한 이런 민중에게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나오기 힘들습니다. 교회 스스로도 구원의 공동체로서는 불가능해요.

민중신학과 구별되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죠? 이게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홍정수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베짜는 하나님』(조명문화사)을 썼는데요. 감리교신학대학은 종교다원성을 강조하는 성향이 있고, 한국신학대학은 민중신학이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정통신학을 극복하자는 점에서는 비슷한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홍정수 목사님 등이 보이는 태도와 근본적이고 보수적인 대중적 목사님들이 보이는 태도가 제가 보기엔 비슷합니다. 양쪽 다 포퓰리즘이예요. 홍정수 목사님 쪽에 있는 분들도 기독교의 정통신학이 뭐가 중요한가, 청중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민중들, 대중들, 종교 소비자가 중요하니까요. 소비자가 왕입니다. 소비자 맞춤형의 기독교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정통교회를 비판하지만, 그 내면에 작동하고 있는 심리적 기제는 정통교회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열린 예배 같은 미국식의 값싼 실용주의 기독교가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죠.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보수주의라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니까요. 저는 일반적인 대중 교회를 말한 겁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극과 극 같은데, 사실 포퓰리즘이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민중에게 눈높이를 맞추니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같은 걸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복음이 상품이 됩니다. 상품 포장만 잘하면 잘 팔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책도 상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담이지만 독일에서 나오는 신학 책들은 표지가 단순합니다. 단색으로 정말 촌스럽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하나 직접 보여드려야겠네요. 보세요. 제가 번역한 판넨베르크 책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고판이죠. 몰트만의 책도 있는데요. 이 책 제목은 『하나님의 오심』이고, 부제는 그리스도론적 종말론이예요. 몰트만을 세계적 신학자의 반열에 올려놓은 대표작이 『희망의 신학』(대한기독교서회)입니다. 이 책은 그가 희망의 철학자인 블로흐의 책, 『희망의 원리』(열린책들)를 읽고 신학적 대안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은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 뭐를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그것도 좋은 책입니다. 종말론이예요. 마르크시즘도 종말론이거든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르크시즘을 세속화된 기독교의 종말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향한 이야기들이고, 성서가 이미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요. 기독교 2천 년 동안 종말론이 중요하게 다뤄질 때도 있었고 약간 소홀히 다뤄질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는 종말론이 약화됩니다. 교황청을 중심으로 탄탄한 체계를 가진 질서로서의 교회라면, 종

말이 오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도스토예프스키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그런 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종말론은 사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도, 현실에서 교회가 막강해지면 종말론이 약화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는 종말론이 없잖아요. 있어 봐야 다미선교회가 이야기했던 휴거가 고작이죠. 그런 방식의 종말론은 시한부 종말론이기도 하고 신화적 종말론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종말론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실종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종말론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가 너무 강하니까요. 방금 제가 예로 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대심문관의 러시아정교회처럼 재림한 예수를 쫓아 보내고 교회 자체가 재림한 예수처럼 교권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한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말은 안 해도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말론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공부해야 할 문제입니다. 신학자들이 그걸 붙들고 있어요.

몰트만이 처음에 종말론을 썼는데, 나이가 들어 쓴 책도 종말론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 투박해요 색깔이 별로죠. 한 색깔로 바탕에 깔았어요. 세계적인 명저인데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책이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내용은 형편없는데 그냥 갖고 싶어 하도록 책을 만드는 것 같아요. 복음도 그렇게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모두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데, 그래도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민중신학에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양쪽 모두에게서 보이는 포퓰리즘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민중신학 동지들에게 민중을 이상화하지 말고 조금 내려놓고 기독교 정통신학, 기독교의 근본을 붙들자고 시간 있을 때마다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그쪽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변절했다는 식으로, 혹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드물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분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성서 주석

그 다음에는 오늘 설교한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설교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베드로 설교가 나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국제성서주석』(한국신학연구소)을 참고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일단 교회력에 따라서 성서 본문을 찾아 읽어요. 그 다음 성서 주석을 한번 읽고 난 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윤곽을 머릿속에 그린 다음 글을 써나



가죠. 글을 쓰면서 윤곽이 바뀌기도 하고 다시 깊어지기도 합니다.

성서 주석을 보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설교해온 사람이 무슨 성서 주석을 보느냐, 성서 본문만 봐도 딱 설교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서 주석을 보지 않고도 설교할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주석을 보지 않고 설교하면 더 쉽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은 강의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다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과의 소통이 더 잘됩니다. 청중과 내가 만나는 지점에 들어가서 말이 걸길로 나가지 않고 거기에만 치중하면 되거든요. 설교도 그렇게 하면 사실은 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중 설교자들은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요. 아마 하더라도 한두 시간이면 끝날 겁니다. 저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몇 편만 하면 되잖아요. <리더스다이제스트> 유의 책에서 감동적인 예화를 선택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만약 그게 번역이 돼서 신자들이 많이 안다면, 독일어 책이나 영어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몇 개 더 해도 되고, 동물의 세계도 좋죠. 과학 상식도 좋고요. 호기심 갈 만한 이야기를 몇 편 준비해놓고 설교하면 됩니다. 대중 설교자들이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제가 설교비평을 하면서 늘 짚었던 거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설교자들이 입담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게 젊은 목사들에게는 유혹이 되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해야만 신자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신자들은 설교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뻔하잖아요. 그게 예수 잘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건 다 아니까, 재미있게만 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자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목사들이 자꾸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 방식들도 점점 상품화가 되어갑니다. 값싼 실용주의 쪽으로 자꾸 나가요. 그게 목사의 영성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청중들의 책임도 아주 많습니다. 청중들을 그렇게 만든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냐고 한다면 저도 목사로서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바른 것을 전하더라도 청중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결국 그 책임이 목사들에게 있기는 한데, 이미 엮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몇 몇 목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한다고 해도 다시 주워 담기는 어렵습니다.

개신교는 이미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로마가톨릭교회는 엮질러진 물까지는 아니에요. 거기는 전체가 하나의 큰 틀로 나가기 때문에 몇몇 신부들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체하면 되거든요.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면서 해결합니

다. 이게 가톨릭을 흡입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가톨릭은 시스템이 받쳐 주기 때문에 상처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요. 개신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처음에 잘못된 것은 목사이지만, 이미 전체가 그 방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이 새롭게 뭘 해보려고 해도 그런 사람만 골탕 먹지 실질적으로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청중들이 원하지 않으니깐요.

저도 요즘 제 설교를 동영상으로 올립니다. 다비아를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읽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조심스럽게 합니다. 조심스럽다기보다 신경을 좀 쓰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면 오히려 설교가 쉬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청중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강의는 청중들에게 하는 겁니다. 큰 방향만 잘 정해놓고 청중들과 호흡만 잘 맞추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설교는 청중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죠. 설교하는 사람은 그 자신도 성령이 하는 말을 듣고,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시인들을 가끔 예로 들었는데요. 시인들이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시를 씁니까? 그렇게 하면 가짜 시인들이죠. 시인들은 시적인 영감에 충실합니다. 목사도 신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탁이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신탁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청중들을 향해서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청중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서 텍스트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해도 별 뾰족한 설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서 주석은 꼭 필요합니다. 성서 텍스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가 큐티식 설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많은 경우에 성서 텍스트로 들어가는 작업은 하지 않고 적용만 하거든요. 적용은 제발 그만 두자는 겁니다. 신자들을 성숙한 사람들로 믿고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좀 내버려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서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자는 거죠. 성서에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거든요. 돌고래가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아름답죠. 설교자가 영적인 수영을 하고 있으면, 청중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죠. 어쨌든 성서 텍스트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수십 년을 설교하고 살았어도, 성서 텍스트 앞에 서면 아득합니다. 과연 성서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가 하는 점이 어렵기 때문이죠. 대답이 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서 주석을 보는 겁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삶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게 영성입니다. 성령과의 소통 속에서 얻어지는 삶의 태도가 영성이거든요. 그런 태도를 일종의 구

도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그것이 존재론적인 목회 태도이기도 하고요. 또 구원론적인 것이기도 하고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사실 청중은 목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에는 어폐가 있어요. 목사가 청중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는데 청중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목사의 영적인 시각은 청중이 아니라 성령을 지향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목사 스스로가 성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상하죠?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면서도 얼마든지 목사 할 수 있어요. 여기 선생님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이면 모두 수학을 잘 아나요? 공식 몇 개 알고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뿐이죠. 물론 선생님이 따라 수준 차이가 있겠지만,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알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이비도 많아요. 잘 몰라도 아는 것처럼 행세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정말 속된 표현으로, 환장할 일이거든요. 신자들이 거기에 껌벽 넘어가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요. 성서가 말하는 몇 가지 용어들을 이야기하고 청중들의 심리나 정서에 강한 자극을 주면 신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목회를 하면 목사 자신이 영적으로 더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 챌 수 없어도 자기는 다 아니까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설교를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제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도사처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도사여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본도 안 되니까요. 설교자가 되려면 아주 고도의 신학이 필요한 거냐고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도의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도 기본적인 자세만은 갖춰야 한다는 거죠.

### 헨헨의 사도행전 주석

제가 보는 주석은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는 이 책입니다. 에른스트 헨헨(E. Haenchen)이 쓴 사도행전 주석입니다. 신학의 역사에서 사도행전을 주석한 책만도 수백 권입니다. 유명한 학자들이 쓴 책도 많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그걸 다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저는 주로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나온 『국제성서주석』을 보는데 저자가 여러 사람입니다. 그 중 사도행전은 두 권으로 번역되어 나왔어요. 두 겹입니다. 두 권 각각 580 쪽이네요. 이런 책을 꼼꼼하게 읽는 것도 공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읽어도 많이 배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한 부분을 읽어 드리려고 지금까지 틈을 들였습니다. 오순절 사건에 대해 주석한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누가의 오순절 사건 보도를 마치 그리스도교 선교의 시작을 사실 그대로 전달해주는 기록영화처럼 보려고 한다면, 누가의 이 보도는 오해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는 이 보도에 함축되어 있는 본질적인 신학적인 진술에만 관심을 국한시켜야 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임재하여 그들을 다스리며 이끌어 나가는 성령은 그들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다. 그리고 그 성령은 국가와 민족의 장벽을 초월한다는 것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신학적 진술이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곧 이어 베드로가 예루살렘 저잣거리에 나가 설교를 하는데요. 헨헨은 이런 것들을 초기 기독교 선교의 기록영화처럼 생각한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보도를 오해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많은 경우에 설교자들은 이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보도를 사실인양 전제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될 수 있는 일처럼 강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람 소리나 불을 보게 하고 방언을 하게 합니다. 저잣거리에 나가서 전도나 선교도 하게 하죠. 성서에 나와 있는 일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신앙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게 성서 텍스트를 오해하는 데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들입니다. 사실 이것만이 아니예요. 구약으로 가면 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성서에 나온 것을 다 사실처럼 말하기 시작하면 기독교 신자들은 세계관에서 모순이랄까, 혹은 이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듣는 말과 세상에 나가서 듣는 보편적인 진리가 상반되니까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상반될 수 있겠지만, 사실 전반적으로는 상반될 게 없거든요.

오늘 헨헨이 지적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읽어 드렸습니다. 성서의 내용은 기록영화가 아니라 신학적 진술이라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2천 년 전에, 정확하게 기원후 80-85년 사이에, 이미 유대 기독교는 역사에서 사라졌고 바울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이방 기독교가 세계 교회사에 주류로 등장합니다. 그 때는 지난 시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이방 기독교가 중심이 된 그 때에 누가라는 역사학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 신학적 진술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평신도들도 신학 공부가 필요해요. 고도의 신학적 훈련이 아니라 신학적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 그 영성을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없이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이고, 믿기 힘들어도 믿어야만 한다는 강박 관념 속에 빠지는 것을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심리학입니다. 오늘 여기 인용한 글에서도 나오죠. 성령은 우리의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을 심리 작용으로 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인격적 존재예요.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신격입니다. 페르소나(persona)예요. 그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생명의 힘, 진리의 힘, 종말론적인 힘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한국교회 신자들은 성령을 자기 내부에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리나 정서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요. 실컷 울면서 기도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그건 교회에 나와서 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제가 설교비평에서 다룬 분들이 36분인데요, 정통 교회에서는 두 분이 가장 질적으로 나쁜 설교를 하더군요. 연세중앙교회의 윤석전 목사님과 부산 수영로교회의 정필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분들은 폭력적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오히려 파괴하는 힘이 강해요. 성령과 악령은 제가 보기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제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경솔하게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다비아에서 오랫동안 대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설교를 듣고 속이 상해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드립니다. 글에서는 조금 약화시켜 썼지만, 설교를 듣고 읽는 순간에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자기가 맡은 학생들을 끌고 탐방 다니는 전도사들을 보는 것도 기가 막혔고요.

신학적인 마인드는 전혀 없이 그냥 성경 말씀만 읽고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확신만 생기면 그만이지요. 여러분, 자기 확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억지로 믿을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죽을 때까지 불신 혹은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걸 모조리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믿겠다고 하면, 광신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의심이나 회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의심되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런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내 운명을 맡긴다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면 돼요. 뒷일은 그분이 알아서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신학인데, 한국교회들은 그게 두려우니까, 아예 그쪽으로 발 디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성서형성과 역사의 신비는 다음에 하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 국제성서주석

질문이 올라왔네요. 질문하신 분은 신학을 전공한 분 같은데요. “『국제성서주석』을 읽어 보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읽으면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칼 바르트의 책을 읽으면 손에 잡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6, 7급의 바둑을 두는 사람이 프로 기사가 두는 바둑을 보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옆에서 누가 다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국제성서주석』은 바둑으로 치면 최고수들의 바둑 시합입니다. 우리가 프로 기사의 수를 이해할 수 없으면 아무리 봐도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려고 신학교에 가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죠. 신학교를 잘 나왔으면, 성실하게 공부했으면, 그리고 좋은 선생을 만나서 그런 훈련을 충분히 받았으면, 역사비평 등 인문학적 훈련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종말론을 이해하겠어요? 종말론이 이야기하는 이 세계에 대한 해석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신학 책을 읽으면 진짜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학 공부를 해야 해요. 그것도 꾸준하게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칼뱅 주석이 어떠냐고요? 좋습니다. 바르트 주석도 마찬가지고요. 그 때는 아직까지 역사비평적인 성서 주석이 연구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더 좋아요. 역사비평 이전의 작품들이니까요. 그들은 역사비평을 거치지 않아도 근원을 뚫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좋은 책들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칼뱅과 바르트 책을 읽어도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것만큼 보인다는 명제가 여기에도 해당되는 거죠. 거기에 이르는 뾰족한 길, 왕도는 따로 없습니다. 바둑도 5급, 4급, 순서대로 올라가듯이, 여기에도 비약은 없어요.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꺼번에 정상은 못 올라갑니다. 어디쯤 올라가면 그 다음이 보이죠. 차근차근 올라가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도 그렇고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와 같은 영성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당장 생기겠어요? 아닙니다. 세계를 이해하는 것만큼 그런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 뒷부분에도 썼지만, 성만찬과 세례 같은 것은 생명과 죽음의 궁극적 문제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큼 세례 의미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틀림없어요.

한 주간도 잘 보내세요. 오늘은 마음이 가쁩합니다. 왜 그런지 알죠? 매주 월요일 포

항 와이에서 하는 갈라디아서 성경공부를 지난주에 마쳤거든요. 이제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해방이에요. 대신 이제 다른 걸 좀 해야겠습니다. 설교집은 5월말 쯤 나올 겁니다. 열심히 교정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태까지 설교를 중심으로 강의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시 정리해서 책으로 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책으로 내야할 원고들이 있어요.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그것들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편히 주무십시오. 행복하고 편안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제26강

###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서의 기적이고, 둘째는 기도입니다. 말하다보면 다른 주제로 들어오겠지요. 둘째 대목은 주로 중보기도에 대한 건데요. 그리고 제가 관상기도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있었는데, 관상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충 설명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할 주제의 분량이 딱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깊이와 폭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구요. 기적 이야기만 다룬다고 해도 한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까지 다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기적이란 무엇인가

성서에 나오는 기적에 관해서 다루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대강 눈으로 저의 책장을 둘러봤는데, 이사한 다음에 책장을 다 정리하지 못해서 눈에 들어오지 않네요. 요즘 책 찾는 일이 점점 귀찮아져서요. 2007년 5월에 하양에서 이쪽 진량으로 교회를 옮겼으니까, 벌써 꽤 많이 지났거든요. 그때 제 연구실도 같이 옮겼습니다. 하양에서 있을 때는 나름대로 분류를 해놓았어요. 성서신학, 영성에 관한 것, 조직신학, 바르트, 몰트만 등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필요한 책을 손쉽게 골라낼 수 있었는데요. 이쪽으로 오면서 이삿짐 센터에 맡겼는데, 그 때 많이 헝클어졌어요. 그래서 그 책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못 찾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중에 찾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비아 사이트 어느 메뉴에 들어가도 있을지도 몰라요. 검색창에서 추천도서를 치면 각 분야별로 괜찮은 책들을 올려놓았을 겁니다. 그건 아주 일부인데요. 제가 직접 읽고 확인된 것만 올려놓았으니까 그 책들은 안심하고 읽어도 될 거예요.

질문하신 분이 초자연적 기적에 대한 저의 설명을 대체적으로는 따라갈 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것들은 그 당시에 화산폭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겠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두 가



지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동정녀 탄생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언젠가 이야기한 적도 있고, 제가 글로도 썼으니깐 찾아보세요. 판넨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에도 이 단락이 있습니다. 우선 이 주제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서의 진술을 일반 교회에서 역사적 사실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서 텍스트의 보도가 사실은 자연적인 사건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게 제 관점인데요. 예를 들면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에서 메추라기는 그 당시의 철새들이고, 만나는 지금도 미디안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꽃 씨앗이라는 거죠. 그런 자연적 현상을 그 당시 성서 기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서 기자들이 잘못했다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자연적 현상 앞에서, 일반적인 먹을거리를 앞에 놓고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흘려보낸 것을 유대인들은 광야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허락한 특별한 은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리산에 살고 있는 정원주 님이 요즘 『소피의 세계』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한 문장을 인용해주었는데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빠져서 삶의 경이로움을 놓친다고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의 경이로움,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인이고 예술가이고 영성가이고 신비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놓쳐버리고 사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성서 기자들은 일상적이었던 만나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묘사하고 있는 상당 분량의 성서 텍스트들은 자연적인 현상이었다고 본 거죠. 그건 하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반적 현상이 아닌 사건들인데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죠. 물론 지금 남해인가, 서해안에서는 만월이 될 때 바다가 갈라진다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홍해 사건은 갈대 바다, 늪지대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는데요. 그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큰 능력으로 갈랐다고 하는 것은 성서 기자의 문학적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다 정리를 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두서가 없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세요. 하여튼 성서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여러 유형이라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성서에도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나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심지어 구약성서에는 태양과 달까지 멈춘 것처럼 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적의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천사들이 등장한다거나 사탄이 나와서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

기 때문에 기적으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그런 것들을 몽둥그려서 하나의 객관적인 팩트로 이야기하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정통적인 해석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구석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한국 기독교의 정통주의는 일반적으로 복음주의라고 부릅니다. 그건 정확한 게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통칭되고 있어요. 그들의 성서해석이 바로 전통적인 성서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성서관이지만 달리 말하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성서가 잘못 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서가 정말 초자연적 기적 그 자체를 말하려고 했던 거라면 그것이 아무리 오늘날의 자연과학적인 근거에서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문제는 성서가 과연 그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성서가 정말 동정녀 탄생을 말하려고 했던 것인가? 성서가 과연 부활을 말하려고 했던 것인가? 물론 동정녀 탄생과 부활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질문한 분이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동정녀 탄생과 부활에 대해 성서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집어내지 않거든요. 둘 다 기적적인 사건 같은데, 왜 다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하는 신앙 교육이 심층적 깨우침이라기보다 암기 위주의 단순한 학습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진리의 세계로 스스로 들어가게 하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교회의 교육은 교육이라고 볼 수 없죠. 일방적인 세뇌에 가깝습니다. 어떤 교리나 성서에 대해서 진리의 차원에서 서로 대화 가능한 교육이 별로 없을 걸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주입식으로 학습 받은 모든 내용들이 저의 글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 복음주의에 대해

많은 이들이 복음주의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합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이 복음주의의 정체가 뭔지, 이걸 좀 말해야겠어요. 저는 이 복음주의라는 말 자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음주의자들인데, 편을 갈라서 스스로 복음주의자라는 용어를 독단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지 않아요. 우리 의(義)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들은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많은 그리스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편을 가르기 위한 준거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분이 언짢은 거죠.

한국에서는 복음주의를 에큐메니컬과 대립해서 사용합니다. 한국교회사에 대해 말할 시간은 없는데요. 하여튼 이 복음주의자들은 에큐메니컬을 자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유주의도 아니고 근본주의도 아닌 복음주의라고 말해요. 말은 잘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아마 한국에 자칭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 신학에 대해 딱딱히 않게 생각할 겁니다. 옥한흠 목사님이나 그 교회 후임자인 오정현 목사님 등, 제가 설교비평을 했던 분들은 대다수 복음주의자들일 겁니다. 요즘 스스로를 근본주의자라고 하면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복음주의자들의 신학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려고 앞 시간에 잠시 책을 봤어요. 이 책을 아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한국장로교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장로교출판사라고하면 통합측인가요? 기장측인가요? 하여튼 번역서인데요. 이 책을 쓴 분이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입니다. 아주 학구적이면서도 복음적인 열정도 많은 분이죠. 영국 분이데, 신학적으로 믿을 만한 분입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으로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일찍부터 출중한 학자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분이라면 정말 열려진 복음주의자로서 대화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여기서 복음주의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복음주의는 성서가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치고 성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극단적인 자유주의자 빼고는 다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관건이겠죠. 복음주의는 인간의 문화보다는 성서의 권위를 주장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신(新)정통주의와 흡사합니다. 신정통주의는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룬너(Emil Brunner) 등, 변증법적 신학을 했던 독일의 신학 운동을 말합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강조하던 문화와 종교성으로부터 성서의 권위로 돌아간 신학 운동이에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개혁자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신정통주의는 17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신학의 이론화, 즉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체계화 하고 이론화 한 정통주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인 종교 개혁의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복음주의는 종교개혁, 신정통주의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화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여기에서 크리스트센트리시즘(Christocentrism)이 나타나는데요. 바르트 신학의 냄새가 물씬 납니다. 그리스도 중심주의, 기독교인 거죠. 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저도 설교는 그리스도론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마디 하자면요. 복음주의의 특징이 크리스트센트리시즘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살자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그게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칭의론의 측면에서 볼 때, 윤리 도덕은 의로워지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업적이나 선이 중심이 아니거든요.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읽어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령의 주권입니다. 저도 성령론적 설교가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복음주의자죠. 여기에 은사주의가 나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차이가 나요. 계속 들어보세요.

네 번째 특징은 개인적 회심의 필요성입니다. 개인의 회심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 회심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사람은 자기 개인의 어떤 심리적 불안감, 혹은 죄책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심이라는 사건을 개인적인 차원에 두기 보다는, 즉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회심의 관점보다는 세계관의 전환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좀 생각이 다릅니다. 세계관의 전환이 회심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거죠.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재림하고 세계를 판단하고 진리와 비(非)진리를 구분하고 온전한 생명이 드러나는 세계를 이룬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세계관으로 변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의 전환이 회심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개인적인 회심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세리들을 향해서, “너 그거 잘못했으니까 당장 때려치우고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회개(메타노이아)하라. 돌아서라. 하나님의 통치가 문 앞에 와 있다.”라고 그 사람의 영적인 관심을 돌렸던 거예요. 회심이 그런 방식이라면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방식으로 어떤 도덕적 회심, 개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식의 회심에는 동의하지 못해요. 저도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고, 복음주의 교단에도 속해 있고, 거기서 공부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복음주의자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한계들과 함께 그 단점들까지도 안고 가려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맥그래스가 말하는 개인적 회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는데요. 맥그래스가 개인적 회심이라고 말했지만,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이것을 다른 식으로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말했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설령 그가 정확하게 말했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을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개인적 회심이라는 개념이 고정된 게 아니니까요. 제가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뭘 잘못했다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자기감정에 빠지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매일 교회에 오면 열린 예배다 뭐다 해서 울고불고 자기만족감에 빠지다가, 밖에 나가면 여전히 부동산 투기하고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것은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저는 세계관의 전환(paradigm shift)을 회심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창조론의 관점에서도 옳아요. 결국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한 인간의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복음주의자들은 개인의 결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의 결단이 무의미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과연 그것이 중요한 거냐고 과격하게 말한 거예요. 개개인의 결단보다도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에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론적 완성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는 방식 앞에서 우리가 놀라고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의미의 찬양(doxology)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끊임 없이 작아지는 무화의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것은 순전히 우리 개인의 경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인격적 만남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과연 무엇을 인격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신학적으로만 주님을 알 뿐,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주

남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일지도 모르겠군요. 그 문제는 더 자신 있게 말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좀 접어두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인격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가 모호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에요. 인간과 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격입니다. 하나님 고유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 고유의 본성으로 이 세계를 통치하고 우리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은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결코 한 가지 색깔로 말할 수 없어요. 햇빛이 그냥 보면 하나지만 프리즘을 통과하면 일곱 가지 빛깔로 나뉘진다고 하죠? 그러나 사실 햇빛이 일곱 가지는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따지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에 가깝습니다. 광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어떤 공식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뜨거움, 결단, 자기 잘못에 대한 공개적 뉘우침, 평안, 사명감 등이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신앙적 결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사과를 하나 같이 먹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이걸 먹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사과 맛을 인격적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과 장사를 하겠다, 여기에 목숨을 걸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강의 중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을 하셨군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누군가 회심을 change of mind라고 설교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어느 봄날의 눈뜸’으로 표현하던데, 어떻습니까?” 그건 아주 문화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한다면 통일교 신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들의 표현이야 가지각색이니까 그 자체로는 우리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의 인격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가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신천지 교회에 간 사람들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나까요. 삶도 변화되고 우울했던 사람이 우울증에서도 벗어나고 말이지요. 저는 그런 것들도 기독교 안에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배제하고 개인적인 회심을 신앙의 중심으로 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머리만 굴리고 말만 잘하면 그만이지, 결단이나 교회에 대한 봉사도 없이 냉랭한 상태에 있어도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복음주의의 다섯 번째 특징은 네 번째 특징과 연결되는 것으로 복음전도의 우선권입니다. 대학생선교회(CCC)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사영리를 들고 전도하는 것을 긴급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요. 맥그래스가 복음주의 선봉자로 빌리 그래함을 꼽더군요. 빌리 그래함이 복음전도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 쪽입니다. 책을 읽다가 이 부분에 재미있는 게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에 이걸 말하면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로 하고 끝낼까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책을 찬찬히 같이 읽고 내용들을 해석하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세계 신학이나 교회 운동, 선교 운동 등과 꼭 연결해서 공부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빌리 그래함이 1954년에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유니온신학대학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유니온신학대학의 윤리학 교수로 있었던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가 빌리 그래함의 신학적 무지와 순진함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신랄하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니버는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와 형제지간이고 기독교 현실주의자예요. 하여튼 이 사람이 표현한 게 좀 재미있어요. 니버가 말한 겁니다.

빌리 그래함은 사교성이 있고 겸손하며 매력 있는 젊은이로서 다소 불합리한 유형의 기독교 신앙과 상당히 정열적이고 선동적인 재능을 잘 조화시키고 있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의 폭넓은 사회문제에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가치가 없어 보인다. 그의 메시지가 어떤 가치가 있다면 30여 년 전 전국을 매혹시킨 빌리 선데이의 메시지가 지니고 있었던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는 이 정도의 진보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된다.

그 당시에 시사적인 상황을 잘 알면 더 재미있겠는데, 그 때 빌리 그래함이 좀 젊었나 봐요. 좀 냉소적으로 비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빌리 선데이는 뭔가요? <윌리엄 에슬리(빌리) 선데이(William Ashley(Billy) Sunday, 1862-1935)는 프로야구 선수로 지내다가 기독교로 회심했으며,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복음 전도자였다. 녹취자 주> 도색 잡지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비판을 보고 맥그래스는 라인홀드 니버에 대해 비판을 했어요. 그건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지금까지 다섯 가지를 했는데, 정리를 해야겠네요. 복음전도의 우선권도 제가 다 설명을

안했군요. 이걸 좋다고 봅니다. 이 책에서는 맥그래스가 빌리 그래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빌리 그래함이 부시의 백악관에 들어가서 이라크를 침략할 때 기도해 주지 않았나요? 무력으로라도 이라크의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복음주의자들의 순수성이라고 해야 할까, 하여튼 그런 점에서 조금 실망이 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주의자들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초교파적이고 에큐메니컬하다고 쪽 썼네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으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맥그래스가 복음주의의 매력이라는 부분에서, 복음주의가 정통 기독교라는 말을 하면서 월로우크릭교회를 대단히 좋은 복음주의 교회의 대표 격으로 꼽고 있더군요. 이 교회의 예배당은 전통적인 교회 장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강단도 없고, 전통적인 성직자의 예복도 사용하지 않지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있다고 말이죠. 영국의 기독교 간행물인 <가이드포스트>는 1989년에 올해의 교회로 월로우크릭교회를 선정하면서, 영원한 진리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소개하는 교회라고 전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 말쯤에 월로우크릭교회의 목사님이 자기가 행했던 목회와 예배 방식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는 글을 썼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목을 어느 분이 올려주셨습니까. “Reveal: where are you?”(2007년 말) 맥그래스는 복음주의를 너무 좋게만 말하려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맥그래스는 훌륭한 신학자이자 복음주의자이고 영성 집필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뜻으로 소개한 겁니다.

제일 처음에 맥그래스가 제기한 세 가지 문제는 복음주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신교 신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약간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것은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개인적 회심, 복음전도, 공동체 말이예요. 저는 전혀 복음전도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CCC나 빌리 그래함 방식의 전도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방식의 전도가 과연 필요할까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간접선교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미시오 데이’(Missio Dei) 개념이기도 한데요. 선교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그 선교에 도구로서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소극적인가요?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른가의 차원이 아니라 복음주의 신학자가 말한 것과 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적인 것뿐입니다.



## 달과 손가락

오늘 복음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갔네요.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것은 기적의 문제였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기적은 결국 기적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무엇을 가리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손가락처럼 말이죠. 그 기적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은 이 기적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반면, 저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봐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전도와 개인적 회심에 대해 말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꼭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맥그래스가 말한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이 세 가지는 칼 바르트의 신(新)정통주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두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점에서는 맥스래스는 신학적인 노선에서 칼 바르트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맥그래스가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바르트가 개인적 회심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갈라지더군요. 제가 왜 중간에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제가 아무래도 신정통주의자 같아요. 맥그래스가 말하는 복음주의를 따라가다 보니까, 상당 부분에서 그래요. 맥그래스가 라인홀드 니버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잖아요? 니버도 신정통주의자거든요. 신정통주의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놓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축소시켜요. 반면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을 확대했습니다. 신앙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가능성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것을 비판할 때 복음주의자들이 신정통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의외로 복음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더군요. 이게 좀 미묘합니다. 개인적 회심, 인격적 결단, 영접 같은 것들은 결국 인간론이거든요. 그러나 신정통주의는 그것마저 넘어서려고 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배척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닿고 있어요. 바로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말이죠. 탕자를 자꾸만 회심시키려고 하잖아요? 결국 그건 인간의 문제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의 가능성 측면에서 인간을 부각시키려고 했다면, 이 복음주의자들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관점, 인간의 불가능성 측면에서 인간을 부각시키려고 해요. 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 배척되는 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한흠 목사님이 인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의교회가 계속해서 도덕적 주도권을 회복하자고 주장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은 자유주의적 발상입니다. 도

덕적 주도권이 어떻게 인간에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강조점을 두다니요? 비록 복음주의라는 무늬를 가지기는 했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극과 극이 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보수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는 분들의 목회 형태를 다 싸잡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향을 보니까 인간적이라는 거죠. 제자 훈련이나 셀 조직 같은 것도 완전히 공산당에서 뭐 묶어서 하는 것처럼, 아주 조직적으로 인간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일 아니냐고요? 그렇게 말한다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인간의 가능성으로부터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주도권, 하나님의 종말, 심판, 하나님의 구원에 몰입합니다.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반발로 20세기 초에 신정통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이전에 경건주의나 대각성 운동 등도 많이 있었어요. 이 복음주의는 근본주의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주의는 1920년대에 메이첸(Machen), 맥킨타이어(McIntyre)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났고요. 이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주의자들이 세계 문화를 부정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고수하니까, 이것을 비판하면서 세계 변화에 책임을 갖자고 사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복음주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 신학의 인간론적 착상이 복음주의자들에게 계도 묻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적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문제는 다음 주일에 보충할게요. 왜 기적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여기로 왔는가 하면요. 성서를 보는 관점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서에 기술된 기적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고대인들은 기적의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고대인들의 세계관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시를 읽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동정녀와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27강

### 교회란 무엇인가

반갑습니다. 며칠 전 저녁쯤인데 집에서 차를 세우려고 했어요. 아파트에 보면 주차할 수 있도록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지는 않았고 좀 어스름한 분위기가 돌 때였습니다. 두 대의 차 사이에 자리가 비어 있어서 조심스럽게 몰고 들어갔어요. 딱 세워 놓고 옆을 봤죠. 차 간격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고요. 그런데 살짝 보니까, 왼쪽에 있던 차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차 주인이 차를 뺀다고 생각하고는 내가 잘 맞춰야겠다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사고 나겠다 싶어서 제가 빨리 내려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눈을 앞으로 돌리니까 내 차가 천천히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엉뚱한 경험도 하네요. 우리가 가끔 기차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타고서 출발할 때 경험하는 건데요. 이걸 착시라고 하냐요? 정말 저는 깜빡 속았습니다. 정말 옆에 있는 차가 뒤로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는 바로 제가 차를 세우면서 경험했던 그런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이 부정확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의미가 없다거나 무질서하다거나 별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계, 생명, 경이로움의 크기에 비해서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이 너무 하잘 것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계와 생명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 칭의의 현실성

요즘 제가 다비아 사이트 목상 코너에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가는 만큼 가다가 그치겠죠.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칭의와 구원의 현실성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문제를 제가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관계로 과연 그리스도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짚고 있는 부분은 죄 문제인데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의로워진다고 하는 초보적인 기독교 교리를, 주는 그리스도

라는 명제 속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각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학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제대로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신학생들도 신학적 사유를 맞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신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신학을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해 주는 그리스도라는 명제를 두고 죄, 칭의, 성화를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완전한 대답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의 가르침, 도그마, 교리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저도 신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들은풍월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신학적인 사유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설교하고 학생들을 지도했어요. 그래도 교회는 잘 됩니다. 신학적 사유 없이도 목회가 가능한 풍토, 그게 전부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신학 없이 목회를 해도 늘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자기가 가는 길이 본질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조명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것도 없이 목회의 노하우(knowhow)만 알고 있어도 목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의 심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최근 며칠 동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앞으로 며칠 동안 더 말하고 싶은 핵심은 칭의의 현실성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법적인 의미라고 이미 말했고요. 그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기독교의 고유한 구원 이해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들은풍월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칭의론의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칭의론의 현실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우주론적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현실, 칭의의 현실, 하나님의 현실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것을 말로만 해서는 전달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길이 없으니 말을 해야죠. 하나님의 현실을 일종의 화두로 붙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낱말 뜻으로만 알아요. 그러나 낱말 뜻만 아는 것과 그 개념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 지평, 세계, 현실, 그런 말들은 서로 통하는 단어들이에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표현할 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지평, 개념, 현실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풍부해져야만 하나님의 현실성이 와 닿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을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음악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존재론적 깊이가 있는데, 그 소리는 천지 차이로 들립니다. 제가 음악

을 잘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통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 식으로 설명한다면, 언어가 말을 한다고 하는 그 세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현실 등이 우리의 온 영혼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칭의, 구원, 종말, 사랑, 하나님의 나라, 회심과 같은 것들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아주 리얼하게 와 닿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한 것과 다시 연결하면, 하나님의 현실은 우주론적 생명의 깊이를 아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비아 큐티에 며칠 후에 나가게 될 거예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내 차가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나는 옆 차가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세계가 그만큼 오묘하고 경이롭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초등학교생들에게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경험한 것 밖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어린아이일 때는 대개 어머니의 세계만큼만 압니다. 아니면 초등학교 선생님의 눈높이 밖에는 세계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사춘기가 지나면서 인간, 세계 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면서 점점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건데, 다른 군소리가 많았군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기독교의 ‘형태와 본질’과 연관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인데, 우린 선택을 잘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타종교를 백안시 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폐쇄적이고 퇴행적이고 자폐적인 자기 독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주론적 생명의 깊이와 하나님이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어요? 지난 2천 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많이 걸어갔고요. 그런 흔적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신학자들, 영성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철부지가 아니라 철이 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공부의 일환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뭐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문만 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기독교의 개론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거죠. 그러나 조금만 더 가면 신학적인 어떤 깊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해야겠죠. 개론이라고 해서 너무 우습게보지 말고 기독교 신학 전체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 공부에 마음을 기울이도록 합시다.

##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기독교의 형태와 본질이라는 대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

체로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구분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교회의 본질을 말합니다. 바르트 식으로 말하면 승리의 교회이죠. 이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고 종말론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신앙은 종말에 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 전체, 창조와 종말, 알파와 오메가니까요. 알파와 오메가란 말도 많이 들었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이 말도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와 역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과 끝, 이것 전체를 놓고 기독교 신앙을 끌어간다고 하는 관점이에요. 처음부터 종말까지 역사 전체가 하나님이니깐요. 이미 마지막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제 설교의 주제도 그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한 겁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면서도, 아직은 역사 안에서 잠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아닌 패배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시각은 이미 종말에 승리를 얻었다고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 시각은 당연히 있어야 하며,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종말론적 시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우주론적인 하나님의 전체 세계이자, 승리의 교회이며, 영적인 교회의 본질을 뜻한다면, 보이는 교회는 실제로 우리가 꾸려 나가고 있는 역사 안의 공동체, 신자들의 종교 형태를 가리킵니다. 승리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은 불변하고 영구적이지만, 교회의 형태는 가변적이고 한정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승리한 교회라고 한다면 보이는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신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현재 보이는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로서 아직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에클레시아 쉴퍼 레포만다’(Ecclesia semper reformanda), 즉 항상 개혁하는 교회를 외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승리의 궁극적 교회를 향해서 개혁하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본질적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현실의 교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불가시적 교회가, 인식론적으로는 가시적 교회가 교회의 토대이고 기초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존재의 차원이라면 보이는 교회는 인식의 차원이라는 거죠. 이 두 요소는 구별되면서 상호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규정입니다. 교회의 형태(보이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보이지 않는 교회)을 드러내며,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형태를 규정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교회의 형태, 즉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형태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의 본질을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 예배 공동체

교회의 형태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종교행위와 의식의 문제로서 예배와 관련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의 조직입니다. 목사, 장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종교행위로는 여기에 나온 대로 예배, 기도, 헌금, 성찬식 등을 다루겠습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질문한 관상기도도 이 항목을 다룰 때 짚어 볼게요. 그리고 교회조직으로는 목사, 장로, 당회, 여성안수만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종교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배, 기도, 헌금, 성찬식인데요. 오늘은 상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예배야 긴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경건한 행위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워스'(Worth)라는 단어에 어미 '십'(ship)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바친다는 뜻이죠. 독일어로는 고테스던스트(Gottesdienst), 즉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예배학 시간에 하는 내용 들인데, 다 말하지 않고 간단한 방향만 설명할게요. 우리의 예배는 유대 교회의 회당 전승과 예수님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성만찬 전승이 하나로 집결된 종교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회당 전승에 해당하는 것은 성서 읽기, 찬양, 기도 등이고, 성만찬 전승에 해당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우리의 구원, 형제애의 회복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전통에서 본다면 기독교 예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설교와 성만찬이죠. 개신교는 주로 설교에 초점이 있고 로마가톨릭은 성만찬에 초점이 있는데요. 사실 두 개 다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둘 다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설교는 보통 들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들리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성만찬은 뭘까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자 자기 노출이니까, 설교와 성만찬이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개신교에서도 성만찬을 예배 때마다 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샘터교회에서는 지금 한 달에 한번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요. 아쉽기는 하지만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매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격주로 해도 좋고요. 설교와 성만찬, 이 두 가지가 교회 예배의 핵심

입니다. 돌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으로서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예배에서 잘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doxology) 것은 최고의 가치를 모두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경건한 행위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드러내는 예배가 되려면, 어떠한 예배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 2천 년 동안 반성한 결과가 예전입니다. 여러분이 로마가톨릭의 미사라든지 루터교회나 성공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 예전이 살아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개신교회의 자유로운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은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를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권위적이고 정적이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개신교 예배나 가톨릭 예배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속한 개신교에서 반성해야 할 점들을 말한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기보다도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신교는 예배의 주체가 사람, 청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청중들의 은혜를 추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들 말하죠? 그거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참석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강의할 때 제사와 예배를 비교해서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가 감동을 받으려고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조상들에게 예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에도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종교적 메타포, 혹은 상징들이 담겨 있어요. 말이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지만, 제 말의 의미는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자칫하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명분일 뿐, 실제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혼이 집중되던가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건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줌이 쭈서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한국교회에 열린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예배를 죽이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열린 예배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온누리교회 예배를 인터넷으로 몇 번 들어가 보고 참관기를 <기독교 사상>에 게재 했는데요. 다비아에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열린 예배는 앞에서 가운데 입지 않은 성가대원들이 예배 시작 전에 몇 십분 동안 감미로운 복음 찬송



을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열린 음악회’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더군요.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전과 연출에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 예배를 연출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예배 요소에 사람들의 심리를 사로잡기 위한 동기들이 다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형식적이더라도 예전적 예배로 돌아가는 게 결국 은혜를 받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대개 은혜를 심리 작용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상쾌한 노래를 들으면 즐겁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가서 실컷 개그맨 같은 농담이나 듣고 스트레스를 풀고 와서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함정이죠. 일반 사람들은 그 함정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 쪽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우리 자신도 찰나적이고 육감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수성을 자극하는 세속 문화에 깊숙이 물들어 있으니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TV 드라마에 빠져 버리고, 저녁에도 통속적인 멜로드라마에 빠져 사니까요. 통속적이란 말을 무조건 나쁜 뜻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치정에 얽혀 있는 드라마에 빠져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예전적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늘 판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을 묶어내기 위해서 나온 하나의 방식이 열린 예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데 정신 팔지 않고 몰입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묶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감각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루하니까요.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신데,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였던 정진홍 교수님이 아주 오래 전에 온누리교회의 열린 예배에 참석하고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작은 음악회 같은 것들을 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예배가 세련되지 못한 열린 음악회 수준이라는 겁니다. 나름으로 흥내는 내려고 무던히 애를 쓴 것 같은데 교회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자신은 교회에 안 가고 전문적인 연극을 보든지 음악회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얼굴도 좀 화끈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오늘날 예배가 우리에게 이벤트가 됨으로써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반성하고 원래의 취지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지루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2천 년 기독교 역사가 구성하고 제시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가장 바람직한 예배의 모습이니까요. 개인의 심리적 영성에 머물지 말고 2천 년 기독교 역사의 영성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예배에서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말할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목만 짚어야겠네요. 한국교회는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하나의 종교적 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의무로 생각하는지는 제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성수주일을 입에 달고 살죠. 그러나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의무화시키고 있어요. 둘째는 예배를 주술화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복을 받을 것처럼 말하죠. 그래서인지 한국교회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참 많습니다. 의무이기도 하고 참여하면 복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는 차원에서 수십 종류의 예배가 개발된 것 같아요. 그런 예배들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예요.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를 남발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번만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자세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그 다음은 기도인데요. 오늘은 기도까지 해야겠군요. 기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겁니다. 성서에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고,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기도하라고 했구요. 초기 기독교도 어쨌든 기도 공동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2천 년 동안 계속해서 많은 영성가들, 교회 지도자들,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했어요. 칼 바르트도 신학의 첫 기본적인 행동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이 어떻게 신학,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주의 신학입문』(크리스찬다이제스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에 관한 한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오라 에트 라보라’(Ora et Labora). 이러한 법칙은 어떤 경우에도 타당하다.” 기도하고 일하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 수도원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표어가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수도사들은 기도와 노동, 이 두 가지를 다 했거든요. 수도사는 기도와 노동을 했어요. 도로테 쾰레(Dorothee Soelle)의 『사랑과 노동』(한국 신학연구소)도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통찰력을 줍니다.

일반 평신도들도 신학 책을 좀 읽어야 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국 기독교 출판 시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은 정말 의미 없는 책들이거든요. 『게으름』 같은 책들 말이에요. 규장에서 나오는 책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너무 쉽게 읽

고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책들을 냅니다. 다비아는 평신도 신학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여러분도 신학 책 좀 읽어야 합니다. 도로테 쾰레의 책들을 같이 읽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다비아 오프 모임이 서울에서 매달 한 번씩 모이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모여서 이런 책도 읽고 논의도 하면 참 좋겠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누가 발 벗고 나서야 오프 모임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바쁜 세상에 나설 사람도 없고요.

수도원에서 하는 일들이 신학에서도 똑같습니다. 칼 바르트의 『복음주의 신학입문』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런데 생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졸릴 겁니다. 신학생들도 이런 책들은 읽기 힘들어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신학생들이 신학 책을 읽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요.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이 클래식 음악을 듣기 싫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못하니까요. 음대에 다니면서도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걸 듣는 게 지루한, 숙제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듣고 리포트를 내는 것에 불과한, 이런 현실이 신학교에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게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전반적인 인문학의 난맥상이 신학에도 미친 건지, 아니면 신학만의 문제인지 말이지요. 하여튼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바르트의 말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신학이 하늘을 향해서 난 문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너무 진부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이라는 단어, 이게 메타포죠. 바르트가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또 그것과 상반된 개념이 무엇인지, 과연 하늘로 난 문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면, 바르트의 책은 심심하고 지루한 설교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다른 사람과 똑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일상에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자기를 절대화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자기가 한없이 낮아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수요일에 샘터교회에서 하는 시편공부 모임이 생각나네요. 수요일마다 어거스틴의 기도 한 편을 읽고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그 시간이 15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시편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읽어가고 있어요. 그걸 한 30분 정도 합니다. 어제는 시편 7편을 했어요. 그 때 공부한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당하는 일들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양값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할 때만 기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확인하고 설득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이

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상하게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교만해져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부분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는 다 알고 있죠?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하고요. 'Again 1907!' 이런 기도도 하고요. 뭐가 잘 되게 해 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기도들을 해요. 겉으로는 아주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바리새인의 기도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이상하게도 그 자체가 업적이 되어 버려요. 나는 열심히 뭘 좀 했다, 비전을 가졌고, 열심히 헌신해서 인도에 교회를 세웠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다른 교회를 도와주었다는 식으로 업적이 되고 맙니다. 이건 교양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속에는 교만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점에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고, 특별히 원죄까지 언급합니다. 저는 죄의 경향성, 죄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떼어 낼 수가 없다고 봐요. 도를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양 강좌를 많이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금욕이나 자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상하게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자기의 의가 되어 버립니다. 죄가 뭔지 아시죠? 성서가 말하는 죄는 자기에 대한 집중, 자기 의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나는 아무것도 간구할 게 없다.'고 하면서, 입 딱 다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마디만 했어요. '키리에 엘레이송'이죠. 우리는 이 비유를 수없이 읽고 듣고 설교를 하는데도 다시 바리새인의 기도로 돌아간다니까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뭔가 하기는 했는데 우리의 영성은 늘 제자리예요. 이 문제는 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기도, 낮춤의 영성

기도는 우리의 실존이 완전히 흠쳐림 되어, 흠쳐림 아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어디에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만 참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아주 깊은 경지에 도달해야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일상적인 기도

를 하더라도 그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 여실히 알아야 합니다. 밥 한 그릇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마땅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분의 전적인 배타적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밥 한 그릇을 놓고 드리는 일상적인 기도지만, 이것은 우주론적 사건인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일상이 심화되는 것이고, 아주 작은 개체에 불과한 우리가 전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때 우리가 자신의 이해타산에서 점점 벗어나 성령에 의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성숙이기도 하고, 바울의 가르침대로 한 과정으로서의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노력마저도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력 자체가 믿음의 문제니까요.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 노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문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비주의자들, 영성가들, 올바른 신학자들, 성실한 목회자들, 성령과 늘 소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기도는 그런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거의 되었는데요. 정작 기도에 대해서 해야 할 말들을 많이 못했습니다. 헌금과 성만찬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사실은 한 시간이 아니라 두 시간 정도 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두 시간을 하기에는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보충을 하는 거니까 그걸로 어느 정도 위로를 삼아야겠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흔히들 잘못하는 기도에 대해 하나는 짚어야겠네요.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기도를 해서 누구를 깨우치겠다는 식으로요. 장로님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거 많이 해요. 심지어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린이들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학생들이 예배드릴 때 떠들지 않게 해주시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훈계예요. 이런 식의 기도가 일반 어른들을 대상으로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저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기도를 드릴 때는 가능한 대로,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성문 기도, 즉 글로 써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유로운 기도가 많아서 기도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하소연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누굴 책망하기도 하고, 은근히 기도로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을 치기도 해요.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누

구를 치듯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배우자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기도문을 읽고 외우는 거예요. 시인이 되려면, 좋은 시를 읽고 외우는 게 제일 좋은 공부거든요. 영적으로 성숙했던 분들의 기도문을 읽고 외우는 작업이 한국교회에 시급하다고 봅니다.

관상기도에 대해 대답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까먹지 않고, 또 시간이 가능하면 다음 주일 저녁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비아 신학 단상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2004년 9월 15일에 쓴 글이 있습니다. 기도 문제만 하더라도 말할 게 많아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고 했으니까 성령의 문제와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주기도문이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바람직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기도 문제만 하더라도 모든 신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인 거죠. 다음 시간에 뵈겠습니다.

## 제28강

### 기도에 대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사이먼과 가평클의 노래 중에서 두 곡을 선물로 들려 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그걸 듣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들의 노래 파일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 글을 본 어떤 분이 파일을 보내 줘서 잘 듣고 있습니다. DVD도 보내준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월 20일이군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주변에 색깔들이 바뀌는 걸 보면 마술의 세계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경이로움 혹은 신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참 아름답다, 괜찮다고 느끼는 것과 그 사태 속으로 두 발을 딛고 들어가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정확히 훑어보면서 자기와 일치되는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게 영의 성육신, 신앙의 일체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 세계를 그렇게 경험하는데요. 우리는 실존주의 철학과는 좀 다르지만, 현상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 경험이 자연주의자의 넉넉함과 신비주의적 통찰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창조론과 기독론, 부활론과 종말론에 연관될 수 있는지 그 맥락을 잘 찾아가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할 해야 하는데요. 한국교회가 신학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죠. 심지어는 그게 필요 없다고까지 생각해요. 신학이 없어야 오히려 믿음이 더 공고해진다고 말이죠. 이걸 착각 중에서도 정말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주관적인 확신에 불과한 거거든요. 믿고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주체는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늘 종속변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말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사유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의 계시를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나’, 또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수영할 때 말이죠. 자신이 억지로 물에 뜨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물에 가라앉아요. 물에다 완전히 자기를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

서 자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유하는 나는 남아 있지만, 그 사유마저도 진리의 영에게 온전하게 의존하는 겁니다. 그걸 말로만 해명하기에는 힘이 들고, 제가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상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하기는 어렵는데요. 그래서 어렵풋하게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만 좋은 계절은 아니죠. 늘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계절이 있는 지구 안에 던져져 있어요. 그 속에서 나 자신이 먼지처럼 작아지지만 동시에 우주처럼 확대되고 있어요. 우리가 작아질수록 우주론적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발을 내딛는 거니까요. 여기에 긴장이 있고 변증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변증법은 부정과 긍정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부정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생명의 깊이로 확대된다고 하는 것에 기독교의 영성이 있는 거죠. 요즘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놀라운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최소한 자연주의자들만큼이라도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텐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기독교 신앙은 일단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것은 상식들을 전제로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탈근대라는 뜻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을 말할 때도 모더니즘(modernism)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뼈대가 되는 근대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해체주의나 다원주의로 빠진다면, 토대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대화나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신학단상에 마르틴 루터와 뮌처(Müntzer)의 농민 혁명을 배경으로 글을 썼는데, 거기에 정세웅 목사님이 댓글을 주셨기에 저도 그에 대해 댓글을 달았는데요. 거기에서도 깊은 내용이지만, 해체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울어진 분들은 인격적이기도 하고 세련되어 보이기도 하는데, 자연주의적인 성향도 많아 보입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도 있고 신학자도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비평을 하면서도 늘 경험했던 거지만 완고하고 근본적인 입장에 있는 설교자들이나, 거꾸로 아주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설교자들이나 모두 성서와 진리의 객관성에 관심이 부족하더군요. 그들 모두에게는 청중들에게서 나타나는 종교적 현상이 중요해요. 일종의 진리 상대주의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상들은 진보 쪽이나 보수 쪽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포스트모더니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려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계 이해, 주객도식까지 일단 깊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대가 사유하는 주체와 사유되는 대상을 구별하려고 했고, 객관적 진리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것을 추구했던 겁니다. 물론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그걸 바탕으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모더니즘은 그런 방향으로 끝어가는 존재론적인 힘들을 전제로 했던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것보다 훨씬 더 존재론적입니다. 청중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국교회는 진보적인 입장이든 보수적인 입장이든 양쪽 모두 포퓰리즘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다를 뿐 실체는 같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청중들이, 민중들이 뭐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절대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한다는 게 맞겠죠. 기독교 신앙은 진리의 영인 성령을, 진리의 객관성을 전제로 하고 시작합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바람처럼 움직인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세상이 창조될 때의 ‘루아흐’(רוח)나, 신약의 ‘프뉴마’(πνεῦμα) 등을 우리는 인격적인 분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론과도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과 똑같이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와 대립된다는 뜻입니다. 그 신, 그 하나님, 그 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독립적으로 그분의 구원 섭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그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진리의 영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를 전제로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상대화 되고 맙니다. 민중들이 원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독교의 근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의 여러 철학과의 사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으나 그르냐는 그 차원에서 논쟁해야 할 문제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 2천 년 동안 기독교 신앙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사회과학 쪽으로 떨어지거나 심리학 쪽으로 떨어져서 기독교를 말한다는 것은 기본 토대가 잘못된 거죠.

다른 이야기가 많았네요. 요즘 계절이 좋아서 약간 오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이 아니라 지구는 늘 좋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이 세계 안에 피투된 존재로, 피조물로,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주 생명과 연관이 있는지를 세세하게 촘촘히 알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앙 공부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제게 가끔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담도 있고 다른 부탁도 있어요. 일일이 제가 다 대답하지는 못합니다. 다비아의 사랑채에 올려야 할 글들도 개인적으로 제게 질문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서 메일을 받았어요. 이런 호소입니다. 자기 아내가 다비아를 들락거리고 나서부터 교회 구역장이나 그 밖에 교회에서 맡은 일들에 굉장히 소홀하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 생활하던 자기 아내가 교회에 거리를 두게 되었다, 건축 헌금이나 십일조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잘 했던 것 같은데 관심도 없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면서 조언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다비아가 공연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핑계거리를 주는 해방구가 될까봐 염려도 됩니다. 그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구구절절이 하지는 않았습시다. 현재 그 부부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만약 그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라면 다비아를 통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다비아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문학적 성서 읽기를 모토로 하는 다비아 운동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참 난감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 기도를 배우자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형태를 다루면서 기도까지 말했습니다. 기도를 배우자고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들이 자유 기도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유롭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지만,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지다 보니까, 근본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기도를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하기보다는 일정한 형식의 성문 기도를 드리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드렸던 기도문을 많이 읽고, 더 나아가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는 마치 신앙의 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시인이 되면 좋은데요. 시인이 되려면 좋은 시들을 많이 읽고 외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문들을 많이 읽고 외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를 쓰듯이 고상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주 정제된 언어로만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진솔하고 자기 영성이 담겨 있는 기도를 자신의 일상적인 말로 드리는 기도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드리기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떤 기도형식의 매너리즘에

묶여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에도 모두 형식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기도문을 읽고 외우고 배워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를 좋게 꾸며서 드리자는 게 아니라, 강요된 기도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시인이 시를 쓰듯이 우리의 영적 내면에서 우러 나오는 기도를 드리자는 겁니다. 시인은 남의 시를 읽기는 하지만, 표절은 안하잖아요? 그 시인만의 고유한 특성들이 시에 나타납니다. 그게 창조성이거든요. 미술이든 음악이든 다 그래요. 물론 좀 훑내내보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훑내도 내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한 진리의 존재론적인 토대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는 훑내를 내거나 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의 존재론적 힘에 의존하게 되면, 성령은 정말 자유로운 영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말을 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예로 들었는데요. 베토벤은 자기가 작곡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소리를 그대로 악보로 그려낸 겁니다. 그냥 그 소리를 따라 적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토벤의 영혼 속에 울려났던 그 소리는 베토벤의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존재론적 힘이었던 거죠. 제가 존재론적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요. 그 단어가 어떤 개념인지는 여기저기서 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좌우할 수 없는 스스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네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려면 노장 유의 글이나,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사회종교학 혹은 사회심리학 같은 책이 도움이 되고, 하이데거의 책도 좋습니다. 많은 시인들의 시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의 세계라고 할까요? 하나를 알면 모든 걸 한꺼번에 확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점진적인 것 같아요. 꾸준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닫혀졌던 세계가 조금씩 열리는 거죠. 수십 겹으로 막혀 있는 커튼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겁니다. 한 장을 벗겨내면 조금 밝아지고 또 한 장을 벗겨내면 또 조금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수백 수천 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장만 벗겨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 장 스무 장을 벗겨내면 조금 밝아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한 장도 벗겨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를 벗겨내고 뒤를 깨달았다고 해도, 그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걸 더 벗겨내야 한다는 생각도 없고요. 벗겨내고 알아간다는 게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사람은 주어진 틀 안에서만 살아가면 아주 편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성령과의 영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해 아주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성령론적으

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죠. 그와 비슷한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요.

어떤 깨달음은 우리가 막무가내로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인 그분과의 소통에서 가능합니다. 이런 말도 좀 추상적이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거나 신앙생활에 매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도 매일 주어진 방식에만 매달린다면 철부지가 되고 말잖아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세계관이 넓어지면서 세계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계속 철부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마마보이처럼 살아도 사는 거니까요. 자기 엄마와 아들은 굉장히 친합니다. 자기들은 거기서 소속감을 느끼고 만족해요.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개입할 수 없으니까 둘은 즐겁죠. 신앙생활도 그와 흡사한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쪽으로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를 의탁적으로 만들어야 속된 표현으로 관리하기가 좋거든요. 서로 독립적인 주체적 사유, 여기서 주체적이라는 말은 스스로 성령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런 사유를 하게 되면 성도 관리가 좀 어렵죠. 성령 충만이라는 말들이 교회에 난무하지만, 실제로 한국교회에는 성령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반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기도를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가

제가 앞 시간 언젠가 기도에 대한, 특별히 관상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전하지 못해서 다비아의 신학단상에 나온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글을 참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기를 바라구요. 그 글에 나온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만 인용하겠습니다. ‘절대타자’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대상은 절대타자입니다. 절대타자는 20세기 중반까지 개신교 신학을 대표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어른인 칼 바르트가 한 말입니다. 물론 그가 처음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이미 신학계에서 알려진 개념인데, 바르트에 의해서 이슈가 된 거지요. 라틴어로는 ‘토탈리터 알리터’(totaliter aliter)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데어 간즈 안더레’(der ganz Andere)라고 합니다. 바르트가 이 용어를 말하기는 했지만 바르트 혼자만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이것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주장한 인간의 가능성과 낙관론적인 역사 이해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불연속적이고 접촉점이 없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브룬너와 바르트의 논쟁에서도 많이 나와요. 19세기는 이성과 낙관의 세상이었습니다.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인간을 잘 교육시키면 괜찮은 인간이 되니까, 이 세계가 휴머니즘이 가득한 세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바르트는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가 내세운 신학 용어가 절대타자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절대타자라는 개념이 독창적이기는 하지만, 바르트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알았겠어요? 이미 기독교 역사 안에 전승된 신학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기도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인간이어서 절대타자인 하나님과의 사이에 접촉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말과 생각을 전할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될까요?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우리는 유한하고 일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전체로 존재하거든요.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있는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전체로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전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7-80년 산다고 해도 순간순간 사는 것이지, 전체를 동시적으로는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니까 하나로 사는 거죠. 굳이 비교해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절대타자인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신학단상에서 조금 짚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필요가 없고요. 참고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판넨베르크의 설교집 『믿음의 기쁨』에 기도에 대한 설교가 두 편 나옵니다. 하나는 시편 143편을 중심으로 한 “기도”라는 설교이고, 다른 하나는 디모데전서 2장 1-6절을 본문으로 한 “기도에 대하여”라는 설교입니다. 그럼 먼저 시편 143편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보겠습니다. 1960년 5월 9일 부퍼탈 신학교의 아침 기도회 때 행했던 짧은 설교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군요. 그 소주제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점은 우리가 어떤 토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소원을 비는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그 한 가지 하고요. 둘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은 본문에 따르면 시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죠. 모두 그걸 경험할 겁니

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한다는 것은 판넬베르크에 의하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다른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어둡습니다. 대답해 달라는 우리의 요청에 분명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인 신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에게서 직접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환청일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대다수가 환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목소리를 내서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응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판넬베르크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판넬베르크의 설교집은 정말 좋습니다. 개신교를 대표하는 조직신학자의 설교가 어떤지를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전부를 읽을 필요는 없고,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앞에 했던 설교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설교는 1973년 부활절 후 다섯째 주일에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올바른 간구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소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관계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기도는 역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즉 자기만의 빵과 용서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것을 간구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판넬베르크가 성령론의 차원에서 기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그 뜻을 실천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소원이라는 우리 자신만의 좁은 울타리를 뛰어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훨씬 더 많은 감사와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초월하게 만드는 영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맺어주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일상에 있는 사소한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필요를 모든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필요가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실 때 우리의 모든 필요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과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을 간구하는 것에 집중됩니다.

## 관상기도에 대해

지난 시간에 나온 관상기도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답하지 못하고 이 시간으로 미뤘습니다. 제가 관상기도를 잠깐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 항목을 쓴 은명교회의 그 목사님은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마이스터 엑크하르트의 책도 번역했는데요. 그분은 마주 대한다는 뜻의 관상(contemplation)기도를 세 가지로 말하더군요. 첫 번째는 마음의 평정, 두 번째는 고요의 기도, 소리치지 않고 고요하게 하는 묵상기도이고, 세 번째는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황홀경이라고 하면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아마도 이 마지막 단계가 관상기도의 목표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무아의 지경까지 올라가는 황홀경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말한 삼층 천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에는 언어도 필요 없고, 자세도 필요 없어요. 기도문 같은 건 더 필요 없을 거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영과 온전하게 일치가 되는 그런 상태, 완전히 초월적인 황홀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관상기도는 역사가 깊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덮어둘게요. 그런 기도는 기본적으로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그 쪽으로 기도 훈련이 잘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일상에서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많기는 합니다.

관상기도에 대해 두 가지만 말하자면, 하나는 이게 마인드 컨트롤과 비슷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더군요. 복잡한 걸 다 잊고 고요한 곳에서 황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영적 현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기독교 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오히려 뉴에이지 쪽으로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가면 이런 가능성이 열릴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학 교수 한 분이 국선도 사범 자격증을 뒀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국선도를 했는데, 수년 동안 하다 보니 상당한 경지에 올라간 거죠. 이야기를 좀 들어 보니, 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운동시켜서 모든 신체가 완전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운동이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정신적이기도 해요. 가만히 앉아서 속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한 1-2분씩 완전한 자기 몰아의 경험을 한답니다. 그러면 정말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해요. 관상기도에서 경험하는 이 황홀경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마인드 컨트롤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신학 공부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꾸 신학 공부를 입버릇처럼 달고 다녀서 미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 대학에 가야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서가 말하는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의 구원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황홀경에 빠진다면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문선명 같은 사람들도 그런 황홀경에 많이 빠졌을 거예요. 소위 도사라는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기독교 영성의 경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황홀경을 영성의 최고 극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철저히 성서적이어야 하거든요. 성서는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초기 기독교의 신앙을 담아낸 것이고, 그것을 해석한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야만 우리가 단순히 인간의 마음을 평정하게 만들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영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뉴에이지적인 신앙은 잠재의식을 계발해내는 것인데,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이런 것과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끔 기독교 TV를 보는데요. 며칠 전에 보니 특별 강연이다 뭐다 해서 온갖 종류의 연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웃음과 기독교’라든가, ‘기독교 신앙과 웃음’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더군요. 사자가 아기를 갖게 된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웃었다, 그게 가소로운 웃음일 수도 있고 피식하는 웃음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정말 웃게 되었다, 그러니 웃자, 웃으면서 승리하고 웃으면서 병 낫자고 하더라고요. 수백 명의 신자들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거든요. 아주 변죽을 울리는 건데, 물론 그런 식으로도 기독교 신앙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니까요. 이런 관상기도도 아주 세심한 신학적 영성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악령의 차이는 종이 한 장입니다.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천사와 악마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존재론적인 힘이니까요. 그게 성령의 모습을 할 때도 있고 악령의 모습을 할 때도 있는데, 이걸 구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악령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기의 심리나 욕망을 축소하고 기독교의 2천 년 역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독교 영성도 개인 영성이 아니라 역사가 더 중요해요. 2천 년 역사 속에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흔적들이 다 녹아 있거든요. 그들도 부분적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바른 길로 흘러왔습니다. 또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신앙의 세계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보다도 우리 개인의 영성, 개인의 경험 등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간증도 많고요. 순식간에 악한 영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좀 산만했네요.

하여튼 이런 차이를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의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 자체가 조금 지루하거든요. 이걸 정말 공부니까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령 자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작용에 대해서만 말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되었다는 식의 말만 하는데, 그걸 결국 자기 연민에 떨어지고 말거든요. 자기 연민이 강할수록, 그걸 많이 자극할수록 신자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비교할까요? 문학 작품으로 설명해 보죠.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천천히 깊이 읽는 것과 TV에 나오는 드라마 속의 치정 관계나 삼각관계를 보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재미있어요? 물을 필요도 없죠. 우리는 통속적인 것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통속적인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반응에 불과해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삶이 성숙해질 수 없죠. 조금 힘들어도 셰익스피어나 괴테 같은 사람들의 글을 읽어야 합니다. 꼭 서양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동양의 고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는지, 루터가 뭐라고 했는지, 현대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죠. 현대 신학자들의 책은 정말 영적인 책이거든요. 그런 책들은 자기 심리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 전체를 내다보면서 성서에 근거한 성령의 활동에 대해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그쪽으로 나가야 신자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텐데, 교회 자체가 그걸 외면하고 있으니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예전예배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2천 년 동안 기독교가 그런 방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게 녹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개신교가 중구난방 식으로 드리는 열린 예배보다는 예전 예배가 훨씬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예전 예배를 형식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열린 예배에 도취하고 심취하죠. 제가 보기에 오빠 부대들이 음악성이 없는 가수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환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기도문 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려고 했는데 잊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나 여러 글에서 모아놓은 책인데, 성한용 선생님이 엮어서 만든 『성 어거스틴의 기도』(대한기독교서회)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제 기도 문제를 정리해야겠군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관상기도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감정적 발현, 심리적 카타르시스, 내 소원의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섬기려는 우리의 신앙적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를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통치와 계시가 무엇인지, 생명의 깊이가 무엇인지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신앙 전반과 연관된 것입니다. 관상기도와 연관해서 그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인간 내면의 어떤 발현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가능성들을 발현시켜서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학문이 하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상담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심리치로도 필요하니까요. 아니면 사회복지를 향상시켜서 비인간적인 삶을 사회구조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작업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은 세상 학문과 사회 운동이 잘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거나 그 방향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뭘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데요. 하나님입니다. 성령이죠.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걸 말장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말론적 긴박성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속에서 각자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내면적 삶이나 외면적 삶을 개량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량은 좋은 겁니다. 민주화, 복지 활동, 휴머니즘, 그리고 우리의 실존적 내면의 통전성을 회복하는 것 모두가 개량해 나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유전공학을 통한 인간 불치병의 치료들도 다 개량입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개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산해 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역사 패배주의가 아니라 훨씬 더 역동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성서가 많은 부분에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말한 걸 다시 인용한다면, 인간은 피조물로서 던져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점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타자인 하나님처럼 시간을 전체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절대적인 생명을 생산해낼 수 없어요.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나 기독교 신앙의 독단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물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철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끝났네요.

## 기적에 관해

기적과 관련된 책들을 소개해 달라는 분이 있는데요. 다비아에 보면 추천도서 꼭지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책 중의 하나는 『성경은 무엇을 기적이라 부르는가?』(알폰스 바이저, 분도)예요. 그 다음의 책은 추천도서에 없을 겁니다. 『이적』(폴리, 대한기독교서회)이라는 건데요. 진연섭 씨가 번역한 자그만 책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천 년의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학문입니다. 상당히 솔직하고 정직하고 자기 비판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조그만 상식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면 참 경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티기독교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적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한 부분을 읽으려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예수는 이적들을 행했는가? 보수적인 변호가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하나님은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예수는 화육한 하나님이였다. 그는 이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적을 행했다. 그러나 많은 3단 논법처럼 이 주장은 본말을 전도한다. 이 주장은 결론이 있어야 할 선험적 가정에 의존한다. 예수가 화육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예수의 역사와 대면한 후에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단이지 우리가 이 역사에 접근하기 전에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 저자는 우리가 최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고 해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아니다 하는 식의 선험적 선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은 자연적으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의 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기적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전승들을 연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적의 배후를 얼마까지 소급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자신에게까지 소급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 전승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기적 전승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일이 우리가 전승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해석이에요.

## 제29강

### 헌금에 대해

강의 전에 시 한 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다비아 사이트에 올린 건데,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빛-꽃망울'입니다.

당신을 통과하여  
나는 참되다, 내 사랑.  
당신을 통과하면  
모든 게 살아나고  
춤추고  
환하고  
웃는다.  
터질 듯한 빛 —  
당신, 더없는 광원(光源)이  
빛을 증식한다!  
(다시 말하여)  
모든 공간은 꽃핀다!

당신을 통해서  
모든 게 새로 태어난다, 내 사랑.  
새롭지 않은 게 있느냐  
여명의 자궁이여.  
그 빛 속에서는  
꿈도 심장도 모두 꽃망울  
팽창하는 우주이니  
당신을 통과하여  
나는 참되다, 내 사랑.

어떻습니까? 한번 듣기만 해서는 금방 따라오기가 쉽지 않죠? 전문적인 시인이거나 시 읽기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이라면 낭독하는 걸 듣기만 해도 어떤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한 번 들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이 시를 프린터로 출력해서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읽습니다. 우리처럼 시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여러 번 읽어야 이게 와 닿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단어 자체를 따라가기가 힘들고요. 또 그 시인의 시적 영감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에는 단어와 단어 사이를 연계해서 시인이 포착하고 있는 고유한 세계가 있거든요. 시인만의 창조적인 시각이 있는 거죠.

도대체 정현중 시인은 빛-꽃망울이라고 하는 이 시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어렴풋이 세계 와 닿는 것은 있습니다. 첫째 연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오네요. 모든 공간은 꽃핀다! 느낌표로 되어 있어요. 공간 사이에 빛이 있겠죠. 빛이 있어야 꽃이 내 눈에 들어와요. 그건 계속되는 움직임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꽃이 피는 것은 우주의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공간, 빛, 세계, 꽃망울이라고 하는 사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계의 신비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확히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러한 시의 창조 작업이 가능한 것은 이 세계가 어떤 것으로도 결코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건데요. 일단 예술가나 시인들은 그것을 직관적으로 느낍니다. 그게 늘 살아 움직여요. 세계가 살아서 자기에겐 온다니까요. 이 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매일이 똑같은 날이 아니고, 똑같은 나무를 봐도 그 나무가 매일 변한다고 느껴요. 때에 따라서 자기에겐 다르게 전달되는 거죠. 사실 시적 영감이 강하지 못한 평범한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똑같은 미루 나무지만 어느 날은 그게 더 크게 와 닿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게 세계가 말을 거는 건데요. 그게 인간의 감수성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세계가 그렇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시를 읽는 이유는 일단 이 시가 좋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성서를 읽는 것이 시를 읽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를 사실적으로만 읽는다면 미련한 사람 아니겠어요? ‘모든 공간은 꽃핀다.’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시를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서도 시(詩)입니다. 거기에는 시적인 메타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신문 보도로 읽기 때문에 성서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죠. 그게 억지로 설득시켜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교생에게 고급 시나 철학을 이해하라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그 학생 혹은 청중에게 어떤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인식론)을 훈련시키는 게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다른 것은 없더라고요. 대구성서아카데미도 사실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평신도 신학운동이죠.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성서를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식론적 훈련이거든요. 이런 것 없이 다짜고짜 동성애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다고 말해봐야 사실은 반감만 생기고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다비아에 동성애 문제로 갑론을박이 좀 있었는데요. 저도 글을 쓰면서 쇠귀에 경 읽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꾸준히 작업하는 이유는,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다비안들에게 인식의 틀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뭘 가르치겠다거나 계몽하겠다든 차원이 아니에요. 정현중 시인의 빛-꽃망울이라는 시가 다비아 사이트에 있으니까 출력해서 한 번 읽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 십일조 헌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서 벌어지는 종교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조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예요. 헌금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강의안을 참고하도록 하고, 지금은 핵심적인 것만 짚겠습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의 헌금에 대한 열정은 무서울 정도예요. 헌금 뿐 아니라 지난주에 보았던 기도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대한 열정도 강렬해요. 세계에서 우리처럼 열심히 교회에 헌금하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미국처럼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기부하는 것 말고, 일반 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 드리는 헌금 행위만 놓고 본다면, 세계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앞설 거예요. 헌금 종류도 참 많죠. 주일헌금, 구역헌금, 절기헌금, 생일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부흥회 때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요. 별미헌금이라는 것도 있더군요. 부흥회 마지막 시간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별미를 갖다 바치고 축복을 받은 걸 그대로 따라하는 헌금이에요. 그 밖에도 이래저래 내는 헌금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헌금을 열심히 한다는 건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래요. 그런데 이걸 무조건 좋게만 보기가 힘든 이유는 뭘까요? 헌금이 왜 필요한지는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과도한 헌금 행위를 좋게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앞에서 예배를 설명할 때도 말했지만, 이 헌금을 의무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주일성수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하는 게 문제인 것처럼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나 헌금을 율법처럼 가르치는 거죠. 기독교는

율법과 복음의 긴장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존속시키려는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와 대립각을 세웠던 거고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적 모태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늘 복음의 은총을 말하면서도, 주일 성수나 헌금을 법처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복음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틀이나 법, 규칙 같은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가요?

은총과 법의 문제는 뒤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올 테니 여기서는 그만두겠습니다. 어쨌든 한국교회는 예배와 헌금 등을 법처럼 지키지 않으면 큰 일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더구나 그것들을 복 받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율법적인 행태와 기복적인 행태가 주일성수와 헌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동영상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헌금의 문제점들을 짚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짚어야만 헌금의 의미가 바로 살아나니까요. 강의안에는 의무와 복이라고 썼는데, 말하다 보니 더 좋은 단어가 떠올랐네요. 헌금이 교회 안에서 율법적이고 기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더 정확한 것 표현 같아요. 이런 경향은 예배에도 나타나고, 그 밖에 교회 안의 다른 많은 종교행위들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장 단적인 것이 십일조예요. 십일조가 모든 헌금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앞에서 헌금 종류가 많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운영해야 하니까 일단 돈이 필요하고요. 헌금이 많아야 전도 프로그램도 짜고 신자들도 끌어들이 수 있으니까 헌금의 종류를 개발하는 거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과도하게 헌금을 강요한다는 걸 알기는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라도 신자들을 가르쳐야 오늘과 같은 세속적인 세계에서 그나마 기독교적인 신앙을 지켜 나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헌금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헌금의 종류를 만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웬만한 규모의 교회 성도들은 교역자들이 심방을 오면 심방 감사헌금을 하더군요. 그게 교회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심방 온 교역자들의 거마비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체면이 있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교회 중직자들이 안 할 수 없거든요. 차비라는 명목으로 촌지처럼 하는데요. 이런 저런 이름의 헌금들을 다 합하면 신자들이 쏟아 붓는 헌금의 액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여튼 좋은 뜻으로 헌금을 많이 내겠다는 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낸 헌금을 정말 좋은 뜻으로 잘 사용하느냐가 문제겠죠. 헌금을 얼마나 바르게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까지 말해야 하기는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기독교 인터넷 신문에 나온 걸 잠깐 봤는데요. 높은뜻송의교회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공장을 짓기로 했답니다. 교회가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좋은 일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진부한데, 더 나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진보적인 교회보다 오히려 이렇게 보수적이면서 깨어 있는 교회가 사회개혁적인 일에 현금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이 역설적인 현상을 고민해야 합니다.

현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십일조만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율법적으로 강요하는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말라기서나 그 외 여러 곳의 성서 본문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식으로 말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상식만 있는 목사님이라면 이렇게까지 하는 하지 않습니다. 십일조는 한국교회의 전통이니까 그 현금을 좋은 쪽으로 잘 쓰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냥 옛날 방식으로 무식하게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고상한 방식으로 십일조를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형태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이야기는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십일조는 세계 전체 교회에서 우리나라만 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도 복음주의적인 교회나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십일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제가 있었던 독일교회 역시 십일조를 하지 않습니다. 독일에는 호적등록을 할 때, 종교를 적는 칸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개신교인지, 가톨릭인지, 무교인지를 적는 겁니다. 종교가 없으면 종교세를 내지 않습니다. 종교세의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세금의 십분의 일에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득의 십분의 일이 아니라 소득세의 십분의 일이니까, 1년에 3백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면 30만 원 정도가 종교세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가면 현금 시간이 있기는 한데, 펀돈으로 합니다. 제가 유학공부를 할 때 본 바로는 그들은 독일 돈으로 1-2마르크 정도 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일, 이천 원 정도죠. 그런 현금은 주로 자매결연한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트랙터를 사주기 위한 기금 등으로 사용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들은 종교세로 해결하고요.

우리는 나라에서 물론 현금을 원천징수까지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와 비슷하게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모든 현금을 관리해서 모든 교회에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내는 현금이든 작은 교회에서 내는 현금이든 모두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굳이 목사들이 큰 교회에 서로 가려고 머리 디밀고 싸우지 않을 겁니다. 큰 교회에 가봐야 골치 아프고 힘만 드는데요.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문제는 돈이거든요. 교회개혁이든 교회일치운동이든 사실은



모든 게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내고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교회개혁의 중요한 문제인데, 모두가 입 다물고 있어요.

십일조는 구약 당시에 유대인의 삶에서 나온 일종의 종교세이기도 하고 국세이기도 합니다. 그 때는 종교와 국가가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십일조 전승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레위자와 사람들은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가 십일조로 모아서 내는 십일조 종류가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내는 것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실제로 십일조 제도를 얼마나 실행했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제도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실제로 실행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안식년이나 희년도 문서에만 남아 있을 뿐, 실제로 그렇게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니다. 7년마다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리기만 한다면 상당히 정의로운 복지 시스템이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된다면 사회질서가 근본적으로 허물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세비키 혁명이나 북한에서 일어난 토지혁명이 실제로 7년마다 반복된다면,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그 정신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사회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자본 축적이 일어납니다. 잉여생산이 생기면서 결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불의해지고요.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것은 정말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안식일은 비교적 정확히 지켜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도 다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가까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오는 정도였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 년에 몇 번만 갔습니다. 그것도 다 가지를 못했어요. 갈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만 갔습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이에요. 사실 안식일을 성수주일로 몰아붙이면 왜곡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을 지키지 않고 놀러 다녀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놀러 다니는 게 쉬운 아니죠. 정말 참된 쉬를 찾아야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주일이 가장 힘들 겁니다. 그건 안식일이 아니라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십일조와 면죄부

십일조도 유대인들이 처한 특별한 삶의 형태에서 나온 하나의 종교 행위였어요. 예를 들면 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은 삶에서 나온 경험이었거든요. 제가 언젠가 다비아에 ‘돼지고기와 십일조’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아주 건조한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위생 건강이 나쁠 때 고지방 먹을거리를 먹으면 전염병에 취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걸 지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십일조는 지켜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취사선택을 하는 걸까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받아들이는 아전인수인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단순히 십일조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아니라,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꼼수 쓰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십일조를 안 해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게 아닐 뿐 아니라 망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아무리 십일조를 꼬박 꼬박 바쳐도 창고가 넘치도록 축복받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에 나오는 주장은 그 당시에 말라기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럴 형편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가 처한 삶의 형편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거기에 선포된 내용을 그대로 따다가 2천 년도 훨씬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십일조에 얼마나 매달려 삽니까? 그게 정말 기독교인의 자유일까요?

어떤 면에서 십일조는 종교개혁의 빌미가 되었던 면죄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신교에서 통용되고 있는 십일조 개념이, 즉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헌금 행위가 5백 년 전 면죄부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십일조와 면죄부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볼까 합니다. 면죄부만 놓고 봐도 우리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다 좋은 겁니다. 면죄부가 왜 좋은지 압니까? 로마카톨릭 신학의 기본적인 개념에는 천국과 지옥만이 아니라 연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지,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겁니다. 연옥 개념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성서적 배경이 있습니다. 죽은 이후의 세계가 얼마나 다층적이고 복잡합니까?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르잖아요? 이 시간에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말죠. 하여튼 연옥 개념이 있었어요. 연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완전히 구원받지도 못했지만 완전히 지옥에 떨어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연옥에 있는 부모, 친구, 조상들을 위해 면죄부를 사서 헌금을 하면, 헌금이 헌금함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간다고 믿었던 겁니다. 좋은 쪽으로 본다면 면죄부가 얼마나 좋습니

까? 우리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헌금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속된 표현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면죄부를 사는 쪽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면죄부를 파는 쪽에서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 베드로 성당이 몇 백 년이 지난 지금도 가톨릭교회의 구심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국의 개신교도 교회를 많이 짓고 있어요.

우리는 면죄부라고 하면 딱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는데, 십일조라고 하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체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습시다. 루터 같은 몇몇 사람들만이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교황주의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 방식을 통해서라도 교황 중심의 종교적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사제직을 사고파는 일까지 있었는데도, 그 당시에는 그걸 문제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제로 느껴지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조직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가고요. 위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나 오피니언 리더들은 자기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그 방식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한다면 따라갑니다. 뭘 좀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눈감고 넘어가야 그 교회 속에서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죠. 제가 좀 야박하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이 그래요. 조금 무식한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의사, 변호사, 검사, 교수들이 다들 헌금하고 기도하니까, 그게 옳은가 보다 생각하고 따라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면죄부를 사면 자기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헌금은 근본적으로 복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걸 알고 헌금하세요. 잔소리 같죠? 그런 생각이 하도 신자들의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잠재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헌금은 은총의 문제입니다. 은총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에서 가능한 개념입니다. 독일에서는 격년제로 개신교와 로마가톨릭교회가 각각 교회의 날(Kirchen Tag)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1985년이 홀수 해인데, 제가 독일 뮌스터(Münster)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때는 통독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교회의 날을 우리 식으로 바꾼다면 선교대회가 됩니다. 이 행사가 참 부럽더군요. 제가 참석할 때는 뒤셀도르프라는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나 제3세계 지도자들도 많이 오고요. 평신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이슈를 신학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한 일주일 동

안 심포지엄이나 퍼포먼스 등 많은 행사들이 열려요. 연극, 음악제, 강연, 설교, 예배 등이 진행되는데,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돼요. 참 부럽습니다.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해요. 제가 참석했던 해의 주제가 바로 ‘디 에르데 게헤르트 고트’(Die Erde gehört Gott, 지구는 하나님의 것이다)였는데, 그것은 생태 문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따라서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의 조건이 은총이라는 사실을 신자들에게 잘 가르치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잘 이해하면 그 안에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답이 나옵니다.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게 되고, 다소 비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무리하게는 안 합니다. 합리적으로 하는 거죠. 헌금은 자발적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장 좋게는 은총론에 근거해서 해결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최소한 합리적인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안 될 게 없어요. 이 두 개가 서로 긴장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은총론에 근거한 합리적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드러지는 헌금 운영 및 교회 운영이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국 개신교에 그런 날이 올까요? 조금 저는 비관적인데요.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그분이 하실 때를 기다려야겠죠. 헌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성찬공동체

지금까지 교회의 본질과 형태에 대해 말하면서 기도, 헌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다음으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실제로 밥을 같이 먹는 애찬식 즉 밥상 공동체와, 간단한 빵으로 의식을 거행하는 성찬식,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자는 모든 신자들이 참석했고, 후자는 기독교 신앙에 좀 더 깊이 들어온 사람들이 참석했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저는 성찬식의 궁극적 의미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생명에 대해 산다고 하는 구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와 더불어 생명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빵과 하나의 포도주를 함께 돌려서 같이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다는 종교적 의미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이웃들과의 연대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는 성만찬의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21세기에도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물(物)의 영성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물의 영적인 의미 말이에요. 독일어로는 '딩'(Ding)이라고 하는데, 하이데거 철학이 그런 세계를 열어줍니다. 다리나 구두 같은 사물에 어떻게 영적인 의식이 활동하는가 하는 건데요. 주술적인 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는 중요하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말할 기회가 오겠죠. 하이데거의 세계 이해를 통해서 성만찬의 의미를 더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성만찬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뒤에 언젠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올 겁니다.

## 목사제도

이제 목사, 장로 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에 목사들이 많죠? 대략 10만 명 된다고 해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 문제도 건드리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너무 대량 생산이 되는 바람에 자리가 없어서 갈 데도 없는데, 자꾸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쳐 나가야 할까요? 자리가 없어서 택시기사를 하는 목사도 수천 명이 넘는다고 하고, 그냥 큰 교회에 부목사라고 이름만 걸어두고는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목사도 많다고 해요. 이름이라도 걸어둬야 작은 교회라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요.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양성되는데, 그럼 양질의 목사들이 배출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둘게요.

한국교회에서는 목사에 대한 인식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를 신격화해서 주술적인 대상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무당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가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복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도사가 심방 오면 싫고 목사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자신의 신격화를 조장하고 있어요. 물론 목사에게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카리스마는 외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가대원도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중에 하나로서 카리스마가 있어요. 은사원리에 따르면 이 카리스마에는 높낮이의 차이는 없어도 서로 배타적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카리스마를 침범할 수는 없는 거죠. 목사가 노래를 하고 싶다고 성가대원들을 내쫓고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 카리스마의 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카리스마는 두 가지인데요. 성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평신도가 설교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목사들만이 성서를 더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카리스마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면 그 일을 잘하면 됩니다.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인데 설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소정의 신학 교육을 받고 목사를 하면 돼요. 그러나 일반 평신도들의 설교권은 논란이 됩니다. 특히 침례교회에서 평신도의 설교권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나가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만하죠. 어쨌든 목사의 신격화는 문제이지만, 목사의 카리스마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극단은 목사에 대한 고용 의식입니다. 점점 더 이런 쪽으로 흐르는 추세인데요. 교회가 목사를 고용했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일종의 월급 사장인 셈이죠.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고 아주 건전한 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장로들의 힘이 센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뽑을 때, 시험을 치듯이 후보 목사들이 가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하나의 검증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담임 목사가 부임해서 몇 년 내에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면 장로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고용 사장이 회사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이사들의 눈치를 보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대목의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목사직은 여전한 주술적 기대와 새롭게 대두된 합리주의적이고 도구적이고 기능주의적인 성직자관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교회관은 이 시대정신만이 아니라 목사 탓이 크지 않느냐고 정리를 했습니다.

## 당회제도

장로 문제는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강의안의 마지막 단락만 볼게요. 장로 제도가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좋은 에너지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점이 많은 제도가 되어버렸어요. 장로 제도가 뭔지에 대해서는 접어두겠습니다. 일단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교회의 직분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 혹은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왜 그렇게 직분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그 이유를 왜 모르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워서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주로 권사가 목표고, 남자들은 직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인데요. 제가 만약에 평신도라고 한다면, 글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입장이 아니니까 뭐라 말하기가 힘드네요. 기존 교회의 질서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하기가 힘드니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말한다면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정도로 할 것 같아요.

이것은 교회 전체의 구조와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교회에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평신도 지도자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세뇌가 돼서 그런 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한국교회 신자들은 그걸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힘들면서도 즐거워한다니까요. 심리적으로 보면 자학적인 증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학을 통해서도 쾌감을 느낍니다. 좀 선정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 강하게 말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씹니까? 장로가 못되면 교회를 나간다 만다 하기도 하고, 서로 당파를 짓기도 하고 말이죠. 왜 이럴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교회 안에 직분 서열이 많을까요? 서리 집사는 뭐고 안수 집사는 뭔가요? 이것도 코믹하지 않습니까? 집사는 뭐고 장로는 뭔지, 뭐 하러 그런 구분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면 침례교회 제도가 맞는 것 같아요. 거기는 몽땅 다 집사거든요. 이렇게 많은 직분이 필요한 이유는, 아마도 교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서열을 두고 경쟁을 시켜야, 서로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심리 작용을 이용한 게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신자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목사야 주일에는 수고를 하더라도 월요일이면 쉬잖아요. 그리고 주중에도 눈치껏 쉬 수 있거든요. 정 힘들면 기도원에 간다는 핑계로 쉬어도 되고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6일 내내 노동 현장에서 시달리다가 주일이면 교회에서 또 일하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이 직분에 대한 과도한 열심을 조금 진정시키는 게, 멀리 내다보면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교회의 모든 권력이 당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당회를 해체하는 겁니다. 해체하지 않으면 당회를 임기제로 하든지요. 당회는 형식적으로 원로급으로만 구성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여전도회 대표, 청년회 대표 등이 모여 교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영위원들이 실질적인 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굳이 장로가 되겠다고 나서지 않을 것 같아요. 원로는 원로로 대우해 주고 실제적인 문제들은 운영위원들이 한다면 좋지 않겠어요? 운영위원은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골고루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안 될까요? 한국교회는 당회가 모든 걸 독점하고 있는데도,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성안수도 두 말할 필요 없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 제30강

### 기독교 신앙과 생명 경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소리도 잘 가고 화면도 잘 가죠? 〈기독교사상〉 5월호가 나왔습니다. 표지 인물은 장애인이면서 경희대학교 약대 겸임교수인 장우영 권사이십니다. 처음에 받아봤을 때는 탤런트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신학기고가 하나 실렸는데요. 구로감리교회의 조수현 목사님이 쓴 글인데, 제목이 “신학은 민중신학이다”입니다. 부제로 ‘정용섭 박사의 민중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읽고서’라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진보신학을 비판하면서 주로 민중신학을 다루었는데, 그걸 읽고 많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그에 대한 반론을 실었습니다. 제가 한 번 훑어 봤어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쓴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리를 해서 다시 반론을 쓸까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진보신학, 혹은 민중신학이 한국 신학과 교회에 끼친 영향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영향력이 쇠퇴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한국교회와 신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저를 운동권 목사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런 진보신학이나 진보운동 쪽에 있지만 그러면서 늘 한 구석에 불편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민중 프레임에 빠져 있어서, 결국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학, 하나님, 기독교 전통, 영성 등을 좀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비판적 성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론이 나오니까 더 계속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 12월에도 〈한국설교학회〉에서 발제한 두 편의 논문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주로 저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하나는 총신대학교 설교학 교수이신 류응렬 박사가 썼고, 다른 하나는 서울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이신 정인교 박사가 썼습니다. 두 분 모두 상당히 보수적이죠. 그리고 보니 저는 보수 쪽이나 진보 쪽이나 모두에게서 비판을 받고 있네요. 속된 말로 샌드위치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걸 쏟아 놓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눈치 보지 않고, 대상이 누구든 전혀 개의치 않고, 소위 말해 구도정진의 자세로 설교비평을 했고, 그와 관계된 글들을 쓰다 보니까 좀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때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서 그런지, 제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



려웠던 모양입니다. 재미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 보세요.

〈기독교사상〉 표지에 제 설교비평집 제 3권이 광고로 실렸네요. 제가 킴 카메라로 잡아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영상으로 그림이 보이나요? 『설교의 절망과 희망』, 정용섭의 설교비평 완결판이라고 광고가 나갔어요. 아마 한두 주일 안에 시중에 깔린 텐데요. 이 세 권으로 설교비평은 끝나게 됩니다. 6월 중에 〈기독교사상〉과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주관하는 출판기념회 겸 설교 심포지엄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일로 좀 바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 쓴 것들이 결실로 맺어져서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 들었겠지만, 박경리 선생님이 혼수상태라고 해요. 작년에 폐암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요. 노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을 하지 않았고, 그 후유증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 나온다면 김지하나 고은보다 박경리 선생님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토지』를 한 30년 동안 썼던가요? 『김약국의 딸들』 같은 단편 소설도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작가인데, 혼수상태라니 마음이 좀 아픕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삶이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테니까 제가 구구절절이 다 말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분야야말로 말 그대로 선생님 이죠. 글 쓰는 분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분의 가치관과 세계관 등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니까요.

## 가르침과 깨우침의 한계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아 있다는 경험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하는 이 순간이 살아 있다는 경험일까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식들이나 애인처럼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차나 맥주 한 잔하면서 신앙과 삶과 문학과 예술과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살아 있다는 경험일까요? 아니면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순간인가요? 여러분은 언제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기는 합니다.

평소에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삶

에 대해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 생각하도록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크면서도 늘 그런 생각과 질문을 놓치지 않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청소년 시절에 그런 쪽으로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에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이 자기 맘대로 됩니까? 그러나 사람은 원래 거기에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종교와 상관없이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죽음을 앞두고 삶과 죽음이 뭔가를 생각하듯이, 근본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동물은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주변에서 누가 죽더라도 그저 본능적으로 조금 느낄 뿐,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요. 죽음이 자연의 일부로,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자연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자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힘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연 속에 파묻혀 있다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 등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지나치게 될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은 거죠. 어머니 뱃속에 있어도 의식은 없는 겁니다. 실존 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자기 실존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공서(共棲)적 합일입니다. 태아들은 어머니와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을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임신한 여자가 불안하면 아이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러나 태아 스스로는 그 불안을 실존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 있다는 것은 아마 그러한 상태일 겁니다. 동물들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는 자연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실존(existence)한다는 말이 거기서 '어디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라고 하죠? 탈주라고도 할 수 있구요. 자연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서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겠죠. 이것은 인류학에서 기초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이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인간론, 즉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영적인 존재이며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종교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게 다 세계관이에요. 제가 언제가 그렇게 말했죠? 기독교 신앙은 곧 세계관이라고요. 어떤 쪽으로 내가 세계를 이해하고 거기에 내 운명을 던지는 거라고요. 불교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무속인들도 마찬가지로. 종교가 없더라도 나름대로 세계관을 가지

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는 일반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과 상관없다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초월적이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는 연역적인 성격도 있지만, 귀납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 기독교적 인간관이 일반 학문의 인간 이해와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물론 서로 구별이 되기는 하지만,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공통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이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에서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거기에 바람(루아흐)을 불어 생명이 되게 했다는 것이 자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과 달리 인간은 문화적이고 초월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인데, 이게 영적인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의 실존이나 삶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그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통찰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대로 올수록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사고가 막히는 이유는 뭘까요? 잘못된 교육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간을 자연적으로 놓아두면 오히려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는 제가 루소의 교육론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영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그냥 내버려두자는 거죠. 그래서인지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과 가끔 이야기를 하면, 서로 생각이 다른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들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을 깨우치고 교육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더군요. 저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오히려 생명의 근원과 맞닿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와 비슷한 교육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것은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고도의 음악 기술, 즉 창 같은 것들은 음악의 소리를 억압하는 거니까 가르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톨스토이의 『예술론』(신원문화사)이라는 책을 옛날에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읽은 책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 버려요. 어렵쑥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게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이 다 남아 있을 수도 없고, 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니예요. 우리가 톨스토이나 장자 같

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들이 어떻게 진리 혹은 생명 이해에 도달했는가 하는 것을 알았으면 가능한 대로 다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나오는 깨우침을 얻는 게 중요한 거죠. 조병화 시인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를 쓰려고 하는 학생과 선생과의 대화인데요. 조병화 선생이 학생에게 한 말입니다. “시상이 떠오르면 잊어버려라. 다 버려라.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다시 자네 내부에서 뭔가 나오면 그때 시를 써라.” 이럴 때 살아 있는 시가 된다는 뜻이겠죠.

저는 신앙도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너무 명료하게 다 정리해 갈 수는 없어요. 바람을 어떻게 우리가 딱 끊어서 잡아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거기에 매달리는 건 참다운 신앙 공부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예로 들었듯이 구구단을 외우는 게 수학 공부는 아니거든요. 성서로 말하자면, 우리는 성서가 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 따라가고 복습하고 외울 정도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소화된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한 표상,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시 창조적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현실성(Reality of God)은 없고 우리의 생각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계시론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론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을 금과옥조로 여기면 조금 곤란합니다. 제가 조금 위험한 말을 했나요?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자 이사야의 진술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금과옥조로 여기지 말라니,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물론 이사야의 하나님 경험은 오로지 이사야가 아주 고유하고 특별하게 경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인식론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부를 경험한 겁니다. 일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코끼리의 털 하나, 발톱 하나 정도를 경험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정직하고 아주 분명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의 보도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말도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메타포로 설명한다면,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그려내는 그 퍼즐은 무한한 크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퍼즐을 맞춰도 마지막으로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니까요.

톨스토이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로 왔군요. 톨스토이도 『예술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급 예술 같은 것들이 사람을 잡는다고요. 발레 주인공이나 오페라에서 아리아

를 부르는 주인공 한 두 사람을 위해서 그 주위에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 하고 말이지. 고급예술은 사치라고 했던가? 하여튼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  
육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이야기가 너무 나왔나요?

어쨌든지 성령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니까요. 따라서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 가  
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데, 피교육자들  
을 자유롭게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자꾸 피교육자들의 인격과 세계관 속에 들어가서 그들  
을 휘젓고 뒤집어 놓지 말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종말의 영이고 창조  
의 영입니다.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그 영과 소통하는 역할만 좀 하자는 거예요. 저는 수학  
선생이나 음악선생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 학문도 그런데  
신앙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감리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교학 강의를 할 텐데,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목사들이 청중들의 삶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  
이죠. 한 영혼의 구원 문제는 생명의 문제거든요. 제가 오늘 생명 이야기를 하다가 옆으로  
나갔는데요. 생명은 삶이고, 삶은 살아 있다는 경험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 삶, 생명과 같  
은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설교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성령에게 맡겨야  
합니다. 성령론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자꾸 신  
자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적용 중심의 편의주의  
설교입니다. 큐티가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말씀이 말하고자 하  
는 근원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바람처럼 자유롭게 불어오는 영과  
의 만남이 힘든 거죠.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신자들의 모든 삶을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 생명 경험의 근원

삶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  
요. 다시 방향을 틀어서 연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살아갈 뿐이지 살아 있음을 확인  
하지는 않습니다. 왜 안 하는지를 앞에서 말한 거죠. 오늘의 교육, 문명, 문화가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처럼 저녁 먹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게 놔두면 그게 가

능해요. 여기에도 저와 비슷한 연배에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렸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친구들과 같이 별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과수원 근처에서 서리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대화한 내용도 기억이 나네요. 2천 년이 되면 우리가 몇 살일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대화의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면서 혹은 인터넷에 들어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당한 부분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에 익숙해져 가고요. 신앙생활에서도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신앙을 연결하는 일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업적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 있다는 걸 경험합니다. 아파트가 몇 평이고, 몇 채가 되고, 자기의 지위라든지 아니면 자식을 어떻게 키웠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 있음을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특별히 자식에게서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삶이 허무하다가도 아이들을 보면 힘도 나고 귀엽기도 하고 재미있잖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진 아파트, 저금통장, 지위, 자식들, 설교비평을 했던 책들, 예술 작품 다 마찬가지로예요. 제가 오늘 설교조로 강의를 하네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살아 있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속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버리는 건데, 속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다비아에서 활동을 하지만, 한 5백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다비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5백년 후에는 다 지나버리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이 안에 들어와서 진지하고 치열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시간과 함께 이것이 다 지나가버린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뜻에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울의 독특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홍수처럼 떠밀려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 있음을 경험하는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대답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 있음을 경험하죠. 살아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구원의 문제거든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생명인데, 우리는 죽음 이후의 생명까지 생각하니까요. 다 휩쓸려 사라지는, 잠정적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명제가 기독교

인들이 붙들고 있는 유일한 구명선입니다. 그것 하나에 우리가 매달려 있어요. 우리가 자주 들은 것이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게 왜 생명이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기독교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 전체와 연관이 되니까, 이런 말들은 늘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늘 기독교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분명한지, 그렇다면 왜 그런 건지,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하고 자기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목사에게서 그런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우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확신하나요? 열광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진리로서 인식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죽습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허무합니다. 외롭기도 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불교 신자나 이단에 속한 사람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하는 말은 기독교의 교리 차원이 아니라 생명 경험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문학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문학과 예술 경험을 통해서 삶의 희열을 느끼는데요. 우리도 신앙적으로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대단한 게 없거든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와 있듯이, 왜 그러냐는 겁니다.

## 기독교의 생명 경험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대답을 할지 알겠습니까? 5초만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칭의론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실제적인 삶에서 누가 더 나은지 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조금 흥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만 받는 거예요. 실체론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차원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삶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의롭지 않죠. 의롭다고 인정만 받을 뿐이죠. 언제

의로워지나요? 이것은 종말론적 문제입니다. 생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의라는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의와 구원 같은 것들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생명을 온전하게 보지도 못하고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전개하려면 에덴동산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문제나 이사야의 예언적 상상력에 나오는 묵시 문학들도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접어두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진화론적인 문제만 짚어 보겠습니다.

침팬지와 인간에게는 공동 조상이 있었습니다. 3백만 년 전이에요. 그 이전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 보세요. 그때 인류의 조상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3-4백만 년이 지나왔거든요. 지구의 45억년 역사에 비하면 이것도 긴 건 아니죠. 앞으로 천만년, 아니 3백만 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지구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 후손들도 호모사피엔스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때 그들은 어떻게 생명을 경험하고 살까요? 지금이 한 과정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생명이 완성될 것을 믿고 있고, 그때 가서야 생명이 무엇인지를, 살아 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은 뭐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미래에 모든 것이 되겠거니 하고 끝나 버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겠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종말론적으로 생명이 완성되지만, 오늘 삶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그리고 부실하게나마 생명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부실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죠?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곳곳에 허점이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생명의 완성,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자기를 초월하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삼층 천 같은 경험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처한 현실에 두발을 딛고 살아야 하니까요. 허점이 많다는 것은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현실에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종말의 궁극적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완성된 생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그 새로운 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개입해 있다고 믿는 게 기독교인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삶이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거예요. 바로 미래에 완성될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신학 공부입니다. 그 신학 역시 완전한 대답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종말론적인 완성, 그런 세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모르는 방식이라는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부활을 하나님의 은폐된 궁극적 생명 세계라고 말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은폐성은 하나님과 생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 개념일 뿐 아니라 이 세계 전체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요. 다 숨겨져 있으니까요. 물리의 세계나 생물의 세계도 은폐되어 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진리의 속성입니다. 진리는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은폐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종말까지 진리가 존재론적으로 자기를 탈(脫)은폐하는 길을 걷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계시입니다. 계시는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가야만 하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하고, 이것은 계시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이지, 계시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종말까지 자기를 드러냅니다.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이런 것들은 철학이나 일반 학문이 말하는 것들에 비해서 근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세밀하게 포착해 내지 못하니까 독단적으로 말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신학은 2천 년 동안 진리의 차원에서 철학을 도반으로 대했기 때문에 신학에는 치밀한 인식론, 존재론, 논리학 등이 다 섞여 있습니다.

###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

종말에 완성될 생명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니까? 신랑이 신부를 기다린다는 묵시문학적 표현이 복음서에도 나타나 있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그것은 생명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다시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올림을 받은 거예요. 승천은 은폐된 궁극적인 생명으로 올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공간적인 하늘로 올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이미 종말에 일어날 생명으로 올림을 받았습시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 영광이 바로 궁극적 생명에 대한 신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와 똑같이 역사 안에서 살았던 그 예수에게서 종말에 일어날 생명이 선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존재인 그분에게서 종말의 생명이 유일회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런 생명으로 올림을 받는다고 믿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지는 차치하고,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 있습니다. 이것을 상대화시키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라는 틀에서

벗어나 다른 데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만이 아니라 여럿 일 수 있다고 한다면, 마르쿠스나 전태일도 그리스도일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이 종말론적 생명의 선취라는 사실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통하는 이야기이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편적 해석학에 근거해서 왜 예수가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자인지를 변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은 나 혼자서 위로받고 심리적인 불안을 극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쪽으로 나가야 하고요.

제 말이 옆으로 나갈 것 같아서 길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게 대해 나 몰라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종말론적 세계의 완성자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운명을 걸어두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라고 하고요.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라는 표현을 여러분은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계 전체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형태들, 다시 말해 예배, 기도, 헌금, 성찬식, 목사, 장로, 당회, 여성안수 같은 것들이 어떤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인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이해타산에 얽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론적 구원과 연관된 문제예요. 우리의 가슴과 머릿속에는 종말에 완성될 놀라운 생명에 대한 희망과 상상력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결혼할 날짜를 받아 둔 신부처럼, 혹은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보초병처럼 그 때를 간절히 기다려야 해요.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 내주하심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의 영혼은 아주 거룩하고 어마어마한 주제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조직해야 하는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겠지요. 이러한 신학적 바탕 없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한 방식으로 교회를 꾸려나가다 보면 세속 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일종의 NGO인 거죠. 흥사단이나 YMCA처럼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라면 동창회 같은 겁니다. 겉은 기독교 신앙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니까요. 기독교가 그런 끼리 집단에 머물러 있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는 루터의 말은 옳습니다. 우리가 유한하듯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교회의 형태

들도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서 그런 것들도 계속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종말이니 창조니 하는 거시담론은 너무 멀리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귀다툼하듯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고, 만날 싸워야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렇게 싸우기도 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다시 한걸음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경험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야 해요. 목요일에 잘 쉬고 그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31강

###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

#### 통합 예배, 열린 예배

저는 기본적으로 장년과 청년과 어린이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는 어렵긴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그게 좋습니다. 제가 예배와 제사를 비교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어린이들만 따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잖아요? 같이 참석해서 구경이라도 하죠. 사실 구경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사 드리던 기억이 나는데요. 초등학교에 다니기만 해도 순서가 되면 절하고 술을 올립니다. 다 참여하거든요. 예배도 사실 같이 갑니다. 세대 간의 차이 때문에 어린이 예배와 어른 예배로 구분하지 말고 가능하면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주 오래 전부터 주일학교가 독립되어 있어요. 학생회도 웬만큼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만 전담하는 교역자들이 따로 있고,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도 없고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래 아이들만의 정서와 문화에 맞는 맞춤형 예배를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같지만, 예배는 전체가 다 같이 드리고 그 후에 특별 활동이나 교육을 따로 분리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교회구조도 전문적으로 특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린 예배 방식은 유난히 더 그래요. 예배의 효율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학생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청년부나 대학부도 따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그건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방식의 예배는 기독교 영성과 관련해서 위기라고 봅니다. 대형교회일수록 더 세분화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제 이야기가 자꾸 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데요.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샘터교회야 뭘 나눠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만약 앞으로 그런 여건이 된다면 하더라

도, 통합 예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린이 같으면 1부를 통합 예배로 어른들과 함께 드리고 나서, 중간에 따로 나가 자기들끼리 공부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열린 예배가 들어오면서 자꾸 청중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로만 나가고 있어요. 말이 좋아 열린 예배지, 이것은 청중들의 종교적 흥미에 부응하겠다는 천박한 세속주의에 불과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사실은 모두 연관되기는 합니다. 제가 강의한 지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강의를 꾸준히 듣고 나서 그런 걸 느꼈는지 모르겠네요. 정 목사가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가, 또는 어떤 관점이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거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한 쪽으로 돌아간다는 걸 느낍니까? 지금 제가 예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뒤에 가면 이 예배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미리 맛보기로 한 마디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충만감을 느끼는가 하는 거예요. 생명의 충만감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모두 허심탄회하게 내놓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이해의 핵심, 예배의 핵심입니다. 교육도 사실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명의 충만감을 느끼도록 하느냐,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죽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입시켜서는 안 돼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없듯이 생명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생명이나 성령 같은 힘들은 아주 고유하게 활동하니까요. 고유하게 배타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개인이 고유하게 경험하는 것이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저리 정도는 대충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신앙의 선배들이나 스승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맞볼 수는 있겠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마주치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선생들이 그런 쪽으로 학생들을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선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뒤에 가서 말할 내용을 미리 좀 말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죠. 지금 열린 예배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요. 예배도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신앙생활 뿐 아니라 인간으로 사는 한 죽을 때까지, 생명이 끝날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느슨하게 생각한다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구경꾼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심각하게 살라는 건 아니예요. 생명의 충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실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충만감이 없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너무 사소하게 느껴져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묵상에 나갔나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잠깐 언급했는데요. 마가복음에 발을 갈던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는 입 딱 다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집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친구가 자기를 어떻게 섭섭하게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려놓게 됩니다. 이게 서로 순환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생명의 충만감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내려놓기 때문에 삶이 더 느슨해질 수 있고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심각해지고 무거워지는 겁니다. 삶 자체가 무거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과도 사실 연관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집은 세상살이의 힘든 집이 아니라 종교적인 집입니다. 그렇게 종교마저도 집이 되어 버리는 거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선교도 그렇고 교회 성장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세속적으로 나가서 자신의 전 존재가 담기지 않은 하나의 취미생활처럼 되어 버리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이 너무 엄숙주의로 빠져서 무겁게 질질 끌고 사는 것도 잘못입니다. 종교도 그렇게 짐이 될 수 있어요.

통합 예배를 강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할아버지나 손자나, 아들이나 딸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장애인이나 동성애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온전히 생명의 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만이 지배하는 예배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청중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극대화한 것이 열린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흥미나 재미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너무 원칙적으로만 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현실 교회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연주회장이 있잖아요? 청중들이 있고 연주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대립돼요. 연주회장에서 음악의 존재론적 힘이 지배하는 연주인가, 아니면 청중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주인가 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때로는 연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합니다. 그럼 좀 이해되시죠? 음악의 존재론적 힘이 지배하는 연주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음악의 존재론적 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리 혹은 음악을 우리가 만 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음악의 존재론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중요한 개념인데요. 좀 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소리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

고스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수 있었던 능력으로 나오는데요. 그것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툭툭 던지듯이 전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청중들의 열광에 따라가는 연주가 있고, 소리를 따라가는 연주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 민감한가 하는 것과 내 사유를 통해서 신학적인 힘들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게 사실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볼 수는 있습니다.

예배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론적 계시에 초점을 두는 예배가 있고, 청중들의 은혜에 초점을 두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열린 예배 방식의 예배들은 모두 청중 중심의 예배입니다. 설교도 청중중심으로 흐릅니다. 현대 설교학 교수들의 이론들도 다 청중 중심주의예요. 왜냐하면 존재론 인식과 사유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요즘 한국에는 쇠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야단이 났습니다만, 그것도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경제만능주의, 즉 경쟁력만 제고하면 모든 것이 통용되는 시대정신이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예배마저도 그런 방식으로 운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마저도 우리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는 신앙 태도를 갖는 거예요. 통합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 믿음과 치병 문제

오늘 제가 샘터교회 예배 때 한 설교 제목은 '간질병과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생명의 충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 설교와도 연관이 되거든요. 앞서 언급한 예배도 사실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할 간질병과 믿음도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자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냐고 말하면서 마귀를 내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물러간 다음에 왜 자기들은 고칠 수 없었냐고 묻죠.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연고라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기 바다에 빠져라 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믿기만 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전승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은 부분적으로 축소시

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꾸만 성경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삶이 엇박자로 나가는 거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와는 다르게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깊은 차원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이 시대의 이치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만, 일상적인 삶에서도 이 세상의 이치와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되거든요. 설교에서 한 예를 들었는데요. 루이스(C. S. Lewis)의 글을 설교에 인용했어요. 루이스는 참 좋은 기독교 저술가죠. 신학적 마인드가 아주 탄탄하고 건전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이 분이 신학을 전공한 건 아닌데요. 그러나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의 소설가를 예로 들었는데요. 『한 말씀만 하소서』(세계사)라는 수필집도 썼고, 『님이여 그 숲을 떠나지 마오』(여백)라는 책도 쓰신 박완서 선생님 말입니다. 그분이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보에 몇 년 간에 걸쳐 ‘작은 성서 묵상’이라는 코너에 글을 썼어요. 그런데 신학자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더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루이스 얘기로 돌아올게요. 루이스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강파가 한 선한 사람을 야구 방망이로 칠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야구 방망이를 꽃으로 변화시키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지 않거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언덕을 올라가는 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믿는다고 해서 그 언덕이 갑자기 내리막길이 된다고 한다면, 카오스가 되고 마는 거죠. 루이스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간질병에 걸린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말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신앙인가 하는 겁니다. 기도 자체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를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건전한 신앙이냐는 겁니다. 과연 성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의 이치에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잘날 것도 없고 못날 것도 없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안 죽거나 아플 사람이 안 아프거나 자동차 사고 날 사람이 안 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급하게 서둘지 않고 생각을 달리하게 되니까, 정신적으



로 건강해져서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사고 날 확률도 줄어들고 말이죠. 그러나 그런 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다 똑같지 않겠어요? 큰 틀로 보면 기독교인들이나 토속 종교인들이나 세상은 똑같이 우리에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야구 방망이가 갑자기 꽃으로 변한다거나,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들이 밀 때 칼이 갑자기 종이로 바뀌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설교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를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바꾸어서 나에게 유익하도록 만드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한 거예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을 걸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잘 믿어서 덕 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구 방망이가 꽃으로 바뀌지 않아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살이를 나에게 편리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죠. 예수 믿고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겠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훈련(Self-Control)이나 뇌 훈련, 혹은 정신과 상담 등을 통해서도 자아를 통제하거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혹은 우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 우리도 믿고 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대중 설교자들이 예를 들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보라, 미국의 경제권을 다 쥐고 있을 뿐 아니라 노벨상의 30%를 유대인이 타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냐, 우리도 저렇게 잘 될 수 있다, 예수 성공 불신 실패,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냐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박하고 좋은 뜻으로 단순하게 믿고 사는 것을 냉소적으로 생각한 다거나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 지성인들, 삶과 역사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 무죄한 자의 시련과 고통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무엇이나 하는 것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규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규범(norm)이 아닙니다. 제가 윤리적인 설교는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설교는 신앙을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들이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근거를 대라고 한다면,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나라만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왜 하나님에 나라를 붙이는가, 하나님은 뭐고 나라는 뭔가, 계시는 뭔가, 생명은 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규범(norm)도 아니고 범주(category)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범주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대개 규범과 범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안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있고, 시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죠. 그 법이 규범인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질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루터의 두 왕국론(Zweireichlehre)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시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 등 여러 가지 비유로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오늘 꼭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 쉬운 거라고 생각하나요?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는 것은 패러다임 쉬프트, 즉 사고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대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개념을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옥황상제처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지 나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생명의 통치죠. 생명의 힘입니다. 막연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자연의 생명을 포함한 기독교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생명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기독교론까지 들어가야 하나까 접어두고요, 여기에만 집중해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람과 같아서 규정하고 범주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

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삽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문을 열면 됩니다. 여는 것이 우리의 화심입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루터의 두 왕국론(Zweireichlehre)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서 세속의 질서, 지상의 나라에 살고 있죠. 그와 동시에 거기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자 통치인 거죠. 두 질서입니다. 이 두 질서를 살아내야 하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긴장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긴장이죠. 자칫하면 이걸 절대화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군주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절대화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루터의 두 왕국론을 비판해요. 두 왕국론이 이원론적이라는 거죠. 저는 루터의 주장이 이원론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세상 질서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루이스의 이야기처럼 야구 방망이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 질서대로 경찰이 법을 집행하잖아요? 법이 있어요. 실정법이죠. 실정법이 세속 사회를 끌어가는 하나의 힘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실제 현실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속 질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루터가 말하고 있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이 세계가 운영되는 질서가 있고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기독교인은 양다리를 걸친 것처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속과 하나님, 세속과 교회, 문화와 교회, 국가와 교회 등, 하나님의 질서와 세속적인 질서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세속 질서가 들어 있는지, 아니면 이 세속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중간 어디쯤에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게 다 하나인지, 그것은 학자들마다 다른데요. 루터에 의하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다가 옆으로 나갔죠? 하나님의 통치를 어떤 규범이나 범주 안에 넣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라는 경구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건데요. 도덕경에서 말하는 이 도(道) 개념이 하나님 나라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길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노자 장자가 말하는 도 개념이 연결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늘 흐리멍덩하다는 말이냐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말만 들으면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규범과 범주를 벗어난다는 말은 우리의 인식론을 넘어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인 반면, 규범과 범주는 다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 무(無)로부터 창조한 분인 반면, 규범과 범주는 유(有)의 세계, 창조 세계예요. 물론 하나님은 유(有)의 세계와 무(無)의 세계 모두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유나 무의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있는 것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등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 수준이 어린이가 같은 거죠. 아무리 뛰어난 물리학자나 철학자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조그만 흔적 하나를 남길 뿐입니다. 기독교의 인식론은 기본적으로 계시론에 의존합니다. 하이데거 식으로 말하면 이 계시가 존재인 거죠. 우리의 모든 의식과 생각들은 규범이나 범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어떤 테두리 안에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인식의 한계예요. 그렇다면 늘 뜬 구름 잡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 하나님 나라 경험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방향은, 오늘 제가 강의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인데, 바로 생명이죠.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당연한 이야기예요. 또 부활도 생명이니까 다 연결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경험하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했는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식론과 계시론에 대한 문제이자 또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생명은 부활과도 관계되고 창조와 종말과도 연관되며, 더 나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의의 문제와도 연관됩니다. 청의도 생명의 문제예요. 왜 기독교 신앙이 2천 년 동안 인간의 의로움을 붙들고 천착했는가, 그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어거스틴과 루터가 붙들고 있었던 핵심이기도 한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 교회에서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죠. 그것도 종교적 욕망이고요. 종교적 욕망으로 내가 의로워졌다고 하고, 즐거워서 두 손 들고 찬송이나 부르는 거예요. 청중들은 열린 예배에 참석해서 즐기고 만끽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이비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사이비 종교일수록 시청각적인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거 알죠?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인간은 의로움을 말할 수밖에 없는가? 왜 실질적인 의가 아니라 법적인 의미로 의를 말할 수밖에 없었

는가? 이런 걸 이해해야죠. 인간이 뭔가? 죄가 뭔가? 죄의 문제를 왜 기독교는 존재론적으로 생각했는가? 왜 마귀의 작용으로 생각했는가? 이 모든 질문에는 생명에 대한 깊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가 거래하는 장면, 이 모두가 인간론이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속으로 한 발 한 발 천천히 들어가야 합니다. 갑자기는 안 돼요. 우리의 인식은, 배움이라는 것은 하루 저녁에 똑딱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기독교가 무엇이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실질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신비주의자로, 영성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생명문제로 돌아오죠. 우리가 현재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의 이 생명 경험에 최선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 너머에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뇌가 살아 있고 호흡하고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생명 현상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과연 그것만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돌이나 바위 덩어리는 생명이 아니라고 100% 확신할 수 있나요? 어쨌든 그것도 창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바위 덩어리 하나도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까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서에도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물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생명의 영역이 바뀌는 겁니다. 넓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생각해 보죠. 오늘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두고두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해답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식을 갖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정말 우리의 실존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어느 때 우리가 생명의 충만감을 느끼나요? 성령 충만의 순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생명의 충만감을 느꼈다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니깐요. 언제 여러분은 생명의 충만감을 느끼나요? 생명은 살아 있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살아 있다고 느끼나요? 각자 여러 경우가 있겠죠. 아기를 처음 낳고 안았을 때 생명의 충만감을 느낄 수도 있겠고,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작품 하나를 써낼 때 충만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 밖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겠죠.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이 없어서 며칠 동안 힘들어하다가 술 한 잔 마셨을 때 살아 있다는 충만감을 느낄지도 모르겠네요. 뭐 알코올 중독자들이 생명의 충만감을 느끼겠나, 참 웃기네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범주화하는 겁니다. 때로는 범주화가 필요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의 살아 있다는 경험이 다릅니다.

## 창조와 생명의 충만감

오늘 여기 진랑에는 비가 왔습니다. 며칠 동안 참 덥다가 저녁에 잠깐 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비가 좀 왔어요. 시원한 바람도 불고 놀라웠어요. 그런 경험은 돈 주고 살 수 없죠. 내가 이 공간 안에 살아 있구나, 숨을 쉬는구나, 봄바람을 맞는구나 하는 생각들도 하고요. 요즘 교회가 있는 아파트 마당의 나무에 잎도 많이 나고 참 좋습니다. 지나가면서 나무 등치도 만져보고, 어떤 때는 땀을 대보기도 해요. 질감이 있잖아요. 나무 등치에서 질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환희죠. 환희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즐겁습니다. 지금 다비아에 글 쓰는 거나 목회,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숲 속에 있는 암자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걸 다 놓치고 살아요. 건성건성 살죠. 우리의 관심사는 따로 있어요.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관심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돌리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조금 정직하게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안에 안겨 있을 때(시편 131:2) 느끼는 황홀한 생명의 경험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는 그게 최상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삶의 충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여기에서 신비롭고 놀라운 생명의 환희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이내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한 대로 잠정적이예요. 잠정성, 무상성, 늘 그래요.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귀한 거라도 시간과 함께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무한한 생명의 충만감을 누리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남아 있는 인생이 30년일지 50년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여기 지금(here and now)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생명의 충만감을 허락할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볼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게 다 지나갑니다. 성서와 기독교 신앙은 앞으로 새로운 것이 온다고 믿습니다. 전적인 새로움이예요. 제가 돌맹이 얘기를 했죠? 돌맹이는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고 우습게 생각하는데 전적인 새로움이 오면 돌맹이도 우리에게 말을 걸지 모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죠. 요정의 세계예요. 이런 것들은 이미 시인들도 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열어 두십시오. 이것을 규범화 하지 말고, 범주화 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세계인데요. 종말론적으로 오는 세계에 대한 강렬한 기다림입니다. 결혼 날짜를 앞둔 신랑신부처럼 강렬한 기다림과 함께, 잠정적이고 무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오늘 여기에서 삶의 희열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개입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때는 오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개입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믿고 삽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종말론적인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상상력, 그 비전이 없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온전한 기독교적인 생명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되었는지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없군요. 이제 정리해야겠네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말로만 하지 별로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자기는 경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은 경우에는 자기 착각일 수 있어요. 구타하는 남편에게 얻어맞으면서도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착각하는 아내들처럼요. 자학을 경험하면서도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이니깐요. 그것은 왜곡된 사이버 영성인 거죠. 저는 주변에 있는 일반 기독교 신자들에게서 이렇게 열려져 있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바라보는 영성을 만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한국교회의 교육이 잘못된 탓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게으른 탓도 있습니다.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 있겠군요.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동화책만 보면서 거기에서 만족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 중고등학교가 되면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책들을 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감수성에 매달리는 책들만 읽고 저런 책들은 읽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전해주는 이야기에만 매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십중팔구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네요. 제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취소하는 게 낫겠어요.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재단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성공적인 목회 같은 것에 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깊이 거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됐습니다. 오

늘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 중에 저 스스로 한 가지만 잘해도 괜찮겠죠. 생명, 살아 있음을 아주 실질적으로 그러면서도 성서에 근거하고 신화에 기초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약 중독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로 자기를 자극해야 하는 것에 빠져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심연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를 기독교 신앙과 연관해서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제32강

### 하나님에 대한 물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컴퓨터에 음악 CD를 넣고 틀었는데요. 양성필이라는 대금 연주자의 연주였습니다. 제목은 ‘숨 2’, 영어로 ‘Breath 2’라고 되어 있어요. 대금 연주는 CD로 들어도 괜찮지만 직접 들으면 훨씬 힘이 있습니다. 대나무에 숨을 불어 넣어서 소리를 내는데 거기에서 폭포수 소리도 나고, 폭풍이 부는 소리도 납니다. 이것은 독주 악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소리를 내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소리의 경지라고 할 수 있겠죠. 무조건 큰 소리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조화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작은 소리와 큰 소리가 적절하게 배합됨으로써 어떤 힘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좋은 연주였습니다.

오늘 저는 점심을 먹고 잠깐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일로 바쁘긴 한데 문득 아파트 밑 숲 쪽을 바라보니 한창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아카시아 향을 좀 가까이 맡으러 갔습니다. 누구에게나 아카시아 향기에 대한 추억이 다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아카시아 꽃을 따러 다니던 추억들은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어울리면서 따러 다니기도 하고요. 용기가 있는 아이들은 아카시아 나무에 가시가 많은데도 그걸 타고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꺾어 밑에 던져주기도 하고 장대로 따기도 했죠.

제가 80년대 초에는 광주 보병학교에서 장교 훈련을 받았는데요. 군중 장교로 80년 3월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산 속에 들어가서 총 쏘는 연습도 하고, 야간 사격도 하고, 행군도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 때가 밤이었는지 그 저녁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녁 어스름이 깔린 때였던 것 같아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아카시아 향기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것들이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을 먹고 아카시아 나무 밑에까지 갔다 왔는데요. 이상하게 꽃은 많았는데도 향기는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곳으로 걸어가는데 바람이 부드럽게 불더군요.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이 바람이 뭘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물리현상입니다. 공기의 대류 현상이죠. 그것이 내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물리적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바람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그걸 몰랐던 고대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뭔가가 자기를 휩싸잖아요. 보이지도 않고요. 뭔가가 자기를 흔들고 접촉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지구 전체에 가득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만이 아니라 저쪽 나무도 흔들리고 말이죠. 바람은 하나의 자연 현상이니까 고대인들도 저하고 똑같이 느꼈겠죠. 백만 년 전에 살던 사람도 바람에 대해 똑같이 경험하는 건데요. 얼마나 신비로웠을까요? 지구에 가득한 그 무엇, 그러나 그것이 뭔지 알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거죠. 그걸 히브리 사람들은 ‘루아흐’, 생명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람과 영, 숨을 하나라고 생각했던 게 상당히 놀랍지 않아요? 좀 전에 들려드린 ‘숨 2’도 이런 것들입니다. 대나무, 바람 소리 등을 통해서 살아 있음을 경험하는 예술적 경험 혹은 종교적 경험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세월이 갈수록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게 신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아카시아를 따먹으면서 저는 굉장히 황홀한 느낌으로 그 놀이에 심취해 있었거든요. 어른이 된 지금은 조금 다른 방식의 놀이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을 직면하는 나의 세계 경험들은 별로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좀 막막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직접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존재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존재할까요? 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성서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바람을 경험했다고 말했어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걸 아주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영성가들은 그걸 좀 더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실질적으로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은 하겠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 경험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과연 무엇을 경험한 걸까요?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때나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혹은 청년 시절에 그런 집회에 많이 참석했을 테고 나름대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이지요. 그 영접한 주님이 누구니까요? 그 주님은 하나님 일까요? 그냥 교회 지도자들이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이 말에 선동되고 세뇌당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부정적으로만 말해서 미안합니다. 예수님 영접이나 하나님 경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바람을 말한 이유는 이게 하나님 경험에서 중요한 메타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하거든요. 성령은 바람처럼 자유로운 존재로 움직이니까요. 이것은 가르쳐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딸들에게 “야, 저기 바람을 봐라. 얼마나 놀랍냐. 뭐가 있는 거야. 형체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주 자유롭지만, 그리고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의 이동으로 일어나는 운동이지만, 바람처럼 확실한 리얼리티가 어디에 있냐?”라고 말한다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낱말 뜻으로는 알아들을 수 있죠.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러나 그건 바람에 대한 경험이 아닙니다. 경험은 바람과 자기와의 일치거든요. 그리고 그 일치를 통해서 어떤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은 상당히 관념적입니다. 생명이라는 것도 다 제각각으로 생각할 테니까, 이게 뭐라는 것도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 성령을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관계되어 있거든요. 제가 들려드린 CD의 대금 연주자는 숨과 자기가 일치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숨 쉬는 거죠. 단전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숨을 쉬는 순간, 호흡과 일치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걸 훈련이라고 해요. 가만히 앉아서 단전에 집중하게 되면 오장육부를 비롯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게 원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아마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좀더 정직하게 세계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알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진리의 토대 위에 있는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물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의로워진대거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모두 의롭다고 인정만 받을 뿐이

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요. 구원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세세하게 모른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성적 기독교인들로 살려고 한다면,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런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자기 알고 있는 희망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희망은 우리가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종말론에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관돼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솔직해야겠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놓고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답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 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중요하지 신학적인 사유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고 성령과 소통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학적인 사유 훈련이라는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신학적 반성(theological reflection)이죠. 모든 것들은 그대로 놓아두면 때가 끼기 마련입니다. 그런 식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원래 말하려고 하는 근본을 놓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걸 늘 반성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신학적 성찰이야말로 성령과 가장 밀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을 걸 때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는 준비 작업이라는 점에서 신학이 중요한 거죠.

## 호접몽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어렵פות이 들은풍월로 생각하지 말고 아주 실질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강의안에도 나와 있지만, 제 딸들이 큰 애가 중학교 3학년이고 작은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둘째 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있는 거야?”라고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만 살아 있는 설교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았는데, 그 때 바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 간접적으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어린 딸들에게는

좀 어려운 이야기였겠지요. 바람은 공기의 움직임으로 생기는 일종의 운동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바람은 운동이라고요. 그 다음에는 사랑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물건처럼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시도해 본 겁니다. 이게 완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람처럼 운동이자 힘이고요. 또한 관계라는 거죠. 마르틴 부버(Martin Buber)의 책에 보면 나와 너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신학적 노력들을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한 핵심 문제는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혹은 없다고 말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있다’는 말이 뭐냐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물처럼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깊이로 생각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심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말이 좀 빙빙 도네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하이데거의 말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이데거가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서광사)라는 책 속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라도 중요한 거니까 양해하고 들어주기 바랍니다. 하이데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왜 있고 무(無)는 왜 더 이상 없는가?”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부라는 이런 걸 선배들, 어른들, 스승들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하이데거의 책을 많이 독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그리고 철학자들의 전문 지식을 제가 얼마나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한두 가지라도 알아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이데거가 한 이 말,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존재하는 것들,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왜 있는 것이고, 없는 것들은 왜 없는 것인가? 제 앞에 연필이 있고,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와 연필은 너무 비슷한가요? 나무에서 왔으니까요. 그럼 그건 접어두고, 시계가 있습니다. 연필과 시계의 중간 쯤 되는 어떤 것은 아직 세상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아카시아 꽃은 있는데 아카시아 꽃과 다람쥐의 중간 쯤 되는 것은 왜 더 이상 없는 걸까요?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그런 거라고 대답한다면, 그건 교리 문답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이 세상의 깊이를 훑어 보는 사람으로서는 자격미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게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구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사

물에 불과했는데 내가 꽃이라고 부르니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요. 시인의 영감을 제가 그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있고 없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이데거를 통해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있는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하는 명백한 사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주만물이 다 그럴진대, 오늘 우리의 삶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다 지나가버리는데 우리가 정말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강의는 현실인가요? 아니면 지나간 오래 전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회상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이게 확실한 건가요? 이게 확실하다는 증거가 얼마나 있는 건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밥을 먹다가, 길을 걷다가,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지금 나의 경험이 아니라 어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지난 일에 대한 회상 같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장자가 말하는 호접몽(胡蝶夢)과 비슷하겠죠.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 말입니다. 장자가 꿈을 깬 뒤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가, 아니면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가? 장자가 꿈의 주인공인지, 나비가 꿈의 주인공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장난은 아니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 인식,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인간의 행위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2천 년 전의 예수님과 제자들,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말 실재했던 것일까요? 물론 문서로는 그렇다는 것들이 남아 있기는 하죠. 조금 더 멀리 나가볼까요? 지구가 시간이 다 되는 그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45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분명히 오지 않겠어요? 그 전에 지구가 빙하기에 돌입해서 인간이 다 죽는다거나 생명체가 없어진다가 아니면 혜성과 부딪쳐 지구가 폭발해서 다시 45억 년 전의 불덩어리처럼 된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죠. 하여튼 그때가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간이니까요.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아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실체론적 하나님 이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물건처럼, 옥황상제처럼, 하나님이 어느 우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 있는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 실체론적인 하나님 이해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좀더 보충해야할지 망설여지는데요. 이런 내용은 초보적으로 다 알고 있는 교리일 텐데,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의 교양 과정에 해당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강의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제가 좀 멍청멍청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잡히지가 않네요. 실체(substance)라는 말은 누구나 압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있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실체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체의 최소 단위는 원소, 즉 아톰(atom)이구요. 이런 방식으로 뭔가가 ‘있다’는 것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사유방식이 신학 안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했습니다. 이걸 실체론적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가끔 기독교 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가 헬라화 되었다고 하거나 관념화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신학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부 시대에 헬라 철학의 흐름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 이미 종말에까지 이르는 세계 이해가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실체론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예요.

하나님에 대해 실체로 이해하는 관점이 있고, 그 반대로 과정(process) 혹은 운동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실체론적인 하나님에 머물러 있어요. 물리학에서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은 공간과 에너지예요. 그게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은 비어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 이해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변증해야 할까요? 변증도 변증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한 표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야겠네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 있나요? 아니면 우주 공간의 북극성 너머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그곳이 과연 어디인가요? 아주 실질적으로 그런 곳이 있나요?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해 가는 것만큼 확장되어 갑니다.

에버하르트 용엘(Eberhard Jüngel)이라는 신학자가 『고트 알스 게하임니스 데어 벨트』(Gott als Geheimnis der Welt)라는 책을 썼어요. ‘세상의 비밀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세상과 하나님을 병렬 관계로 본 것이라 할까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비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머릿속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대신 막연하게 아는 것처럼 전제하면서 믿고 있는 자신의 신앙적 태도에 몰입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물리학자가 물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대신 이미 앞에 나왔던 물리학적인 원리들만 계속 외우면서, 나는 훌륭한 물리학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이비인 거죠. 또는 과학자라기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과학의 원리를 설명하는 선생에 불과한 겁니다. 과학자라면 그 비밀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계를 실제로 이해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걸 뛰어 넘어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 이해가 다 변한다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서의 하나님 이해가 그런 것을 담고 있어요.

성서적 하나님 이해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가르침에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감이 오죠? 형상하면 실체거든요. 정해진 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범주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서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자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나 범주들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서의 하나님 진술은 오늘날의 현대 물리학이 이해하는 세계 이해에도 얼마든지 타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에서 제2계명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신화들과는 지평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고대 종교들은 거의가 자연신을 섬겼으니까, 태양을 형상화하거나 독수리, 황소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시적인 생명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고대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본이 힘이 됐잖아요. 그 방



식으로 자기 생명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건 일종의 종교예요. 자본주의가 이데올로기니까요. 그 형식이 정치가 되었던 스포츠가 되었던 간에 다 구원론적인 겁니다. 구원은 생명 구원에 대한 논리예요. 사람들은 위에서 열거한 것들에서 살아 있다는 확신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살아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옛날에 고대인들이 황소 형상을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인간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류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갖고 살기 때문이죠. 이 몸을 건사하기 위해서 소유, 구조, 제도, 문화, 문명 등을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서 기자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곳곳에 그런 진술들이 있어요. 고대인들은 신에 대한 경험을 어떤 공간적 의미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한 곳에 성전을 짓고 신의 형상을 건립했는데요. 구약성서 기자들은 그런 것들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절대화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구절을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 수 있겠는가 하는 예언자들의 반론이 많았거든요. 성서는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묶어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전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전중심주의와의 격렬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을 허물라는 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성서의 진술은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소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했는데, 이것도 다 창조자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주나 형상, 혹은 실체 같은 것으로 도저히 끌어내릴 수 없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자존자라는 말을 술하게 들었을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 세상은 존재 근거가 외부에 있습니다. 저도 외부에 의해서 존재하거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저는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기적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어요. 제가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제 존재 근거는 외부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 근거가 내부에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건 정신착란입니다. 과대망상이예요. 과격하게 말해서 그래요. 자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생명의 차원을 전혀 달리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존재근거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종이 한 장으로 얼굴

만 가려도 앞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종이 한 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와 종말 전체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거든요. 우리는 종말을 모르잖아요? 창조도 모르잖아요? 처음 우주가 시작한 130억 년 전, 아니 우주의 시작 전까지 포함한다면 너무나도 까마득한 이야기인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미래에 대해서는 더 하나도 말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서 입 좀 다물라고 성서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자꾸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말할 때 귀를 기울이라고 말이죠.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거시적이고 막연한 세계를 말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깊이 연관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고 현재만 본다고 하더라도, 온갖 시간의 창조와 종말까지의 무한한 세계, 말로 다 해명할 수 없는 세계 시간이 지금 여기에 깊이로 와 있습니다.

성서 기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사용하죠. 기복주의에 근거해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종교적 욕망, 혹은 종교적 망상이 빚어낸 하나님의 자기 투사(投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종의 도덕주의에 빠지는 거지요.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 뭐가 있는가, 소위 불가지론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 하나님 인식에 대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에 대해서 말한다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식의 불가능성과 가능성 사이의 좁은 오솔길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앞에서 한번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르트(K. Barth)는 설교자의 실존적 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지만(nicht können), 선포해야만 한다고(sollen) 말입니다. 청중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설교자의 자리에 대한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한동안 멍했습니다. 학문의 스승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한 개인의 사유나 인식 안에서 충분히 소화가 된다면, 먼저 있었던

사람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되는 거죠. 바르트의 그런 말이 오솔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수십 번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아까 계시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학과 신앙 안에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전제가 들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계시하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접어두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신앙적으로 성숙했던 신앙 선배들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을 걸 때 그것을 알아듣고 성숙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바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딸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아무리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알아들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세상의 깊이를 알게 된다면 딸이 거기까지도 따라오게 되겠죠. 그 딸들이 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있을 테니까, 제가 없다고 해도 저보다 더 성숙하게 이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음악을 공부하든 바둑을 공부하든 다 그래요. 하나님 경험이나 하나님 공부도 이런 단계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게 작은 오솔길이지요. 우리는 자칫하면 광신도가 되거나 교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젯밤에 뭘 들었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뜻으로 그랬다고 해도 사이비일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도 순수하고 인격적이긴 한데, 신학적인 훈련이 없다면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죠? 아무리 괜찮게 훈련된 사람이라고 해도 일종의 주관적 열광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또 자칫하면 냉소주의자나 불가지론자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요. 하나님은 종말에나 가야 알 수 있는 건데 뭐 하러 지금 이야기 하냐고, 아는 것만 말하라고,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웃기는 거죠. 그러면 시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게 실증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시인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리얼한 것입니다. 이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질그릇이지요. 한편으로 우리는 주인의 뜻을 죽었다 깨어나도 잘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계시에 근거해서, 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문서들에 근거해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라는 삼

위일체의 한 위격으로 우리와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하기 원한다는 점에 근거해서 우리가 영적인 축수를 놓치지 않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알아듣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알아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들이 제가 뭘 좀 알고 하는 말 같아요? 아니면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길 바랍니다.

사람이 꽃보다 이름답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해요. 인식론적 한계가 너무 뚜렷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생명의 영과 온전히 소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던고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과 소통, 교제, 귀 기울임이 가능하려면, 이 모든 상처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죄인데, 그러한 죄의 결과들이 다 씻겨야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죽을 때까지 다 씻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안고 가야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순간에도 계산을 하는 게 우리잖아요? 완전하고 순수한 언어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능력보다는 어디에 기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기뻐 언덕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서와 2천 년 동안의 해석이 있거든요. 해석이 신학입니다.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최선이자 첩경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신학 무용론에 빠져 있어요. 땡 잡는 게 매라는 식이죠. 신학적 영성에 기댄다는 것은 우리의 상처들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상처들을 그대로 안은 채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 상처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도록 묶어두는 거죠. 암에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암세포가 좀 줄어드는 거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죄의 경향성을 안고 살아갈 각오를 하세요. 그게 다 씻긴다고 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구원파에 가까운 사람들이예요. 그것은 구원을 실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실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상처들을 안고 있으면서,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더 크게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음악가들은 음악의 힘이 자기를 지배하게 합니다. 그러면 음악이 온전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신학적 사유, 신학적 인식이 그것입니다. 개인의 경건성이 중요하지 않느냐고요? 경건 훈련,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인식은 신앙적 인식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인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선 존재와 인식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저도 정확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존재와 인식에서 존재가 우선이나, 인식이 우선이나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물론 서로 소통되는 거겠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존재론적이니까 존재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인식은 존재가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존재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존재는 어떤 범주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자유로운 겁니다. 궁극적인 실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존재는 인식의 문제, 행위의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때 인식이 가능해요. 따라서 존재는 계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 자체가 거죠. 존재는 인식으로 드러나고 인식은 존재에 뿌리를 둡니다. 존재론적인 토대가 없으면 우리는 사이비로 흐를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들의 신앙도 일종의 인식이거든요. 문선명의 통일교도 가능하죠. 그 방식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모든 훈련들이 신앙적 인식론, 신학적 사유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 제33강

### 삼위일체 하나님

시간이 빨리 지났습니다. 상투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라진다고들 말하고, 우리도 실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간이 뭘까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노벨 물리학상을 타기에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란 게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가도 그렇고, 왜 이 세상이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정말 신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이죠. 우리는 대개 세상이 원래 그렇게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먹고 말을 하고, 이 세상에 색깔이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색맹이어서 색깔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겠죠. 청각 장애인들은 소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세상이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부분적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전부 포착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청각 장애인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청각 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부분에 대해 인식의 한계를 안고 살아가니까요. 그걸 모르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르겠습니다.

#### 하나님 경험에 대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까요? 이런 질문은 지난주에 시작했고, 오늘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읽은 신학 책들의 내용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작은 경험도 있어서 뭔가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말을 하겠지만, 이런 것은 너무나 작은 부분적이어서 하나님에 대해 어림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언젠가 제가 예를 들었듯이 코끼리 털 하나를 가지고 코끼리 전체를 언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말해야 하나까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고 배워왔어요. 우리는 이런 익숙한 신앙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우리는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이게 가능한 말일까요? 이 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보통 어떤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나요? 아마 천차만별일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복음서에 나온 바로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통해 그런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아이 성과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아니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의 하나님인가요? 또는 뜨거운 성령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하나님을 생각하나요? 이런 경험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찬송을 열심히 부르기도 하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집회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 잘 듣고 배워서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도 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경험도 할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경험한 걸까요?

고대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해는 사실 그 시대의 세계관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당시의 고대인들은 하늘, 땅, 지하라는 삼층 구조로 우주를 생각했거든요. 하늘에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세계를 주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끊임없이 지구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처럼 자연과학이 발달한 상태에서도 이런 것들 앞에서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나 화산 폭발도 경험했겠죠. 해일도 경험하고요. 그런 자연 앞에서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노아 홍수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노아 홍수 같은 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건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고대인들과 우리는 세상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신약 공동체도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에 대한 독특한 경험이

있었을 뿐이고, 그 경험으로 인해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인 하나님 이해, 일종의 시오니즘에서 벗어났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똑같았어요. 2천 년 전이나 3천 년 전이나 고대인들은 이 세계를 그렇게 알고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하나님 이해를 가리켜 실체론적 이해라고 앞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도 실체로서 우주 공간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생각은 오늘날엔 아무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주 공간 어딘가에 하나님이 옥황상제처럼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체스 하듯이 하나하나 놓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없잖아요? 1992년에 다미선교회의 파문이 있었을 때 그들은 북극성 어딘가에 휴거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휴거라는 표상이 요한 계시록에 있는데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세계 이해가 그랬으니까요. 어떤 궁극적 생명의 세계에 휴거의 방식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휴거라는 신약성서의 신앙적 표상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시대의 신화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계속해서 발전해왔는데요. 이 발전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변한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변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두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창조라고 하고, 저기를 종말이라고 생각해보죠. 창조와 종말이 있고, 그리고 종말 이후에 어디로 가겠죠. 어디까지 갈까요? 영원히 갈까요? 창조 이전은 아무 것도 없는 무(無)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와 종말 사이의 어느 한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종말, 종말 이후, 이 전체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가서야 그분의 실체가 드러나요. 이런 한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심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와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 방식대로 굳이 굳대로 믿는다고 할까요? 이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아, 이렇게 말을 해야겠군요. 이미 지동설 이후를 살고 있는데 여전히 천동설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많은 신자들이 천동설에 근거한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이 천동설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지동설이 맞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우주 전체도 움직이니까



천동설이 완전히 이상한 것은 아니죠. 다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되었다고 하기보다도 그 정도로만 이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천동설이나 지동설로 딱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주 물리에 대한 다른 패러다임이 나올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전에 우리에게 청각 장애, 시각 장애가 가능하다고 말한 거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한 마디 더 하면요. 과학이 아무리 정밀하고 엄밀하고 실증적인 학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걸 해명하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미래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걸 가늠해야 아는 겁니다. 뉴턴이라는 물리학자가 그렇게 위대했지만 양자역학을 몰랐잖아요. 정말 그게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뉴턴의 물리학과 양자역학은 전혀 맞지 않거든요. 제가 물리학적 용어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맞지 않는다고보다 대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혀 다른 차원이죠. 마찬가지로 지동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밝혀진 물리생물학적인 토대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해야 하니까요.

오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천동설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다 그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보기에 예쁜 사람에게만 복을 더 줄까요?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똑같이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준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편애하는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요.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우리가 사랑을 덜 먹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가치로 사업을 했는데 잘 된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천동설적인 하나님 이해입니다.

## 비종교적 해석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신학자가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입니다. 1906에 태어나 1945년에 죽었으니까, 39년을 살았네요. 1886년에 태어난 칼 바르트보다 20년 쯤 후에 태어났군요. 본회퍼도 칼 바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텐데,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체포되어서 교수형을 당했다는 사실만 보면 두 사람의 신학적 토대가 크게 달라 보입니다. 본회퍼는 좀 재미있는 학자입니다. 굉장히 영성이 깊고요. 대단히 자유주의

적이고 진보적인 신학자였어요. 이 분의 신학이 상당히 진보적인데, 한국에서는 재미있게도 복음주의 쪽에서 본회퍼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본회퍼의 영성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본회퍼의 영성이 복음주의 쪽에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본회퍼의 신학을 이해할 때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가지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성숙한 시대이고, 다른 하나는 비종교화입니다. 두 개념이 서로 연결됩니다. 성숙한 시대라는 말은 모더니즘, 즉 계몽의 시대를 지났다는 뜻이에요. 본회퍼에 따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종교는 성숙한 게 아니라 유아적인 신앙을 가진 종교성이에요. 예를 들면 죽음이나 외로움이나 허무 같은 것이 두려워서 신을 찾거나 자기에 게 다가올 불행을 막기 위해 신을 찾는 것이죠. 사머니즘도 포함되고요. 오늘 한국 기독교인도 거의 이런 종교성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유아적인 상태의 종교성에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의 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폭군 상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주고 잘 듣지 않으면 벌을 주는 폭군으로서의 하나님인 거죠.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꾸민 이야기인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수녀가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하나가 어느 날 성당에 나오지 않고 부모와 함께 마차를 타고 놀러갔다가 마차가 전복되어서 죽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그 수녀는 아이들에게, 보라 그 아이가 주일에 성당에 나오지 않고 놀러갔다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라고 가르쳤어요. '신의 아그네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세 때는 하나님의 진노, 죄책감 등을 강조했습니다. 죄책감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도 몇 번 말했지만, 한국교회에서 죄책감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현대인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한국교회에서는 신자들을 가능한 한 죄의식에 빠지게 하는 목회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강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은근하게 언급하기도 해요. 간단한 예를 들면, 십일조를 떼어 먹으니까 그 정도 액수의 사고가 나든지, 병원에 가든지 해서 다 나가더라고 많이 설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지,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죄책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책임감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러나 심리적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하나는 자동응답기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폭군으로서의 상과 다른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비슷해요. 구하기만 하면 다 주는 것과 같은 이런 하나님 상은 신자들을

다 어린아이로 만듭니다. 자동응답기에다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성숙한 시대에는 맞지 않은, 정말 원초적인 종교성이죠. 본회퍼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성이 아니라 이 삶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중심에서의 초월이라고 말해야겠군요. 본회퍼의 『옥중서간』(대한기독교서회)은 유명한 책인데요. 본회퍼가 죽은 뒤에 그의 친구 베틀게(Bethge)가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감옥 속에서 죽음을 예감하고 하는 말인데, 본회퍼 신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신학자이고, 영성가이고, 목회자였던 본회퍼가 감옥 속에서 유언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대목을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한계에 처해서가 아니라 중심에 있어서, 약함에 있어서가 아니라 힘에 있어서, 따라서 죽음과 죄책을 계기로 해서가 아니라 생과 인간의 선에 있어서 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 인식론적 초월성은 신의 초월성과는 무관하다. 신은 우리의 생활 한 가운데서 피안적이다. 교회 는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 한계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한 가운데 있다.

잘 들어 보세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무 충격 받지는 말고요.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성실할 수가 없다. 신은 우리가 신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와 함께 하는 신은 우리를 버리는 신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외침은 신으로부터의 유기(遺棄),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경험을 가리킵니다. 시편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 구절을 더 인용하겠습니다.

신이라는 작업가설 없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살게 하는 신은 우리가 항상 그 앞에 서 있는 신이다. 신 앞에서 신과 함께, 우리들은 신 없이 산다.

마지막 구절이 많이 인용됩니다. ‘신 앞에서 신과 함께, 우리들은 신 없이 산다.’ 본회 파가 말하려는 핵심은, 지금까지 초월성만 강조하고 폭군이자 자동응답기의 하나님으로만 가르쳤던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달리 이 세상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세상성은 독일어로는 ‘벨틀리히카이트’(Weltlichkeit)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교육이나 사랑과 같은 삶의 중심에 피안이 변증법적으로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무조건 이 원론적으로 생각해서 초월적인 저 세상만을 수호했는데, 그것은 성숙하지 않는 시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모더니즘 이후로, 지동설 이후로 성숙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폭군 같고 자동응답기 같은 신이 아니라 오히려 신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본회퍼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해가 시대와 함께 더욱 새로워졌고 심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본회퍼에게서는 우리의 죄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절대자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종교성이 아니라, 건강한 삶 안에서의 하나님 이해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현대 신학은 이런 것들을 근본에 두고 그 뒤로 해방신학, 여성신학, 생태신학, 정치신학, 과학신학 등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상이 고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변하는 존재이기는 한데, 우리의 인식론적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는 거죠. 여성신학에서 문제제기를 하듯이, 가부장적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곧 아버지처럼 인식된 게 당연하지만 지금은 성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시대와 더불어 세계를 이해하는 지평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더 알게 될까요? 어느 때가 되어야 이 세계가 온전히 우리에게 실체를 드러낼까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그걸 알 도리는 없죠. 우리는 잠깐 살다가 갈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풀어낸 것도 다 알지 못하는데, 앞으로 펼쳐질 더 궁극적인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궁극적인 세계와 연관되어 있으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조금 어지럽죠. 현묘하다고 할까요? 신비롭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온전하게 내 삶과 운명과 죽음까지도 맡기고 의존해야 할 절대적인 대상임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 삼위일체란?

비종교적 해석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식의 심층으로 들어가는

관점이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놓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인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왔군요. 삼위라, 삼위가 뭐예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로서의 하나님, 여성들은 화내지 마세요. 딸로서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서의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라는 건데요. 아버지, 아들, 영, 이 셋이 일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삼위일체론을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 개가 따로 있는데 하나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것은 인식론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영으로서 삼위일체로 존재한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으로 딱딱 나뉘어 존재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인식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무소불위하고 전지전능한 분으로, 주로 구약에서 말하는 유일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페르소나예요. 좀 어려운 말이 나와도 이해해 주세요. 페르소나(persona)는 위격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역사적 예수님이죠. 아버지가 초월적이라면 아들은 역사적입니다. 아버지는 역사를 초월해 있지만 아들은 역사적이고 역사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죽었죠. 일단, 이 두 관계는 대립적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만약에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한 게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중요합니다. 영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성령인데요. 성령은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성이라고 할까요? 이 하나님은 초월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은 아니고요. 예수님도 2천 년 전에 역사 안에 들어왔다가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셋이 일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체가 될까요? 간단히 한 마디만 한다면 이렇습니다. 본질은 하나고 격은 셋이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의안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을 읽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유대교는 유일신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삼위일체론으로 넘어오면서 유대교와 구별이 돼요. 앞서 제가 말한 아버지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이고 마호메트가 말하는 알라 하나님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유일신론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구별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독교로 구별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로 넘어오는 길목에 기독교론 논쟁이 자리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론이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론이 나오게 된 핵심은 예수였어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가 당면한 딜레마였어요. 그들이 풀어야 할 숙제였어요. 다음의 두 가지 대립 명제를 극복하는 걸 가리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예수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경험에서는 이 두 명제가 아주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나왔고, 예수도 하나님이라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 신앙의 고유한 경험이었습니다. 둘 다 자명하지만 이게 서로 대립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립되니까? 이 숙제를 풀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단일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신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기독교론 논쟁이었어요. 기독교론 논쟁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도 하나님이라는 걸 해명하는 거 말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여러 주장들이 나왔는데, 이 때 많은 이단들이 출현했어요. 정통에서 빠진 건 다 이단이니깐요.

대표적인 게 예수의 인성을 강조한 에비온주의(Ebionism)였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종속론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인성을 강조하면 당연히 예수가 한계를 가진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께 종속을 당하게 됩니다. 또는 그와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 인성이 약화되니까 당연히 가현설로 나가게 됩니다. 이 가현설에 근거해서 양태론이 등장하는데요. 정통 교회는 이들과 싸웠습니다. 치열한 신학논쟁이었습니다.

에비온파는 하나님을 완전한 인격체로 생각한 반면, 아들과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을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는 다른 인간으로서, 신성을 입은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이것을 동성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예요.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을 때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크게 싸웠습니다. 그제 기독교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리우스는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정통주의와는 달리 예수가 결국 피조물로서 신적 존재일 뿐 하나님 자체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가현설은 인간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단순히 하나님의 현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참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유일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세 가지 양태의 하나로 보았던 거죠.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했습니다. 215년경 로마에서 가르쳤던 사벨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단일한 실체(monas)이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는 구별이 없으며, 단일체인 하나님은 세 가지의 상이한 양태, 혹은 형태로 자기를 나타낸다. 흡사 연극배우가 관중 앞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인격은 하나인 것과 같다.” 지금 많은 신자들이 삼위일체론을 이 양태론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정통 교회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보면 문제가 있어요. 즉 예수의 인격, 인격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예수의 위격(페르소나)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면서 서로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관념적인 것 같죠? 그런데 이런 투쟁을 교부 시대 때 아주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기독교 2천 년 역사입니다. 이 세 격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을 부정하는 입장은 고대 교회 역사에서 축출되었습니다. 구별되면서 서로 간에 의존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에 의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에게 의존하는 거죠. 예수는 동시에 하나님에게 의존합니다. 역사적 예수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삼위일체인 신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고요. 성령도 예수님과 하나님께 의존적이면서 구별되거든요. 여러분이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유일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삼신론도 아니에요. 삼신론은 양태론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니까요. 삼위일체는 세 페르소나가 구별되면서 서로 의존적인, 그러나 세 개의 독립된 신은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와 달리 단일한 실체(monas)를 강조하려는 이단 사상 앞에서 초기 기독교는 예수에 관한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예수님의 고유한 인격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의 본질이었습니다. 위격은 구별되나 본질은 동일해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삼위일체론 안에서 시도됩니다. 삼위일체의 기초를 놓은 터툴리안은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구분되어 있으나 나뉘지지 않고, 구별되어 있으나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은 단순히 유일신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세 인격’이다.” 그러나 터툴리안도 삼위일체론을 결정짓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도 양태론적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325년에 세계 최초의 종교회의가 니케아에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소집되었고, 381년에는 2차 종교회의가 콘스탄티노플에서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소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론과 삼위일체론이 결정 돼요. 두 번에 걸친 종교회의와 그 중간에 진행된 몇 번의 회합, 포럼이 있었습니다. 325년의 첫 번째 회의에서 대표적으로 이질론(헤테로 우시 오스)을 주장한 아리우스와 동질론(호모 우시오스)을 주장한 아타나시우스가 대결했는데, 결국 완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일단락이 되었어요. 이질론은 아리우스가 주장한 것으

로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고, 동질론은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것으로 본질이 하나라는 겁니다.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유질론(호모 이우시오스)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본질이 비슷하다는 거죠. 재미있죠? 그 당시에는 이단 논쟁이 아주 격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리우스가 배격되고 삼위일체가 확정 돼요.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정통으로 결정된 거죠. 세 입장의 차이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오랜 논쟁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동질론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해에 있어서 혁명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예수에게서 인간성을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동질로 생각한 하나님 인식은, 유대인들의 사고 범주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으로 끌어내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했죠. 그러나 초기 기독교는 이러한 논쟁 과정을 통해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 호모우시오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볼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설명을 듣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본인이 그것을 이해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바둑에서도 고수가 되려면 여러 수를 알아야 하잖아요? 동네 바둑을 두면서 취미 생활로 바둑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영성이 더 풍요로워지겠죠.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신으로 들어 올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양자론이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올 수 있나요? 이것은 성육신론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인격을 가진 예수가 반신반인이 아니면서 온전한 인성과 신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가능한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수학 공식처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초기교회에서 전개해온 삼위일체 논쟁을 통해서 호모우시오스(homoousios)라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본질이 동일하다는 신학적 주장이 채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이라도 외워주세요. ‘호모우시오스’요. 이것은 하나님 인식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고 할 만한 사상이자 경험입니다.

초기교회는 어떻게 인간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본질인 신성을 인식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 한다고 믿었던 건데요. 발상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부끄러움, 수치, 스캔들, 절대적인 무력감이고,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전지전능 무소불위한 분인데, 이 요소가 어떻게 일치할 수 있을까요? 초기 기독교는 그걸 본 거예요. 유대교인들에게는 그게 불가능했구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는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초기 기독교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질이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를 주라고 불렀을까요?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예수에게서 메시아적 표징을 발견했다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증언되는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인간 예수에게서, 그의 인격과 행위에서, 궁극적으로는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하나님의 메시아적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에게 예수의 도덕적 가르침이나 지혜의 가르침이나 초자연적 행위들은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고, 예수와 관련된 모든 진술과 사건은 구원론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그의 메시아성 안에서만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존재론이 그의 구원 행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에게서 발생한 구원 사건이 곧 하나님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신(神) 표상이었던 영원하고 절대적인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의 구원행위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분, 자기를 낮추는 분,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주는 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예수는 온전한 인간이었지만 그에게서 온전한 메시아성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이 오히려 신성이고, 더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됨으로써(부활) 궁극적 종말에 일어나게 될 생명을 선취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고 인식하고 구약성서에 근거해서 해석했던 겁니다. 그래서 독특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실존, 역사의 한계 안에 들어온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질의 격으로 올림 받은 예수,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던 겁니다. 유대교는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용납할 수 없었으며, 로마인들도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 여기고 무시했어요. 이 틈바구니에서 그들과 구별된 새로운 종교, 바로 기독교가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바르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연관된 몰트만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대한기독교서회)

라는 책도 있고요. 판넨베르크도 조직신학 책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요. 헤겔 이후로 삼위 일체가 기독교 신앙에서 대중의 진리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진 어거스틴과 교부들이 플라톤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신앙을 헬라 철학화한 단순한 사변적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하나님 이해예요. 학자들이 그저 머리를 굴려서 그럴 듯하게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한, 무식한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기 위한 요설이 아닌,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을 진술하기 위한, 기독교의 정직하고 치열한 자기 진술이자 신앙고백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역사 안에 들어왔고, 지금 이 시간에는 영으로 그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셋이 서로 의존적으로 세계 역사를 완성시키실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 제34강

### 성령에 대해

한국교회는 보통 5월 둘째 주일을 아버지주일로 지킵니다.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아버지주일과 성령강림주일이 겹쳤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5월에는 가정 문제를 설교의 주제로 삼습니다. 어린이주일에는 어린이를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하고, 아버지주일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심지어 부부끼리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방식으로 끌고 가야 할 문제들인데, 그런 것들을 설교의 주제로 삼는다는 게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진 사람이라면 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일이지요. 케리그마(kerygma)에 집중해야 할 주일공동예배 시간에 교양과 상식에 관한 뻔한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워요. 설교가 나이브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취향이 가벼움이라는 말인데, 대중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기는 해요.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모양만 조금 바꾸는 대중주의적 설교들이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주일이어서 설교 시간에 그 내용을 한마디 언급할까 하다가 그냥 성령강림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성령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니까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더 뿌리가 되는 게 있고 뿌리에서 조금 올라오는 게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성령강림은 그 뿌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설교에서는 성령이 누구나 하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제가 현실성이란 말을 설교에서는 쓰지 않았지만 성령의 현실성이 뭐냐 하는 걸 말하려고 했어요. 거룩한 영의 현실성은 우리가 초기 기독교의 원초적 신앙과 일치할 수 있는 디딤돌이거든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질문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성령이 뭘까요?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했다면 어떤 근거가 있는 걸까요?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들은풍월은 있어요. 아마 가장 일반적인 성령 경험은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는 뜨거운 체험, 다시 말해 방언의 은사나 아픈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는 일일 겁니다.

우선 책을 한두 권 소개할까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은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2천 년 기독교 역사만큼의 깊이와 폭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만큼의 폭과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주는 책이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책인데요. 몰트만의 『생명의 영』(대한기독교서회)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영은 곧 성령입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데어 가이스트 데스 레벤스』(Der Geist des Lebens)입니다. ‘아이네 ganzheitliche Pneumatologie’라는 부제가 달려 있군요. 번역서에 ‘총체적 성령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몰트만이 말하는 성령론이 성령에 대한 기독교의 총체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몰트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성령에 관한 것들을 짚고 있다는 점에서 읽어볼만 합니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런 책들도 같이 읽고 토론하는 것도 좋은 공부라 되겠지요. 그냥 큰 제목만 몇 개 말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부에서는 성령의 경험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경험, 역사 경험, 삼위일체, 영성 경험 등에 대해서 쪽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성령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2부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교 제목 같네요. 해방신학을 도입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꽤 깁니다. 성화의 문제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신비 경험도 있습니다. 3부는 성령의 사명과 인격입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의 내용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간단하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뜨거운 경험이 아니라, 기독교 2천 년 역사 전체, 생명 전체, 어쩌면 우주 전체의 문제와 연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겁니다.

### 에벨링의 성령론

그 다음은 게르하르트 에벨링(G. Ebeling)의 『신앙의 본질』(대한기독교서회)입니다. 거기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신앙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성령을 다루고 있는데, 재미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에벨링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문제를 기독교 신앙의 이해와 용기의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이해의 영인데요. 그걸 에벨링은 자신의 독특한 시각으로 용기라고 말해요. 단순히 용감하다 혹은 씩씩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 전체를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무(無)로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용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잠시 여러분께 읽어 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에벨링이 인용한 루터의 글인데, 재미있어요. 루터가 그의 전집 중 5권 어딘가에서 신앙의 사건은 용기라는 차원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게 기대를 거는 자로서 사람이 도달할 곳이 있다면 자신의 무(없어짐, 없음) 외에 또 다른 곳을 생각할 수 있을까? 무로 사라질 자가 그가 난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무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무로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과 모든 다른 피조물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도 만물을 한 손에 쥔 하나님에게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말대로 그는 세계를 한 손에 쥐고 있다. 그러니 세계를 뚫고 떨어지라. 그때 너의 떨어질 곳은 어디인가? 역시 하나님의 손과 손 안이 아니겠는가?

에벨링이 루터의 말을 인용한 것은 신앙의 용기 문제를 말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무(無)가 된다는 게 맞는데요. 그러나 그 무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용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술김에 시비를 거는 만용이 아니라 존재와 무, 무와 존재의 차원까지도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뛰어드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어도 천당 간다는 말들을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복지를 극대화 하는 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으로 천당을 생각한다면, 그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연장되거나 더 풍요로워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무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실존을 맡기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령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벨링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에 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짚고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초기 기독교의 자기 이해에서 생존의 표지였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도 성령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초기 기독교 신앙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쓴 편지에도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번 성서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게 뭘까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훈련으로 극대화하는 것과 비슷한 차원일까요? 도대체 성령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나와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바람과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방 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활절,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월절이에요. 유대교의 유월절에서 50일이 지난 후가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절기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의 농사 절기와도

연관이 돼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체포를 당해 돌아가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유대교로 보면 유월절이고 우리로 보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50일 이후를 유대교는 오순절로, 기독교는 성령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 40일 동안 지상에 있다가 승천한 후에 성령강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승천과 성령강림 사이를 계산하면 10일 정도 차이가 나요. 이런 숫자는 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마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특별히 임했다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이미 존재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창조 때부터 활동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 과정에서 성령이 활동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생명 사건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폭넓다기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죠. 바로 생명의 영이니깐요. 오순절에 딱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생명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끌어가는 영이 있었으니까요. 이 영을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프뉴마’라고 했습니다. 이 말들은 바람, 숨, 영 등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인들의 생명 이해였던 거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했을까요?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만큼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특히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가 아니니까요.

사도행전에 대해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기 위한 누가의 초기 기독교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을 초기 기독교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터무니없는 이야기란 말은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성령강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부활은 바로 승천이에요. 이것이 곧 성령 사건이죠. 그런데 고대인들이 굳이 날짜를 구분한 것은 궁극적인 어떤 것을 해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구약에 근거해 해석하는 과정에서 3일 후의 부활이나 40일이라는 숫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요엘서의 내용들이 다 연결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특별한 부활 현현은 은폐된 생명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드러나는 과정이 중요하지요. 이 예수님의 생명 사건이 곧 승천과

연관되는 문제들이고, 생명의 영인 성령의 임재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람과 불같은 것으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말은 실질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다 종교적인 메타포거든요. 그 당시는 이런 방식으로 궁극적인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서 어머니의 살 냄새를 맡으며 어떤 궁극적인 것을 경험하잖아요? 어머니를 느끼죠. 그러나 그것이 어머니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방식으로 어머니를 경험합니다.

제가 앞에서 고대인들이 생각한 루아흐와 프뉴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고대인들은 바람과 영을 하나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건 좀 틀린 거죠. 바람은 공기의 이동인데, 이것 어떻게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오늘의 방식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이 영은 바람이 아니라 물리학에서 인정하는 장에 가까울 겁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장이론(場理論, Field Theory)이요. 사람은 그 시대의 세계관으로 생명의 궁극적 신비나 능력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성령은 그들의 생존과 관계된 문제였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나요? 언제 어떤 경우에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생각하나요? 그냥 질문으로 끝낼게요. 이에 대해 에벨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자에게 기독교가 지닌 새로운 것을 묻는다면 그는 새 교훈을 지적하지 않고 성령의 새로운 현실성을 가리킬 것이다. 구약의 예언자는 이미 말세에 임하게 될 영의 은사를 말한 바 있다. 후기 유대교적 묵시문학에서 영이 온다는 것과 종말론의 결합은 더 강화되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자신을 마지막 때의 공동체로, 이 공동체 실존을 영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이해한 것은 이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다. 바울도 여기에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바울에 의하면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관계는 죽이는 문자에 대해 살리는 영의 관계와 같다.(고후 3:6)

둘째, 성령 경험과 기독교 신앙은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상입니다.

셋째, 신자는 누구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 성령에 참여한다는 신앙과 백과, 성령은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나눠주고 영적 감동을 일으킨다고 본 초기교회의 경험 배후를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 성령에 참여한다는 것과 은사를 받는 것의 배후를 구별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은 영에서 오는 광신의 위험성을 뜻

합니다. 바울도 은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문제가 있다고 말하죠. 질서 있는 은사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초기 기독교에도 이미 광신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해요.

넷째, 성령은 인간의 생략적 구성요소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 자신의 소유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번역이 직역이라 좀 그렇군요. 성령은 인간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성령은 인간에게 통용되는 인격이라기보다 위격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페르소나’는 그냥 인격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삼위일체의 관점에서는 위격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 성령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성령에게 소유당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이용해서 점을 친다거나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문제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 전반에 걸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관성을 극복해야 해요. 기독교 신앙에 주관성이 너무 강합니다. 전부 ‘나’ 중심이잖아요.

지난주일 제 설교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아주 본질적인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냐, 따라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성서,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의 진술 자체보다는 그것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의 눈입니다. 복음서 기자의 눈, 영적인 눈 말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에서는 이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걸 혼동해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믿음을 강조합니다. 제가 믿음 일원론, 혹은 믿음 만능론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믿음이란 말이 성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설교자들도 성서의 어느 부분에서든 믿음을 끌어다가 아브라함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누구의 믿음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서를 주석한다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무조건 믿음이 좋다는 식으로 설교하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필터가 필요합니다. 필터를 통해서 무언가 걸려져야지요. 성서 텍스트가 청중에게 도달할 때까지 그것을 풀고 걸러내는 게 필요해요. 그게 조직신학의 역할이에요. 믿음이라는 걸 교의학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어떤 한 텍스트에서 거론된 믿음이 아전인수나 침소봉대로 전달되지 않고 적절하게 정리되어 청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 강단에서는 이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큐티식 성서 읽기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조 직신학적 훈련을 충분하게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서 본문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다보 면 방향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성서해석은 신학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힘든 일이에요. 그쪽으로 전문가라 할 목사들도 잘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준비조차 없는 평신도들이야 오 죽하겠어요? 그러니 성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거죠.

## 성령과 교회

성령에 관한 눈에 띄는 책이 있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molt만 책이네요. 제가 주로 현대 신학자로는 판넬베르크, molt만, 에벨링, 용엘 같은 사람들의 책들을 읽고 영향 을 받아서 그 쪽 책들이 많아요. molt만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 책을 아주 재미있게 씁니다. 책이 아주 쉬워요. molt만이 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한국신학 연구소)라는 책은 교회론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생명의 영』(대한기독교서회)은 직접 적으로 성령론이고, 이 책은 교회론인데요. 사실은 성령론적인 교회론이에요. 그만큼 성령 론이 중요합니다. 종말도 사실 성령의 문제거든요. 구약의 요엘서가 말한 마지막 때에 있 게 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까 에벨링의 책에서 그가 말한 대로, 초기 기독교가 자기 들을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이해한 것은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묵 시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 관점에서 이해했던 거예요. 초 기 기독교는 요엘서와 에스겔서가 말하는 성령이 자신들의 존재를 결정짓는 데 아주 중요 한 문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몰두했던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설교조로 듣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심 지어는 부흥회 스타일로 말이죠. 매일 박수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다 닐 때 꽤나 그런 데 쫓아다녔어요. 교회에서 학생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참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따라 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라고 찬송하면서 빠른 박자로 손뼉치고, 앞에서는 북도 치죠. 그럼 대개 감정적으 로 흥분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여섯 곡 부르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성령을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은풍월로만 알고 있는 것은 몇 군

데 나와 있는 성서 본문을 낚 것으로 먹는 겁니다. 이 표현이 딱 맞네요. 낚 것, 낚고기, 삼겹살이나 쇠고기를 생으로 먹는 거랑 같습니다. 낚고기도 분명 고기는 고기죠. 성서 본문 하나하나에는 어떤 깊은 영적인 체험이 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것으로 요리를 해야 합니다. 요리가 아까 말한 필터링이에요. 그런데 일반 신자들은 요리나 필터링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립니다. 보통 청교도적인 영성이나 경건주의 영성 안에서 다 해결해 버리죠. 그건 요리가 아니에요. 모든 성서를 볼 때마다 이미 그 시각으로만 봐요. 다 은혜로운 거죠. 사실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만족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 은혜 주 관성을 극복해야 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정리가 좀 되었지요? 성령에 대한 문제도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벨링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정 목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소유가 아닌가 보구나 하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소유가 아니라면 뭘까요? 존재겠죠. 존재. 그런 점에서 성령을 인격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니까요. 불고 싶으면 불니다. 이걸 여러분이 하루 빨리 눈치 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활동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자유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믿음이 무익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상관없다는 표현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도 그분이 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얻는데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차원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늘 상대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과 상대적 의미에서 믿음인 거죠.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업적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믿음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믿음뿐 아니라 성서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낚고기, 생고기예요. 구워 먹어야죠. 그 낚고기를 굽고 요리한 것이 지난 2천 년 동안의 신학의 역사예요. 신학의 역사, 즉 조직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야만 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니깐요. 하나님은 소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여러 가지 노력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이 지금 어떻게 통치하는가에 더 관심을 가져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청히 가만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는가, 어떻게 창조하고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부활의 사건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는가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알게 되면 그 다음엔 우리가 저절로 행동하게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만큼 행동합니다. 에벨링이 뒤에도 몇 가지를 더 이야기했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 책을 읽어보세요.

## 필리오케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초기 기독교는 성령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갈 3:3).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성령 만능론처럼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이 성령을 강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과연 그들이 경험한 그 성령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천 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요. 그것을 한두 마디로 끝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성령은 누구에게서 왔는가 하는 질문도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거치면서 그 유명한 문구가 나온 거예요. ‘필리오케’(Filioque)라고 하죠. 이 말은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의 라틴어인데요. 처음에는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필리오케’가 문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령을 규정하는 문장 안에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말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리고 아들로부터’(필리오케)라는 말이 살짝 들어간 거죠.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화 발전된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두 가지만 놓고 볼 때 성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초대 교부들이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창조의 영으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창조니까요.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로부터’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도 성령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부활도 사실 성령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영의 문제가 아버지와 아들에 다 연관된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을 받았거나 성령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은 좋습니다. 경험할 수 있

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드시 고상한 신학을 통해서만 이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2천 년 기독교 역사가 성령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했었던 그 맥락을 무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경험한 성령이 과연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금 더 나아가 이것이 교회 공동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태도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이 과연 무엇인지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책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영 체험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유를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성령을 지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되는 걸까요? 자유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까지 할 수 있는 어떤 힘이거든요. 자유는 미래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고요. 그와 동시에 지난 역사가 다 그분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충분하게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미래의 자유와 과거의 역사를 성령의 현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잘 생각하고 소통시켜야겠죠. 성령의 자유가 미래로 열려져 있고 성령이 활동한 역사가 과거에 있으며 오늘 여기에 우리 신자는 성령의 현재를 삶으로 누리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 볼 수 있겠네요. 시간이 다 되었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몇 가지를 더 말하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만 짧게 언급할게요. 실제로 악한 영이 있으니까요. 뭐가 성령이고 뭐가 악령일까요? 악령도 겉모양은 예쁩니다. 제가 언젠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전의 양면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창조와 사랑의 역동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기도 하니까요. 신앙적 노력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때는 우리가 악령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좀 분별하자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하자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 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더 생각해보십시오. 여기까집니다. 고맙습니다.

## 제35강

### 인간에 대해

반갑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좋은 계절이죠. 오늘이 2008년 5월 22일입니다. 이날 우리가 만났군요.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시공간의 구애 없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합니다. 100년 전 쯤의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소통의 공간이 시작된 거니까요. 앞으로 5백 년 후의 우리 후손들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까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참으로 신기합니다.

#### 인간이란?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게 인간학인데요. 우리가 사람의 특징을 갖고 산다는 건 자연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문명을 일군다는 뜻입니다. 자연 안에서만 산다는 것은 자신과 종족 보존에 모든 근거를 두는 삶의 형태예요. 거기에는 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들의 삶이죠. 그들은 그저 자연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죠. 그들에게는 윤리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큰 의미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선악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연 안에서 삽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자연 안에서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동물들에게는 죄가 문제되지 않아요. 죄의식이 없으니까요. 그냥 자연의 메커니즘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만이 이런 문제로 힘들어해요. 그로 인해 문명이 발생한 겁니다. 그 문명이 실질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가 아니면 파괴하는가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인간은 동물들에게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문명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일단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자기 안일에만 머물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연대감을 꾸준히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한 거창한 의미의 연대감은 둘째로 치더라도, 마르틴 부버 같은 사람이 말했듯이, 사람은 나와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부버는 『나와 너』(대한기독교서회)에서 이 세계가 점점 나와 그것의 사물적 관계로 되어가고 있는데,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해 가야하며 거기에서만 인간 존재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었고 행불자도 많다고 합니다. 이미 미얀마에서도 해일로 십 수만 명이 죽었지요. 여러분은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나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대지진, 사이클론, 해일 같은 자연 재해들이 많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안도하며 넘어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큰 재앙이 없다고 하는 건 다행이겠죠. 그러나 재앙의 문제는 좀 전에 말한 대로 인간적 연대라는 점에서 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지구 안에 같이 사는 모든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인류보편적인 휴머니즘에 근거해서도 그렇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실제적으로 느껴야 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한국 뿐 아니라 외국의 다른 기독교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게 특히 미국 쪽의 가벼운 복음주의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상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상품은 포장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책이 다른 곳에 있어서 제가 정확한 인용을 할 수 없는데요. 유진 피터슨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상품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신자들이 큰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을 고르는 겁니다. 대형 마트에 들어가 다양한 물건들을 구매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소비자인 신자들에게 입맛에 맞는 것들을 진열하기에 바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걸 먹으면 몸에 좋은지 설사가 나오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 교회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도 각 나라 교회의 지향점은 있거든요. 거칠게 표현해서, 미국교회의 방향이 바로 값싼 실용적 복음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직수입 되었고요. 유럽에서 들어온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다 죽을 쏘고 있어요. 루터교나 성공회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성공회는 영국에서 직접 들어왔는지,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영국 성공회에서 온 것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유럽에서 온 교회들이 기독교적인 뿌리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다시 우리 공부로 돌아와야겠네요.

기독교 신앙은 실질적으로 기독교 신자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신자의 생각과 삶 속에서 성육신(incarnation)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말은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어서 제 설명이 더 필요 없을 텐데요. 그래도 참 이상해요. 설명을 많이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든 예술이든 신앙이든, 이것은 낱말 뜻만 알아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라는 것은 뭐를 안다는 것인데, 정보 차원에서 아는 것과 실질적으로 자기 삶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차근차근 신앙과 삶의 일치를 배워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것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도 그걸 눈치 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 놓치고 있어요. 기독교 신자들이 뽕뽕 떠서 다닙니다. 영적으로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늘 들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사야하고, 말을 쏟아내야 하고, 안정이 안 된 것처럼 말입니다.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는 방식으로 사는 거지요. 영성, 영성,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사실 영성은 우리가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몇몇 기도 방법을 안다거나 큐티를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흉내 낼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에 밀착되느냐? 그것이 신앙의 성육신인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근본에 대한 질문

요즘 수요일 저녁마다 샘터교회에서 시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둘째 치고 시편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제 공부가 많이 됩니다. 어제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요. 시편에는 여러 유형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 저주, 악독 등을 많이 그려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당신은 지금 왜 침묵하느냐, 왜 당신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돌아가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따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질문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질문할 압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래 전부터 그걸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걸 빨리 눈치 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현상적인 삶과 그 삶의 내면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아주 궁극적인 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 그리고 그에 대한 진술, 그것이 바로 성서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분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아마도 다비아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등을 물어보시더군요. 왜 하나님이 아벨을 지켜주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뒀으며, 그 반면 살인자인 가인은 왜 살려주었냐는 겁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정도로밖에 성서를 읽지 못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렵습

니다. 성경을 어떤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로 읽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성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할 수도 없구요.

성서읽기에서 다음의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서 안에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성서에는 이미 뻔한 답을 주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답의 방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는 답이라기보다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옳습니다. 질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은 못 들어가죠. 성서 기자들의 영성을 따라가야 그 질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괴테의 시나 훔볼트의 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고전들이나 도덕경 같은 중국 고전들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그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서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을 질문할 수 있으려면 그 쪽으로 한발 한발 자꾸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못합니다. 지금 제가 강의 진도를 나가야 자꾸 다른 쪽으로 빠지는군요. 정리해야겠습니다. 성서 텍스트가 과연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렵게라도 눈치를 채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기독교를 상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서는 그냥 내가 막 요리해서 먹으면 되는 건가요? 성서를 인스턴트식품쯤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물에 넣고 끓여 먹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성서를 마구잡이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우리의 영성이 조금이라도 풍요로워지는지.

미안하나 중국의 쓰촨성 참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사실은 밤잠을 자지 않아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이 숙제를 갖고 씨름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무죄한 자들의 고난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학교들이 많이 붕괴돼서 열대여섯 살 학생들이 폐죽음을 당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나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력에 따르는 설교를 3년 동안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사건이 너무 커서 잠시 교회력과 별도로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강림 두 번째 주일일 겁니다. 예정대로라면 성령에 대해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 신정론의 문제, 하나님이 능력 있고 사랑 있고 전능한 분인데 왜 이 땅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행들이 끊이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참사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 아픔으로 와 닿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늘 세상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사십시오. 자신의 존재를 가볍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벼워짐과 무거워짐이라는 두 가지 사태가 긴장 관계를 맺어야겠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자신을 끝없이 가볍게 만들고 축소시키세요. 거의 무화시킬 정도로 말이죠.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영성은 자기 축소, 자기 무화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됩니다. 인생살이가 힘든 것은 자기 무게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벼워지면 주변의 것이 아무리 무거워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난 십 년 동안 한국 개신교회는 양적으로 보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증세는 훨씬 전부터 있어 왔구요.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영성의 왜곡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Again 1907’ 같은 것들이나 합니다. 일종의 향수병이라고 할까요? 복고주의입니다. 우리는 결코 1907년으로 돌아가서도 안 돼요. 미래로 가야죠. 게다가 1907년에 있었던 신앙현상들이 건강한 것도 아니거든요. 값싼 죄의식이라고나 할까요? 열강들의 틈에서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나온 건강하지 못한 영적 운동이었어요. 그 때로 다시 돌아가야 할 어떤 원형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간학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서 죽게 되는가? 이 문제 갖고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조금 더 만화 같은 질문을 한다면, 제 아버님이 칠십 세 쯤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그분보다 장수해서 아흔 살 정도에 죽어 나중에 천국에 간다면, 아버님과 저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요? 제 아버님이 저보다 더 젊을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삶,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서 진지하게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정말 진지해야 할 부분에서는 진지하지 않고 가볍게 넘어가야 할 부분에서는 너무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반북, 반핵, 반김정일 같은 일에는 엄청나게 열을 올리지만 신정론 같은 중요한 문제들, 여기에는 동성애 문제도 들어가는데, 우주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문제들은 너무 쉽게 처리해버립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인들을 중심으로 군(軍)대체복무제가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근본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무조건 군대에 안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만 본다면 평화주의자로서 감옥에 갈지언정 징역을 거부하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해요. 기독교인들이 하지 못하는 걸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다면, 옆에서 박수라도 치고 입법 과정을 도와야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한기총에서는 공개적으로 그걸 반대합니다. 이런 방식으

로 세계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을까요? 많은 게 층층적으로 얹혀 있는 삶의 문제들을 일방적으로 재단하는 방식도 문제지만, 때에 따라서는 단호하게 어떤 걸 끊어낼 필요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2천 년 기독교의 역사가 이단 논쟁의 과정이었으니까요. 이단논쟁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현재 남아 있지 못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방 기독교 대표인 바울과 유대 기독교 대표인 예수님의 동생들과 제자들이 한바탕 싸움을 벌입니다. 이단 논쟁인데 살벌했었어요. 그 뒤로도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들이 이어졌지요. 물론 이단 논쟁이 때에 따라서는 정치와 결탁하기도 했습니다. 다비아 사이트에 어떤 분이 쓴 칼뱅의 이야기처럼, 정치와 연관해서 하나님 나라와는 결맞지 않은 방식으로 결정되는 수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나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논쟁들이 있어야 한다는 걸 전제하면서, 짐승거부라든지 평화를 위한 군 대체복무 등을 타종교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트집을 잡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 과연 최소한의 인간적 태도나 영성, 혹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가현설적 사고방식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이 가현설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가현설에 대한 교리사적 배경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아니라 그냥 가짜로 나타난 그림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게 가현설이에요.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이단 논쟁이 많았는데, 이단은 정통과 대부분 비슷합니다. 한자로 보면 끝만 다른 게 이단(異端)이에요. 그래서 이단적인 성향이 소위 정통이란 교회에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제가 어딘가에 썼을 텐데요. 성령과 악령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라고요. 이단인지 아닌지도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다르면 확 드러나지만 대부분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만 살짝 다르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도 해요. 다만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약화시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교회 신자들은 다 가현설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이미 예수님은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핵심적인 게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vere homo, vere Deus)거든요. ‘참된

인간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나요? 했더라도 양해하고 조금 들어주세요. 이것은 반인(半人)반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모습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에게서 빠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교부 때부터 그런 것은 배척했습니다.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은 먹기만 할 뿐만 아니라 배설도 해야 하고, 사춘기도 겪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인간인 동시에 온전한 신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 예수님의 존재 신비를 이해하는 게 삼위일체의 핵심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끝부분에서 이걸 이야기했어요. 한국교회 신자들은 대개 온전한 인간인 예수님을 들은풍월로만 이해하지 실제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거나 설교를 하거나 목상할 때 늘 그게 마음에 걸려요. 걸린다기보다 혹시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좀 염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이미 신이 되어버린 상태니까요. 어쨌든지 예수님의 인간성을 온전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가현설적인 요소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신앙 자체나 인간에 대한 이해도 역시 가현설적이에요.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건전하고 모범적이며 지금 당장 천당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세련된 인간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자기가 그렇게 되리라 기대해요. 그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모범적인 바리새인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건전하게 산다면 그것도 좋아요. 물론교도들이 세계 선교를 한다고 우리나라에도 옵니다. 더울 때도 정장을 하죠. 그와 비슷하게 부동산 투기도 안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반듯하게 모범적으로 살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독특한 게 있는데요. 교회에서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죠? 언어에서도 어떤 형(型)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 모양만 절대화시켜서 그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틀을 정하는 겁니다.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는 등의 어떤 규범이나 범주를 정한다니까요. 그런 인간 이해가 우리에게 아주 강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동성애자들은 견디질 못하죠. 숨이 막히니까요. 평화주의자, 노동 운동가 등 여러 유형의 삶이 있잖아요? 창녀들도 있어야 하고 술집 작부도 있어야 하고요. 그런 삶이 나쁜 게 아니냐고요? 일단 그 생각에서 벗어나

십시오. 제가 무(無)율법주의, 율법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윤리 문제는 다음에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죠. 오늘 제가 마음이 좀 답답해서 흥분한 것 같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좀 내버려두었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렛 잇 비!’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이 세상이 카오스로 빠지고 폭력이 난무하지 않겠느냐고요? 물론 세계 질서가 잡힐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질서는 필요하겠죠. 그것마저 우리가 다 방기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각각의 인간이 그 질서 안에서 평화롭고 다양하게 살아가도록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나요? 그냥 먹고 마셨어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술주정뱅이 아니야? 왜 그러고 사냐? 인간이 참 이상하다.’라고 속으로 많이 조롱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쁘고 반사회적이니까 이제 손 씻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에게도 매국노 같은 짓 그만 두고 깨끗하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현실 그대로 그 사람들을 인정했어요. 저도 제발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역설하는 중입니다.

줄저 설교비평집 3권이 나왔는데요. 『설교의 절망과 희망』(대한기독교서회)입니다. 이번에는 재미있게도 출판사가 띠지까지 만들었네요.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3권에는 표지 날개 속에 저자 소개와 함께 사진도 한 장 넣었습니다. 1, 2권에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이번 거는 마지막이어서 넣었습니다. 설교비평에서도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좀 세련된 교회들, 강남 지역에 있으면서 교양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 자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해요. 심하게 말하면 그건 코미디죠. 오정현 목사님이 강남을 클린 강남으로 만들겠다고 하죠? 옥한흠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제자 훈련을 하셨을 거예요. 강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클린 강남이 되었나요? 여전히 거기에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한국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 있어요. 교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잘난 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도 받았고 괜찮게 사니까, 저 사람들을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변화시켜야겠다는 식으로요. 요즘 말로 꿈 깨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은 방식대로 살라고 했을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십일조를 하면서 사는 게 좋다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자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계몽을 한다는 거죠. 그걸 그만두자고 설교비평에서 말한 거예요. 계몽 좀 그만하자고요. 성숙한 시대에는 그렇게 잔소리하는 방식으로 말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말을 듣고 혹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그 사람은 유아적인 겁니다. 이미 성숙한 시대인데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여전히 우리에게 먹히고 있

죠. 먹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만이 길인 것처럼 나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인간론은 너무 천박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계몽주의자라 할 바리새인 같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계몽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주변 사람들을 계몽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한답시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한 가지만 했어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바실레이아 투 데우)를 선포하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걸 선포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즉 창녀나 세리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로 만들고자 닦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초청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그 쪽으로 삶의 방향을 돌리라고 안내한 거죠. 그런데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바꾸는 일이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가능했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형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역설적이죠? 이상하죠? 종교적인 열심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애도 많이 쓰고 기도나 헌금은 물론 전도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전향하기 힘든 걸까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우리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민음사)이라는 제목과 비슷합니다. 그 책 읽으셨나요? 아주 특이한 구성과 내용으로 된 소설이더군요. 그런 소설을 쓰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간 이해를 갖고 설교를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민하지 않거든요. 아주 가벼운 감수성을 자극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상대방의 불안한 마음을 공격합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하고 그로 인해 교회에 나오도록 만드는 이런 방식은, 프로이트나 니체 등이 이미 충분히 분석해 놓은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일종의 가현설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성서가 그 당시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삶의 형식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오늘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주입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게 뭔지 잘 눈치 채지 못하더라고요. 대학교 교수든 변호사든 의사든, 그런 면에서는 왜 그렇게도 순진한 걸까요? 그게 믿음이라고 자꾸만 세뇌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따지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 순종이 목사에 대한 순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역사 앞에서 책임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지성적 기독교인들은 한국교회 안에서 설 땅

이 없습니다. 다 교회에서 빠져나가요. 한국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성장하지 못하고,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점점 추락하는 겁니다. 그 뿐 아니라 교회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 소형 슈퍼나 재래시장이 다 죽는 것처럼이요.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기독교 본질에 근거해서 볼 때, 이런 모습은 건강한 게 아닌 데도 불구하고 대형교회는 더 커지고 소형 교회들은 더 문을 닫을 뿐 아니라, 자립하지 못한 목사들이 최소한의 체면 유지도 힘든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런 상태를 그대로 방기하고 있을 뿐이고요.

기독교의 인간 이해는 결코 그게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 신학은 철저하게 인간론적이야 합니다. 인간이 중심 주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대상이 구체적인 이 역사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교육, 역사, 철학, 예술은 물론 정치, 경제가 모두 다 인간론이거든요. 의학, 물리학, 화학을 자연과학이라고 하지만 인간론에 더 근본에 있습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쓰고 김용준 선생이 번역한 『부분과 전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학이라는 영역이 문화를 논하고 더욱이 철학과 종교를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과학이라는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책임과 의무는 과학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과학이 제시하는 지식의 축적이 오용되어 잘못을 초래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이런 뜻에서 과학은 분명히 인간론이며, 과학적이라는 말은 바로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 과학도 인간적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구원, 자연까지 포함한 우주론적 구원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야 할 신앙과 신학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방향을 잘못 잡고 쓸데 없는 싸움에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 창조론과 진화론

그중에 하나가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진화론의 옳은 부분은 다 받아들이면 돼요. 진화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로 보면 되지 않겠어요? 아무 문제도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과학자들과 싸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화론과 투쟁하는 대표적 단체는 창조과학회입니다. 거기에는 주로 기독교 자연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서에 있는 모든 창조의 방식이 과학적으로 옳다고 말하는데요. 그런 창조과학회의 주장들은 과학계에서도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학계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한 과학자

들의 모임인 것처럼 부각되어 있어요. 웬만한 교회들이 창조과학회에서 만든 영화나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건 신앙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닙니다. 쓸데없는 싸움이니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2백만 년 전에 침팬지와 인간의 공동 조상인 어떤 유인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 친구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진과 같은 대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로 인해 아프리카가 동서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삼림지대로 이루어진 서쪽 지역의 인간 조상들은 침팬지처럼 여전히 나무를 기어오르며 먹고 살았지만, 초원지대로 바뀌어 버린 동쪽 지역의 인간 조상들은 먹을거리가 부족해 이곳저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쪽 지역의 인간 조상들이 직립 형태로 걸어 다녔는데, 이러한 직립인을 가리켜 호모 에렉투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최초로 인간적인 특징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럴 듯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인간 이해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자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해서 과학자들은 신학자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정직한 과학자라고 한다면, 기술자가 아니라 진정한 과학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원리들을 연구하고 밝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해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창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자들과 쓸데없이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그들이 진화론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에 겁먹지 마세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넉넉하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생명의 근원과 미래가 완전히 해명될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실체가 빨리 드러날수록 좋지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과학자에 의해서도 창조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행위들이 인간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을 테니까요. 과학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옳으면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물학이나 물리학이 말하는 걸 무조건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가 있어요. 그걸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신학적인 인간 이해는 과학자들의 인간 이해와는 다르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있어요. 그게 뭔지를 찾아나가는 게 공부죠. 그 공부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인간이 흙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창조과학회처럼 진화론자들과 소모적인 싸움에 빠져들지 마세요.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세요.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는 아주 알파카게 알고 있으면서, 누군가가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으면 실체도 없는

데 돈키호테처럼 너무 흥분해서 달려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고 슬프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인간을 바탕에 놓고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행복한데, 자연재해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했습니다. 용기를 냅시다. 어떻게든 버텨내야 하니까요. 심각한 문제라도 잘 받아들이고 즐겁게 지내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는 강의를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36강

### 인간과 죄 문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6개월을 약속했는데 벌써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참 빠르죠? 6월 한 달만 공부하면 다 끝납니다. 오늘은 인간에 대한 공부를 끝내게 되겠군요. 사이버 강의실에 일찍 들어온 분들은 노래를 들었을 텐데요. 무등산풍경소리 4주년 기념음반인 <풍경소리>에 나오는 ‘소낙비’라는 곡입니다. 변안곡이고, 이장순 씨가 불렀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1. 어디에 있었니 내 아들이 어디에 있었니 내 딸들이  
나는 안개 낀 산 속에서 방황했었다고 시골의 황톳길을 걸어 다녔다고  
어두운 숲 가운데 서 있었다고 시퍼런 강물 위를 떠 다녔었다고
2. 무엇을 보았니 내 아들이 무엇을 보았니 내 딸들이  
나는 늑대의 귀여운 새끼들을 보았소 마구간 옆에서 어린애를 보았소  
하얀 사다리가 물에 뜬 걸 보았소 빈 물레를 잡고 있는 요술쟁이 보았소
3. 무엇을 들었니 내 아들이 무엇을 들었니 내 딸들이  
나는 비 오는 날 밤에 천둥소릴 들었소 세상을 삼킬 듯한 총소리를 들었소  
길바닥을 기어가던 신음 소릴 들었소 친구를 부르던 목신 소릴 들었소
4. 누구를 만났니 내 아들이 누구를 만났니 내 딸들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개구리를 만났소 검은 개를 끌고 가던 흰 사람을 만났소  
사랑을 잃어버린 한 남자를 만났소 남편을 찾고 있던 아내를 만났소
5. 어디로 가느냐 내 아들이 어디로 가느냐 내 딸들이  
나는 비 내리는 개울가로 돌아갈래요 뜨거운 사막 위를 걸어서 갈래요  
빈손을 쥔 사람들을 찾아서 갈래요 무지개를 따다준 소년 따라 갈래요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끝없이 비가 내리네

끝없이 비가 내리네

위 노랫말에 ‘아들아 딸아 무엇을 보았니?’라는 가사가 나오는군요. 그들이 본 게 다 인간의 삶입니다. 이혼하고 싸우고 죽고 또는 아름답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별빛을 맞으며 밤새워 이야기를 하고요. 인간의 삶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많은 흔적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리는 주로 기독교적인 인간을 이야기할 텐데,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오늘 뒷부분에서 잠시 이야기하겠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죄와 인간의 관계, 구원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인간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이해가 시원치 않습니다. 인간이 뭐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극단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교리적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로 끝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그냥 한마디로 다 해결해버리고 맙니다. 인간과 삶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은 독단적이지요. 좋은 뜻으로 말하자면 순수하고, 나쁜 뜻으로 말하자면 천박합니다. 세상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접어두고 성서가 말하는 규범대로 살아간다는 점에서 순수할 수 있습니다. 영성가들, 신비주의자들이 다 그런 순수한 삶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천박할 수 있습니다. 순수성이 잘못 이용되면 천박해지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의 인간 이해, 세계 이해, 기독교 이해가 안타깝게도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가 CEO 대통령이라고 많이 이야기 하는데요. 아주 단정적이고 능률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만 극대화 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몰고 가는 리더십이 있어요. 이런 리더십이 다원적인 요구 사항들을 수용하고 대통령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함께 끌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맞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소망교회 장로님입니다.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기독교 신앙을 안으로 감추고 자신이 정치인이라는 점을 더 부각시켰더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그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 신앙을 내세웠거든요. 지난 2천 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생각들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적도 있어요. 오해하지는 마세

요.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기만을 바란다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잘 못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런 점에서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될 조짐들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쌓이고 쌓여서, 한편으로는 순박한 인간 이해로, 다른 편으로는 천박한 인간 이해로 떨어집니다. 주로 천박한 인간 이해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어두운 심연들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의 정필도 목사님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게 설교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설교에서 관상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쪽 하다가 술집에 있는 여자들이 얼굴이 반반하니까 말년이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술집이나 홍등가에 있는 여자라도, 또는 동성애자라도 모두 우주보다 귀한 생명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삶의 어둠과 밝음이 혼재해 있는지 헤아릴 생각은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들의 삶을 매도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합니다. 인간 이해에 대한 천박한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복음의 본질을 오히려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인간 이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더라도 대개는 가현설에 빠져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 이해는 현실적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되죠? 기독교는 하나님을 초월적이고 관념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니까 인간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텐데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서와 기독교의 인간 이해는 아주 현실적이에요. 인간만이 아니라 역사, 세계, 계시 등에 대한 이해가 모두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물질적이거나 가시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것, 리얼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강의의 뒷부분에 나오게 될 죄의 문제도 인간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구원론과도 연관되고 창조론과 심판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종말까지 관계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거미줄처럼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리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찾아나가는 공부가 신학입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죄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기독교의 창조, 성서, 계시, 성만찬, 세례 그리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는 성만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요.

## 죄에 대해

성서의 인간 이해는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통찰에서 나온 겁니다.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이나 가인의 아벨 살해사건 등, 성서에는 인간의 악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보도를 어떤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로 보면 곤란합니다. 그런 보도는 더 근원적인 어떤 사태를 전하려는 신학적 메타포예요. 구약성서 시대의 고대인들은 형제가 형제를 살해한다는 방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을 본 거죠. 도저히 다른 방식으로서는 해명할 길이 없으니까요. 안 그런가요? 인간이 왜 그렇게 잔인한가요? 여러분, 죄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 인간을 낭만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 깊이에서 보는 거예요. 또 제가 잘 사용하는 말이 나왔군요. ‘존재론적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죄는 인간에게 현실이잖아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우리에게 죄성이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이 죄성이 개인보다 사회로 나가면 더 심해질 텐데요.

라인홀드 니버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착해도 그 개인은 구조 속에서 굴러가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다고요. 쇠고기 파동과 연관해서 줄속 협상을 했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꼼수를 쓰는 것이 모두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보면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그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아침에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입맞춤을 하는 아주 자상한 아버지와 남편이었지만, 나치라는 구조에 들어가면 비인간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했거든요. 이런 이중성을 얼마나 세련되게 감추는가, 아니면 드러내놓고 폭력적으로 하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이게 인간의 본질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유괴한다거나, 집단 폭력을 통한 내전 등이 일어나잖아요? 인간이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악을 저지르잖아요? 꼭 필요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죽어요. 그리고 전쟁 때는 특히 부녀자 강간이 많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그런 짓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요.

죄의 현실들은 아주 명백합니다. 성서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키기만 하면 죄의 현실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근원적인 힘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 힘을 사탄 혹은 마귀라고 본 건데요. 이것은 고대인들이 일종의 신인동성동형

론적인 차원에서 신을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묘사한 것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죄와 악에 존재론적 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혹은 마귀가 시공간적인 범주에서 존재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고대인들이 인식하는 통로였을 뿐이니까요. 오늘날에는 뭐가 악의 존재론적 뿌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라면 우리의 무의식이 그렇게 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나 마귀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가 오늘날의 생물학적 차원에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그것의 신학적 내용이 뭔지를 알면 충분한 것처럼이요. 마찬가지로 사탄이나 마귀의 신학적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와 관련해서 엉뚱한 일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영안이 있다고 하는 교회 권사님들, 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여자 분들이, 저 사람은 귀신이 턱에 달렸다가 등에 시커먼 게 있다고 말하잖아요. 환각, 환청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밤에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면 나무에 뭐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등에 귀신이 몇 마리 붙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신병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반복된 것이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탄과 마귀의 실체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사탄이나 마귀의 방식으로 기독교가 말하려고 했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면 됩니다.

성서 기자는 우리 현실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악의 근원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악을 현실적으로 봤던 거예요.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죠. 죄를 순진하게 보지 않고 아주 근원적인 차원에서 봤어요. 그래서 존재론적이라고 말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보기에 이것은 인간이 투쟁해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는 거죠. 이건 존재론적 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쟁하거나 노력해서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되나요? 안 되죠? 그런 투쟁이나 노력이 우리의 악한 행위를 약간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그런 경향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 인간은 흙이다

죄 문제를 제외한 두 가지 관점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보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인간 창조에 대해서 J문서인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

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리고 3장 19절은 이렇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시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분명합니다. 그걸 순순히 받아들여야 해요. 너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흙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서 금 면류관을 받고 배고픔이나 아픔도 없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겠다는 희망으로 있는데,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니, 그건 우리의 육체에만 해당하는 말이고 우리의 영혼은 그런 게 아니지 않냐고 생각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딱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영과 육을 따로 나누는 것은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가 아니에요. 육은 땅으로 가고 영은 하늘로 가는 게 그럴 듯하긴 한데, 맞지는 않습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야만 인간이요. 영과 육이 분리된다고 하면 플라톤의 생각과 가까운 거죠. 인간 이해에서는 기독교가 플라톤보다는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영과 육을 하나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가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히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딱 부러지게 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말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삼천포로 빠질 가능성도 많아요. 성서에 이렇게 나온다고 몇 구절을 따다가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거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가능성이 많죠. 인간이 영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과 육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나오기도 해요. 육은 찢고 영은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과 육이 분리되면 인간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의 현재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찢거든요.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보통 천당에 간다고 말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요. 거기에 간다고 하는 것도 분명한 겁니다. 성서가 말하고 있고 명확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이 서로 모순되죠? 영과 육이 분리되면 인간이 아니고, 영과 육이 분리되어야만 육은 찢고 영은 어디로 간다는 말이 되니까요. 이게 막 형클어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설명을 하면서, 내가 잘 말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온 대로 토박토박 말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그보다는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려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혼란 상태는 아니고요.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는데 천천히 잘 풀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과 육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두 구성 요소가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얼마나 다른지도 잘 모르는 거지요. 사실은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수학 문제 풀듯이 공식을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면 풀리게 되겠죠. 기독교 역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 중에 바울의 칭의론이 나왔고, 교부들의 삼위일체론이 나왔고, 루터의 주장들이 나왔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런 것들도 마지막까지 봐야 완전히 다 드러납니다. 이 맥락을 빨리 눈치 채야죠. 기독교 신앙이 처음부터 다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기독교 신앙도 잠정적인 거예요. 불확실하지 않고 확실한 것인데 아직은 잠정적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불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신학자와 영성가들이 그런 내용들을 더 많이 풀어내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의 핵심은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방식만을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 죽음 이후의 생명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손금을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직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생명도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두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를 했지만, 그것으로 창조가 끝나지 않고 종말까지 연결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은 중요합니다. 종말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때까지는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생명도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요.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영과 육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의 실체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기독교가 뭐꼬?’라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런 표현이 기독교 신앙을 지나치게 불확실하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만큼 우리는 인간의 영과 육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흠을 이야기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했군요.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흠이 되는 게 참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흠처럼 되는 게 참된 생명과 접촉하는, 그 생명 안으로 돌입하는 길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흠이 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게 무슨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냐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고정관념이죠. 우리는 어머니 품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방식의 생명을 절대화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알고도 하지 않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식의 근본적인 한계죠. 실존적인 철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피투성, 세상에 던져진 자로서 세상 밖의 것을 알지 못하는 한계인 겁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로 설명하자면, 동굴 안에 있다 보니 밖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고 노래하고 잠담하는 방식의 삶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흠처럼 존재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큰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흠의 존재 방식으로 놀라운 생명의 평화를 허락할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단정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무인 우주선이 화성에 안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작년 8월에 쏘아 보냈는데 이번에 겨우 도착했다고 합니다. 10개월이 걸렸다는군요. 5억 몇 천만km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km인데, 빛의 속도로 9분 정도 걸립니다. 까마득한 거리죠. 지구에서 태양이 더 멀리 있을 것 같은데, 화성이 더 멀다고 하네요. 이걸 제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지는 못했어요. 참고로 태양에서 또 다른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늘의 별들은 다 태양입니다. 곳곳에 따로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별이 2-3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9분인데, 2-3년 동안 빛의 속도로 달려가야 또 하나의 별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를 생각하면 너무 까마득하죠. 화성에 도착한 무인 우주선이 탐사하려고 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표 말고 지하에 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었을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화성에도 지구 못지않은 생명현상이 있었을까요? 그 모든 비밀이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물처럼 되는 게 정말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느냐고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자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보고 복지가 극대화된 상태로만 생각한다면 생명의 차원을 축소시키는 거라고요.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생명에 참여하게 할지 열어놓자고요. 왜 우리가 그것을 독단적으로 가로막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은 성서적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철학 사상이나 동양적 영성에 기반을 둔 것 같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지



는 말자는 뜻이에요. 생명의 문제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만큼 우리는 인간을 좀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열어갈 미래를 겸손한 자세로 기다리며 살아야겠죠. 우리가 구상하고 생각하는 그 방식의 삶만을 절대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절대화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줄 새로운 세계를 기쁜 마음으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묵시문학이고,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인 거죠.

인간이 흠이라는 그 부분은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 이해의 한 부분인데, 아주 현실적인 인간 이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흠과 가까워지는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의 삶은 다 흠하고 멀어졌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낭만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가장 낮아지는 영성이죠. 흠처럼 되는 거니까요. 지금처럼 문명과 문화가 극대화된 곳에서만 우리의 삶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면 대부분 흠과 멀어지게 됩니다. 흠으로 돌아가라는 성서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태도죠. 흠을 중심으로 한 전통은 인디언들에게서 볼 수 있고, 티베트의 라다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 영적인 존재

인간은 흠이며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뭐냐는 것은 앞에서 어느 정도 말을 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은 아직 다 찾지 못했습니다. 영이 뭘까요? 이성인가요? 누구를 사랑하는 능력인가요?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으로 지음 받았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 형상은 바로 '폼'(form)입니다. 성서적인 용어로 형상은 이미지(image)고요. 헬라 철학의 용어로는 에이도스(eidos)라고 합니다. 또 플라톤의 용어로 말하면 이데아(idea)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통하는 말이죠. 그런 근원적인 생명을 가리켜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영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 혹은 속성이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이군요. 하여튼 우리는 단백질로 구성된 육체를 가진 동시에 이 육체에 떨어지지 않고 한정되지 않으며 이 육체를 넘어설 수 있는 또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헬라인들은 몸과 영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요. 결국은 영과 육이 갈라져야 하거든요. 영혼만 구원을 받습니다. 플라톤의 말을 빌리자면 이 영혼

은 아예 선재적(先在的)이에요. 이미 그렇게 있었던 영혼이 인간의 몸에 잠시 들어온 겁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의 몸은 무의미합니다. 영혼이 몸이라는 지옥에 갔다가, 육체의 죽음으로 영이 해방을 받는 거예요. 이 영은 이데아계에 있었는데, 현실계에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삼위일체론이나 신론이나 초월적인 신 이해에서는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인간 이해에서는 달랐어요. 인간의 영도 피조된 것이죠. 인간의 영은 선재적인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몸과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인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주가 모든 자신의 근거를 내부에 가지고 있다면, 피조물은 모든 존재 근거를 외부에 두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거죠.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게 성서가 말하는 인간입니다. 영도 이런 점에서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영은 언제 생길까요? 그건 또 생물학과 더불어 논의해야 할 문제일지 모릅니다.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순간에 생길까요? 배아기 때일까요? 아니면 2개월쯤 되어야 영혼이 생길까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천 년 후에 의학이 발달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도 영원한 미스터리일 겁니다. 몸과 영의 결합이라는 자체가 우리의 인식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이죠. 그 비밀을 아는 것은 신의 비밀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그걸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생명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이해하겠죠? 성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계시는 하나님 자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계시를 받으려면 죽어야만 합니다. 아마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계시가 뭔지도 모르고 다른 말을 하는 거겠죠.

인간의 영과 육의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창조는 생명이라서 완성되는 순간에나 알 수 있어요. 그걸 안다면 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명을 어떤 사물과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바위 같은 것을 우리가 생명체로 생각하지는 않죠. 뭔가 자기를 복제할 수 있는 것들만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도 우리의 인식 범주 한계 안에서만 통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나무, 바위, 강, 흙 등 이 모든 것들을 어떤 하나의 생명 세계로 운영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꼭 살아 있는 것만을 생명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생명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질 겁니다. 정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니까요.

반복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새롭다는 것은 전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이런 관점을 깊이 생각해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롭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예를 들게요. 성(sex)의 문제인데요. 동성애가 기독교계에서 예민한 문제라서 하는 말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성 개념을 절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유치한 인간 이해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완성한 뒤에 어떤 방식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 갈지 우리가 재단할 수 없어요. 그 때는 전혀 다른 방식, 이성이나 동성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생명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완성될 생명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지금의 우리를 끌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빨리 눈치 채야죠. 우리는 그런 점에서 어린아이 같아요. 아주 미숙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숙함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종종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영과 육이 이원론적으로가 아니라 통전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영을 이해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생물학적 육체성을 초월하는, 또는 그 심층에 있는 인간 구성 요소가 바로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 육체와는 구별된 요소라는 건데, 이원론적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성격을 달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은 이 지구 안에서 먹고 살고, 원소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영은 그것과는 다른 성격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겠군요. 말을 하다 보니 제 자리를 찾아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생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명을 말하지만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육적인 생명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드러난 방식이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생명의 힘들을 받아낼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을 우리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원론적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육체가 영혼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영혼이 육체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기막힌 관계를 종말이 오기 전에는 다 해명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의 많은 생물학자들이 인간의 정신활동을, 또는 영의 현상을 순전히 생물학적 작용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칼 세이건과 그의 아내 앤 드루얀은 공저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사이언스북스)라는 책에서 영혼의 작용도 뇌의 작용이라고 말하거든요. 칼 세이건은 죽었고 앤 드루얀은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주장이니까 그렇게 주

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인간 정신과 영혼이 영적인 현실성을 추구하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흠과 영이 하나를 이룬다면 구원이 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흠과 영의 구도가 여전히 신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사랑의 현실성을 지향한다면 기독교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으로도 건강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인간 이해가 초라한가요? 생물학적 정치적 혹은 철학적 인간론에 비해 무게가 좀 없나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인간 이해는 얼마든지 그들과 소통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어느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죄는 속명인가

앞에서 죄 문제를 말하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대목을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기독교가 죄를 말하는 근본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 자체에 대해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죄의 존재론적 근원을 말하려는 것이며 더 근원적으로는 그것이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죄의 속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죄는 극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설교를 듣는다면 잘못된 설교입니다. 죄책감은 기독교 영성이 아니예요.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필요해요. 사회적 책임감, 마이너리티에 대해 무관심하면 안 되겠다는 구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사회에 참여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하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예요. 청중을 세뇌하는 잘못된 심리학적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지만 이거 하나만 짚고 끝낼게요. 판넬베르크가 『사도신경해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제가 ‘다비아’ 사이트에 사도신경해설을 한장 한장 올리고 있어요. 이거 보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더군요. 이런 글들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다 놓치는 것 같아요. 판넬베르크의 책에서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극복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참된 자유에 대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유예요. 죽음, 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낭만적인 자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죠. 그 자유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안 되더군요. 이로써 확보된 것이 인간의 휴머니티에 대한 신뢰입니다. 용서 받은 자, 은총 안에 있는 자들이 누

리게 될 휴머니티에 대한 신뢰, 이것은 인간에 근거한 자유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 기독교에 뿌리내리고 있는 죄의식은 자기를 거부하거나 생명에 대해 적대감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그보다는 자기를 왜곡하는 현실 앞에서 생명을 긍정하는 쪽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죄예요. 잊지 마십시오. 생명에 대한 긍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제37강

### 인간의 하나님 경험

우리는 앞에서 몇 번에 걸쳐 인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는 이야기예요. 큰 제목으로는 하나님 경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키고, 경험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 경험의 관련성이예요.

이렇게 질문해야겠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나요? 오늘은 조금 진솔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만나봤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적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부활, 창조, 성서, 믿음, 칭의, 성화, 성만찬, 세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죠. 기독교 신앙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신학을 공부해야겠지만, 정식으로 신학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독교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당연히 생각해야 할 부분들인데,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러다 결국 속이 텅 빈 신앙인들이 되어 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이런 문제는 결코 인격이 좋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앙과 인격은 어떤 부분에서는 비례해요. 인격이 좋아야 신앙도 원만하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본질로 치고 들어가는 것은 인격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원만하고 괜찮거든요. 특별히 모난 성격이 아니라면 대개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의 인격은 괜찮습니다. 기본 바탕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이 있다고 해서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이가 오십 육십 칠십이 된다고 해도 속은 비어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게 되면, 영성이 빈곤해져요. 텅 빈 상태의 결과가 영성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겠지만 젊었을 때는 다 출발이 비슷해요. 삶에 대해서 유연하죠. 민감하게 반응하고 굳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큰 차이가 나게 되고, 칠팔십이 되면 거의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러지 못

하게 됩니다. 신앙에는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채워져야 형식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내용 없는 신앙생활에서는 형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가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겠죠? 내용을 계속 풍요롭게 채워나가는 것과, 형식만 강화시키는 것의 차이 말이에요. 이 둘은 전혀 다른데, 신자들이 그 차이를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 실존적 경험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나요? 경험했나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복음주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산다고요. 그분을 믿고서 전적으로 삶이 변했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은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가 누군가 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는 누구입니까? 물론 세례 문답을 받을 때 우리가 전해들은 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 다시 오실 분, 대심판자, 인자, 그리스도 등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신학적 의미는 모른 채 말이지요. 이런 용어들은 평신도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걸 전혀 모른 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대개는 그 신자의 실존적 신앙 체험일 가능성이 많아요. 실존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은 2천 년 전에 있던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실제로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수 없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 말은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삼위일체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예수님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신앙 형태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대개는 실존적인 건데요. 실존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심리적인 겁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한창 CCC가 한국 기독교 청년 운동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 때 그런 식의 영접 운동이 많았고, 빌리 그래함 목사의 전도 집회 등도 거의가 이런 방식들이었죠. 이게 다 미국 신앙이거든요. 개인의 회심을 강조하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근거로 해서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심리적 상태로 떨어질 때가 많아요. 제가 심리적 신앙의 위험성을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인간에게는 심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심리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놓쳐 버리고 심리에 매몰되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년들이 산상집회에 많이 참석하잖아요? 거기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정신적으로 억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그렇다고 매도할 수는 없지만요. 또 아버지와의 갈등이 심해서 집을 뛰쳐나왔던 사람이 산상집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순수성이나 진정성 등을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으로 예수 영접을 내세우지만 심리적으로 아버지와의 갈등 해소 수단이 된 겁니다. 이미 니체나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고요.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하지 않을게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영접을 하려면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고 나서 우리 삶의 토대로 받아들이는 경험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건 잘 모르고 들은풍월 정도인지 말이지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믿으려면 그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무엇인지 소상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은 것인지, 아니면 간단하게 몇 마디 듣고 그냥 내 마음의 심리 작용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 경험을 언제 하나요? 보통 하나님을 경험했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경험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경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의 구원 사역이고 생명 사건인데, 그런 것들을 나의 주관적인 작은 경험 안에 가둬 둔다는 말이지요. 거기에만 몰두해 버리고 마는, 거기에만 축소되어 버리고 마는, 거기에만 집중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까 아버지와의 심리적 갈등을 산상집회에 와서 해소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어떤 청년의 이야기처럼, 내가 가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하나님 경험이라는 것을 앞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도 많이 이야기하죠. 특히 확신을 많이 강조합니다. 도대체 구원의 확신이 뭘까요? 사실 구원도 잘 모르면서 확신에 강조를 두거든요. 기독교 신앙에서 확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확신은 광신입니다. 확신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진리론적 해석, 혹은 진리론적 근거들이 중요



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는 확신은 좀 우스운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으로만 몰고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공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걸 강렬한 방식으로 신자들에게 주입시키는 신앙이 오늘날 만연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진리론적 근거가 있는지, 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외골수로 나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자, 병든 영성이예요.

그걸 제가 경계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경험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하거나 때로는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강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거든요. 흡사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아놓고 늙음과 병,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약점을 파고들면서 건강식품을 파는 것과 같은 거죠. 약을 팔 때, 우선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아주 재미있고 즐겁게 해줘서 그들의 방어 기제를 다 해제시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듣더라도 솔깃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네 아들과 딸들을 믿을 필요가 없다, 지금 살아 있을 때 당신들 건강이나 챙겨라 하는 식으로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 비싼 건강식품을 사게 만들어요. 그것과 기독교의 복음 선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끔 생각해봅니다. 건강식품을 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중에 그걸 먹고서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솔깃하다가 나중에는 내용이 채워지지 않아서 속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겁니다. 자기가 속았다고 인정해 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서 자기가 속은 게 아니라고 자기를 세뇌시키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평생 동안 얼마나 현금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십일조 한 톨이라도 떼어 먹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라는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종의 종교적인 노이로제 현상이예요. 십일조는 고대 유대인들의 고유한 삶의 경험에서 필요했던 종교전통일 뿐이라고 말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기독교 신자들의 진리에 대한 의식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걸 용납하면 자기 인생이 다 허물어질 것 같으니까 신앙의 형식에만 편집증적으로 매달립니다. 이런 강박관념이나 심리적인 자기 확신이 도덕주의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에 대한 다른 현상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원만하고, 나름으로 바람직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좋습니다.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들어갔든, 자기가 평화와 기쁨 등을 심층적으로 경험한다

면 그것도 아마 하나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그런 기쁨이 얼마나 지속적인가? 진통제를 먹듯이 잠깐 즐겁다 마는 건 아닌가? 자기도취에 빠져서 평화라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그 근거가 과연 진리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질문, 진리론적 근거를 찾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말이죠. 무슨 예를 들까요?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종교처럼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진리론적 차원에서 보면 허구가 많은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매달리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이비 이단들도 진리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일반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과 진리론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의처증에 걸린 남편, 혹은 주기적으로 가족을 구타하는 남편과 살면서도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말하는 여자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 기쁨과 경험들이 그 여자에게는 진리로 경험될 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과연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그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말이죠.

## 기독교 신앙의 근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질문을 해야 할까요? 또 어떤 근거를 찾아야 할까요? 판넬베르크의 『사도신경해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내용이 참 좋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항목의 중간쯤에 판넬베르크가 기독교의 신앙 문제, 즉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재미있어요. 사실 좀 정확하게 읽는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참됨에 대한 인식이, 세 가지 지평에서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설명하자면 기독교가 진리라는 진리 인식과 믿음이 세 가지 지평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현존 세계 안에 있는 가시적인 근거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강의 보다 판넬베르크의 이 대목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영양가가 높습니다. 현존 세계에 있는 가시적 근거가 바로 우리의 진리 인식과 믿음이 연결되는 세 지평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요. 이것은 창조의 세계와 역사적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만든 세계예요. 그리고 지금 창조가 유지되는 것은 성령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살았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 창조의 하나님, 창조를 유지하는 성령, 이 삼위일체적론인 관점에서 나타나는 가시적 현존의 세계, 그 근거들, 이게 우리가 믿는 대상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표현이 좀 신학적인데, 이해가 되나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자주 듣지 못했던 개념이라 낯설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아주 쉽게 여러분 생각 속에서 정리가 되어야만 여러분이 신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영성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신학과 영성은 일치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학은 자꾸 이론적이고 딱딱하고 관념적이라고 생각하고, 영성이나 믿음은 정말 실질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코미디 같은 말입니다. 신학적 통찰이 없으면 도저히 영성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좀 낯선 개념이 있더라도 자꾸만 듣다보면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창조는 성령과 하나님이고, 역사의 문제는 예수예요. 따라서 우리가 창조 세계와 역사 문제를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왜 기독교 신앙이 바라고 신뢰하는 대상이 옳은가를 설명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시적 근거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학자나 물리학자나 생물학자 등이 말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문학자나 철학자들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요.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슈뢰딩거나 하이젠베르크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양자역학에서 볼 때, 성령이 왜 근거가 있는지를 오늘의 현대 신학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기독교의 해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하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주관성 안에 매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껏 해봐야 우리는 매일 기도한다고 하고요. 기도도 자기 확신에만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그 대상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자기에만 있는 거죠. 그게 깨져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이걸 틀림없이 자기 연민이에요. 신앙의 모습들이 다 여기에 놓여 있어요. 어린 청년이든 나이드 사람이든 모두 다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고요. 개교회주의도 사실 자기 연민이거든요.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엄격히 말해서 이게 죄예요. 성서에서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가 자기중심성이거든요. 따라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성령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을 하더라도 자기의 심리적 작용에 불과한 것이지, 창조와 종말과 역사를 향해 열려

있는, 삼위일체의 한 존재방식인 성령과의 소통은 아닌 거죠. 기독교 신앙은 상당히 풍요롭습니다. 우주론적이고요. 이걸 빨리 눈치 채야 해요. 마마보이처럼 엄마 치마폭에 싸여 있는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둘째는 이 가시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신뢰가 실제로 관계되어 있는 불가시적 현실성입니다. 좀 어렵죠? 신앙의 깊이로 들어간다는 것은 껍질을 깨고 자꾸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용어가 좀 낯설어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뚫고 나가야 해요. 가시적 근거(visible ground)는 꼭 필요해요. 이걸 토대로 해서 기독교 신앙이 실제로 불가시적 현실성(invisible reality)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판넨베르크가 말한 불가시적 현실성에 대해 느낌이 오죠? 보통 사람들은 가시적이어야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가시적 근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근거가 불가시적이라고 해서 결코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오감은 아주 제한적인데, 우리의 오감에서 벗어난 것을 없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 안에 들어오지 않는 불가시적인, 그러나 확실한 것, 리얼리티죠.

판넨베르크는 이것을 다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앞서 첫 번째 근거를 설명하면서 삼위일체론적이라고 말했죠. 여기에서도 삼위일체론적으로 설명해요. 첫째는 불가시적 현실성에 하나님의 현실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성은 불가시적이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출 33:20). 우리는 이 땅의 생명으로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 경험은 간접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불가시적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혹은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와 종말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여기에 있는 우리는 지금 이것만 경험하잖아요. 아주 일부죠. 그 일부인 우리가 어떻게 전체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호랑이 털 하나를 경험하고서 호랑이를 안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스운 거죠. 우리의 경험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현실성이 불가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만 자기를 나타낸다는 의미예요. 그런 하나님의 현실성이 불가시적이라는 거고요. 둘째는 불가시적 현실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성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니깐 당연히 예수님이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있었던 분이긴 한데, 지금은 들림을 받았습니다. 들림 받은 예수의 현실성이 불가시적이죠. 역사 안에 있었을 때는 가시적인 근거예요. 그러나 부활과 승천, 이것을 우리는 들림을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다

른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가시적이죠. 셋째로는 누가 나와야 할까요? 성령입니다. 판넨베르크에 따르면 ‘셋째는 교회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비밀이 충만한, 심층적 차원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현실성’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현실성이 불가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자주 듣는 용어가 있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현실성이었죠. 이것만 이해해도 여러분이 낸 수강료는 아깝지 않아요. 성령의 현실성은 물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전체 하에 교회 안에서 비밀 가득한 심층적 차원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현실성은 불가시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겠죠? 기독교의 하나님 경험은 그냥 믿는다고 하는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진리론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신주의자들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신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진리 인식의 세 가지 차원에서 연관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중입니다. 첫째는 가시적 근거, 둘째는 불가시적 현실성이었어요.

하나 더 말해야 하죠? 세 번째 근거는 판넨베르크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신뢰는 의지할 만한 것에 대한 확신을 기대하는 것과 연관된다.” 쉽게 전달이 안 되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에 대한 확신을 기대한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미래적 희망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지할 만한 것에 대한 확신을 기대하는 것과 연관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세 가지 항목으로 나온다고 해요. 첫째는 죄의 용서, 둘째는 죽은 자의 부활, 셋째가 영생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에 대한 확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일종의 기대인데요. 죄의 용서는 나중에 일어나게 될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인정만 받는 거죠. 실제로 용서를 받았다고 믿기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또 죄를 지으니까요. 죄 문제가 신학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은 겁니다. 궁극적인 죄의 용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만,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믿는 것이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시다.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은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는 부활을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것으로 희망하고 있을 뿐 아직 부활의 실질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걸 기대하는 거고요. 영생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 우리는 어렴풋이 이해할 뿐 그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영원하다고만 말한다면 정확한 표현이 아닌데요. 그냥 영원하다고 하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이 잡히지 않아요. 계속된다는 게 뭘니까? 따라서 이 영생은 무조건 계속된다는 게 아니라 참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생명은 유한하고 잠정적이고 불완전하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생명을 가리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대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진리라는 사실을,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돌아가서요. 첫 번째 근거를 가시적 근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제로 보면 과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인 불가시적 현실성은 현재의 심층이라고 하는 게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미래에 대한 것이고요. 제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전체 시간으로 구도를 짜보았는데 판넬베르크가 말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 이런 형식으로 구분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왔네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비밀 가득한 심층적 차원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현실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교회의 삶이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샬터교회에서 성만찬을 했는데요. 매월 한 번씩 합니다. 떡과 포도주,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뢰하고 받아들여요. 그것은 심층적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그러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층적인 생명 경험을, 혹은 구원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 교회의 삶에 심층적으로 활동합니다. 싸우고 복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성령이 활동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하나님 경험에 대해

다시 본줄기로 돌아와서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경험합니까? 아까 제가 말한 형식적인 것들 말고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걸 느끼나요?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우리가 얼마나 리얼하게 인식하고 경험하느냐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게 없으면 우리는 집중할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하죠.

예배 순서들도 자칫하면 사람들이 앞에 나서는 것에만 치중하게 됩니다. 이게 다 삼위

일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자기과시일 수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면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는 것과 같아요. 독서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약간만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 경험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냥 믿음만 좋으면 되지, 즐겁게 살고 봉사하면서 살면 되지, 하는 정도로 넘어가고 그 중심으로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골에서 일자무식으로 사는 분들도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는 인문학적 성서 읽기를 하는 걸까요?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지는 차원에서 한 질문입니다. 일종의 영성가가 되어야 하니까요. 하나님과 삶에서 신비주의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 같지만, 삶과 죽음 시간 같은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다시 직면하자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작은 방 안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함께 한다고 믿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나요? 대답이 뭘까요? 어떻게 경험하세요? 대답은 생명 경험입니다. 하나님 경험과 생명 경험은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듯이 생명도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종말에 가서 우리가 부활을 직접 경험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듯이 생명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말에 가야 다 알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잠정적이고 무상한 이 생명이 어떻게 영원하고 참된 생명이 개입해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입에만 붙어있을지 모릅니다. 느끼지를 못해요. 느꼈다고 해보야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 뭐가 안 되었던 게 잘 되었다는 방식의 기도 응답쯤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경험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용돈을 주면 군것질을 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버지 어머니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것으로만 만족하겠다면 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혹은 그런 훈련이 아예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벌써 시간이 지났군요. 하나님과 생명, 그렇게 화두를 던지는 것만으로 끝나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시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죠? 숨에요. 인간관계에서는 악수를 합니다. 접촉하면서 인간애를 느끼는 것도 생명 경험일 수 있어요. 이런 경험들은 생물학적 차원에서부터 시작해 많이 있겠죠.

우리가 지난 두 주간 동안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인간을 흙과 영이라고 했고, 이 두 구성 요소가 통전적 관계라고 했어요. 생물학적으로 단백질로 구성된 게 인간의 몸이고, 영은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힘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을까요? 이런 현상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경험합니다. 이 생명 경험이 하나님 경험이에요. 출애굽 사건 있죠? 유대인들이 왜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존해 왔을까요? 그게 자신들의 생명 경험이었던 거예요. 생명은 삶이죠. 쉽게 생각해서 살아 있다는 걸 경험했던 겁니다.

여기서 살아 있다니, 뭐가 살아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이걸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바위는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우리의 오감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을 자기 후손을 번식하는 것으로만, 뇌와 신경이 살아 있는 것으로만 생명으로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호흡을 하듯이 생명을 진지하고 리얼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늘의 역사에 심층적으로 활동하는 성령의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나 세속적이지 않고 물질적이지 않은 생명의 차원으로 돌입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의 토대에서 신앙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해 갔으면 좋겠어요.



## 제38강

### 기독교 윤리에 대해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는 기독교 윤리입니다. 제 강의안의 제목은 ‘기독교의 윤리적 지평’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기독교의 윤리, 혹은 기독교 신앙과 윤리라고 하면 되지, 왜 지평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분도 있을 겁니다. 학자언하는 사람들은 쉬운 말을 어렵게 만드는 못된 습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평이라는 말을 썼는지도 모르죠. 의식하고 쓴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지평 개념을 설명하는 거로부터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그 개념이 신학 전체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 윤리적 ‘지평’

지평이라는 단어는 독일어로 호리존트(Horizont)라고 합니다. 영어도 비슷하게 발음합니다. 직역하면 차원이라는 뜻이죠. 호리존트라는 단어를 일상적인 말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세계’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음악에도 세계가 있고 미술에도 세계가 있고요. 영화에도 세계가 있고 시에도 세계가 있고, 다 세계가 있습니다. 바둑에도 세계가 있는 것 아세요? 조폭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늘 움직입니다. 왜 제가 이 단어를 썼는가 하면,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움직이는 어떤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좀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윤리나 도덕은 다 비슷해서 하지마라, 혹은 하라는 식의 규범들을 말하는 게 아니냐고 말이죠. 물론 그런 윤리도 없는 건 아닙니다. 주로 규범윤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두 마디로 딱 끊어서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규범윤리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규칙이나 규범에 맞게 끌어가면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규범윤리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되었어요. 구약성서의 율법은 일종의 규범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규범윤리는 현재에 와서는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윤리가 고정된 어떤 원칙이 아니라 어떤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리존트

말을 붙였어요. 윤리는 기독교 신앙과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접어놓고라도, 윤리의 차원에서 볼 때 정말 윤리적인 사람은 규칙에 딱딱 맞춰서 컴퓨터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상황윤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규범이 주로 텍스트(text)에 중심을 둔다면, 상황(context)은 텍스트와 대조되는 것으로 어떤 상황에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삶의 자세에 중심을 둔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겁니다. 저의 입장은 규범윤리나 상황윤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령론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역동적인 방향을 의미합니다.

혹시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신학생들이 있다면 용어들을 빨리 익혀서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용어도 다 세계가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 칭의, 종말 같은 용어에도 다 세계가 있고, 다 연관되는 문제예요. 딱 고정된 게 아니라 호리존트, 지평인 거죠. 계속 움직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세상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눈치 채고 있을 겁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새롭고 신비로운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원칙으로도 이런 걸 다 답아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학문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삶에 다 들어 있어요. 그 안으로 한발 한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학위를 판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세계를 조금 맛본다는 것인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신학 공부를 정식으로 하지 않아도 신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자기를 계시하는지는 계시니 종말이니 하는 전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다만 축자영감설에 매여 있거나 교리문답을 달달 외우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성령론적 윤리를 언급하면서 제가 신학생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윤리적인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성령과 교제함으로써, 즉 성령의 말 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한 대답을 할 줄 아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그 생명과 진리의 영인 성령 쪽으로 나가는 능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촛불집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는 딱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판단해야 해요. 나가는 사람이 윤리적이거나 나가지 않는 사람이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없

는 겁니다. 반대로 나가지 않는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간다고 해서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럼 좋고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 멋대로 하라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런 문제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성령론적 윤리입니다.

제가 진도는 나가지 않고 제목만 붙들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다가 제목이 낡은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리는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거나, 사람들이 일률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거나, 학칙에 맞도록 살게 한다거나, 사회의 풍속들(삼강오륜, 도덕규범)을 잘 따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다가오는 삶 앞에서 생명 지향적으로 바르게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이 좋으면 윤리적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행동이 개차반이야, 하는 말도 합니다. 이런 말들은 신앙과 윤리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정말 그런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적으로 살아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모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조금 더 진솔하게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신앙이 좋으면 정말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되나요? 저는 별로 그런 거 같지 않더라고요.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게 없다는 사실을 저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찮은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딜레마죠. 분명히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다르게 살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르게 살 가능성도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되돌아봐도 기독교 국가가 비기독교 국가보다 더 윤리적이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들은 개신교와 로마가톨릭이 강합니다. 기독교 국가는 아니더라도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공화당 출신의 부시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미국의 보수주의, 온건한 복음주의 쪽의 기독교가 중추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윤리적인 국가냐고 묻는다면 여기에는 자신이 없죠. 쇠고기 파동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미국도 자기들의 이윤만을 극대화하기에 바쁩니다. 우리보다 약한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본다면, 미국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자국 이기주의에 대해 우리가 손가락질할 만한 입장은 되

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미국의 잘못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과 기독교 윤리는 상당히 연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별로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이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걸 어려운 문제입니다.

## 인간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

우리가 윤리를 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 행위에 대한 가치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행위가 혹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가치에 대한 판단이 없다면 윤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윤리가 가능하지 않죠. 그들은 그저 자연 속에 던져진 존재들로서 자연에 충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배고프면 무조건 잡아먹어야 해요. 무조건요. 사자는 옆에 있는 노루나 토끼를 잡아먹어야 하는 거죠. 노루가 지금 임신 중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연의 요구에 충실한 겁니다. 반면 그들은 배가 부르면 옆에 토끼가 지나가도 잡아먹질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좀 달라요. 자기 행위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해요.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혼자 있다면, 무인도에 있거나 사막의 성자들처럼 혼자 명상만 하고 싶어 한다면 윤리는 필요하지 않겠죠. 인간만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행위가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윤리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고 했죠? 결국 윤리는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행위의 가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현대 사회는 옛날에 비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론적 판단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도, 우리는 윤리 문제를 몇 개의 규범을 던져주고서 군대처럼 따르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시대가 요구하는 기준들을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요구들이 사람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타당하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행위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요. 가장 보편적인 윤리라고 한다면 사랑, 평화, 정의 같은 개념들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행위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서로 충돌합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 군인들의 용감무쌍한 활약상들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요구를 받은 우리 국군은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생각으로 베트남에 갔겠지만,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그게 끔찍한 사건이었거든요. 같은 사건을 놓고서 서로가 충돌하는 거죠. 뭐가 윤리적이냐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윤리를 말할 때 몇 가지 기준들을 세워놨어요. 성서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몇 가지 기준들입니다.

## 존재와 행위

첫째는 존재와 행위의 관계예요. 이런 구도에서 윤리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존재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 개념이 분명하게 잡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좀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행위는 아주 정확하죠. 겉으로 드러난 행위 그 자체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죠. 존재는 그것의 바탕입니다. 성구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존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대로 나무이고 행위는 그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어요. 이게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다르긴 하지만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존재가 새로워져야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너무 진부한 이야기죠.

잘 아는 이야기인데, 강의안에 나오는 예수님의 한 비유를 설명하는 게 좋겠군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앙도 좋고 행동도 아주 좋았죠. 이 행동에는 종교적인 행동, 사회적인 행동이 다 포함됩니다. 당시에는 세속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이 구분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윤리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사사건건 충돌을 합니다. 물론 복음서는 그걸 조금 과장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탐탁지 않게 보였을 가능성은 아주 높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 11-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가장 모범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반대로 세리는 전혀 그렇지 못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이걸 참 어려운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 내용에 나온 것처럼 그럴듯하게 살았어요. 이 죄인들

은 정말 나쁘게 살았고요.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얘기했을까요? 답은 여러분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세운 업적에 마음을 두었던 겁니다. 반면 이 죄인들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만 마음을 기울였던 거죠. 은총에 의한 의, 혹은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와 행위라는 제목으로 설명한다면, 바리새인들은 행위에 치우친 사람들이고, 죄인들은 존재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겉으로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일반적인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더 인정해줘요. 교회에도 잘 나가고, 헌금도 잘 드리고, 말도 세련되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깐요. 여러 면에서 모범적인 사람들이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시원찮은 사람들, 세속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지향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놓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개치반이고 하나님의 은총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서울역을 지나다 보면 노숙자들을 보게 됩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자는데요. 요즘은 그나마 날씨가 좀 따뜻해서 잠자리가 나은 것 같아요. 추울 때는 지하도 같은 곳에서 스티로폼이나 두꺼운 종이를 깔아놓고 자죠. 폐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알코올 중독자나 폐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은총 지향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반면에 찬송가와 성경을 끼고 교회에 나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하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 감사하며 실질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를 향해서도 하는 말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이룬 것이 있거든요. 좋은 책을 쓰거나 설교비평을 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했다는 것 등이 남아 있어요. 나를 나타내는 것에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기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은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 '다른 게'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그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는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존재 지향적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마땅한 열매가 나와야 해요. 바리새인 같은 열매 말고요. 그런데 그 열매를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걸 누가 판단하겠어요? 그건 우리 스스로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미묘합니다. 우리는 자기 세뇌가 가능한 존재들이어서 고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밑바닥에 교만한 자기 의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그걸 우리 스스로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예요. 난 이만하면 됐다,

참 겸손하다, 마음을 비웠다는 식으로 생각해요. 죄인처럼 주님 앞에서는 오직 은총만 기대한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정말 그렇다고 믿고 있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용서를 빌어야 하고 우리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신학적 근거에 비춰 보는 반성(reflection)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반성이 없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바리새인적인 소유 의식에 빠져버릴 겁니다. 이런 것은 인격이 좋고 해결되는 게 아니예요. 이 단락의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네요.

우리 존재의 변화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존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과 행위의 문제로 설명한다면, 믿음은 행위를 규정하고 행위는 믿음을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론적으로는 믿음이 우선하고 인식론적으로는 행위가 앞선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우선인가 행위가 우선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둘이 서로 결탁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 행위의 존재론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르게 믿으면 당연히 그 근거에서 그 뿌리에서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그 열매를 자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모양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나올 수 있는 존재론적 근거이고요. 행위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존재, 우리의 나무됨을 인식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존재와 행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 두 차원, 존재와 인식이 극단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쪽에서는 오직 믿음만 외치면서 의지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직 실천만 강조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에서 일종의 영적 에너지 부족증이 나타나고요. 민주화나 노동 현장에만 뛰어다니거나 사회봉사에만 치중하다가 그 일이 조금 해결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는 것과 비슷합니다. 민중신학에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가 사회봉사나 민주화 운동도 가열하게 펼쳐 나가야 하겠지만 시민단체들과는 구별돼야 하거든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관계인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에 띄게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리를 지평이라고 말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과의 존재론적인 믿음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지, 무엇이 거기에서 나오는 참된 열매인지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 힘들고 자기 자신도 판단하기 힘든, 성령만이 판단할 문제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주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기도 시간에 맞추어 기도 잘하고

큐터를 잘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려니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주일에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 경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분명하게 된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이 심화된 사람이라면 삶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더 설명해야 할 문제가 있긴 한데, 불립문자라고, 말로는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네요. 더 미묘한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강의를 귀담아 들었다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개인과 사회

기독교 윤리를 말할 때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통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성령론적 윤리, 존재와 행위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개인과 사회는 좀더 구체적인 관점이에요. 이것은 라인홀드 니버라는 미국의 유명한 윤리학자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일 수 있지만, 사회 구조 속에서는 부도덕하게 행동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죄,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는 개인이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겠지 하는 식의 낭만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관점입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신학 성향을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윤리학자입니다. 그는 이 죄의 현실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개인 하나하나를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으로 만든다고 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자들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세상에서는 개인적인 윤리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니까요.

교회 개혁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신자 한 사람이 각각 각성하고 새로운 사명감으로 열심히 잘하면 교회가 개혁될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한국교회가 구조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한 개인이 그것을 뚫고 나가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교회에 대한 의식이 분명한 젊은 목사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자신의 생각대로 설교하거나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가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바르게 목회를 해도 견뎌내기 힘들 겁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구조 뿐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 이 사회 전체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서 투쟁해나가야겠지요. 그런 점에서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개인은 시대정신에 매몰되기 때문에 시대정신이 부패한지를 아닌지를



먼저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대 자체가 부도덕하면 개인도 부도덕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한두 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시대정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시대에 로마 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전쟁에서 가져온 노획물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로마 시에 살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인격적일지 모르지만 시대적으로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두 번째로 북아메리카를 무력으로 접수한 청교도들인데요. 아메리카에 가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았고요. 그것을 근거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힘을 키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청교도들이었다고 해도 북아메리카를 정복하던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부도덕하다고 할 수 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잘 믿고 청교도로서 성실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르지만 시대 자체가 악한데 그중 한두 사람을 윤리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분단체제예요. 지금 남한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의 상당수가 남북분단 때문에 일어납니다. <창작과 비평>의 편집인으로 서울대 교수였다가 은퇴하신 백낙청 교수가 분단체제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분석했는데요. 그분은 지금 우리가 분단 이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정의하더군요. 우리가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대학 진학률을 보일 뿐 아니라, 개개인들이 상당히 계몽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만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활동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게 아마 분단체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2-3백 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 시대를 돌아본다면 이 시대 속에서 살았던 우리에게서 도덕성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북쪽에서는 숙청이 일어났고 우리 남쪽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념적인 문제로 죽이고 쫓아내고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분단체제에서 벌어진 부도덕한 행위들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그 시대 안에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다 공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도 총체적인 부도덕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유와 소비가 오늘 우리의 삶을 확인해주는 가장 크고 유일한 근거가 되어 버렸죠. 우리는 모두 이런 방식으로 삽니다. 모든 삶들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있어요. 이런 시대정신과는 전혀 다르게 살게 될 우리의 후손들은 이 시대를 살았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마도 전체적인 시대정신의 부패로 인해서 모두 부도덕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 윤리가 초등학생들에게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는 몇 가지의 규칙을 가르쳐서 모범생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작업이라는 거였습니다. 존재와 행위의 문제도 그렇고, 개인과 사회의 문제에서도 그래요. 이게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두 가지 규범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면 도덕적이고 저렇게 하면 부도덕하다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도덕적인 훈계로 떨어지고 맙니다. 때로는 훈계도 필요해요. 그러나 훈계만 받던 사람들은 윤리학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에는 윤리학이 없어요. 사실은 있다고 해도 규범윤리만 차고 넘치죠.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는 방식에 신자들이 주눅 들어 있어요. 아주 적나라한 예로 술 담배 문제가 있죠.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단순히 사는 방식의 훈련입니다. 잔소리를 듣고 훈련하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 도덕주의 설교의 문제

그래서 제가 설교비평에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도덕적 설교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도덕적 설교가 거의 잔소리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신자들은 그게 설교인줄 아는 거죠. 장경동 목사님은 이혼 문제를 다루면서 ‘참고 살아!’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좀 우습지요? 이혼해야 될 경우에는 이혼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박지르듯이 뭐는 하지 말고 뭐는 하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 자녀들도 잔소리 듣고 자라면 나중에 정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죠? 한국교회 신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잔소리를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에 직면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윤리라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차원에서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존재와 행위의 문제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습득하게 되면 겉으로 드러난 멋진 행동만을 보면서 무조건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판단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죠.

제가 도덕주의적인 설교를 도덕적인 잔소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 물론 조금 고상하게 말하는 경우는 잔소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말하다 보니 좀 거칠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규범적인 설교여서 그랬어요. 규범적인 설교를 하지 말라는 제 주장에 대해서, 성서에 그런 규범이 있지 않느냐고 반론들을 합니다. 그런 반론들은 일종의 성서 실증주의 윤리입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실증적인 가르침으로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성서 실증주의죠. 물론 성서 안에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도 있고, 산상수훈에 보면 고귀한 가르침들도 있어요. 또 로마서 뒷부분에도 보면 윤리적인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도 있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서의 그러한 진술들이 바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결국 성서해석이 관건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 있잖아요. 그 열매들은 기독교적인 덕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헬라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덕이었어요. 그걸 바울이 그냥 도입했던 것뿐인데요. 성서에는 그런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냥 기독교 윤리로 받아들여서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좀 역설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교회에 가서 나쁜 게 있냐고, 교회 가면 좋은 거 하라고 가르치니까 교회에 가면 좋다고들 말하죠.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시민종교가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건전한 시민을 양육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거죠. 십자가가 바로 그 겁니다. 그렇다고 시대의 말썽꾸러기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시대가 늘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영어 몰입 교육부터 시작해서 중고등 학생들이 늦은 밤 시간까지 수업을 하고 학원에 다니는데, 이런 삶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의 모습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정신에 우리가 어떻게 항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녀들이 학원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축하 예배를 드리기도 하던데요. 그런 기독교 신앙은 그 당시 스캔들이었던 예수의 십자가와는 거리가 먼 일종의 시민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서에 나와 있다고 무조건 가르칠 게 아니라 왜 그것이 그 당시에 가치 있는 삶의 근거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늘날에는 어떤 삶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죠. 2-3천 년 전에 있었던 성서 윤리를 그대로 공식처럼 우리에게 가져다가 적용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성서가 우리의 윤리적 전범은 될 수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해야겠습니다. 성서에 있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다 대입시킬 수는 없다고 했어

요. 우리는 왜 성서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윤리 규범들을 가치 있게 생각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배워야 해요. 오늘날의 문제는 오늘날의 시대적 정신에서, 혹은 우리의 세계 이해 안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윤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 주에 걸쳐 공부하게 되니까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성 문제를 다룰 때 동성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2천 년 전에는 이것을 죄로, 정확하게 말해 조의 결과들로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윤리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우리의 생명 이해, 오늘의 삶의 이해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성서에서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순수해서 좋기는 한데 순수하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워야죠. 옳은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성서에 있다고 해서 실제로 다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도 성서에 많이 있으니까요. 물론 맞는 이야기도 많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서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그 당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규범들이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에요. 중요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다 놓치기도 합니다.

다시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지평이란 말을 꼭 외워 두세요. 지평은 세계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들은 것 중에 이 개념만 이해해도 이 시간이 아깝지 않죠. 성서가 그런 윤리적 규범들을 말하게 된 데는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규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생명을 이해했던 거죠. 생명을 지키는 어떤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참 놀라워요. 그 당시에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오늘날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을 심화시키고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서의 윤리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겠네요. 기독교 신자들의 윤리를 규정하는 유일한 전범이 성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윤리적 근거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윤리적 규범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규범에 이르는 길은 있어요. 바로 해석하는 능력이지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 말입니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당면해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들은풍월로 이걸 좋다, 이

건 나쁘다고 말하나요?

오늘 저의 강의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이기 않아도 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기독교적인 신비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미 다 아는 뻔한 답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아는 척한다면 그건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죠. 기독교 윤리라고 해서 성서대로만, 뜨거운 신앙체험으로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 나라와 직결됩니다. 우리의 윤리적 삶은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삶은 뭐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의 근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얻으니까요.

여기서 성서와 하나님 나라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입니다. 성서가 하나님 나라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성서는 이미 이천 년 전에 쓰인 문서지만,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간 행위에 대한 가치와 판단은 이 종말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 알면 신학자예요. 뭐예요? 잠정성입니다. 우리의 윤리가 잠정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은 늘 이 안에 머물러 있어요. 윤리에 대해 냉소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가 최선의 것을 찾되 결정된 것은 없다는 거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에 근거해서 오늘 이 현실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 종말에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이 오늘 우리의 삶에 병행되도록 우리가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인 윤리 문제, 성 윤리와 소유 청빈 같은 문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 제39강

### 하나님 나라 윤리

강의 전에 <한겨레신문>에서 읽은 작은 글을 소개할까 합니다. 안도현 시인이 ‘시와 연애하는 법’이란 제목의 글을 이 신문에 연재하고 있어요. 이 꼭지에 공지영, 안도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교대로 쓰더군요. 이번에 안도현 시인이 쓴 글이 재미있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설교나 기독교 영성과도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할 때 시를 예로 많이 들었는데요. 시 자체를 말한다가보다는 시 경험과 성서 경험이 비슷하다는 말을 한 겁니다. 둘 다 언어 경험이니깐요. 시와 성서, 설교의 공통점은 어떤 체계 안에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성서도 언어고 시도 언어잖아요. 언어가 사건이라는 거죠. 언어는 우리가 보기엔 늘 그대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살아 있습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열림이고요. 언어는 이 세계를 향해서 열려져 있어요. 시 한편이 있다고 하면, 그 시는 하나의 상품처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고정시킬 수 없는 어떤 사건, 세계인 겁니다.

그걸 앞 시간에 ‘지평’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제가 약간 전문적인 용어를 쓰더라도 이해해주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최선의 길이에요. 지평이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고, 그 지평이 곧 세계라 했습니다. 시라고 하는 언어가 사건으로 세계를 향해 열려 있어요. 기독교로 말하면 종말론적으로 열려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고정된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지평으로 이해하는 거죠.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이 감각 속으로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해요. 우리는 늘 실증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증이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이 세계를 다 실증적으로 담아낼 수는 없잖아요. 수학 공식처럼 다 풀어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연과학적인 논리 실증주의로는 다 해명해 낼 수가 없죠.

#### 안도현의 시론

안도현 시인이 신문에 쓴 글의 제목은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과의 결별’입니다. 이 제

목을 들고 이게 바로 신학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영성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네 번째 글인데요. 인터넷으로 <한겨레신문>에 들어가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단락만 읽어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가을’을 소재로 한 편의 시를 쓴다고 치자. 당신의 머릿속에 당장 무엇이 떠오르는가? 아마도 가을의 목록은 십중팔구 ‘낙엽·코스모스·귀뚜라미·단풍잎·하늘·황금들녘·허수아비·추석’과 같은 말들일 것이다. 이런 말들이 당신의 상상력을 만나기 위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러다가 낙엽은 ‘떨어진다’는 말로 연결되고, 코스모스는 ‘한들한들’이라는 의태어를 만나고, 귀뚜라미는 ‘귀뚫귀뚫’이라는 의성어와 결합하며, 단풍잎은 ‘빨갭게’ 물이 들 것이며, 하늘은 ‘푸른 물감을 뿌리다’는 문장과 조우하며, 황금들녘은 풍요의 이미지를 데리고 올 것이며, 허수아비는 반드시 ‘참새’를 불러들이고, 추석은 ‘보름달’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한심한 조합으로 시의 틀을 짜려고 한다면 그 순간, 그때부터 당신의 시는 망했다고 보면 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이 시인은 한심하다고 지적해요. 가을의 푸른 하늘은 높다, 물감을 뿌려 놓은 것 같다, 이러면 이때부터 시는 망하는 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간에 다른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연탄시인’으로도 이름을 날렸는데, 연탄재와 가을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설명했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동시를 가르치는 책에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문장을 써놓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찾으라고 하는 건데요. ‘토끼는 ( ) 뛰어간다.’ 여기에 답을 쓰라고 하면 학생들은 뭐라고 쓰겠어요? ‘깡충깡충’을 정답으로 알고 쓰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동시를 쓸 때마다 토끼는 깡충깡충 뛰한다고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창의성을 죽이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토끼가 산에서 깡충깡충 뛰는 걸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념으로만 아는 동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냇물은 졸졸, 새싹은 파릇파릇, 이렇게 진부하고 상투적인 언어들이 시를 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설교가 그 따위로 진행되고 있어요. 시냇물은 졸졸, 이런 식으로요. 성서와 성서를 근거로 한 영적인 세계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혹은 우리가 진부하게 알고 있는 기존의 이야기 방식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서를 새롭게 읽어보세요. 사건이 되도록, 지평과 세계가 열리도록 말이죠.

오늘 제가 강의하게 될 윤리 문제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늘 결정된 틀이 있거든요. 정말 속상한 일인데요.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뿐이죠. 뻔한 이야기죠. 공자 왈입니다. 이견 무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그걸 보지 않을까요? 더구나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세뇌시키면 기독교 윤리는 죽고 하나의 규범만 남게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윤리도 결국은 하나의 사건이 되어야 하고, 열려 있어야 하고, 종말론적으로 나가는 흐름을 타야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과 결별하고 낯선 진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낯선 진실을 경험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낯설게 다가오나요? 이 세계가 그렇게 다가오나요?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작용이 예민하게 작동하기만 하면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런 맥락 속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일단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도 경험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되면 좀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부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낯선 진실로 다가오는 방식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안도현 시인의 글이 좋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 종말론적 생명

여러분, 개구리 소리가 들립니까? 제가 연구실로 사용하는 아파트 밑에서 지금 개구리들이 울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비가 경상도 말로 억수로 왔습니다.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비가 와서 그런지 개구리가 엄청 울어대네요. 소리가 참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전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질문이 올라와서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즉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삶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성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비슷한 이야기는 나을 법하기도 한데 지금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그 때를 기억할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의 숨소리와 피가 배꼽을 통해 내 몸속으로 들어왔던 기억들은 지금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사건들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의 기억에는 남아 있지 않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어머니의 영양 상태에 따라서 나의 발육 상태도 달라졌을 거고, 어머니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의 정서 상태도 영향을 받았을 텐데, 기억은 나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다른 생명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혹은 너무 낯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만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금 면류관을 쓰고 이 땅에서 충성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 하는 거죠. 거기에 가서도 안수집사나 장로 같은 좋은 자리를 얻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시원찮게 봉사한 사람은 상급도 시원찮게 받아야 하고요. 그런 생각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의 모든 체험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흡사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복음서에 나오는지 서신에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을 우리가 거기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다시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라는 것이 어려운 문제예요. 대개 사람들이 기억할 때 가치 판단이 들어가고, 호불호(好不好) 같은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최후의 심판 때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갈라진다고 보는데요. 알곡,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나쁜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쁜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완전한 세계가 아니라는 말이니깐요. 그런 것들을 두루 두루 생각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우리가 약속으로 그것을 믿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뿐이고요.

또 생태적 생명 사상, 즉 자연과 우주의 생태적인 생명과 제가 가끔 말하는 기독교의 유기적 생명이 어떤 연관이 있냐 하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도 힘들고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 말을 해도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나 간략하게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생태적 생명사상과 기독교의 유기적 생명사상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말해달라고 했는데요. 같은 점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자연을 말한다는 점이고요. 그러나 일반 생태학자들은 자연을 정말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고 거기에서 작동하는 생명의 원리들을 추구해 가지만, 우리는 이 세계가 자연스런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나 저절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책을 쓴 사람도 많아요. 기독교의 유기적 생명사상은 단순히 자연의 생명 메커니즘에 머무르지 않고 기독교론적으로 접근합니다. 기독교론에 초점이 있어요.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핵심적으로 그에게서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 조금 더 나아가 마지막 재림과 심판까지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사건인데요. 결국 자연에 있는 생태적 생명이 어떻게 예수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가를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일반 생명사상과 차이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전제하면서 클라라님이 질문한 것과 연관해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에 있어서도 익숙하고 편한 것들과 결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가족 관계를 누리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하고 자식들이 있어야 하는 스위트 홈의 방식도 일종의 생명 방식인데요. 귀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것보다 우리가 결별을 해야 하는 거죠. 알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가족의 소중함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늘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따뜻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면 아직 미숙한 겁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5월이면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가정 설교, 부부 간에 어떻게 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식의 설교가 의미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해라 혹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결별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가족이 원수라고 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거기에 묶여 있는 한, 그런 것만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하게 받아들여지는 한, 우리는 낯선 생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족 이기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가족에게 무관심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애착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편한 거로부터 결별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결국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종말론적 생명이에요.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낯선 말만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화두로 생각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 편한 정답만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생태적 생명과 기독교적인 유기적 생명의 관계에 대해 정답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교회에서 자꾸 정답을 찾으려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대답을 해봐야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오히려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이걸 접어두고요. 종말론적인 생명, 이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생명의 방식은, 가족이 있고 이것저것을 먹고 배설하는 것들은 모두 다 잠정적인 겁니다. 잠정적이라는 말을 몇 번 썼죠.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는 기본적으로 잠정적이에요. 잠정성, 이런 단어는 외워

두세요. 기독교 공부는 외우는 게 아니지만 필요한 단어는 외워둬야 합니다. 왜 잠정적인가 하면, 종말론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신학적인 표현이어서 잘못하면 뜬 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꾸 어렵다고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대학공부를 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종말론적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인문학적 사유가 필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낙심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만 하죠.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삼일교회의 전병욱 목사는 설교 시간에 ‘계속 모드’로 나가라고, 성서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다 ‘컨티뉴 모드’(continue mode)였다는 말장난을 하고 있더군요. 한번 시작했으면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 그러면 성공한다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방식의 설교에 감흥을 느끼나 봅니다.

## 세계의 잠정성

성공이라는 것도 다 잠정적이예요. 우리에게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 방식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표현능력이 없어서 좀 더 일상적인 신앙의 용어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나우웨이나 루이스 같은 사람들은 이런 신학적 개념들을 훨씬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 통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아무리 최선으로 삶을 완성시킨다고 해도, 그것이 잠정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불교용어로 공안(公案)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화두로 붙들고 싸워야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성취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리의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격적이고 세련되게 도덕적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경지까지 나가야 한다는 당위가 있기는 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요청이 있는 건 분명한데요. 그런 것들은 율법이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들입니다. 고상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런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걸 바탕에 깔고 시작합니다. 윤리도 우리가 완성할 수 없고요.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인정하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감옥

에 들어간 사람이나 그럴듯하게 벡타이를 매고 설교하는 저나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욕을 한 자나 살인한 자나 똑같다고 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친절한 말을 하고 내 재산을 남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든 안하든 별 차이가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도, 알려져 봤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실하고 윤리적인 삶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력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냥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데도 ‘노력해야지’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위선이라도 선을 행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선은 아예 선을 행하지 않는 것만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미묘한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윤리적 행위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사람은 할 거고, 아무리 하라고 해도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요해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배리배리한 율법주의에 머물게 할 수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처럼 터놓고 죄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잠깐 다니러 왔어요. 그분 이야기가 자기 교회도 그렇고 대구 지역도 다 그렇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사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정도 가서 쉽게 약 나눠주고 치료하고 온다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 값이랑 기타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그 돈을 모아서 현지에서 병원을 세워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혜롭지 못한 것 같다는 거였어요. 사실 단기 선교 같은 것들이 유행처럼 되고 있잖아요. 대학생들도 많이 떠나고요. 저도 그런 방식의 단기 선교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요즘과 같은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하여튼 그분의 이야기는 대구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일 년 동안 다녀오는 단기 선교 비용을 모으면 수억 원이 된다고 해요. 그렇게 큰돈으로 차라리 낙후된 지역에 병원을 세워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얘기였어요. 그런 방식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고 싶기 때문인 거죠. 선이 자칫하면 위선이 되거든요. 좀 엄격하게 말하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갔다 오는 건데, 그렇게 까칠하게 시비를 거냐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

학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왜곡된 길로 떨어지기 때문에 깨어 있는 심정으로 자기를 성찰해야 합니다.

##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윤리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기는 해야 하는데,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엄정한 실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저는 판넨베르크의 책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판넨베르크의 『신학과 하나님 나라』(대한기독교서회)는 판넨베르크가 젊었을 때 미국 유니온신학대학에 가서 행한 특강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신학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하나님 나라와 윤리학의 근거, 미래의 도래로서 현실성 등의 아티클이 실려 있는데, 제가 오늘 잠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윤리학의 근거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기독교 윤리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이지요. 종말론이 기독교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종말이라고 하면 어떤 신학적 표상이 떠오르나요? 종말이라는 주제만 다룬 책도 많이 있고요. 주석서 등에도 많은 부분이 종말론을 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인 하나님의 나라도 종말론적이고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윤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판넨베르크가 설명하려고 하는 기독교 윤리의 근거가 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데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티클의 두 단락만 읽어볼게요. 하나는 아티클의 시작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마치는 부분입니다. 동영상 강의에서 이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는 전달되기 힘들겠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학적 훈련이 되었다고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학적 생각을 깊이 하도록 자극시키고 설레게 하는 글이에요. 신학생들이 이런 글들을 정말 재미있게 읽어야 하는데요. 평신도들도 이런 책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들어보세요.

예수의 가르침은 윤리적 급진주의를 포함해서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의 메시지에 의존되어 있었다. 그는 삶의 모든 국면을 세계의 임박한 종말의 빛 안에서 보았다.

놀랍죠?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기색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나 지금도 가까

이 와 있다고 리얼하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입니다. 제가 지난 두 시간에 걸쳐 하나님 경험을 어떻게 하는지 말했잖아요. 하나님 경험이 하나님 나라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깊이 들어가려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단어가 연결된 문장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잔소리가 많죠? 읽다가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놓칠까봐 그래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이렇게 좋은 신학 책을, 명성가의 글을 한 단락씩만 놓고 주석하는 방법 말입니다. 설교도 성서 텍스트의 한 단락을 놓고 주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인문학이라는 공부 자체가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윤리적 급진주의를 포함해서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의 메시지에 의존되어 있었다. 그는 삶의 모든 국면을 세계의 임박한 종말의 빛 안에서 보았다. 예수 이전의 모든 견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행동과 일치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유효한 것이 되든지 아니면 거부되든지 하였다.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의 실존 안에 고동치는 유일한 현실이었다. 리얼리티였다. 이것만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할 유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상실되어도 된다.

예수님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 살았고 여기에 자기의 온 실존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자로서 선포하고 행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서 모든 다른 것들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 실현되어야 할 유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손을 놓아도 된다는 겁니다. 상실해도 돼요. 가족도 때에 따라서는 상실할 수 있고, 부모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족, 건강, 나의 삶 등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경지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화 되지만 그 상대화 된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 현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학적 표현이긴 해도 와 닿죠? 이러한 신학공부를 아주 철저하게 한 사람만이 성서 텍스트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어요.

##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기독교 신앙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걸 염두에 두고 설교해야 합니다.

자신의 설교가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설교 행위에 대해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신학적 논쟁도 필요합니다. 공연히 트집 잡을 필요는 없지만 진리 논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치열한 진리 투쟁을 쉬지 않았고, 초기 기독교도 이단 논쟁을 통해 진리 투쟁을 펼쳤습니다. 그게 없으면 금방 진리로부터 도태되고 말죠. 루터가 좋은 게 좋다는 걸 몰라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영적인 요구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입만 다물고 있어도 괜찮은데 거침없이 역사를 뒤로 돌리거나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복음인 것처럼 막 흘려보내는 목사님들을 볼 때 안타까워요. 청중들은 선동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요. 조금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대형교회가 주는 종교적 메리트에 빠져서 전혀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목회자나 청중들을 볼 때 한국교회의 상황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교회의 몇몇 목회자들만이라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정확한 발언을 해줘야 균형이 맞는데요. 그런 발언들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발언을 하는 분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저도 발언을 많이 하지 않지만, 하더라도 이런 시골에서 해봤자 파급력도 없습니다. 판넨베르크가 말한 이런 내용들을 목회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사람들이 잘 파악해서 자기의 영성을 심화시킨 다음에 성서 텍스트를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이게 잘 되지를 않죠. 이 부분이 하도 중요한 진술이어서 저도 모르게 흥분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끝 부분을 인용할게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의 실존 안에 고통치는 유일한 현실이었다. 이것만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면 다른 모든 것은 상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있어서 다른 모든 것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안도현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낯선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낯설고 늘 새롭습니다. 충격이고 놀라움이거든요. 바르트의 표현대로 이 놀라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움이고, 루돌프 오토(Rudolf Otto)가 말하는 누미노제의 경험이자, 모세가 호렙산의 불붙는 가시떨기 앞에서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새로움에 대한 충격입니다. 그게 기독교 영성이고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새로운 영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이 세계가 변화되도록 이끌어 가야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윤리를 말할 때도 윤리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압박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잠정적인 윤리 혹은

은 잠정적인 삶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상응하도록 만드는가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의 숙제 아닌가요? 다음 목요일에 윤리의 몇 가지 항목들을 설명할 때 첫 번째로 성(性)을 이야기할 텐데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에게는 고착된 성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조망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성애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익숙한 사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성애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종말론적 윤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규정해 나가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냐고요? 포스트모더니즘이 말하는 해체와 다원주의 상태로 되고 마는 거냐고요? 규범은 아무것도 아니냐고요? 그 다음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윤리의 종말론적 다이내믹은 그 이후에도 진행을 계속하는 세계의 윤리 문제들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의 타당성을 심히 제한하는 두드러진 약점으로 흔히 다루어졌다. 예를 들면 산상수훈은 장차 올 시대에 대한 일련의 행동규칙으로 간단히 처리되거나 아니면 최후 승리 직전의 짧은 기간 동안의 행동을 위한 지침 정도로 처리된다. 어떤 경우로나 예수의 윤리적 교훈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다. 결국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시기를 잘못 짚었다고 하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의 유효성이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이다. 예수의 윤리적 교훈의 강한 종말론적 성격은 그 보편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종말론적이라는 예수님의 윤리의 다이내믹이 현실적인 삶에 들어와서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산상수훈에 있는 것들은 종말에나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시간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윤리적 지침도 뒤로 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종말론적 윤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만 더 읽겠습니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궁극적 성취가 인간적 노력의 한계를 초월해 있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 활동을 하지 말도록 운명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준비하도록 고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는 사랑에 의해서 수행되는 신앙의 활동, 역사(work)이다. 종말론적인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가 달성한 일이 잠정적 성격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의 에너지를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희망이 있는 해답을 얻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미래로 개방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개방, 아까 제가 열림이라고 이야기했죠? 개방,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어떤 선한 행위나 업적들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서 볼 때 잠정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사람은 잠정적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의 역사 허무주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문제들을 끌고 그 희망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혁명을 넘어서 오히려 전복입니다. 혁명을 우리가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아예 전복이에요. 한 발 더 나가죠.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독교적인 역사 이해, 윤리 이해가 참 역동적이고 변증법적이라는 걸 느끼겠죠?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 용어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 이것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우리 귀에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올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아주 리얼하게 느껴야 하고 윤리의 잠정성을 명백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꼭 인식하십시오. 저도 6월 10일에 '목협'의 촛불 시위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잠정적이에요. 그걸 해도 계속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잠정적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오늘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그 쪽을 향한 희망 안에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종말론적인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기독교 윤리의 근거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 제40강

### 유기론적 생명 윤리

안녕하세요. 6월12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를 마감할 시간인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각각 다르겠죠. 지구가 동그랗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동그란데 중력이 있어서 각자가 똑바로 서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거꾸로 서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방식대로 세계를 이해하고 생명을 경험합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라는 범주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이 범주를 넘어서면 전혀 다른 세계일 테니까, 다른 세계에서는 이 범주가 통하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현상학도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빨간 안경을 쓰면 이 세계가 빨강계 보이듯이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둥근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이고 한계입니다.

#### 기독교 윤리의 근거, 하나님 나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독교 윤리의 토대와 근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근거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의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 윤리학의 근거라고 했습니다. 주로 판넨베르크의 책 『신학과 하나님 나라』에 나온 ‘하나님 나라와 윤리학’이라는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했는데요. 지난 강의를 들었든지 혹은 듣지 않았든지 간에 제가 적어놓은 이 두 단어에서 뭔가 감이 잡힌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신학의 세계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윤리학의 관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기억해 보세요. 듣지 않았다면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신앙의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비평을 하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기독교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 교회론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하부구조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종말론적인 지평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소상하고 심층적인,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잘 잡히지 않아요. 뜬 구름 잡는 식으로 죽어서 하늘 어디에 가는 것쯤으로 생각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쪽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여호와 증인들의 지상낙원처럼 아주 세속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도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있으면서 다시 말해 이미 우리에게 선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아직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전체적인 통치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표현들이 낯설죠? 그런 표현이 익숙한 것 같고 실질적인 느낌이나 생각으로 들어오고 리얼하게 잡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많은 신학적 훈련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자꾸 실증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강의의 본 내용보다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쩌면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옆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해해 주세요. 기독교 신앙을 너무 구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실증적인 것, 구체적인 것,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 몰상식하지 않고 좀 세련된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평화가 있고 위로를 받으며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중심이 아니라 부수적인 겁니다. 그것은 괴테나 뉘른베르크의 시를 읽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했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과 비슷해요. 시를 읽고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를 읽는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를 읽는 이유는 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 시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시를 읽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도 바로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령과의 소통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색깔이 아니에요. 그런데 습관적인 신앙에서는 자꾸 어떤 틀을 요구하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아무런 형식이나 기준도 없이 무조건 자유롭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더 밑으로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영성이 심화되는 거죠.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 정도 되면 신앙의 틀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이는 가는 길입니다. 표현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 신앙이 실증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관념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관념적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영은 바람처럼 아주 자유롭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건 어떤 힘이에요. 어떤 세계라고 할 수 있죠. 호리존트, 즉 지평입니다. 어떤 거룩한 두려움이죠. 모세가 호렙 산에서 신발을 벗어야 했던 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대신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실증적인 단계를 일단 벗어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군것질을 하던 그 단계에서 벗어나 성숙하게 부모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정말 중요한데 아버지와 혈연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혈연은 기본이구요. 그래야 성숙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관념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념적이라는 것은 내가 그려낼 수 없는, 나의 범주 안에 속박시킬 수 없는 자유로운 생명의 힘입니다.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한 편 읽겠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정말 교부 신학의 대가입니다.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대개의 여성신학자들이나 예수 세미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거스틴이나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어거스틴을 싫어하죠. 『원복』(분도출판사)이라는 책을 쓴 자연신학자 매튜 폭스도 어거스틴을 싫어합니다. 어거스틴이 원죄론을 말할 뿐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거스틴에게 그런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의 신학을 전체적으로 폄하하는 자세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봐요. 어떤 사람이든 역사적인 한계 속에 있기 마련이니까요. 어거스틴이라고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겠어요? 천육백 년 전의 사람인데요. 자기가 속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바람직하게 해명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사적인 책임을 아주 독보적이고 탁월하게 감당했다면, 우리는 그를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거스틴의 교리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대체로 찬성하는 쪽이에요. 그가 “주님은 항상 창조하시고 양육하며 완성하십니다”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기도했습니다.(46쪽)

오 주님, 주님은 높고 선하며 전지전능하시며  
 지극히 자비로우시면서도 의로우시며  
 지극히 은밀히 존재하면서도 가장 가까이 계시며  
 지극히 아름다우시면서도 가장 강하시며  
 항상 계시되 어디에 의존해 있지 않으며  
 스스로는 변하지 않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되거나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만한 자를 노쇠하게 하시니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항상 일하시되 안식하시고

항상 거두되 부족함이 없으며  
항상 받들어 주고 채워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은 항상 창조하고 양육하며 완성하십니다.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나 찾으시며  
사랑하되 욕심으로 불타지 않으며  
질투하나 괴로워하지 않고  
뉘우치나 슬퍼하지 않으며  
노하되 안정하십니다.

주님은 하시는 일은 바꾸되  
뜻과 계획은 바꾸시지 않으며  
무엇을 찾으실 때는  
아주 잃어버리신 것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궁핍하지 않음에도  
무엇을 얻을 때 기뻐하시며  
욕심이 없으나 이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필요 이상 바쳐  
주님을 우리에게 빚진 자로 만들려 하나  
사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주님의 것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으나  
마치 빚진 것처럼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아멘.

어거스틴은 영성이든 신학이든 참 뛰어났어요. 저렇게 짧은 글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최선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려지죠? 손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 이 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보일 겁니다. 은밀하게 존재하나 가까이 계신다는 표현을 보세요. 은밀하다는 표현은 은폐를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게 있지만 항상 호호하며 가까이 계신다는 하나님 경험인 거죠. 우리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런 강의나 교회 생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글을 계속해서 읽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는 거예요. 바둑을 잘 두려면 고

수하고 뒤야 하잖아요. 1단 정도 되는 사람이 8급하고 바둑을 뒤봐야 실력이 늘지 않아요. 물론 자기 혼자 도 닦듯이 하면 좀 늘지도 모르지만, 수의 차이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나라가 딱 완료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만큼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윤리학과 하나님 나라는 지난번에 한 번 했지만 듣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할게요. 기독교 윤리학의 근거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윤리적 행위들이 잠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잠정적이에요. 지금 촛불 시위가 한창입니다. 저도 6월 10일에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촛불 시위에 참가하고 왔는데요. 저는 그것이 절대적이고 그 시위의 모든 진행들이 마음에 들어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이라는 자리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침입해 있을 텐데, 우리가 처한 시간적 이슈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참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쇠고기를 우리가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윤리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힘으로 쇠고기 문제를 재협상하게 되고 뭘 이룬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용감한 것, 의로운 것이 모두 잠정적이라고 전제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완전하지 못한 윤리적인 행태이니까요. 윤리는 현재 우리의 행위에 대한 가치적 판단이라고 했는데, 그런 우리의 윤리가 늘 잠정적이라면 윤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고 물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에서 잠정적이거나 우리의 현재 삶들이 그 희망에 상응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삶의 태도들을 기독교 윤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적 노력들은 어느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민주화가 제대로 정착되어 거의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사회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완전한 윤리의 성취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야 한다는 것을 늘 전제하면서 기독교인의 행위를 성찰하며 앞으로 나아가 합니다. 지난번에 대충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윤리의 주제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 성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sex) 문제인데요. 인간 삶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 문제에 있어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신학적인 상식 수준에서 어떤 관점들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지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지구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세계를 경험하고 있죠. 성이라는 것도 지구에서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지구 바깥으로 나가면 그런 현상이 없어요. UFO인가요? 미확인비행물체라고 하죠. 그 UFO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한 건 세상에 없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없음에서 있음으로가 가능하니까요. 이런 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어서 비신앙적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실제적으로 UFO가 우리에게 등장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면 이 인간 세계를 어떻게 볼까요? 참 신기하게 볼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요. 외계인들이 지구에 온다면 인간과 침팬지를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더군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실감이 나질 않죠. 우리가 볼 때는 침팬지는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르니까요. 그런데 외계인이 볼 때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사실인지는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 봐야 증명이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계인들이 와서 인간의 성생활을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쩌면 외계에서는 인간의 성생활이 아닌 방식으로 후손을 번식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좀 이상할 겁니다. 왜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 종은 저런 방식으로 후손을 번식하는가, 저런 것에서 즐거움을 느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세계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해 실제로 보지를 못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의식하지 못해요. 물과 하나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어항 바깥에 있는 우리는 구분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은 사실 실체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깥에 있어야 그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죽어야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성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신기하잖아요.

이 지구에 생명체들은 대체로 암수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암수가 자기 몸 안에 동시에 들어있는 저급한 생명체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암수로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꼭 이래야만 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전공학이나 복제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 성 생활에 관계없이 후손을 번식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람

들의 성기능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 성기능의 발달은 후손 번식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요? 제가 너무 진화론적으로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진화론이나 창조론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우리가 사는 방식에서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입장은 성 현실주의(sex realism)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의 문제는 호불호, 혹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예 성적 욕망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는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류에서 벗어난 생활 방식에 대해 불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성에 문제는 잠시 놔두고요. 하여튼 우리는 성 현실주의에 서야 합니다. 제가 예민한 주제를 설명하려니까 자꾸 말이 꼬이는데요. 설명이 어설퍼도 이해해 주세요. 이러한 성 현실의 문제를 추상화시켜서, 혹은 이념화시켜서 재단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성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경향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가르치지는 않아요.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성 엄숙주의의 경향은 많은 것 같습니다. 성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고, 어떤 틀에서 벗어나면 완전히 거부하는 태도를 엄숙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알 아들이세요. 성을 즐기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성 도구주의, 혹은 성 절대주의와는 달리, 성 엄숙주의는 성을 출산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모두 잘못입니다. 성이 현대 사회 속에서 도구가 되는 현상이 극에 달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성서를 도구화 하지 말라는 말을 종종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서 텍스트를 상대화 하지 말라는 것과 서로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성서 텍스트의 존재론적 세계를 뚫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 텍스트가 우리를 끌고 가야지 우리가 성서 텍스트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오늘날 얼마나 극단적으로 도구화가 되었습니까? 성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끌어가는 동력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여기에는 프로이트의 책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리비도라는 성적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고, 아들은 어머니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성적인 경쟁자로 생각한다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등을 말하죠. 프로이트의 말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과연 그렇지 아닌지는 말하기가 어렵지만, 일리는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많이 한다면서요. 만원 버스나 혹은 제한된 공간 안에 남자



들만 혹은 여자들만 모아 놓을 때와, 남녀를 섞어 놓을 때, 그들이 느끼는 공간의 느낌이 다르다고 합니다. 같은 성끼리만 모여 있으면 너무 좁다고 느끼는데, 이성이 섞여있으면 널찍하게 느낀다고 해요. 제 경험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테니스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치러 가는데요. 남자 회원들도 많지만 여자 회원들도 삼분의 일 정도 돼요. 남자끼리만 칠 때도 있고 혼합복식을 칠 때도 있어요. 테니스를 칠 때는 실력이 비슷해야 재미있는데, 실력이 좀 모자라도 혼합복식을 하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나 사람이 늘 성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힘도 많습니다. 예술도 그렇고 종교나 스포츠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지 못할 때 후손 번식에 대한 본능에 자극받으면서 리비도적인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그런 식으로만 행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그 반대로 전혀 성적인 취향이 없는 것처럼 엄숙한 포즈를 취한다고 한다면 그건 인간 삶의 현실을 놓치고 있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덕적 엄숙주의

이번 주간에 나온 <한겨레 21>에 대전대 권 아무개 교수가 간통죄에 대해 칼럼을 썼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여자배우가 간통죄 위헌 소송을 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 교수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여성들을 위해서도 오히려 낫다고 말이죠. 여러 가지 논란들은 여러분이 더 잘 알 테니까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법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간통죄로 아내나 남편을 고소하려면 이혼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혼까지 하면서 상대방을 간통죄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우스운 것 같아요. 자기가 신뢰했던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를 배신했으니,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옆에 있다면 순간적으로는 때려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두 사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게 낫지, 상대방과 이혼하고 감옥에 쳐 넣는 파괴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건 좀 시대착오적인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경우에 따라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반복적이고 습관적이라면 같이 살 수 없겠죠. 여기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처음엔 정말 화가 나겠죠. 하지만 기다려 보세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성 현실주의자로 삶의 모습들을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았다

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노예가 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는 거죠. 내버려두라는 것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이해가 보충되어야 해요. 청교도적인 엄숙주의나 단순한 도덕주의는 인간 자체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대형교회의 대중적인 목사님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옆으로 나가는 말이지만 큰 교회 이름이 나왔으니 한마디 하고 지나가죠. 요즘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요즘만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말 한국교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전체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비아에 그런 걸 많이 쓰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제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이고, 또 아무리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우리의 영적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바람이 났다고 해도 뺨개치지 않고 설득해서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자식의 심정이랄까요? 그래서 안티기독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는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헐뜯기 위한 거니까요. 겉으로는 타당한 비판이라고 하는데 보면 그 진심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하여튼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참 많습니다. 신학교가 교단정치에 꼭 묶여있고 이사들이 신학교수들을 쥐락펴락하고요. 교수들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신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정원이 너무 많아서 목사들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줄이지 못해요. 구조적인 문제죠. 한국교회의 빈익빈부익부의 문제는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겁니다. 보편성과 단일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것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형교회의 몇몇 목사님들만이라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분이 하나도 없네요.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가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말을 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대중성을 확보할 수 없거든요.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져 있는 목사님들이 청소년들에게 포르노 사이트나 그런 잡지를 왜 보냐고 야단치면, 정서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의 심리는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못 되지요. 실제로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런 걸 내버려두자는 뜻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그런 선정적인 동영상에 접하지 못하도록 어른들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결국 그 젊은이들은 이런 저런 방식을 통해서 접하게 되거든요. 그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죄라는 식으로 말하게 되면 기독교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될 거예요. 그보다는

오히려 내버려두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언제까지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번식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런 것이 즐거움이 되지 않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방식이 아닐 거예요. 성적 쾌락이라는 것이 늘 기쁜 것은 아니니까요. 한 순간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성적 쾌락과는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성서에 그런 말이 있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요. 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도 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관념적인 세계로 설명해요. 여기까지 성 문제를 이야기했군요. 여기서 성매매도 좀 말해야 하는데, 그만 두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들은풍월이 많으니까요. 여기서의 답은 성 현실주의입니다. 우리가 성에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성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면서 살아가자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손 번식하도록 준 통로로 성을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 금욕과 쾌락

기독교 전통은 일반적으로 조금 금욕적인 면이 강하죠. 때에 따라서 금욕이 필요하기는 한데, 억지로 금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사실 참는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고요. 아까 성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그게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죠. 쾌락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독교인들은 약간 거부감을 느낍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에피쿠로스학파가 쾌락주의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본능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것은 나쁘다는 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 지향성은 인간 존재의 중심부를 향해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철학입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은 나를 파기하면서까지 획득해야 할 탐심이 아니라, 오히려 불교적인 의미에서의 해탈, 혹은 번뇌가 없는 정신적 평정인 아타락시아(ataraxia)에 가까워요. 우리 모두가 아타락시아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에피쿠로스학파의 주장은 제가 보기에 정당합니다. 물을 마시거나 밥을 먹을 때도 쾌락이 있죠. 배움도 쾌락일 거고요.

쾌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까 <시티 오브 엔젤스>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참 매력적인 영화예요. 여주인공은 맥라이언이었는데, 지금은 좀 늙었겠지만 아주 미모가 출중했죠. 지성미와 청순미가 결합된 멋진 배우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여의사로 나옵니다. 천사인 세스 역할을 맡은 니콜라스 케이지도 연기를 잘하죠. 가끔 깡패로도 나오는데 아무리 깡패로

나와도 깊이가 있더군요. 눈빛 연기를 잘해요. 처음에 천사 세스가 인간 메기에게 사과 맛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메기가 달콤하고 새콤하다고 대답하죠. 그러자 세스가 그런 교과서 같은 대답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맛을 아냐고 물으면서 서로 가까워지거든요. 그렇게 천사 세스에 의해서 여의사 메기가 삶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자, 세스가 인간이 되어 둘이 함께 여행도 가고 하는데요.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세스와 함께 한적한 숲속의 별장에서 몸과 마음을 나누다가 메기가 새로운 삶을 경험해요. 그리고는 메기가 새로운 인생의 환희에 충만해서 자전거를 타고 숲속 길을 내려오다가 큰 트럭에 부딪쳐 죽게 됩니다. 초능력을 잃고 인간이 된 세스 천사는 혼자 남게 된 거죠. 그래도 세스는 인간이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파도 소리, 커피 향, 사랑하는 여인의 입술 등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들이 있고, 숨 쉬는 것도, 어린아이들의 살 냄새도, 심지어는 귀퀴한 거름 냄새도 황홀하기 때문이죠. 이게 다 쾌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무시하면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천상병의 시 ‘귀천’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 ..

저는 지금도 삶을 노는 거, 혹은 노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삶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그러운 뿐 아니라 자기의 한계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 청빈과 소유

전통적으로 볼 때 기독교 윤리에서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청빈입니다. 심지어 자학

으로 비약되기도 합니다. 무소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거와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발적인 청빈도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소유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 지향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소유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통장이나 지갑에 있는 걸 다 나눠주고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한두 마디로 말할 것은 아닌데 시간관계 상 더 이상 길게 말할 수가 없네요.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 청빈의 길을 갑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처럼이요. 무역업자의 큰아들로 태어나 그 길을 포기하고 탁발 수도승으로 평생을 살면서 프란체스코 수도원을 창설한 그의 삶은 정말 아름답죠. 마더 테레사도 그렇고요. 성철 스님도 돌아가셨을 때 장삼 두 벌과 바루 하나만 남겼다고 해요. 잃을 것이 없으면 행복한 거죠. 우리의 평생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아까울 것 없이 살아봅시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자기 가족과도 멀어져야겠죠. 하나하나 떼어 놓는 방식, 준비를 하든 안하든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어쩌면 청빈 지향적인 삶이 아닌가 해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제 잣대로 말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궁극적 사건이 올 때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우리를 지킬 자가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대로 살아 있는 동안 미련을 끊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구체적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예요.

한마디 또 하고 지나가야겠네요. 한국교회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죠. 겉으로는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데요.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방식의 부동산 집착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교회 건물도 다 잠정적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당을 짓는 게 다 잘못이라는 건 아니예요. 어느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만한 집을 마련해서 사는 것과 소유 지향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소유에 집착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다릅니다. 사실은 그걸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 유기론적 생명 윤리

결국 기독교 윤리는 생명 윤리입니다. 생명하면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게 있어야 합니

다.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종말도 생각나야 하고요. 왜 생명을 말하는 데 종말이 생각나야 합니까? 누가 한 번 대답해보세요. ‘죽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답은 아니네요. ‘완성되는 과정이니까.’ 그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다. 죽음, 완성이 다 연결되니까요. 결국 기독교 윤리는 종말론적 윤리가 되는 겁니다. 너무 멀다, 너무 거시적이다, 지금 당장 옆 사람과 싸워야 하나 마나, 돈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게 문제인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 있냐고요? 그런 질문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종말에 근거한 생명 윤리는 유기적입니다. 하나의 개체 실존은 독립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느냐가 핵심이죠. 유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세요. 세월이 좀 흘렀다고 합시다. 몇 십 년도 좋고, 몇 백 년도 좋아요. 몇 백 년 후에 어떤 젊은 부부가 장애인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그 때는 과학이 발달해서 그 이유가 뭔지 발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비싼 돈을 내고 자기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난 이유를 추적해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그 아이의 고조할아버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큰 공장을 하면서 유해식품을 팔았는데, 그걸 사람들이 사먹었고, 그게 몸에 축적되어서 몇 세대 내려가자 결국 자기 손자손녀에게서 장애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의 삶은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얽혀있다는 거죠. 인터넷이 네트워크라면서요. 저와 미국을 쭉 연관시켜 보면 너무 멀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적으로 그건 분명하고요. 우리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바로 내 아들 딸 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 기업가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내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사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 인류와 우리 후손의 차원에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기론적 생명 윤리라는 게 이해되나요? 강의안의 마지막 단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종이 과연 윤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의문스럽다. 인간을 제외하고 이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생태계의 메커니즘을 끊어내면서까지 자기 종족을 늘리거나 생산하고 소비하지 않는다. 호랑이가 토끼의 씨를 말리는가? 올빼미가 쥐의 씨를 말리는가? 가물치나 메기가 강물을 오염시키는가? 뱀장어가 갯벌을 개간하는가? 오직 인간만이 취미생활로 다른 생명체를 죽이고 생산을 위해서 생태계의 숨을 끊어버린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별로 실감하지 못하는, 결국 망각해버린

사실이 있다. 다람쥐, 메뚜기, 거미, 여우를 비롯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우리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다. 인간만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그 어떤 것도 배타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윤리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간다움을 살려내는 일인 동시에 모든 생명체의 생명다움을 유기적으로 일궈내는 작업이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이 일에 신앙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다.

## 제41강

### 기독교 윤리의 잠정성에 대해

안녕하세요. 오늘 잘 지냈습니까? 오늘이 6월 15일이니까 이제 딱 15일 남았군요. 강의 숫자로만 하면 네 번 남았습니다. 후반기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여전히 생각 중입니다. 언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강의를 라이브로 하지 않고 녹화를 해서 띄우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강의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

오늘 샘터교회의 설교 본문은 사라와 하갈, 아브라함과 하갈의 관계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잠깐 그 이야기부터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강의 제목은 “기독교 윤리는 가능한가?”인데요. 제목은 이렇게 잡아도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설교에 나오는 이 에피소드가 윤리와 연관이 있어서 이 두 관계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저도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은 종말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계시하고 열어갑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상당히 막막하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끝도 없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거니까요. 사실 신학이라는 게 이런 점에서 보면 승산 없는 게임입니다. 신학만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결국은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걸 확인하는 작업밖에 안돼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부분적으로 어떤 흔적만 겨우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지 실재를 붙잡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전제로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뿐 아니라 이 삶 자체도 그래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붙잡고 18년 된 혈루증이 나은 여자라고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붙잡을 수 없어요.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저 흔적만 말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런 점에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신기하기도 한 겁니다. 늘 새로워지니까요. 제가 뒤에 말해야 될 것을 미리 당겨서 하고 있네요.



오늘 설교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정확히 다섯 사람이 나온다고 봐야겠네요. 아브라함, 하갈, 사라, 이스마엘, 이삭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삭이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할 때쯤 벌어진 에피소드예요. 이 성서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세 살 때 보통 젖을 떼다고 하는데요. 이삭이 그 때 쯤에 이스마엘과 노는 것을 사라가 봤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고 번역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번역에는 같이 논다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볼 때 이삭이 세 살이라면 이스마엘은 열일곱 살이 되었을 겁니다. 그 때 사라가 자기 아들과 이스마엘이 서로 놀고 있는 걸, 혹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걸 봤다고 하는데요. 이미 열일곱 살이나 된 아이가 세 살짜리를 놀리겠습니까? 이미 집안 사정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하갈이 사라의 몸종이었으니까 이스마엘도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겠죠. 홍길동의 위치인가요? 그러니 그렇게 이삭을 심하게 놀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라가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야 하는데요. 성서 기자들은 생략을 잘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저렇게 편집을 하는 거죠. 그걸 잘 뜯어보면 성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했죠. 복음서든 다른 본문이든 다 마찬가지로요. 성서 기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한 말씀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성서 기자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식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한 실증적 사실을 우리가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말했고 그 말들이 구전되어 내려온 것을 성서 기자가 잡아채서 예수님의 생애 안에 넣고 글을 썼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기자가 중요한 거죠. 하갈과 사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성서 기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네요.

사라가 볼 때는 자기 아들이 이스마엘과 놀고 있는 게 기분이 나빴고,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과 똑같이 상속자가 되는 게 불만이어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그 모자를 내쫓아버리도록 하잖아요? 이것만 보면 사라가 굉장히 못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도 괴로워했다고 해요. 아내의 말에 넘어간 건지 아브라함 자신도 그런 판단이 들었던 건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을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은 제법 재산을 불린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은 재테크에 능했던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구약에 나오는 많은 부자들, 혹은 정치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야욕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요셉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 알죠? 애굽에 들어가서 꿈을 해몽하다가 출세해서 국무총리까지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사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건 잘한 일이기도 하지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좀더 냉정하게 살펴야 하거든요. 요셉은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매 점매석을 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폭리를 취하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자영농이었던 사람들이 모두 농노가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요셉을 통해서 된 거예요. 이런 경제 정책으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을 이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 이런 걸 신자들에게 설교한다는 건 성서를 건 강부화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성서 기자는 사람에게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니까요. 위인과 일반 소시민들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시운이 맞아서 영웅이 나오거든요.

또 솔로몬 왕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건 설교에서 몇 번 다뤘으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성서 기자가 솔로몬 전승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냈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솔로몬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지혜를 구한 내용을 보면 그가 괜찮은 게 아니냐고 생각할 겁니다. 그는 어머니 밧세바와 나단의 계략에 의해서 어부지리로 왕의 자리를 얻었는데요. 마마보이 기질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진도가 안 나가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꿈이거든요. 실체가 아니라 꿈을 꿔다는 거예요. 이 꿈은 개꿈일 가능성도 많고,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도 많아요. 무의식의 발로가 꿈이잖아요. 솔로몬은 자기 왕권의 도덕성이나 정당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민중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구약성서만이 아니라 이집트 문명이나 잉카 문명의 어떤 문서에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자신의 왕권을 민중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꿈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마세요. 정치가들의 정략적인 자기 해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째는 이 지혜라는 게 성서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뱀처럼 슬기로우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뱀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했던 한 이야기를 아시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진다고 했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해석이 백 프로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성서신학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데요. 구약 학자들이 엉뚱한 해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식이 많거나 권력을 쥐었다거나 부자가 되었다는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일치시켜서 성서를 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재(財)테크에 밝았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갔잖아요?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함께 말이죠. 그는 하란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는 더 많이 벌었고요. 성실해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지만, 남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성실과 기만과 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아 떨어졌겠죠.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서 약간의 음식만 주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먹을 수 있는 떡 덩이 열마와 물 한 부대라고 말이죠. 성서 기자가 굳이 이런 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행간의 의미를 찾아보라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주 매정한 인간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줄여서 해야겠네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사라는 아브라함 정도는 아니더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큰 손색이 없습니다. 사라 하면 우리에게 늘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고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는 행동을 보세요. 왜 성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도 한 밀천 떼 주고, 먼 길 가면서 타라고 낙타도 줄 것 같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에서 물도 다 떨어져 죽음 직전까지 가는데, 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줍니다. 아마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나봅니다.

저는 인간의 행위, 다시 말해 윤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윤리 허무주의라고 할까요? 윤리 허무주의?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나이브한 도덕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 근거한 실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진보적인 목사님들과 연계해서 같이 활동도 하고 있고요. 지금 촛불시위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이 역사를 개혁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궁극적인 사실 앞에서 인간 행위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전제해야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윤리적 행위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 인간 행위의 잠정성

제가 39장 '하나님 나라 윤리'에서 판넨베르크의 글을 인용하면서 기독교 윤리의 근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의 특징이 잠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행위의 잠정성!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서 볼 때 잠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간의 윤리적 행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냐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잠정적이라고 봐요.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기독교인들의 세계 인식입니다. 어느 것도 여기에서 제외되는 건 없어요. 율법도 잠정적이거든요. 율법도 사실은 윤리 문제이고, 실정법을 포함한 불문법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잠정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국가도 잠정적이죠. 기독교인은 애국자가 될 수는 있지만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 너머에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교회도 잠정적이예요. 더 나아가 가장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의 교리도 여전히 잠정적입니다. 물론 율법이나 국가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의 하나님 인식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거죠. 교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하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 섭리, 하나님이 종말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인식의 논리적인 해명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종말에 자기를 완전히 계시할 하나님을 완전히 인식할 수 없죠. 그러니 어떻게 그 인식에 기초한 논리적 해명인 교리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이게 신학적인 표현이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좀 직접적으로 말해 볼까요? 삼위일체를 예로 들기는 좀 그런데, 이 교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개념이니깐 이걸로 설명할게요. 과연 이걸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해명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최선인 거죠. 그러나 삼위일체 개념이 하나님을 정말 명실상부하게 아주 실증적으로 해명한 것이냐는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신비를 본질이 동일하고 위격이 삼위로 구분된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의 존재 신비를 우리가 손에 딱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자기를 드러낼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테니까, 그때 가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잠정성을 늘 염두에 두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말이나? 절대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잠정적이긴 하지만, 역사 안에서 우리의 인식과 실천과 치열한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며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

러한 역사의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분명히 두 발을 딛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식이 늘 잠정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부분적이고 잠정적이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는 겁니다. 너무 확신에 차 있으면 열광적으로 돼버리고요. 너무 인식론적 한계에만 치중하면 불가지론이나 냉소주의에 빠지게 돼요. 여기에 긴밀한 긴장관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소통과 경험들이 필요한 거죠.

### 인식론적 한계 문제

이런 의미에서 윤리의 불가능성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행위가 위선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위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선에 돌입해서 선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의식하거든요.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자기가 선을 행하면서도 그게 선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를 잘 돌리잖아요. 선인지 아닌지 딱 골라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인격적인 사람이고, 기독교인으로서 이 정도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저도 목사로 살지만 그렇더라고요. 여기에서 잘 벗어나지가 않더군요. 아마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게 과장이기는 하지만 거의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정말 성령과 일치가 되어 살았다고 하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나 테레사 수녀라도, 혹은 이름 없이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결국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를 의식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쩌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완전한 성화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특이한 경우고요. 그런 경우는 완전한 엑스터시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의 자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경지, 예를 들면 바보 천치가 되든지 마약중독자가 되든지 하는 방식으로 영과 소통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삶이나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없어요. 중세 신비주의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자학과 금욕 속에 빠지거든요. 다리를 잘라낼 정도로 자기 육체를 확대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려고 한 거죠. 여성 신비주의

자들 중에서는 폐결핵 환자의 침이나 가래를 먹는 방식으로 자기를 없애려는 신비 경험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 한, 평상시에 인간은 늘 머리를 굴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위선에 빠질 때가 많죠. 이 말은 기본적으로 곧 우리가 이타적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타적인 삶, 완전한 이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게 윤리적으로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둘째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한 의지로 행위를 했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일을 했어도 그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의 윤리적인 행위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잠정적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밥도 먹어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자칫 제 얘기가 윤리적인 행위가 필요 없다고 전달될까봐 조심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윤리적인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라는 게 과연 윤리적일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는 ‘무위(無爲)이 무불위(無不爲)’라는 노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무위, 어떤 것을 억지로 하지 않지만, 무불위, 하지 못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성령론적인 윤리와 딱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자와 장자가 실제로 윤리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윤리적이라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니까, 위선에 가깝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어떤 틀에 가두려고 해요. 예를 들면 삼강오륜 같은 거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토라나 십계명과 같아요.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인간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가장 가치 있게 끌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종의 인류 문명의 열매들이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한 겁니다. 그것이 법이죠. 옛날에는 법전이라고 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나 로마법, 구약의 십계명 등이 다 문명사회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법, 규범, 그러니까 위(爲)죠.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서양에 따라 내용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틀이 있어야 인간다워지고 사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자와 장자가 보기에 그런 틀 자체가 우습다는 거죠. 그게 정말 인간을 살리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자와 장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살 수 있는가 하면, 그건 또 불가능한 거죠. 이걸 어떤 지평에 있어서 진리예요.

바울의 말도 그런 점에서 연관이 됩니다. 이신칭의(以信稱義), 즉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건데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는 율법 신앙에서 믿음으로 나가니

까요. 행위가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위이무불위 개념과 통합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과 통하고 노자나 장자는 오히려 바울의 가르침과 통해요. 따라서 윤리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틀, 규범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영이니깐요. 성령을 생각할 때 꼭 자유를 생각하세요. 결국 기독교의 윤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차원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인 겁니다. 궁극적인 어떤 사태 앞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의 잠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달이 되었나요? 기독교의 윤리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윤리적 근거를 놓아야 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잘 정리가 되지를 않네요.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리를 해야겠군요. 우리 행위의 잠정성, 즉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이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기독교의 윤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토대에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개량함으로써 참된 선을 생산해 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개량해내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려야 해요.

춘향전을 예로 들어 볼게요. 사랑을 나눴던 남자가 서울로 과거를 본다고 떠났고, 남원에 남아 있던 춘향이는 사포의 수청을 들라는 명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었어요. 뭐로 해결됐나요? ‘암행어사 출두’로 해결되었죠. 제가 보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혹은 예수님이 온다는 것이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했던 남자가 암행어사로 출현하면서 춘향이가 살아가던 모든 질곡과 한계들이 일시에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개입하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걸 종말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도 하죠. 또 다른 단어도 생각나나요? 심판이 생각난다고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을 너무 낯설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은 늘 낯설게 생각하는 것은 해야 하는데, 제가 낯설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당장 내일 아침에라도 세상은 종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라도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림, 종말, 심판 같은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건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공부가 필요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저절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을 정확히 뚫어볼 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삼위일체론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때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이에 해당되겠죠.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해석된 성숙한 시간인데요. 이와 연관해서 다른 단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없군요. 맞추면 제가 특별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이네요. ‘파루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리얼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리얼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정말 리얼하게 내 운명과 삶 전체를 끌어가는 영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좀 더 설명해야겠네요. 이것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두 번 설명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이 세상을 종말론적으로 완성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바로 종말인데요. 그게 언제일까요? 어떻게 완성될까요? 세계의 완성이 정말 뭘까요? 생명의 완성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요? 지금 우리는 생명 속에 있습니다. 흡사 물고기가 바다를 헤엄치듯이 우리가 생명이라는 바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헤엄치고 있는데 아직은 여기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먹어야 되고 그럽고 아프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지금의 창조가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사건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아버지는 창조자니까 종말론적이라고 하면, 늘 궁극적, 혹은 성취, 혹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쪽으로 이 종말론의 개념을 풍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차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완성해가실지에 대한 설레는 기다림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분이예요. 재림은 그만두고 심판에 대해서 좀 말하죠. 심판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옥황상제를 생각하나요? 또는 유향불이 펄펄 끓는 지옥을 생각하나요? 제발 그런 건 내려놓으세요. 심판이 뭘까? 이것은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 생명의 알맹이, 진짜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드러나는



것, 그게 심판이죠.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세계로부터 거부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고대인들이 심판이나 지옥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죠. 아들의 재림과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로 뭘 깨닫게 합니다. 진리를 알게 해요. 그런 차원에서 성령은 종말론적 리얼리티를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본 뜻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바울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든 것의 실체를 본다고 합니다. 잠정적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자기의 안과 밖이 혼란스럽지 않는, 정말 일체가 되는 어떤 생명과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뭔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부분적이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2천 년 기독교 역사 동안 신학이 해명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로 존재하고, 나라는 통치이고, 통치는 힘이요, 생명의 힘이요.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따로 있고 그가 이 세상을 통치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가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과 세상이 일치가 되는 거죠. 세계가 곧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희망 속에서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것, 진리와 생명이 드러나는 심판, 아주 궁극적 실체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에 대한 기다림과 희망을 안고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만나고 투쟁하고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패배주의에 빠지지도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루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안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요즘 촛불정국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은 감당하고요. 또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영성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들도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42강

### 기독교와 한민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의 강의 ‘기독교가 뭐꼬’가 개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기독교의 근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어떤 경지, 혹은 어떤 세계를 담고 있느냐 하는 거지, 강의 형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가 개론이지만, 이런 게 바탕에 놓인다면 신학대학원의 고급과정, 신학석사나 박사 과정에 있는 세미나도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말한 내용을 잘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여러분은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신학석사와 박사 과정은 전반적인 걸 바탕에 놓고 부분적인 걸 더 자세하게 다룬다는 데 차이가 있어요. 바르트와 브룬너 사이에 진행된 자연신학 논쟁이라든가,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에 진행된 성만찬 논쟁 등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또 예를 들면 1930년대에 발표된 바르멘 신학선언을 읽고 독일 고백교회가 종교와 정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독일교회가 나치 하에서 두 세력으로 갈렸습니까. 큰 세력을 형성한 쪽은 ‘독일 그리스도인’(Deutsche Christliche)이고 작은 모임은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예요. 현대 신학에서 종교와 정치 문제를 다룰 때 꼭 들어가는 문서가 바로 바르멘 신학 선언인데, 그 문서가 고백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기독교의 기초적인 내용을 대체로 다 다루었습니다. 출발은 기독교의 토대가 뭐냐는 거였어요. 유대교를 토대로 초대 기독교가 시작한 역사, 초대교회의 기독교 문서들인 신구약성서들, 그리고 교회 형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국 기독교 윤리까지 왔는데요. 윤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이고 실천의 문제입니다. 프락시스(praxis)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식, 사유, 고백과 같이 존재론적인 차원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니까, 윤리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존재와 행위의 변증법적 관계에 속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행동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영성은 사막의 교부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죠. 그들은 행동하지 않고 사막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삶에서 보는 것처럼, 광야에

나가 유유자적하고 고독하게 혼자 산 게 아니라 저잣거리로 들어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듯이, 삶과 연관된 윤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쪽 연결해서 볼 때 사실 ‘기독교가 뭐꼬’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어요.

이제는 기독교가 뭐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상황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남은 강의는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한국인의 기독교요, 기독교인이 먼저인가요? 한국인이 먼저인가요?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든 우리는 특별히 분단된 체제 속에서 남한 쪽에 태어났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신앙의 틀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열어 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 목요일에 이야기할 건데요. 21세기 분단 체제라는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21세기 한국교회의 가능성 혹은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해석학적 토대 혹은 준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나 뉴라이트에서 말하는 좌파 운운이 먹히는 이유는 우리가 분단체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가 진정성을 담고 한 말인지 그냥 쉽게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직을 시작하면서 남북문제만 잘 끌어가면 다른 것은 좀 놓쳐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남한만의 전반적인 구조를 뚫어본 정치가의 정확한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게 뭔지는 이 시간에 일일이 다 밝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을 거고 강의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총체적으로 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크게 두 체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기총과 기독교협의회(KNCC)로요. 지금은 한기총의 덩치가 커져 버렸고 KNCC는 힘이 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KNCC가 길죠. 1948년에 문을 연 WCC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으니까 1989년에 시작한 한기총에 비해서 역사가 깊습니다. 한기총은 주로 보수적이고 KNCC는 좀 진보적입니다. 한기총은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좀 많고요. KNCC는 북한에 대해 좀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친북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북한에 있는 기독교 대표자들과 회의도 하고 연계도 하고 그랬죠. 한기총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유연해지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분단의 문제가 우리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21세기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사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전개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 이승훈과 김대건

먼저 한국교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 이승훈과 김대건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누군지 벌써 느낌이 오죠? 한국 가톨릭을 시작한 대표자들이에요. 이승훈은 최초로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가톨릭이 개신교보다 백 몇 십 년 전에 조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세례자가 먼저 있었어요. 이승훈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통틀어서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김대건은 누구일까요? 김대건은 한국 최초의 사제였습니다. 로마가톨릭을 포함한 한국교회사에서 이 두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큼니다. 이승훈은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받은 세례명이 베드로였고, 1784년 2월이었다고 합니다. 230년 전이군요. 이승훈이 세례를 받은 그해 3월에, 그러니까 2월에 세례를 받고 3월에 가톨릭의 몇몇 성물을 챙겨서 조선으로 돌아와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5년 만에 신자수가 4천을 헤아렸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저도 교회사 책에서 인용한 건데요. 어떻게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들어와서 5년 만에 4천명을 전도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승훈은 사제가 아닌데도 미사를 집전했다고 합니다. 가톨릭은 사제 없이 미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미사라고는 할 수 없고, 정확히 말하면 공소(公所) 예절입니다. 사제 없이 평신도끼리만 드리는 미사를 공소라고 합니다. 이승훈은 미사를 공소 방식으로 진행했을 뿐 아니라 세례도 줬어요. 사제가 아닌데 말이죠. 가톨릭은 엄격한 성직자 제도를 실행하지만 위급한 경우에는 평신도가 성직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뒤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1785년에 김범우의 집을 치안당국이 급습했는데, 거기에 모였던 가톨릭 신자들 중에 양반들은 훈방 조치하고 김범우만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유배지에서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김범우의 집터에 지금 명동성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언덕에 모여서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 종교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유배를 떠났다가 죽은 김범우의 집터에 그 유명한 명동성당이 세워졌다고 하네요. 21년 전(1987년) 한국에서 민주항쟁이 뜨겁게 일어났을 때 가톨릭의 명동성당이 아주 상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시민운동의 거점이 지금은 시청 앞으로 옮겨졌죠. 그만큼 명동성당이 점점 보수화되었다고 할까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쪽으로 안 가는 게 아닐까요? 21년 전에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민주항쟁이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장소가 다르다고 하는 것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김범우 집의 급습 사건 뒤로 가톨릭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로마가톨릭이 한국에서 당한 순교는 끔찍했어요. 조선의 쇄국정책 같은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로마가톨릭이 지해롭지 못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황사영 백서 사건인데요. 주문모라는 중국인 신부가 있었어요. 그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전도를 했는데 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황사영입니다. 조선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주문모 신부가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조선의 박해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황사영을 밀사로 보냈는데, 그 문서가 발각된 거예요. 그게 황사영 백서 사건의 단초입니다. 백서의 내용은 네 가지예요. 첫째는 조선의 정치적 상황과 가톨릭 신자들의 말살 상황을 설명했고, 둘째는 천주교가 박해를 당하는 이유를 그 당시에 있었던 당쟁 관계에서 설명하면서 조선의 경제적 빈곤을 구제해달라고 했고요. 셋째는 중국이 조선에 압력을 넣어서 천주교를 용인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넷째는 조금 심각한 문제였어요. 서구의 여러 나라를 움직여 군함 수백 척에 군사 5-6만과 대포 등의 무기를 싣고 조선에 와서 힘으로라도 조선을 굴복시켜 선교 승인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시다. 이런 밀서가 발각되었으니 조선이 발각 뒤집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사화가 시작되는데요. 황사영은 1801년 27살의 나이로 반역죄로 몰려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승훈이나 김대건 신부도 빨리 죽었어요. 황사영도 27살이면 지금 나이로 보면 상당히 어리잖아요. 결혼도 했던 것 같은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엄청난 일을 도모하기는 했어요. 그 사람의 행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나이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조속했던 것 같아요. 반역죄로 몰려서 참수당하고, 가산은 다 몰수되고 모친은 거제도, 처는 제주도로, 자녀들은 추자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때 300여명이 넘는 가톨릭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순교가 일어났어요. 1840년 기해교난, 1866년에는 병인교난, 1871년 신미교난입니다. 이후로 대원군이 서울 종로 네거리를 비롯해서 전국 주요 도읍에 척화비를 세우고 천주교 박해에 박차를 가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한국교회사를 읽으면 다 나오니까 자세하게 말하지 않을게요.

김대건이라는 사람만 좀 짚겠습니다. 1821년에 태어났고 16세 때 청나라 마카오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1845년 8월 17일, 24살의 김대건은 조선인으로서는 최초로 신부 서품을 받았습시다. 한 달 후에 페레올 주교와 같이 국내에서 반년쯤 활동하다가 체포를 당했죠. 국내 정치가 굉장히 복잡했던 때여서 결국 1845년 9월 15일, 25살의 나이로 새남터에서 칼을 8번 맞고 죽었다고 해요. 김대건 신부가 죽었던 그곳은 지금 성지가 되었는데요. 한

강을 내려다보는 장소인 것 같아요. 제가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기억이 없네요. 이렇게 천주교가 조선 땅에 발을 내디딜 때 참으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교회 역사가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고대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이 19세기 초의 조선인들만큼 수난을 받았는지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초기 기독교인들보다 어쩌면 한국의 조선 사람들이 당한 순교가 더 끔찍했을지도 모른다는 진술인데,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잘 헤쳐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부추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예를 든 황사영 백서 같은 것들은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천주교가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기독교 신앙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가톨릭이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기독교와 서구문화

정치적인 사건은 접어둔다고 해도, 한국에 처음 천주교가 들어올 때 취했던 신앙적 자세도 문제였어요. 우리가 순교를 생각할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행위로 받아들이고 신앙의 모범으로 삼기는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죽음을 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 당시에 천주교 신자들이 제사와 신주를 불사르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이게 개신교 신자들의 신앙과도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짚고 넘어가죠. 지금도 개신교 신자들 중에 순교자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점에서 보면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시택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나온다면 좀 우습지 않냐 하는 거죠. 물론 시어른들이 인격적이어서 며느리의 신앙을 존중해준다면야 괜찮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시어른이 겉으로는 알았다고 해도, 속으로는 그런 며느리에게 기분이 좋을 리 없거든요. 예수 믿는 며느리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도 부치고 음식장만도 하지만 표정에 다 드러나니까요. 하여튼 이런 상담이 다비아에 올라온 적도 있었고 전화로 상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시택과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그걸 기독교 신앙

을 잘 지키는 자세로 생각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 문제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니까요. 신주는 조금 다르겠죠. 돌아가신 분의 위패를 모아놓고 3년 동안 절하고 밥도 놓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별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제사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목사들이 추석이나 설 즈음 해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방식으로 신자들을 가르치는데, 저는 그게 별로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사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전날 밤이나 추석이나 설에 드리는 동양의 고유한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먹을거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삿날만 기다리는 자식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때가 돼야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제사 음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어요. 그것을 통해 공동체성을 확보한 거죠. 또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삿날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좋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기독교에서는 제사가 아니라 추모예배로 통하는데요. 추모예배나 제사나 마찬가지죠. 사실 한국의 어떤 전통을 살린다고 한다면 제사를 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게 꺼림칙하다면 추모예배로 바꾸고요. 어쨌든 제사의 여러 가지 순서가 있잖아요. 일종의 예배인데요. 미사죠. 이걸 통해서 죽음을 더 가깝게 느낀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걸 거절해 버렸어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좀 심하게 말해서 그 당시에 잔혹하게 박해를 받고 순교당한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나 개신교 신자들이 제사에 대해 이런 자세를 보인 것은 복미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양 문화와 기독교를 이 선교사들이 하나인 것처럼 가르쳤거든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고, 지금은 그 증상이 로마가톨릭보다 개신교가 더 심해요. 미국이라면 무조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고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서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걸 대단한 것처럼 말해요. 좋은 전통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서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작은 나라들을 무지막지하게 공격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이라크 전쟁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닙니다. 크게 일어난 전쟁 말고도, 미국은 제3세계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정부가 들어서면 반정부 무력단

체에게 무기를 지원해서 정부를 전복해버리는 일도 많이 했어요. 한국의 목사들이 미국 대통령에 성서 위에 손 얹고 기도한다는 예를 들면서 미국을 대단한 기독교 국가인양 말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신자들에게 세뇌시켜서 미국의 모든 문화를 기독교 자체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한발 물러섰지만 이명박 정부가 영어몰입교육을 한다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에서는 일부러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영어로 물어보면 프랑스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해요. 이상하죠? 학생시절에는 분명히 영어를 어느 정도 배우는데요. 크면 영어를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영어는 교양영어보다는 실용 영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거꾸로 실용영어보다 교양영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접어두고요. 그런 영어 콤플렉스나 사대주의 같은 것들이 한국 개신교회 신자들의 의식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웬만한 대중적인 설교자들은 예화를 들 때 늘 미국 이야기만 해요. 또 기독교 신자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고요. 워싱턴 지하철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록펠러가 어렸을 때부터 십일조를 해서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입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화와 기독교를 일치시키는 잘못이 천주교가 시작될 때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화와 기독교 사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독일 사람인데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신학적 특징이 문화신학이거든요. 『문화의 신학』(대한기독교서회)는 유명한 책입니다. 틸리히의 말을 빌리자면 문화는 옷이고 신앙은 몸이에요. 몸이 옷을 입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벌거벗고 있으면 창피하기는 하지만 옷이 핵심은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학이 문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이 중요한 거죠. 둘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문화를 신앙과 일치시키는 바람에 한국의 문화인 제사를 파괴시킨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본 거죠. 그건 제가 보기에 그 당시 선교사들이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술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이진 조금 다른데요. 술 담배는 문화라기보다는 기호의 문제니까요. 그냥 접어두고요. 하여튼 기독교 신앙이 한국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옷을 입고, 한국의 먹을거리를 먹고, 한국의 음악을 들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한국 사람이 서양 사람의 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행태가 그래요. 물론 이런 문제를 토착화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 토착화에도 정도의 문제가 있거든요. 샷샷 쓴 예수님을 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고요. 역사적 예수를 그대로 살리되, 우리의 신앙을 표



현하는 방식에서 우리의 문화를 담아내면 되겠죠. 그걸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는 논의의 대상입니다. 예배드릴 때 파이프 오르간이나 서양 악기를 일소해버리고 장구나 북, 징, 이런 것만으로 해야 할까요? 목사가 입는 가운도 한복과 두루마기로 바뀌야 하나요? 찬송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찬송가가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유럽과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이런 찬송가를 사용하는 데가 없다고 해요. 이 정도만 할게요. 천주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은 데는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과도 많은 연관이 있지만, 한 나라의 문화와 기독교를 혼동한 이유도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고요.

###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 다음은 개신교의 역사입니다. 초기 한국기독교 역사에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나오죠. 1885년 4월 5일에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한국에 도착하는데, 이것이 한국 개신교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이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1884년에 북미 장로교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근무하다가 같은 해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보다 6-7개월 정도 먼저 왔습니다. 알렌이 먼저 와서 기초를 닦았어요. 그 뒤에 이런 저런 외교가들 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개신교가 한국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외에 다른 교파들을 살펴보면, 성공회는 1891년 9월 30일에, 침례교는 1889년에, 안식교는 1904년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안식교는 이단인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이단도 크게 다른 데가 있고 약간 덜한 데가 있는데, 제칠일안식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많이 비슷하다고 보면 좋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조금 더 나갑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성결교회는 1907년에, 구세군은 1908년에 시작했어요.

로마가톨릭은 한국에 들어올 때 상당히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개신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천주교처럼 사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대적인 상황이 큰 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들어오던 19세기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1862년부터 1904년에는 농민전쟁과 외세의 압력이 심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열강들이 들어와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조선 정부의 권위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추락할 때였습니다. 정부 자체가 힘이 없는데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막을 수 있었겠어요? 제가 이걸 강의안에서 이렇게 표현했

어요. “조선의 국력쇠퇴가 개신교의 선교에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 피를 흘리지 않고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런 상황을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하시겠죠? 천주교회는 우리보다 100여년 앞서 들어왔는데 시련을 많이 겪었고, 우리는 그 후에 들어왔는데 조선 정부가 아주 힘들 때 들어와서 별 어려움 없이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개신교회는 일취월장하게 되고 가톨릭교회는 확장 속도가 많이 느렸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입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가톨릭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개신교회는 정체 혹은 쇠퇴하고 있으니까요. 노쇠하고 조로운 느낌이 들어요. 영성이 살아 있지 못하다는 말도 됩니다.

가톨릭교회의 특징을 말할 때 문화와 기독교의 관계를 특징적으로 언급하면서 제사 문제를 말했는데요. 개신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직접선교와 간접선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직접선교는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방식의 선교이고, 간접선교는 병원이나 학교를 세우는 방식의 선교예요. 이 두 가지를 초기 개신교가 잘했어요. 물론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상당히 은둔적이고 탈 역사적이고 묵시적인 쪽으로 나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기는 했지만, 그 때가 일제 식민지라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야죠. 일제 식민지를 잘 보세요. 일제 식민지는 로마 식민지와 상황이 똑같습니다. 2천 년 전에 처음 기독교가 시작할 때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개신교회가 한국에서 시작할 때도 일제 식민지였다는 사실에서 공통점이 좀 엿보입니다. 둘 다 가능한 대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하는 쪽으로 나간 거죠. 가능하면 정치적인 충돌을 피한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위의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예 해방을 위해 투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초기 기독교 신앙, 즉 그들이 로마 제국과의 충돌을 피한다는 것이 그 제국을 인정한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제국은 기본적으로 적그리스도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 황제에 대해서 다들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는데 기독교는 황제에게 ‘퀴리오스’라고 하지 않고 예수에게만 퀴리오스를 붙였다고 해서 순교도 많이 당했거든요. 더 큰 악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나 매사에 충돌하지는 않는 겁니다. 로마라는 중앙정부에게는 항거를 했지만, 지방정부와는 같이 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중앙정부는 이데올로기죠. ‘팍스 로마나’(로마의 평화)가 이데올로기였어요. 그게 유지되면 만사 오케이지만, 그게 무너지면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이데올로기보다 치안을 유지하는데 중심을 두었거든요. 초기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이 치안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치안이 유지되지 않으면 기독교 선교가 불가능했으니까요. 유대교와 다른 종파로부터 기독교가 테러를 많이 당했잖아요. 이 지방

정부는 최소한 그런 테러를 막아주었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방향에서는 맞습니다. 지방정부는 바울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권세에 복종하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은 로마의 이데올로기를 수긍하라는 말이 아니라 치안을 유지하는 지방정부와 쓸데없이 충돌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도 일제 식민지였습니다. 삼일운동 때 기독교인 대표자가 32명 중에 16명이나 들어갔다고 하죠? 이게 얼마나 객관적인 사실인지는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요. 또 여기에 들어간 16명이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나 하는 것도 더 연구해봐야 합니다. 이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변절을 했거든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이라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여기에 참여했죠. 그렇게 역사와 독립 등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했는데, 그 뒤로 기독교의 성질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된 건 선교사들이 일본 제국과 쓸데없이 충돌하게 되면서 복음이 억압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복음 선포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문제들은 말하지 않기로 한 거죠. 따라서 정교분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게 무조건 옳다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싸울 건 싸워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그래도 일단 생존이 중요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야기했나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 본질의 상위라는 거예요. 본질을 신앙과 연결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신앙이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의로우냐, 얼마나 순수하냐 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신앙 자체가 있어야 본질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저 사람 괜찮다, 도덕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 있어야 본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도식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큰 흐름에서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생존, 혹은 실존을 위해서 일본 제국이라는 악한 질서와 심하게 다투지 않는 그 길로 나간 것은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초기 기독교는 간접선교를 많이 했는데요. 학교와 병원을 많이 세웠어요. 잘한 일이지. 자세한 내용을 강의안에 올려 두었는데 보십시오. 아펜젤러가 배재학당을 세웠고요. 메리 스코랜튼 여사도 1886년에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 근본주의

한국 개신교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 한 가지만 말해야겠군요.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저것 딱 끊어버리고 하나로 말한다면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근본주의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 1-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만 간단하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임스 바(James Barr)라는 영국 학자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름을 알아 두세요. 제임스 바는 맥그래스와 조금 대별됩니다. 두 사람 다 건전한 신학자들인데 제임스 바보다 맥그래스가 더 복음주의적이지요. 제임스 바는 복음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굉장히 학문적인 사람입니다. 제임스 바가 『근본주의 신학』(대한기독교서회)란 책을 썼을 거예요. 거기서 복음주의를 심하게 비판합니다. 복음주의는 말만 복음주의지 보수주의이고 근본주의라고 말하거든요. 이걸 보고 맥그래스가 뭘 잘못 보았다, 우리의 진정성을 모르고 있다고 대답했는데요(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한국장로교출판사) 두 사람의 책을 함께 보면 재미있어요. 저는 맥그래스에게 인간적으로는 호감이 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영국 복음주의의 장점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냥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는 거죠.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제임스 바의 책에 보면 복음주의를 포함해서 근본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서무오설, 둘째는 현대 신학에 대한 반대, 즉 역사비평을 반대한다는 거고요. 셋째는 자기와 종교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앙 형태와 비슷합니다. 타종교나 타교파에 대한 배타성도 강하죠. 특히 합동측 교단이 좀 보수적이지요. 합동측은 같은 장로교이지만 통합측 목사를 강단에 세우지 않습니다. 아주 코미디 같죠. 통합이나 합동이나 다 칼뱅주의를 따르는 예정인데도, 기장도 아닌데, 통합측 목사를 안 세웁죠. 이 정도로 배타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수호하고 있어요. 1992년에는 헌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 재량으로 강단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입니다. 합동측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 근본주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걸 잘못 수호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때 뵙죠.

## 제43강

### 근본주의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잘 지냈습니까?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우리가 살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살아 있는지 아닌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디에서도 우리가 살아 있다고 하는 확실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쁘게 살아갈수록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제가 이런 저런 일들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삶이 떠 있지 않고 안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 미묘하고 예민한 계기 속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우리가 숨을 쉬거나 물을 마시거나 걷거나 향기를 맡거나 누구와 대화를 하는 순간 순간이 삶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깊이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걸 다 놓칩니다. 그 대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일을 이루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죠.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헛수고일 뿐인데, 그래도 우리는 자꾸 그 쪽으로만 나갑니다. 일반적인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목회 생활도 그래요. 딱한 일입니다.

#### 생명과 밀착하기

그건 그렇고요. 오늘이 주일인데 여러분은 교회에 가서 생명의 깊이를 경험하셨나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정신이 없잖아요. 저의 옛날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그렇거든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교회에서만 살았다고도 볼 수 있죠. 계속 그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어요.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뱅뱅이 돌듯이 교회 행사에 매달렸죠. 예배와 성가대 연습, 각종 회의와 기도회, 그런 것들의 반복이더라구요. 그러다 보면 기도 모임도 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떨어질 수 있고, 예배 자체도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면 허전합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거라고 해봐야 통계 숫자죠. 몇 달이 지나니까 몇 명이 늘었다는 식입니다. 우리의 영성과 신앙은 정말 삶과 밀착된 것인데, 그런 것들은 다 놓치고 말죠.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성찰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클래식 음악과 밀착된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노력하고 훈련해야 하

는 것처럼 말이죠. 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도현 선생의 이야기를 몇 가지 전해드렸는데요. 집중적인 훈련 없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날을 되돌아 보면 지금은 좀 그나마 나아요. 나이도 좀 들고 신앙의 훈련이 쌓여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교회 일이나 다른 일을 할 때 제가 목표로 하거나 계획했던 일들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내려놔요. 그래도 어떤 순간에는 내가 일에 휩싸여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면 정말 소비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늘 생명과 밀착해서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생명과 밀착! 연애할 때 남자와 여자가 상대방에게 밀착하듯이 생명과의 밀착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좀 낯설게 느낄지도 모르겠네요. 생명과의 밀착은 신앙보다는 예술이나 철학에 더 가까운 게 아니냐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만큼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것도 없고, 기독교 신앙만큼 인문학적인 세계 이해가 필요한 것도 없어요. 생명과의 밀착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6개월 정도 이 강의를 들었다면, 정용섭 목사의 세계관, 신앙관, 철학관, 신학관 등이 대충 이해되었을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의 색깔을 갖고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어떤 주제를 말하더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건지를 이제 좀 알았을 거예요. 사실 6개월 정도 공부했으면 제게서는 더 들을 게 없습니다. 생명과의 밀착! 이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아닙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음악 훈련과도 비슷합니다.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는 스케일을 계속 연습해야 하거든요.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반음 올려서 계속 올라가고 또 반대로 내려오고 하는 일종의 테크닉인데요. 그런 스케일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프로 연주자 수준의 높은 단계에 올라가도 그런 훈련은 해요. 여러분은 세계적인 연주자라면 아무 때나 나와도 연주를 잘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연습을 더 해요.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은 예민한 예술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겠죠. 여러분도 그런 글들을 많이 읽었을 텐데요. 연주하기 직전 30분 동안에 뭘 하느냐는 질문 같은 거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옆 사람과 잡담을 하다가 갑자기 나가서 연주를 하기는 힘듭니다. 집중을 해야죠. 첼리스트들도 연주하기 마지막 전까지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을 해요. 그런 훈련들은 고수가 되어도 계속 합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도 신자들이 놓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성을 상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영, 생명, 성령, 하나님, 창조, 종말, 이런 것들은 정말 전체 세계를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성을 완전히 싸구려 상품처럼, 어떤 도구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신앙의 연조가 된다 싶으면 훈련을 안 하는 거죠.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술이든 기독교 신앙이든 끝이 없어요. 그런 세계는 자기가 들어가는 것만큼 세밀한 변화들을 포착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충해 놓고는 청중들이 박수를 치면 우쭐해하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대개의 경우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래요. 이걸 극복하려는 사람들, 예를 들면 토마스 머튼이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혹은 루이스 같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도 이런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긴장감에 영적인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목사여야 합니다. 그게 지도자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목사 자신이 영의 미묘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 소리와 음악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남이 이해하든 못하든 자유로울 뿐 아니라 창조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구도자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도 그래야 해요.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도 경험할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져요. 신앙의 매너리즘, 이게 정말 죽는 길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에 어느 정도로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잘 알 거예요. 옆으로 흘렀는데요.

다시 돌아가죠. 이런 살아 있는 영성, 생명의 에너지, 설렘, 어떤 놀라운 경험들, 어떤 충격, 내가 존재하고 내가 무로 사라지는 경계선,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는 경험들, 거기에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경험들, 이런 게 이제 자연주의적인 영성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영성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살아 있어야 흔히 이야기 하듯 기쁨, 자유, 평화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평화입니다. 그런 평화를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했어요. 헬라인들은 에이레네라고 했구요. 그 평화는 사람이 생산해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서 영적으로 예민한 단계에 들어가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몰라도 인생이 그냥 즐겁고 재미있다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러나 그게 정말 생명의 주관자인 성령이 우리 영과의 소통을 통해서 나오는 내면의 기쁨인지, 아니면 어떤 데 취해서 흥분하고 있는 건지 잘 살펴야 합니다. 기쁨과 흥분은 다르거든요. 흥분하면 기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기쁜 것과 흥분은 다르죠.

설교시간에 청중들을 웃기려고 애를 쓰는 설교자들이 계십니다. 성품과 인격은 괜찮은

데 너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네요. 성품과 기독교 신앙을 바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괜찮아도 근본을 모르면 왜곡된 길을 갈 수 밖에 없어요. 청중들을 재미있게 만드는 데는 노련한데 기독교 복음을 아는 데는 미숙한 거지요. 그런 분들에게는 복음이 희화화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든 세상일이든 미미하니까 흥분된 메시지에 호합니다. 그런 걸로는 참된 기쁨이 가능하지 않은데도 말이지요. 참된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사이비 기쁨인 흥분에 빠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조금 느리더라도, 화끈하지 못하더라도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희열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도를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로마가톨릭과는 반대로 말이지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뭘부터 고쳐야할지 감조차 잡기 힘들어요. 일단은 기독교의 모든 신앙생활을 좀 조용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하다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설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의욕이 많아요. 세계 선교부터 교회당 짓는 일, 태신자 전도 프로그램 등등,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신앙생활이 한국교회 안에 거의 구조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릅니다. 이게 참 비극이지요.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요.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본인들은 집어낼 능력이 없어요. 교회의 일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종교적인 짐입니다. 이게 그 당시 일반 민중들을 힘들게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이지요.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율법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민중들은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지키라고 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불안해도 그게 절대적인 이념이니까 거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유대교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업적, 자기 의 등을 가리키는 겁니다. 압박한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수고와 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만 한 가지, 메타노이아, 즉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회심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수고를 너무 많이 합니다. 이걸 다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성취, 자기 업적, 자기의, 종교적 만족감 같아요.

일단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이 돈독하다고 하는 성도들은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에 가서 살아요. 주일은 거의 아침부터 밤까지 있어야 하고요.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주일은 말 그대로 쉬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정말 쉽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쉽, 안식이거든요.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만은 외국인들과 노예들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쉬게 해야 한다는 일종의 노동 해방 선언입니다. 이게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많은 신자들과 목사들에게 하나의 짐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어때요?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이 정말 자유, 쉽, 안식, 평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렬한 설렘의 희망들로 가득한가요? 교회 일이 짐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걸 어딘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지도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한다고 세뇌 당하듯이 들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불쌍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목사들도 불쌍해요. 목사 자신도 그런 구조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되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요. 중국 속담처럼 호랑이 등에 타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싶는데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런 한국교회의 목회 구조 속에서 어느 목사가 속도를 늦추어 목회할 수 있겠어요. 서로 경쟁하는 악순환 속에서 목사도 힘들죠. 그 속에서 신자들도 힘들고요. 여름성경학교의 형태는 어떻게 보세요?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방학 동안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신앙 경험, 생명 경험, 친구들과의 인간적인 연대성 등을 교육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면 여름 성경 학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행사 위주로 흘러서 여름에 하는 몇 가지 행사에 주일학교 교육비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형국이라면 좀 고려해봐야겠죠.

## 그리스도론적 생명이해

생명과의 밀착을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성경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볼 수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뜨거워진다고, 그런 걸 자주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종교에도 그런 현상은 흔합니다. 대나무 하나만 붙들고 계속 흔들어 보세요. 거기에 집중하면 엑스터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무의식, 심리적 감정, 열광적인 상태와 성령을 일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생명의 깊이를 먹고 사는 문제로만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성령이 활동하는 생명

의 깊이라는 것이 말자체로만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전체와 연관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전적으로 묶어서 생각하는 능력은 신학적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외골수로 나가게 되고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정말 생명과 밀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고 질문하고 싶으신가요? 생명과의 밀착은 성령, 생명의 깊이에서 활동하는 영과의 교제이고, 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제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관념적으로 들립니까? 혹은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까?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의 기독교적인 이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생명 이해를 넓혀가야 하죠. 이걸 기독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자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이해해야 해요. 이렇게 삼위일체론적인 차원에서 생명의 깊이를 배우고 느끼고 거기서 하나가 되는 삶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았다 하더라도 허송세월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해야 할 것은 안 하고 계속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매순간 생명과 밀착되어 살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에요.

오늘 제가 원래 계획했던 강의를 충분히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있어서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일로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시다. 어떤 걸 먼저 말할까요? 오늘 저녁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새로 나온 제 설교집과 설교비평책을 신청하더군요. 평소에 다비아에 들어와서 글을 많이 읽는데 아이디어 없어서 신청을 못한 관계로 이제 전화로 한다고요. 몇 년 전에도 그분과 한 번 통화한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좋은 뜻으로 말을 하면서 주일마다 제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제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서 설교도 읽고 글도 읽는다는 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니,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 때 두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는 제가 쓰는 글이나 설교의 논지는 분명한데 전달 방식이 그 목사님께 익숙한 방식이 아니어서 너무 낮선 나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 목사님이 기독교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기독교를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솔직한 분 같아요. 그분이 제 설교와 글이 나쁘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거든요. 계속 관

심을 갖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목사라도 기독교의 근본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일반 평신도들이야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충격은 오늘 샘터교회에 몇 몇 분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분들이었는데요.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들은 교회 형편이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회가 조폭 같더라고요. 조폭보다는 교주 같더라고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더군요. 강단에서 누가 헌금을 몇 천만 원 드렸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가 헌금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헌금 목표액이 7천만 원이면 7천만 원, 1억이면 1억을 달성했다는 이야기를 강단에서 서슴없이 한답니다. 어떻게 교회 강단에서 이런 말들이 쏟아질 수 있는지, 정말 큰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거든요. 어렵פות이 교회마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직접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 근본주의의 문제점

오늘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잠깐 공부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한국교회의 특징인 근본주의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제가 앞 시간에 꼭 이야기한 많은 문제들이나, 좀 전에 말한 그런 일들도 어떻게 보면 다 근본주의와 연관됩니다. 근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성서무오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임스 바가 말한 특징 중의 하나인데요. 성경이 문자적으로 하나의 오류도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신앙적인 논의를 할 때 항상 성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게 있다는 식으로만 말하는 거죠. 사이비 이단들도 사실은 늘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 근본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문자 그 자체를 진리처럼 말합니다. 성서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생기는 왜곡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는 성서를 토대로 한 사이비나 이단이 많다는 거예요. 성서가 해석되지 않고 문자적으로 인용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이용될 수 있어서 사이비들이 많이 출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교자의 카리스마(은사)가 허물어집니다. 설교가 성서에 있는 이야기를 해석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니까, 그걸 전달하는 기술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화를 감동적인 것

으로 든다거나 치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설교자에게는 고유한 카리스마가 필요한데요. 카리스마라고 해서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카리스마의 원리가 배타적이잖아요. 서로 월권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는 고유한 카리스마가 필요한데, 이런 걸 다 놓치고 말았어요. 웬만큼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목사가 본문과 제목만 말해도 설교 내용이 뭔지 감 잡을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성서무오설의 문자주의가 만들어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에 현대 신학과 역사비평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 그래요. 현대 신학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신학 무용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신앙이 영적이라기보다 세속적인 성격이 큰 거지요. 목회도 일종의 테크놀로지가 된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도 늘 그런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신앙을 그 언저리에서만 생각합니다. 성서를 많이 읽기도 하고,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장로도 하고, 신앙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영적이지를 못합니다. 영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대답해보세요.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생명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생명 지향적이지 못하잖아요. 오래 교회 생활한 사람에게서 생명이 풍부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더 해요. 신앙이 우리의 생명을 파괴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길로도 가지만, 사람을 죽이는 길로도 갑니다. 이진 분명해요.

## 성서 원리주의

근본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어떤 분이 ‘원리주의’라고 문자를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원리는 곧 기술이거든요. 제가 신학은 공부한 다음에 다 잊어 버려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신학은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신학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학적 틀을 넘어서 활동하는 하나님과 성령의 통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태도를, 즉 영적인 감수성들을 배우는 겁니다. 음악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 음악에 대한 태도를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틀 속에 가두고 원리에 머무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영에게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한 말도 중요한데요. 나를 맡긴다고 하는 것 말이에요. 나를 생명의 영인 성령에게 온전히 맡겨야 합

니다. 창조와 종말의 영에게 온전히 맡기려면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통치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지 않겠어요? 억지로 하면 자꾸 힘이 들어가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 열심이 자기 확신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까 이런저런 걸 말했으니까 길게 하지는 않을게요. 예민하게 살펴보세요. 수영을 잘 하려면 물에게 자기를 맡겨야 하듯이 우리를 성령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본성적으로 자기를 의지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결국 나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루 빨리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집중은 나르시시즘(자기연민)입니다. 성서적 용어로 말한다면 자기 의(義)가 되고요. 자기 의, 자기 집중, 자기 연민, 우리는 그런데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고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일수록 뚫고 들어가면 자기연민이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완전히 내려놓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갓털처럼 자기 존재 자체가 아주 가벼워질 수 있을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완전하게는 안 될 겁니다. 그건 포기하는 게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집중이 왜 문제일까요? 왜 이것이 죄일까요? 누가 말해보세요. 한 학기가 다 끝나가니까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왜 성서는 이것 죄라고 말하나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전부 훌륭한 대답들을 해줬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명을 질식시키고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집중의 방식으로 생명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서는 더 심층으로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이 방식으로는 결코 인간이 생명을 완성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럴수록 생명에서 떨어진다고요.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중을 하고 있는 한,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는 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제가 많이 설명해야 하는데, 그만할게요. 대충 알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를 얘기하는데요. 죄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해야만 성서가 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매일 뭘 잘못했다는 식으로 죄를 말한다면 착각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사는 게 합리화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에 한 마디 더 보충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모르듯이, 그 중간에 있듯이, 종말이 되어야 하나님이 확연

하게 실체를 드러내듯이, 생명도 아직 우리가 다 모르거든요. 종말에 가서 생명이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은 잠정적이고 유한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생명,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걸까요? 그건 아니죠.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된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체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완성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완성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잘 안 됩니다. 자기 집중과 자기 연민과 자기 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게 죄예요.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리면 그게 원죄인 거죠. 숙명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실질적으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칭의론이죠.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세밀하지 않습니까? 심층적이에요. 그렇게 못 느끼세요?

칭의론만 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칭의론이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거든요. 바울과 어거스틴과 루터, 바르트에 이르기까지 이런 영성적인 신학의 위인들이 왜 칭의론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많은 신학적 사유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가야만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문제들까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이고 심층적이고 궁극적입니다. 우리가 근본주의 신앙에 딱 묶여 있어서 신학적 훈련을 전혀 하지 못하고 성서를 역사적으로 전혀 비판할 줄 모르니까, 성서에 신화가 있다고 한 마디 하면 신학자들도 나서서 성서를 신화로 생각한다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조금 당혹스럽죠.

## 신앙적 배타성

비록 이 근본주의자들이 비현실적이고 탈사회적인 현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소박하게 개인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근본주의자들은 배타적이에요. 굉장히 독선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교파들이 백 수십 개로 갈라지게 된 근본 이유죠.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장로교가 백 몇 개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더 많이 갈라지거든요. 다 근본주의고 보

수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완전히 매도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대다수의 신자들은 건전하고 괜찮습니다. 조금만 가르치면 성서의 놀라운 세계에 눈을 뜰 수 있고, 정말 생명 지향적으로 나가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종말론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토대는 되어 있는데 뭔가 한 꺼풀 가려져 있어요. 성경을 바르게 지키겠다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대한성서공회가 있는데도 대한성경공회를 또 조직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보수적인 교단들이 모여서 대한성서공회가 자유주의적이니까 성서를 성경으로 바꾸고(이게 그렇게도 중요한 건지) 자기들끼리 성경을 또 번역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자꾸만 찢어발깁니다. 성서마저도 나누고, 성서공회마저도 나누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21세기에 개신교회가 비전이 있을까요? 이미 20세기말부터 한국 교회가 위축되고 있는데,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조폭 같은 목사가 교주처럼 행세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지껄일 수 있는 풍토가 된다고 하면,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 제44강

### 한국교회의 미래

반갑습니다. 창문을 좀 열어 놓았는데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네요. 개구리 소리도 들리고요. 강의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괜찮으리라 생각하고요. 날씨가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름이기는 해도 아직 본격적인 더위는 전혀 오지 않았는데요. 문을 닫으면 더울 것 같으니까 열어두겠습니다. 제가 캠퍼스를 안 틀었네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 치려니까 자꾸 놓치네요. 조금 전까지 준비를 해놓았는데 단추 누르는 걸 깜박했습니다.

#### 주님의 얼굴

어제군요. 샘터교회는 수요일마다 성경공부 겸 기도회를 합니다. 지금은 시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들어가기 전,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같이 읽고 나눕니다. 일전에 한 번 말했지만, 한국교회에는 자유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 성문 기도, 특히 영성의 대가나 신학의 대가들이 먼저 고백한 기도문들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성서가 다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자유롭게 성령과 소통하며 기도드리는 단계에 들어가면 좋지요. 우리가 모두 그런 단계에 들어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일전에도 어떤 분이 관상기도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교회에 그런 기도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 운동 중의 하나인데, 한국교회에는 그것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어요. 기도원이라는 한국교회의 특이한 신앙현상에 기인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쪽으로 이야기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인이 되려면 좋은 시를 많이 읽고 외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좋은 기도를 읽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수요일에는 자유 기도를 하지 않고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읽고 있습니다. 책은 보여드렸죠? 어제 본 대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꼭 읽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 영혼에게’라는 제목이고요. 다섯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다섯째 연만 읽을게요.



나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봄으로써 육신이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뵈고자 합니다.

전달이 되었나요?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하고 이어서 ‘주님의 얼굴을 봄으로써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볼 수 없어요. 왜 볼 수 없는지 제가 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딱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강의 중간에 그 비슷한 이야기는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된 강의만 전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많이 전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강의 안에 나온 것보다 더 실질적이고 내용도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강의를 인도에 계시는 김현혁 님이 녹취해 주셨는데요. 그걸 책으로 묶어 낼까 합니다. 이번에는 한정 출판으로 하려고요. 소량 인쇄를 해주는 인쇄소가 있습니다. 열 권 이상 되고 파일만 있으면 얼마든지 출판이 가능해요.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기독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거스틴 기도문에 나왔듯이 왜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는 걸까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걸 혼자 생각할 수 있어야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꼭 신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인 건데요. 성서와 그것을 기초로 한 교리들이 허투루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들은 세계, 역사, 시간, 인간의 삶, 죽음 등 전반적인 것을 직관한 사람들의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진술들이지, 아무 바탕도 없이 그냥 기도해서 툭툭 튀어나왔거나 그냥 영감을 받아 쓴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진술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럴 만한 토대가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보십시오. 6개월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 혼자서 풀지 못한다면 강의를 헛들은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굴을 좀 제발 돌리지 말라고요. 내가 당신을 보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살기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뵈고자 한다고 말이죠. 앞에서 죽는다고 하고 뒤에서는 산다고 했어요. ‘육신으로 죽는다고 하더라도’ 라는 이 부분에서 육신이라는 말을 꼭 영육이원론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해체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걸 의미하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생명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부분들을 육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주님 얼굴을 뵙고자 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거스틴이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앞의 네 연이 쪽 발전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신학적이면서 영성적인 기도입니다. 참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외워두십시오.

나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봄으로써 육신이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뵙고자 합니다. 아멘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요. 어거스틴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주님은 바로 어떤 분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죽는 분이지만, 결국 우리로 죽어야 살게 하시는 그분, 그 분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열려 있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궁극적인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분에게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속 어떤 걸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생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끝나지 않았습디다. 기독교 신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의 기도문이 좋아서 읽어 드렸습니다.

## 한국교회의 과거와 미래

오늘은 21세기에 들어선 한국교회의 전망과 희망을 주제로 합니다. 전망이 별로 밝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하니까 희망을 좀 노래하자는 겁니다. 시편의 기도들에서도, 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절망과 무죄한 자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잠잔다고 하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희망들을 읽을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요. 우리는 막연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정확히 직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암담하고 칙칙한 현실들을 뚫고 넘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구원통치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강의안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6·25 남북전쟁 이후 50년 동안 한국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0년대는 제가 태어난 연대군요. 제가 53년생이니깐요. 여기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도 동지들이 많이 있죠? 휴전되던 시기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깐, 큰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50년대에는 한국교회가 아주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광적이고 목시적인 성격을 뽐냈죠. 상당히 내세 지향적이었습니다. 그건 식민지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나온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극단으로 흘러서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이나 문선명의 통일교 운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크게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한국교회에 뿌리를 박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의 발흥은 그만큼 그 종교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거든요. 같은 기독교이면서도 가톨릭보다 개신교에 사이비 이단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별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이단과 정통 사이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거죠. 서로 연계되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정통 교회 안에 사이비성이 한두 가지입니까? 현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단들과 똑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 교리적인 차원에서 정통 교리를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청중들이 원하는 쪽으로 갔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어쨌든 50년대의 한국교회는 내세 지향적이고 초월적인 성격이었습니다.

60년대는 분열과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1959년에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었던 장로교가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되었죠. 기장과 예장은 그보다 앞서 분열된 상태였고요.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나 근본주의나 하는 문제로 갈라졌습니다. 59년에는 WCC 문제로 분열이 되었죠. 61년에는 제가 속해 있는 성결교회가 기성과 예성으로 분열되었고요. 이런 교파 분열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었습니다. 이걸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할 거예요. 한 4-50년 어간에 백 몇 십 개로 교단이 갈가리 찢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한국교회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했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버금가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열의 단초가 WCC였어요.

WCC 총회가 7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54년과 61년에 열린 WCC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 즉 미시오 데이(Missio Dei)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신학 설명은 접어두고요. 한 마디만 한다면, 선교는 교회의 업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은 고유한 방식으로 선교하신다는 겁니다. 노동운동, 식민지 독립운동, 각종 인권운동 등이 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신학적 근거에서 중요합니다. WCC는 기독교

운동만이 아니라 제3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권운동에도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WCC의 자금이 반정부 운동, 게릴라 운동, 무력 투쟁하는 사람들에게도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빌미가 되어서 결국 WCC에 잔류하는가, 탈퇴하는가 하는 문제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WCC가 용공주의에 물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승만 정권이래로 반공 이데올로기가 신앙적으로 옹호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크게 미쳤어요. 한국교회는 50년대와 60년도에 있었던 ‘미시오 데이’ 운동으로 분열하게 되었던 겁니다.

70년대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1973년 봄에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때 빌리 그래함 전도집회가 열렸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열린 최초의 대형집회인 것 같아요. 그 뒤로 계속 여러 번 열렸죠. 그걸 따라서 로마 가톨릭에서도 그런 집회를 주최하기도 했고 불교에서도 한 번 개최한 것 같아요. 그 때 대형집회가 유행이었습시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사회적으로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자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70년대는 그런 방식으로 한국교회가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시다.

80년대는 소위 큐티나 성경공부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물론 70년대에도 WCC나 대학생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순모임, 성경공부모임, 제자훈련모임 등이 있었죠. 옥한흠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제자훈련을 했지만 그 전에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맨투맨으로 점 조직으로 했는데, 일종의 의식화 운동입니다. 이런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큐티를 전문적으로 하는 정기 간행물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교회의 열정은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7-80년대는 한국교회 발전의 황금기라 볼 수 있어요.

90년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양적인 성장은 주춤했습니다. 클 만큼 컸죠. 전 국민의 20%까지 올라갔나요? 일반 사회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여러 종교가 경합하고 있을 때 20%이상 올라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기독교와 가톨릭을 합하면 26-7% 정도 되겠죠? 지금은 개신교와 가톨릭의 퍼센티지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90년대에 20%라고 했고, 거의 15년이 지난 지금은 20% 아래로 떨어진 것 같아요. 로마가톨릭교회는 5-6%하다가 지금은 7% 이상으로 쭉 올라갔습시다. 개신교와 가톨릭 교인숫자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2-3백만 명 될 겁니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나간다면 10년 후에는 개신교와 로마가톨릭의 덩치가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기독교가 20%를 넘어서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사실 20%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기적인 거예요. 그게 90년대로 들어서면서 주춤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을 했다면, 그건 거의 수평 이동을 한 거라고 봐야죠.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지고 큰 교회는 더 커지는 교인 이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학적인 영향이 굉장히 커요. 사회학적인 영향 그 자체가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종교 사회학자들이 다 이야기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한다면 급격한 이농현상이 한몫했습니다. 이농과 도시화가 한국의 모습이었잖아요. 전라도나 경상도에 살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니까 다 서울로 몰려와서 일을 했고, 그로 인해 급격한 압축 성장을 했죠. 구로공단에 여공들이 많았어요. 정치적으로는 군사독재가 오히려 선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었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돌진 근대주의라고 하더군요. 근대주의는 굉장히 합리성을 토대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변형되었다고 할까요? 약간 성격을 달리해서 돌진 근대주의가 되었는데, 백 년에 걸쳐 이뤄야할 자본주의와 민주화가 압축되어 나타났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요인이 이농과 도시화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교회로 몰려들었고요. 군사 독재였기 때문에 민주 정치 참여의 길이 막혀서 교회 안에 들어와 그런 이념들을 펼치게 되었죠. 여기서 하나 더 첨가하자면, 분단 상황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분단 그 자체보다도 그 결과로 인한 현상이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분단으로 인해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되었어요. 그들이 처음 개신교회의 주축을 이루었거든요. 영락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 북에 가족을 둔 사람들은 마음이 허전했어요. 급격한 이농과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도 그렇고요. 정치적으로도 정착할 데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정말 60-70년대에 대단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 현풍에 있을 때 그 교회 신자들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전에 천호동에 살면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 복부인들이 있었는데요. 복덕방에 가서 아침에 계약하고 저녁에 50% 붙여서 팔곤 했습니다. 그리고 복덕방 주인들은 2-3%의 커미션을 먹고요. 그게 지금은 강남 쪽에서 약간 세련된 방식으로 나오고 있죠. 불로 소득이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세상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불행한 일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한국교회가 고속 성장하게 된 사회학적인 근거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아전인수죠.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50년대는 굉장히 내세 지향적이고 열광적이고 대표적인

이단이 발호했습니다. 60년대는 교회가 정식으로 분열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이 나왔고 결국 그때부터 계속 갈라졌어요. 70년대는 대중 집회가 많았고 대학생 동아리 모임들, 선교 단체들이 중심이 된 성경공부나 큐티 등이 80년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한국교회 성장의 황금기라고 불릴 수 있구요.

90년대의 특징은 해외선교입니다. 국내에서 교회활동을 전인해 별만한 동기가 없으니 까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때는 동유럽의 현실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세계 정치 지형이 큰 변혁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요소이고요.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새벽기도나 부흥회나 큐티나 제자훈련 등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야 했던 거죠. 교회들도 뭔가 이슈를 붙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슈 없이는 지탱이 안 되니까요.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아주 취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뭔가 하나에 집중하게 만들도록 해야죠. 5년 계획으로 교회를 새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교인수를 배로 불린다거나, 아니면 복지관을 짓는다거나 묘지를 산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하여튼 90년대에는 해외 선교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고 해요. 이게 잘하는 건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부흥이 한국의 경제 성장과 닮은꼴이죠? 한국 경제는 관 주도형으로, 수출 드라이브, 저임금 정책 등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을 했어요. 이런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인데요. 먹고 살기 힘들 때 새마을 운동이다 뭐다 해서 경제를 살렸다고 하죠. 그래서 유신을 하고 정말 이상한 정치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때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을 했는데 이게 잘된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3세계이자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나라로서 우리나라처럼 민주화가 빨리 되고 경제가 성장한 나라는 없다고들 말하는데, 이렇게 빨리 된 게 좋은 것이었을까요? 좀 천천히 경제가 성장했으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요? 지금 압축적으로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일어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한국교회도 일조했습니다. 일조만 한 건 아니고, 그 덕택으로 성장한 거죠. 경제는 군사독재와 정경유착을 통해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잘 알 거예요. 교회는 군사독재에 침묵함으로써 일종의 도피처 구실을 했습니다. 어쨌든 경제나 교회가 사회변혁에 대한 역사적 경험 없이 부지불식간에 덩치만 커진 까닭에 줄부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전부 싸잡아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흐름을 이야기하

는 거예요. 경제나 교회나 그 안에 거품을 물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근본이 허약하다는 겁니다.

제가 6·25전쟁 이후로 한 50년 동안 10년 단위로 한국교회의 특성을 말했는데, 조금 비관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나쁘게, 냉소적으로 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수의 말을 인용할게요. 한일장신대학교 철학과 김영민 선생인데요. 제가 가끔 인용했던 글입니다. 지금 김영민 선생은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왜냐고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온 것 같더군요. 그 이야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그분이 〈한겨레 21〉에 쓴 글입니다.

이상한 곳이 있다. 돈 몇 푼으로 인륜이 망가지고 천륜에 금이 가도록 알일이 자본주의적인 세상이지만, 수령자도 모르면서 한주에 수천만 원이 자발적으로 헌납되는 탈자본주의적인 곳이 수도룩하다. 희한한 곳이 있다. 시간이 돈이라고 분초를 다투어 뛰어다니며 실없는 모임이라면 누구나 기피하는 세상이지만, 옛새를 꼬박 일하고도 쉴 줄 모르고 즐기게 매주 수백 명씩 한 데 모여 별 생산성 없는 프로그램을 경건하게 진행하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곳이 있다. 기이한 곳이 있다. 온갖 원심력으로 찢겨진 마음을 한 데 모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믿을 수 없이 견고한 구심력으로 못 사람들을 한 데 모으고, 냉소와 허탈이 만연한 세상에서 열정과 광기가 살아 번득이며, 이기적 보신주의로 살벌한 세상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쏟아 붓고도 득의한 듯 히 히거리는 곳이 있다. 그러나 정녕 이상한 일은 그 놀라운 자산과 열정과 에너지가 여름 강물처럼 사회로 밀려들어가 평화와 연대와 정의를 위한 변혁의 힘으로 기능하지 못한 채 필경 파편처럼 분분히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아 교회여, 내 순정의 샘터였던 곳이며, 돌진적 근대화의 튀기나 속물들과 단호히 결별하고 전국의 인문세력과 견결히 연대하시라.(한겨레21, 1999년 4월 15일자)

10년 전의 글이군요. 이걸 읽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교회에 발을 내딛었지만 이제는 정말 정나미가 떨어져서 자기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항변하는 이들이 어디 한 둘이냐고요? 요즘 촛불시위를 하고 있죠. 쇠고기 파동으로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대형교회가 중심이 되어 이런 흐름들을 앞에서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허튼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하는데요.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쓸데없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교회가 빨리 손을 끊어야 그나마 실추되었던 교회의 권위를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고 건질 수 있을 텐데요.

21세기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는가? 미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은 그만 두어야겠어요. 그냥 교회는 존재하게 되겠죠. 그럼 구원론적인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는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분단체제를 넘어서야 하잖아요. 남북의 관계, 분단체제, 여기에 한국교회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 하는데, 다시 말해 분단 이후까지 내다보고 선교 정책을 벌여야 하는데, 오히려 이 분단체제를 이용하고 있어요.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에 빠져서 일반 보수 우익단체들이 쏟아놓을 만한 말들, 특히 좌파나 빨갱이니 하는 식의 용어들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대로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일전에 대구에 있는 어떤 분이 자기 교회에 대해 하소연을 해서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새해 인사가 있는데, 기도문으로 나와 있더군요. 그 중에 한 대목이 기억납니다. 그대로 축자적으로 인용하기는 힘들고요.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도록 하자는 뜻이었어요. 그걸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우익단체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계산에서 말할 만한 용어들을 교회가 너무나 쉽게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까지 포함한 이 분단 체제를 넘어서 한국교회가 구원론적 의미를 제공하는 공동체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있기는 있는 거죠. 대형교회는 약장사를 하듯이, 청중 중심주의, 대중추수주의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과연 구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구원론적 현실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론(soteriology)은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아주 좁은 의미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걸 전제합니다. 교회의 메시지와 실천이 종말론적인 현실을 담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한 마디 보충하고 지나간다면, 구원론적 현실을 담지한다는 말은 꼭 역사 참여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변증법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접근하면서 분단 체제를 뛰어넘는 미래를 말해야 합니다.

## 교회와 세상

분단 체제를 뛰어넘는 구원을 말하는데 전제되는 게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자



세한 내용은 강의안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복음이 세상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하는 문제였는데, 강의안의 결론만 말한다면 이겁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을 초월해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초월해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정반대죠. 정말 세상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정말 초월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집착해서 자기 기득권을 찾아내려고 하니까요. 예를 들면 어느 교회가 교회당을 지을 때 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반대하면 짓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교회를 지어요. 조폭들을 동원하다시피 하면서 그걸 성취해내고는 자랑 삼아 간증까지 하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영악한 거예요. 지나치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어머니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영악한지 알고 있죠? 사실 이런 점에서는 교회가 어수룩해야 하는데 이런 데는 아주 영악해요. 반면에 교회가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문제는 모른 척합니다. 아주 모순이죠.

이에 근거해서 21세기에 접어든 한국교회가, 아니 한민족이 콘텍스트 속에서 구원론적 상수로 붙잡아야 할 주제를 몇 대목만 간추려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 타종교

첫 번째는 타종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유럽이 아니기 때문에 타종교와 좋은 삶든 같이 가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정황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소수종파라고 할 수 있어요. 기껏해야 20%, 가톨릭과 합해도 25%예요. 나머지는 다른 세계니까 유럽과는 완전히 다르죠. 역사도 가톨릭교회는 200년이, 개신교회는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종교 다원 사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좋은 삶은 같이 가야 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지는, 여태까지 행한 잘못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심심치 않게 횡불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절에 들어가서 불상의 목을 자른 다거나, 심지어 절간에 불을 지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신적으로 약간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겠지만, 그들의 행동은 교회에서 받은 신앙 교육의 열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도 특하면 설교 시간에 타종교를 비난하고 냉소하고 조롱거리로 만들잖아요. 승려가 회개해서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진짜 승려가 아니라 가짜였을 겁니다. 기회를 봐서 적당히 옷을 바꿔 입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을 앞에 세워서 부흥회를

연다는 것은 우습지요. 근본적으로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같아요. 한국교회가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근본주의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혹은 타종교에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하는 반론을 펼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통치 앞에서 놀라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에 마음을 여는 것만도 우리에게 벅찬데 어떻게 타종교의 구원까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고백이며 또한 진리이기도 하지만, 타종교의 구원 문제는 이런 명제와 지평을 달리합니다. 기독교인이 주력해야 할 부분은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의 세계를 가열하게 넓혀가는 것뿐이에요. 타종교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말이죠. 만인구원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저는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만인구원론이 옳으면 여러분이 손해 보는 것 같나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죠. 접어두고요. 우리가 믿고 희망하는 구원은 이미 결정된 사건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려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 조직이 이것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정작 우리가 투쟁해야 할 대상은 구원의 현실들을 열어가고 있는 고등한 타종교가 아니라 인간을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고 자연을 소비의 수단으로 여기는 오늘의 시대정신, 세속적인 시대정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약성서가 대적하고 있는 오늘의 적그리스도죠. 타종교 문제는 구원의 현실들을 종말론적으로 담지하고 확보해야 할 21세기의 한국교회가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 남북통일

두 번째는 남북통일입니다. 그것이 구원 전체를 담는 것은 아니지만 분단 체제라는 이 범주 안에서는 구원입니다. 이 범주가 우주론적인 범주로 나가게 되면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고 전혀 다른 생명의 차원이 되니까요. 이보다 범주를 줄여서 현재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구원은 남북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로 접어들면서 북한에 대한 한국교회의 적개심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하거든요. 부끄러워서 같은 목사라고 말하기조차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전반적으

로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보수주의, 보통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들이 보이긴 해요. 그런 문제들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북한을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살고 북한은 못산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불쌍해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거죠. 둘째는 북한 문제를 선교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각 교단마다 통일이 되면 신의주에 교회를 세우겠다, 평양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식으로 선교 전략을 세웁니다. 어찌자는 겁니까? 통일 이후에도 북한에 우리 남한과 같은 교파가 생긴다는 말 아니에요? 그걸 막아야 합니다. 최소한 북한만이라도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하고, 그것을 기초로 남북한이 하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로교니 감리교니 다 때려치우고, 한국연합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한국연합장로교회, 연합감리교회 같은 정도로 교파만 유지해도 좋겠어요. 지금 남한에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수백 개의 교파들이 있으니깐요. 어서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럴 기미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각 신학교마다 신학생들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하니깐 신학생들이 많이 나와도 괜찮다는 말을 할 정도인데요. 이게 순진한 신자들에게는 먹혀요. 이렇게 남북한의 문제를 선교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통일되면 가서 열매를 따먹겠다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제발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통일 지향적인 노력을 실제로 벌였으면 좋겠어요.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뭔지 알고 있죠? 제가 일일이 다 가르쳐 드려야 하나요?

한 가지만 말한다면, 북한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무조건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면 한국교회, 즉 한기총이나 한국교회협의회(KNCC) 같은 곳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깔고 정부의 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가들은 늘 정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북문제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든요. 지난 4-50년간 계속 그랬잖아요. 정부가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차원에서 그 문제를 접근해야죠. 그런데 교회가 한 수 더 뜬다니깐요. 제 강의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는 통일을 교회 확장의 기회로 이용하지 말고 통일 자체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해

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일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구원이다.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남북통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남북통일을 위해 교회의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

언뜻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걸 짚고 넘어갈게요. 가장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데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일 년 예산의 10분의 1을 남북통일 기금으로 내는 거예요. 제 의견 어떨습니까? 낭만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런 쪽으로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 이미지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젠 정말 남한에 있는 민중이나 북한에 있는 민중이나 모든 백성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이죠. 남북분단으로 인해 들어가는 사회 비용이 얼마나 클까요?

## 생태문제

마지막으로 생태문제입니다. 내용인데요. 본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손님이다.” 신학적으로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잠시 빌려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땅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뒤에 아름답다고 한 이 땅을 어떻게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가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까요?

(이 항목은 2판 시에 강의안의 해당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필자주)

21세기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과제로 삼아야 할 또 하나의 주제는 삼천 리 반도 땅이다. 구약성서 기자들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는 사실과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예수님도 하나님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말씀했으며(마태복음 5:45), 바울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골로새서 1:16)이 모두 그로 말미암는다고 증언했다. 요한은 급기야 ‘새 하늘과 새 땅’(요한계시록 21장)이라고 하나님의 전권적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오늘 기독교인들은 생태 문제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껏 해야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시고 싶단거나, 유기농산물을 먹고 싶단거나, 공기 좋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단 정도의다. 지금까지 생태계 파괴는 결국 인간의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친 결과인데도 여전히 그런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에서 한 발자국도 비켜나지 못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생태계 접근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대전제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명제에 의하면 인간이 자신의 편리한 삶을 위해 지구를 소비하는 행위는 죄다. 하나님은 인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생명의 영적 메커니즘을 끊어내면 안 된다. 오히려 풍성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럴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 있는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인간의 문명은 인간이 지구의 주인공인 것처럼 지구를 혹사시켜왔으며 아직도 그런 작업에 혼신을 다 바치고 있다. 그런 삶이 구원인 것처럼.

지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따라서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 이 세상은 거룩하다는 사실을. 창세기 1:4, 10, 18 외).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다. 이 지구에 속해있는 모든 존재들은 좋고 거룩하다. 나무, 새, 토끼, 고릴라는 거룩하다. 강과 산, 사막과 고원이 모두 거룩하다. 진딧물, 박테리아, 곰팡이도 역시 거룩하다. 땅도 거룩하며, 인간의 몸을 병들게 하는 온갖 세균도 역시 거룩하다. 생각해보라. 만약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생물체가 썩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이 지구는 죽음의 땅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지구는 음과 양, 살림과 죽음의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생명의 역학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생명의 땅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은 너무나도 명쾌하지 않은가. 편리하고 쾌적하고 건강하고, 더구나 오래 살겠다고 지구를 병들게 하는 것은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오만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이 유달리 각별하다. 원칙적으로는 육식을 하지 않는다거나, 곤충이 발에 밟힐까 해서 짚신을 만들더라도 바닥을 성기게 하고, 뜨거운 물을 마당에 직접 버리지 않기도 한다. 물론 지금은 그런 전통이 유명무실하지만, 「토지」의 작가 박경리는 에스키모인들과 북아메리카의 인디언, 그리고 우리의 전통이라 할 샤머니즘도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생명사상과 소통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 기독교인도 비록 샤머니즘이宿命주의적 세계관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을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몰아간다는 한계가 있지만, 생명사상이라는 점에서는 관심을 기울여볼직하다.

오늘날도 여전히 티베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조장(鳥葬)은 죽은 자를 들판에 내놓아 새들이 쪼아 먹게 하는 장례다. 상당히 미개하고 끔찍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유기적 순환을 그 바탕에 깔고 있는 장례법이다. 지금 우리 식대로 해서 시체를 땅에 묻어 박테리아가 먹든, 아니면 그들 식으로 들판에 놓아 새가 먹든 결국 똑같이 먹히는 것

이라면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도 그런대로 괜찮지 않을까.

타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생태문제에서 무관심한 듯 보이는 이유는 “땅을 정복하라”(창세기 1:28)는 말씀을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한 탓이다. 결국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유럽의 근대주의적 주객도식 패러다임을 아무 비판 없이 기독교 신앙의 틀 안에 받아들인 것도 그 이유다. 21세 한국 기독교는 이제 동양의 유기론적, 우주론적 패러다임을 성서해석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기초해서 인간과 자연을 통합시키는 새로운 신앙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살고 우리 후손이 살아야 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야 할 삼천리금수강산을 말 그대로 비단과 수로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겠다. 이게 바로 땅의 구원이다.

유럽정신은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 토대를 이루고 있다. 헬라인들은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생각해서 세계를 대상으로 간주하고 분석했으며, 히브리인들도 역시 하나님을 객관적 실제로 이해했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사유하는’ 인간은 당연히 세계를 대상으로 여긴다. 역사철학을 집대성한 헤겔의 경우에도 역시 테제와 안티테제가 대립된다. 이런 주와 객의 변증법적 발전이 바로 인간 역사라고 한다. 이를 주-객-도식(Subjekt-Objekt-Schema)이라 말하는데, 이런 패러다임에 의하면 자연은 인간이 이용할 대상이며 소모품이며 도구가 될 뿐이다. 한국 교회는 이제 노자나 장자 같은 이들의 무위자연적 사고를 통해서 서구의 주객도식을 극복함으로써 땅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교회의 구원론적 지평

마지막으로 교회의 구원론적 지평에 대한 세 가지 관점입니다. 첫째는 영성의 회복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영성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어떻게 기계화 되어 있는지 주술화 되어 있는지, 도구화 되어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둘째는 프락시스, 즉 봉사고요. 셋째는 정치성입니다. 교회가 정치권력을 잡자는 게 아니라 영적인 능력과 사랑과 구제와 봉사와 실천 등이 정치적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 같은 거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정부로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가 더 급격화 되고 사교육이 더 극심해졌죠. 교육 문제가 정치적이잖아요. 공교육을 강화하자고 한국교회가 똑바로 소리를 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답답하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인간 노동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문제를 신학적으로 사유하고 판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알

지도 못하고요. 더 기독교는 점점 구원의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 문제도 다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대운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막으려면 정치적인 연대가 필요하거든요. 다음이 제 강의안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는 이 글쓰기를 마쳐야겠다. 마무리로 삼아야 할 화두는 ‘역사’와 ‘신비’다. 교회는 세계 역사와 단단히 연대해야 하며, 동시에 종말론적 신비에 대한 환상을 붙들어야 한다. 역사는 현실이며 신비는 꿈이다. 역사는 아래로부터, 신비는 위로부터 온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신비는 미래를 통해 현재를 말한다. 기독교적으로 역사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며 신비는 예수의 부활이다. 이 둘은 하나이면서 돌이고 돌이면서 하나로서 구원의 세계를 열어간다. 현실 없는 꿈은 몽상이며, 꿈 없는 현실은 허무다. 교회는 역사에 두 발을 딛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이다. 그 환상에 근거해서 2천 년 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 아멘.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는 마지막 순서로 종파티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이버에서는 곤란하니까, 여러분이 각자 컴퓨터 앞에 먹을거리를 갖다 놓고 먹으면서 책거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 뵙죠.

## 제45강

### 길 위의 영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의 인터넷 라이브 강의 ‘기독교가 뭐꼬’는 6개월 동안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참 대단해요. 저도 기특하고요. 중간에 몇 번 어쩔 수 없이 빠진 적이 있기는 하지만,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지금까지 쫓 왔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잘 했습니다. 제가 출석 체크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오늘 들어온 분들은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1월에 들어왔다가 금방 떨어져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결국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강의가 재미가 없어서겠죠. 들어보나 마나였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걸 동영상으로 다시 제공해주니까 굳이 듣기 힘든 시간에 라이브로 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많이 들어줘서 저도 재미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충 정리하고 질문할 것 있으면 정리하고 특별한 것 없으면 빨리 끝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주일 저녁에는 질문과 대답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예상 외로 질문들이 많지 않았어요. 초중반까지 조금 뜸하게 나오다가 그 뒤로는 질문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질문이 푹 끊겼거든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도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진행한 것 같아요. 이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수업이라는 게 말이죠. 세미나도 있고 일반적인 강의도 있고 질문 응답 방식도 있는데,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질문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질문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러나 질문이 좋으면 수업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좋죠. 어쨌든 질문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기독교가 뭐꼬?’라는 제목을 총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앙은 구도다

6개월 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넓어졌나요? 아니면 질문할 것만 많아졌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강의에 귀를 잘 기울였다면 어떤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 감은 잡았을 겁니다. 제가 기독교의 내용을 나름대로 전달하기는 했지만, 내용이나 정보 전달보다는 질문하는 방식으로 말했다고 보면 좋아요. 제가 몇 번 지적했다고 보는데, 이미 완성된 혹은 완료된 대답을 찾지 말고 오히려 그 대답을 향해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서울 오프에서도 강의하면서 말한 것 같은데요. 기독교 교리는 일종의 정보입니다. 이걸 배우면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그 말에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정말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잊어버려야 할까요? 알기는 알아야 하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그 교리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놓치면 되겠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서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성만찬이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몰라서는 안 되죠. 기독교 교리를 잊어버리라는 것은 그런 걸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교리라는 것은 일종의 문이거든요. 삼위일체라는 문, 칭의론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표현했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만난다고 표현한 거예요. 어떤 언어든 그게 기독교 용어라도 절대적인 진리를 그대로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말을 하다가 쪽 쪽 나가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자꾸 머리에 남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광의가 아니라 협의의 개념에서는 말이 되거든요. 성서에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경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실체를 만난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성서를 읽을 때 그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성서는 사실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시나 문학적인 언어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른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나 일반 신자들에게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혼란들을 우리가 꾸준히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혼란 없이 성서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실 언어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언어와 상징 언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상징이라고 해서 불확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성서는 참 이상한 책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정답에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길 위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제 강의의 내용입니다. 길이라는 메타포를 느낄 수 있나요? 이게 무엇인지를 개념

적으로 딱 끊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과정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어떤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확정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서울 오프 모임에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2천 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2천 년 전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바울 편지의 한 토막을 읽을 때, 일단 2천이라는 시간에 밀착해 보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에게서 숫자일 뿐, 실질적으로 와 닿지는 않거든요. 2천 년이 흘렀고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나, 독자가 읽고 있죠.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2천 년이 또 흘러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40세기죠. 이 40세기가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2천 년 전에 바울의 편지를 받아 보았던 그 사람들도 2천 년 뒤에 후손들이 살아가리라는 걸 어렵듯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계가 이렇게 변하리라고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겠죠. 앞으로 2천 년이 또 흐를 겁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역사의 준엄성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역사의 준엄성을 말합니다. 역사의 하나님이죠. 역사의 문제는 학문적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 선생들이나 신비주의자들도 그런 이해를 많이 하는데요. 참 신비한 겁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더 혼란스러워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게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목사님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준비가 된 목사님들은 훨씬 더 영적으로 자유롭고 풍요롭게 성서를 해석해내고 신자들과 함께 그러한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목사는 단순히 종교 기술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영성은 끝이겠죠. 목사는 종교 기술자가 아니라 종교 과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구별해서 쓰는 용어인데요. technician이 아니라 scientist가 되는 겁니다. 새로 길을 가는 거예요. 영적인 길을 가지 않으면 과학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은 구도(求道)입니다.

## 성서 해석의 중요성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렇게 결정적인 공부 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질문해야 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좋은 공부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에 있든지 오늘은 마지막 강의인데요.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또 앞으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질문해보겠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일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말이 가장 기초적인 우리 신앙에 대한 진술이고, 명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혹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주석하는 것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구절이 놓고 예수님의 말씀, 혹은 초기 기독교의 신앙고백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부터 몇 장에 걸쳐서 독특한 문학 양식이 나오거든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인데, ‘나는 ... 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문장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한 걸까요? 아니면 초기 기독교인들의 고백일까요? 이 문제는 덮어 두죠.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초기 기독교의 고백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더라도 크게 잘못은 아닙니다. 이런 설명을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말씀이고 아니면 아니지,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뭇가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예수 사건에서 어떤 실증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그 사건들이 팩트(fact)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팩트들은 사실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누가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요. 혹 기록해 놓았다고 해도 그게 온전한 팩트가 될까요? 제가 강의하는 이런 내용들이 별도로 강의안에 남아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것이 팩트가 되겠느냐는 거죠. 물론 내가 강의를 했다고 하는 단순한 것은 팩트로 남겠지만 그 내용들이 정말 더 팩트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을 더 정확하게 전달했을까요? 그렇게 보면 정말 팩트가 아니거든요. 실증적인 팩트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해석됩니다. 이 동영상 강의를 놓고 다시 이야기하면, 이걸 가지고 누가 다시 정용섭 목사가 마지막 수업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저런 여건 때문이었다고 연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처한 삶의 자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면 이 강의가 더 혼란스러웠을 거고, 제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다면 ভাল 척하면서 강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팩트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역사죠.

성서가 기록되고 경전으로 정해진 게 4세기 후반이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해석이 진행된 겁니다. 물론 해석이야 계속된 건 아니죠. 성서가 완성된 하나의 작품으로 결정된 뒤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편집되어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뒤에 일어난 해석이 사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건의 온전한 실제적 의미나 현실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동영상 강의를 예로 들자면, 나중에 누군가 저를 잘 아는 사람이 해석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강의에서 제가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까지 넣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 강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고 사건입니다. 『전태일 평전』(돌베개)을 쓰신 조영래 변호사는 전태일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직접 전태일 옆에 있었던 사람보다 더 잘 쫓다고 하더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고백에서 나온 진술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대변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읽어도 크게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다고 무조건 교리문답식으로만 성서를 읽게 되면 거기에 포함된 많은 역사적 해석들이 다 실종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없어지는 겁니다. 형해화 되는 거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뼈만 남아 있죠. 들을 게 없어요. 저도 비슷합니다만. 그래서 그거 자체로는 굉장히 지루하고 상투적이니까, 그 대신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죠.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청중들의 정서, 심리, 의지, 욕망 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이 도구화 되고 있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르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충실히 따라갈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살아 있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자체가 그래요. 따라서 성서는 기본적으로 해석입니다.

어제 서울 오프 모임에서 제가 앞서 강의를 하고 뒤에 이길용 박사님이 신화의 의미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신화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고대인들의 아주 명백한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이길용 박사가 세계관이라는 말을 직접 썼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19세기와 20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과학이 그들의 세계인 것처럼 신화는 고대인들의 자연과학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해석이거든요. 왜 인간이 죽어야 하는지, 왜 씨를 뿌리고 거둬들이는지, 성서적 표상을 빌리면 형제가 왜 살해를 하는지, 왜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악을 극복하지 못하는지,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한 고대인들의 해석이 신화로 표출된 거죠. 이길용 박사의 말로는 그

근원을 3만 년 전부터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넘어오게 되면 3천 년 정도 되나요? 꾸준히 내려온 거죠. 신화는 세계관입니다. 세계를 해석한 거예요. 성서에도 그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성서의 고유한 세계관입니다.

제가 설교비평을 하면서 가끔 어떤 분들의 설교에서 성서의 신화적 언어들을 사실적 언어들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저의 지적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성서의 권위를 허물어뜨린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독교사상> 7월호에 총신대학교의 설교학 교수인 류응렬 교수님이 제 설교비평집 3권, 『설교의 절망과 희망』에 대한 서평이라고 할까, 그런 걸 썼어요. 이분이 지난 12월에도 한국설교학회에서 발제한 논제를 실었는데, 그것도 저의 설교비평에 대한 일종의 비평이었어요. 류응렬 교수님은 저의 설교비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게 평가를 했어요.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다른 이야기를 길게 하네요.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은 설교비평이 다 좋은데 어느 선에서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관이라고요. 총신이니까 어떤 말을 할지는 알 겁니다. 성서를 신화로 보는 성서관으로 인해서 한국의 기독교 신앙을 허물어뜨릴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화는 나름의 세계관이니까 성서 안에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화를 보면 미숙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제가 성서에 있는 신화, 기적 등이 그 당시에는 일상적인 경험이었다고 말한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에게는 세계가 주술적이잖아요. 그렇게 전달됩니다. 신화의 세계 속에 살았던 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자연과학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대인들의 세계관에 비해서 엄청나게 진리에 가깝다고 말한다면 그건 또 착각이죠. 뭐가 착각이냐고요? 과학은 정말 엄밀하고 정확한 학문이지만 신화는 불확실할 뿐 아니라 상상으로 꾸민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크냐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계속 할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자연과학도 역사가 흐르게 되면 언젠가 우리가 지금 신화를 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계를 너무 믿지 마세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최선이죠. 자연과학이 말하는 진화론이 맞으면 맞는 거고요. 지금 우리로서는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나 최선이기는 하되 절대적이거나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말론적으로 세계를 봅니다. 고유한 역사관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

살렘 같은 요한계시록의 묵시문학적인 세계 등을 우리가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늘이 종잇장처럼 말리고, 용이 어디에서 나오고, 꼭 SF영화 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상대적인지를 꿰뚫어 본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건지요. 2천 년 전의 사람들도 2천 년 후에는 비행기를 타고 컴퓨터를 하고 미국과 영국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대화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마술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 저는 과학의 발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관점들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방식은 앞으로 만 년이 지나면 사라질지도 몰라요.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의 우리처럼 생겼을지, 아니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없는 어떤 종으로 변화되어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더 이상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번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날카롭게 대비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점점 줄어들겠죠. 좀 이상한 말처럼 들려요? 어쨌든 그 먼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지금 5천 년 전에 사람들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재미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만 놓고도 몇 시간의 강의가 가능하겠죠. 이것을 해석하기 위한 전 준비만 얘기해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이 본문에 직접 들어가면 할 말이 더 많겠죠. 여기에 신학생들이 있다면 꼭 명심하세요. 해석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요. 텍스트는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사건이고, 거기에는 다 층적으로 끝없이 뭔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만큼 보입니다. 한 층 더 들어가면 더 보이고 더 들어가면 더 보이고요. 이런 능력을 갖게 되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난 날 것을 그냥 신자들에게 억지로 먹이는 거죠. 소화가 안 되는 데도 억지로 먹여요.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소화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신자들이 앉아 있기는 하지만, 머리로는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들을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책을 하겠죠. 이런 신앙이 반복되면 영성이 풍요로워질 수 없어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 길, 진리,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이라고 합니다. 길은

헬라어로 호도스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인데요.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다룬다면 각각 한 시간씩 하더라도 모자랄 겁니다. 이걸 자기가 할 능력만 있다면 끝없이 할 수 있는 주제예요. 일종의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떤 완료된 대답이 아니라 대답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요. 그 맥락 속으로 여러분이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참고로 한마디 한다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설명을 충실하게 듣지 못했거나, 혹은 이해도 안 되는 말을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완료된 대답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향해 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직 종착역에 도착하지 못하고 도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과도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이 지나치면 광신입니다. 광신에 떨어져 있으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기독교 신앙은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안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회의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길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더 해야 할까요? 작은 제목만 말해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는 길일까요?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겠죠. 내가 있고 여기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 자체가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간다는 거죠. 도표로 그리자면 그래요. 그러나 이런 도표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이 길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는 삼위일체 차원에서 곧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른다는 것은 이런 말이죠. 궁극적인 진리, 온전한 실체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현재의 우리를 전제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을 말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길 자체가 예수님이자 하나님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요. 『천로 역정』에 보면 기독교인이 장망성을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천성문에 이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이 길 자체가 하나님이거든요. 이 말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요.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일종의 길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과한 뒤에 어디에 가서 영원무궁토록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는 과정 자체가, 길 자체가 하나님인 거죠.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냐, 기독교 신앙에 내세에 대한 것은 없나구요? 미안합니다. 그런 건 제가 잘 몰라요. 우리는 자꾸만 시간을 그렇게 나누어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생명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이 전체가 모두 하나님의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비밀을 우리는 사실 몰라요. 새로운 생명, 우리는 이것을 종말이라고 하는데, 종말이 단절이기도 하지만 연속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지금의 모습대로 살 것 같아요? 그건 아니겠죠. 지금 여기에는 좀 아름다운 사람, 약간 못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세련된 사람, 무식한 사람 등이 구별되지만, 어떤 궁극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전혀 그렇지 않겠죠. 지금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 종말에 이루어질 궁극적 세계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질문이 문자로 올라왔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포는 그것이 가리키는 ‘다른 무엇’ 아닌가요? 일종의 은유니까요. 예수가 ‘빛’이라고 할 때 빛 자체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할 때 길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메타포로서의 길은 분명합니다. 빛이라고 할 때도 메타포로서는 분명한 거죠. 그것은 어떤 궁극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유비로는 힘드니까 풍유나 은유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어떤 곳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과정 자체 그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허무하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도 만나고 죽었던 가족들도 만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때를 기다리면서 이 어려운 시련을 견뎌내는 건데, 무슨 말이냐고 할 거예요.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제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디에서 끝나서 어디로 쏘옥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린다고 보는 게 옳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걸 딱 끊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 하나님의 구원 통치

다시 본줄기로 돌아와서,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이데거가 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는 탈(脫)은폐라고요. 은폐된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여전히 은폐가 남아 있다는 뜻이죠. 완전하게 모든 은폐가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종말에나 가능해요. 이진 예수님의 말씀과 직접 연관되는 게 아닌데, 제가 왜 하이데거 이야기를 했을까요? 참고적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할 때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문제는 진리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라고 할 때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육신했다는 등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 용어로 딱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에게서 탈 은폐되는 것들이 있을 때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탈 은폐되지 않으면 도그마가 돼요. 도그마!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명령으로 딱 고착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도그마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길과 진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생각해봐야겠죠. 결국은 길과 진리는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아까 제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혹은 구원이라고 하면서, 이 명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곧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원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생명만 일단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것이 참된 생명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다가 죽어요. 이게 무상(無常)한 겁니다. 늘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요. 무상하고 잠정적이죠.

저도 어느 사이에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다비아 홈페이지가 그대로 있다면, 제가 한 여든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을 때 옛날에 이런 강의를 했다고 회상하면서 무슨 느낌이 들까요? ‘그때 오십대 중반이었지만 그래도 젊었지, 재미있었지.’라고 회상할 겁니다. 세월은 너무 빠르거든요. 아주 순식간에 와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걸 참된 생명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길이라고 할 때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삶이 무상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무상하지 않는 생명에 참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짧은 순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먼 훗날에 알게 되겠죠. 그러나 사실 먼 훗날이라는 말도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옛날 지금 나중과 같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간은 여기서의 시간이지요.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고 시간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니까요. 영원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살았던 삶, 지지고 볶고 했던 삶을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게 아니겠죠. 그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통용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지구에서,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양으로 생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이 절대적인 생명이 아니니까 나중에 영원한 생명에서 과거가 똑바로 기억나지 않을까, 그러면 얼마나 허무할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전혀 다른 세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아까 제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유의 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나 묵시문학자들은 새로운 에온(세계)으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제대로 꿰뚫어 본 데서 나온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이었고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서의 세계관이 오늘의 자연과학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불안하게 느낄 필요 없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대한으로 정확한 세계 이해였고 종말론적인 관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에서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현재 이렇게 무상하게 지나가는 생명만 그림자처럼 한 자락 붙들고 살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이 삶이, 오늘날 지구에서의 이 삶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죠.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성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궁극적 생명에 맞지 않는 것들이 다 제거된다는 뜻이에요. 가라지는 불살라버리고 알곡만 들어가니까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라지 같은 것들은 가능한 적게 생산하고 알곡들을 많이 생산하며 살아야겠죠. 그게 생명 지향성입니다. 생명 지향적으로 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심판의 순간에 우리의 많은 생명들이 거기에 속하게 될 겁니다. 생명 지향적 삶이 아주 소수고,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받을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 지향적인 삶일까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또 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풍부하게 또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하며, 그러한 생명 운동에 우리가 참여하는 태도, 혹은 그런 삶의 능력을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은 바로 생명의 영이니깐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자꾸 돌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할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 진리가 하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때에 따라 조금 다르게 설명할 뿐이죠.

마지막 수업은 다른 때보다 조금 빨리 마쳐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끌었네요. 지난 시간에 구원의 세 가지 지평을 말했고, 또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추구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도 말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태학도 필요하고 구체적인 정의평화 운동도 필요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 통치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생명의 근거이고, 생명의 알짜이고, 생명의 엑기스입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각자 다르게 살다가 6개월 동안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면 섭리이고, 인연이라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국이 어수선하죠.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꼭 잡고 이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각자 주어진 여건 안에서 선한 투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자 소개

정용섭 목사는 1953년 서울에서 출생,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 대학교를 거쳐, 계명대학교(신학박사)에서 공부했다. 대구대학교와 계명대학교 강사를 역임했으며, 지금은 영남신학대학교에 외래교수, 대구성서 아카데미 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구샘터교회와 서울샘터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

## 쓴 책

말씀신학과 역사신학 (한국신학연구소, 1995)  
믿음으로 본 세상 (대장간, 1996)  
세상 인간 하나님 (쿰란출판사, 1997)  
세계구원 교회구원 (쿰란출판사, 1999)  
기독교를 말한다 (한들출판사, 2001)  
땅과 하늘 (대구성서아카데미, 2003)  
사람 사랑 삶 (대구성서아카데미, 2003)  
법과 자유 (대구성서아카데미, 2005)  
설교비평집1, 속빈설교 껍찬설교 (대한기독교서회, 2006)  
설교비평집2, 설교와 선동 사이에서 (대한기독교서회, 2007)  
설교비평집3, 설교의 절망과 희망 (대한기독교서회, 2008)  
설교집1, 그날이 오면 (다비아책, 2008)  
기독교가 뭐꼬? (다비아책, 2009)  
설교집2, 하나님의 얼굴 (다비아책, 2009)  
신학단상1, 세상은 마술이다 (다비아책, 2009)  
그림이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 (다비아책, 2010)  
설교란 무엇인가 (홍성사, 2011)  
주기도란 무엇인가 (홍성사, 2011)  
매일 기도하라 (한들출판사, 2013)  
설교집3, 거룩한 두려움 (한들출판사, 2013)

## 옮긴 책

도로테 쾰레,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한국신학연구소, 1999)

콧체 편, 에큐메니칼 교회사 3 (한국신학연구소, 2000)

판넨베르크, 사도신경해설 (한들출판사, 2000)

판넨베르크, 신학과 철학 (한들출판사, 2001)

판넨베르크, 여기 계신 하나님 (대구성서 아카데미, 2002)

판넨베르크의 조직신학 1 (공역, 은성출판사, 2003)

판넨베르크 설교집, 믿음의 기쁨 (대구성서 아카데미, 2007)

칼 바르트의 신학묵상 (공역, 대한기독교서회, 2009)